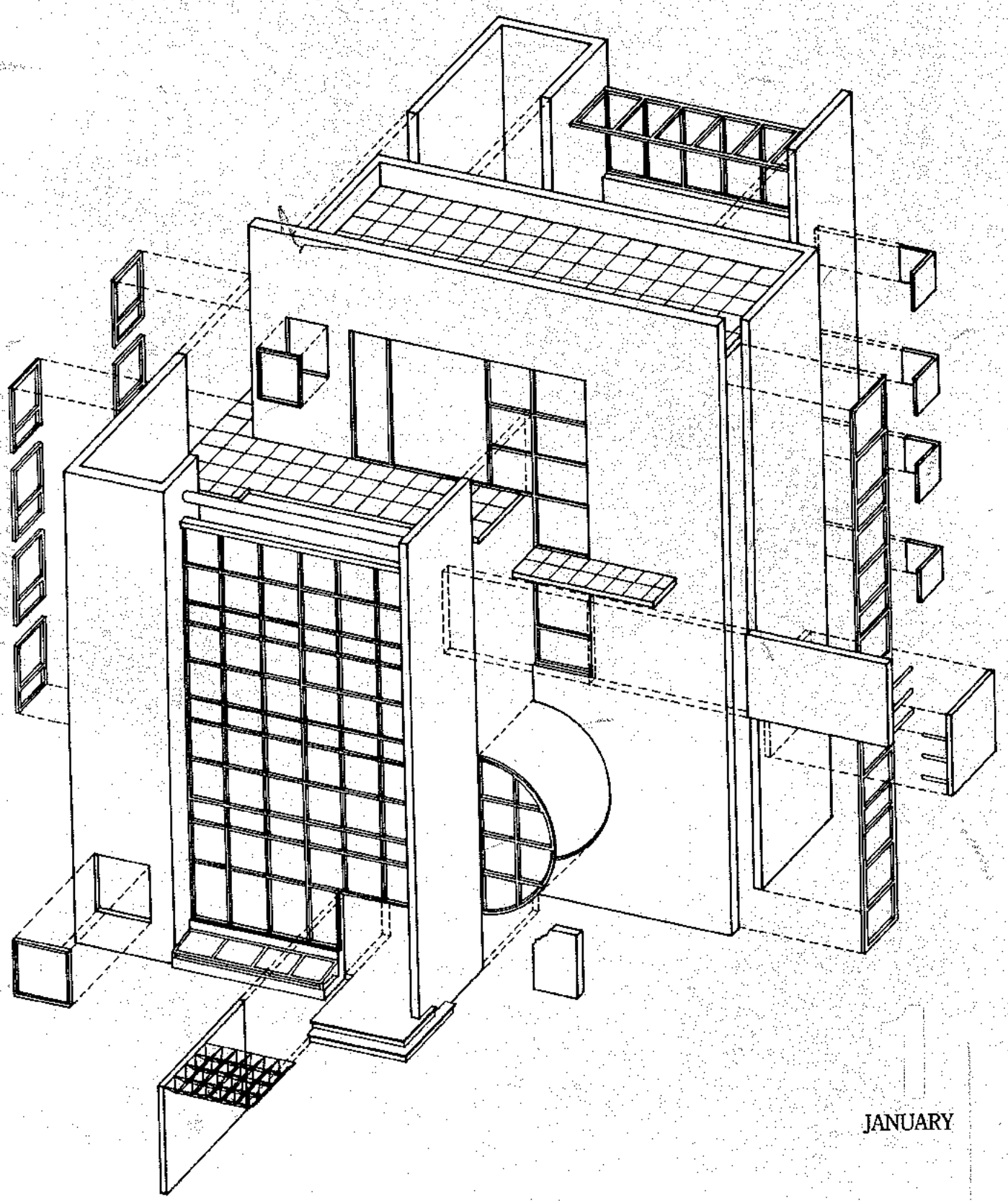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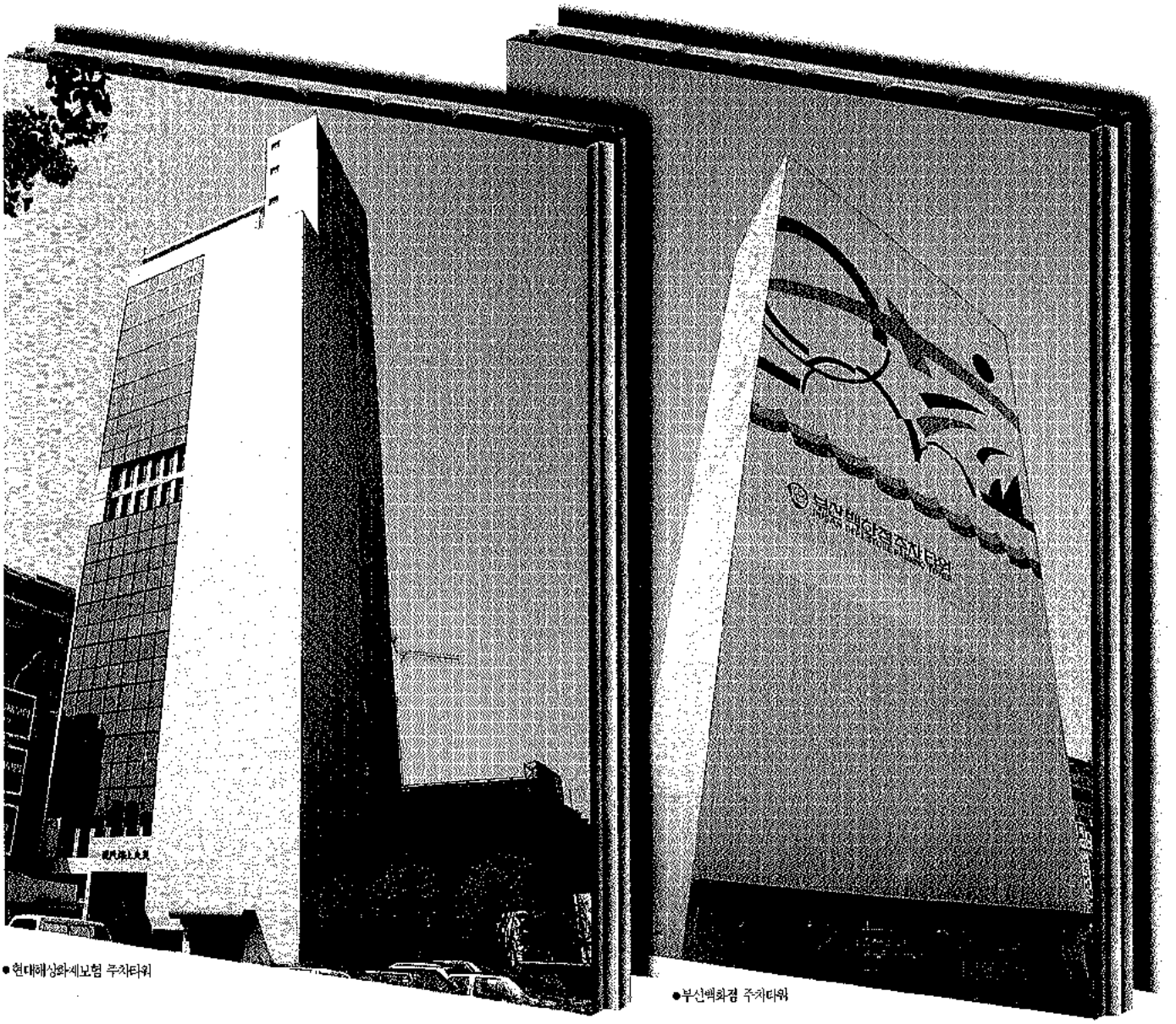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January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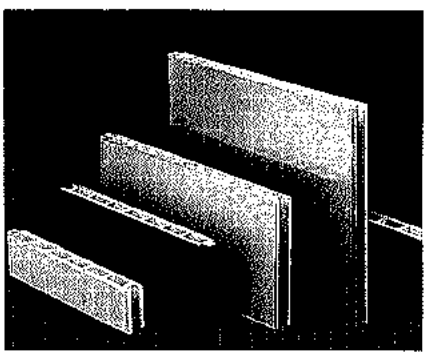
JANUARY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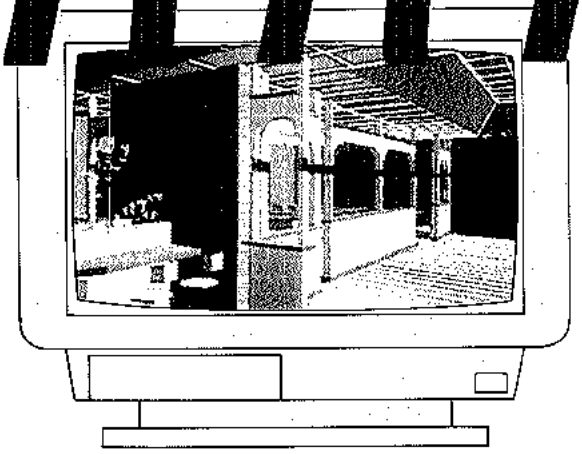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건축전용 C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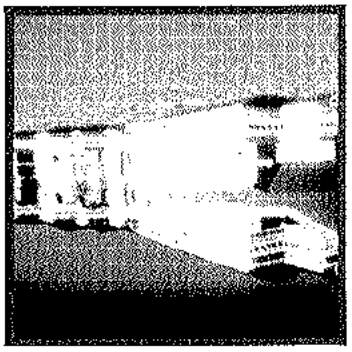
ARRIS

AR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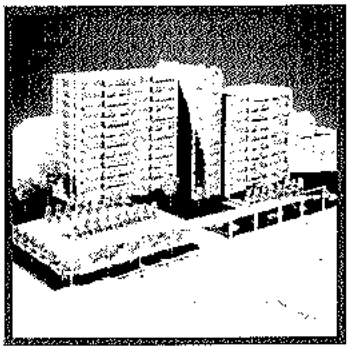


SIGMA DESIGN KOREA,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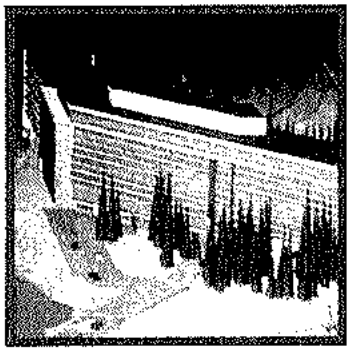
ARRIS 는
미국 SIGMA DESIGN 사에서
개발한 가장 막강한
건축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입니다.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 는
1988년 ARRIS 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ARRIS 만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ARRIS 전문 회사입니다.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 의
기술 수준은 ARRIS 개발사인
미국 SIGMA DESIGN 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5-25 (방배빌딩 5층)
TEL : 536-4057/9 FAX : 599-4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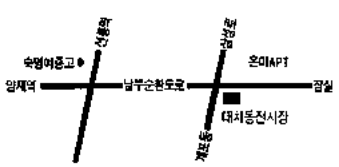
더 많은 분들이 名品窓門,

●평창동 S씨댁●설계:예진건축
●시공제품:이건창호 CONNEX TURN & TILT WINDOW

●연희동 M씨댁●설계:전연디자인
●시공제품:이건창호 CONNEX LIFT SLIDING DOOR

●평창동 L씨댁
●시공제품:이건창호 CONNEX TURN &

●대치동전시장



위치: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563-2071 FAX:563-5528

●논현동전시장

위치: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540-2071~9 FAX:540-2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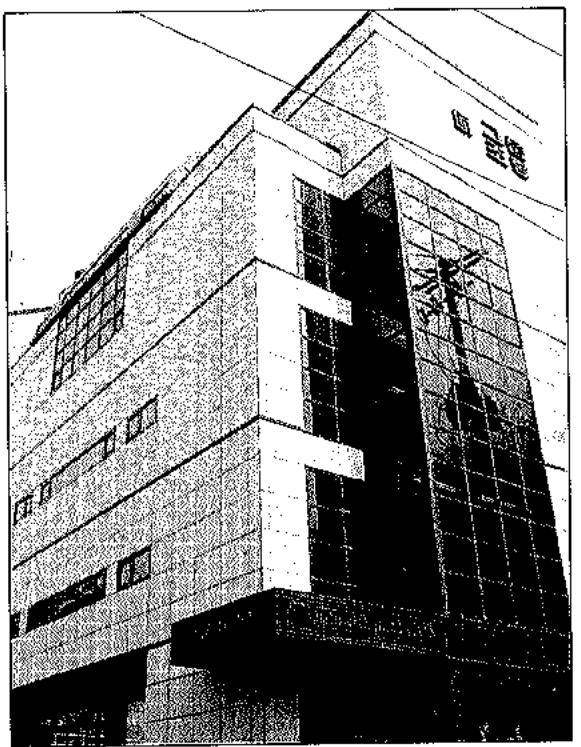
●부산전시장

주소: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2동 1434-10 서봉빌딩2층
전화:(051)557-2071 FAX:(051)557-2077

기능과 디자인, 품격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

— 이건창호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T WINDOW



●도곡동 그룹조형사옥 ●설계 : 이정희, 손현재 (그룹 조형)
●시공제품 : 이건창호 ISKOTHERM TURN & TILT WINDOW

●제주 신라리조트 ●설계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제품 : 이건창호 ROYAL 110 LIFT SLIDING DOOR

이건창호의 기능과 품격이 최고의 생활공간을 만듭니다.

다자인·소재에서/ 이건창호는 형태와 크기, 색상, 소재 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택의 거실, 욕실, 침실, 온실은 물론 사무실, 호텔 등 각종 오피스빌딩의 공간 특성에 맞게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방음·단열에서/ 이건창호는 컴퓨터로 정밀 설계되고 특수유리와 밀폐성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음성능이 뛰어나며 우수한 단열효과로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환기·개폐에서/ 이건창호는 특수 기어 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부드러우며 환기만을 위한 특수 개폐가 가능하므로 환기가 편리합니다.

안전·수명에서/ 고강도 소재와 특수 유리, 특수 배수시스템에 의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변형되지 않으며, 독특한 잠금장치로 도난, 침입의 우려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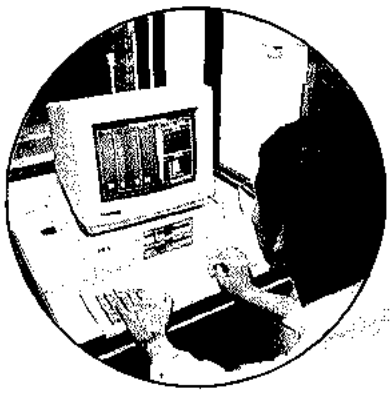
시공에서/ 공장 완제품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현장작업이 간단하며 건식공법에 의한 깨끗한 마감처리로 정기적인 보수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시스템 윈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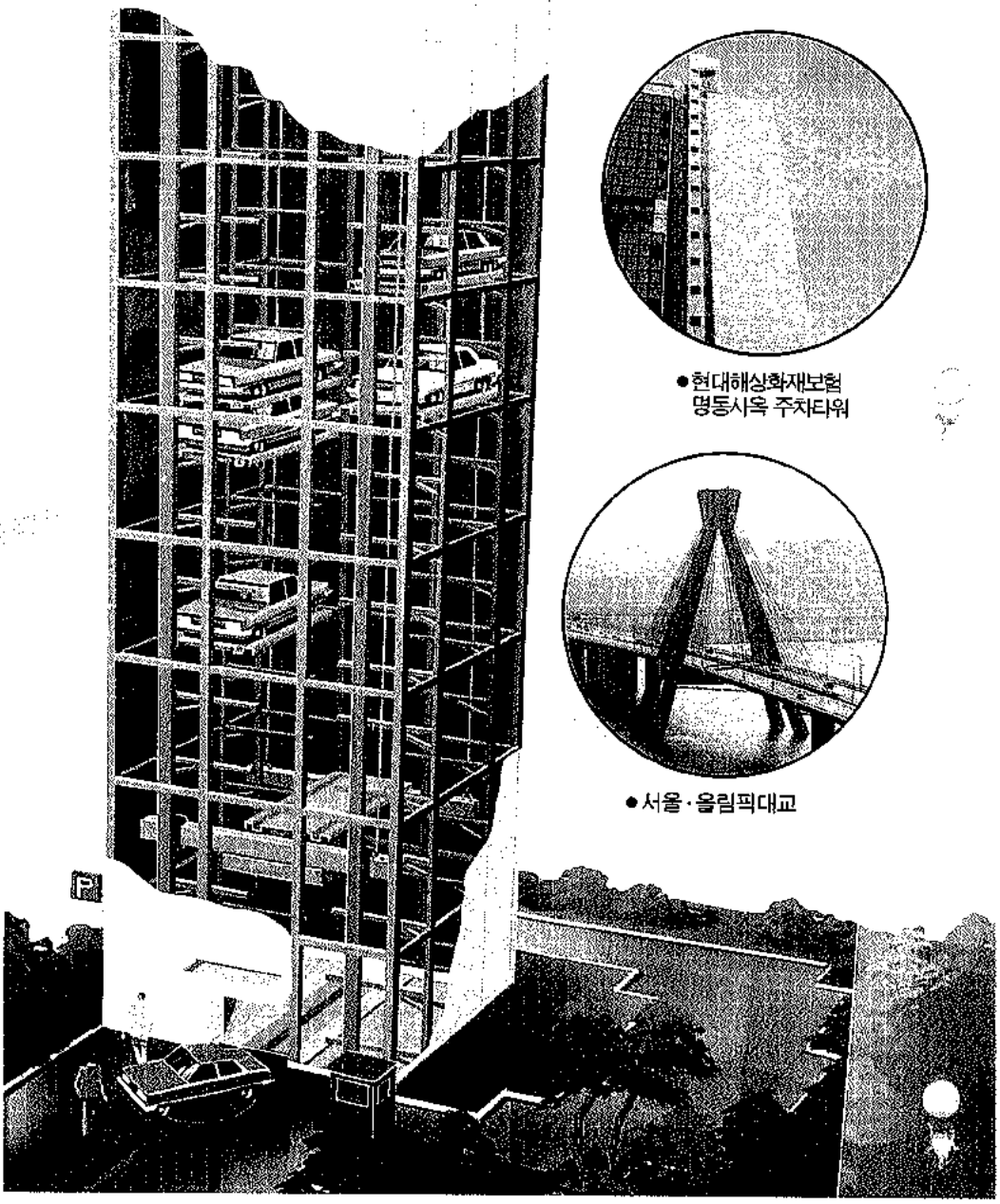
이건창호

이건산업주식회사 . 이건자원 개발주식회사 .EAGON FOREST PRODUCT INC.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 컴퓨터 주차타워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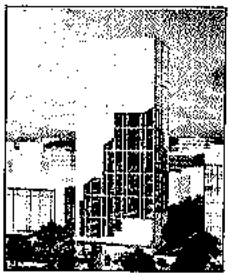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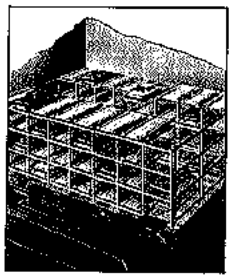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OP-A연립형



YOP-M형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날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타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유원건설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CAD SPEED
건축설계 전용 CAD

CAD

귀하께서도 이미 디자이

CADSPEED는 AutoLISP을 이용한
건축설계전용 CAD SOFTWARE 입니다.
AutoCAD를 사용하시는 건축설계자께서는
₩600,000만 더 투자하십시요.

이제 귀하는 건축설계를 위한 편리한 모든 기능을
만끽하시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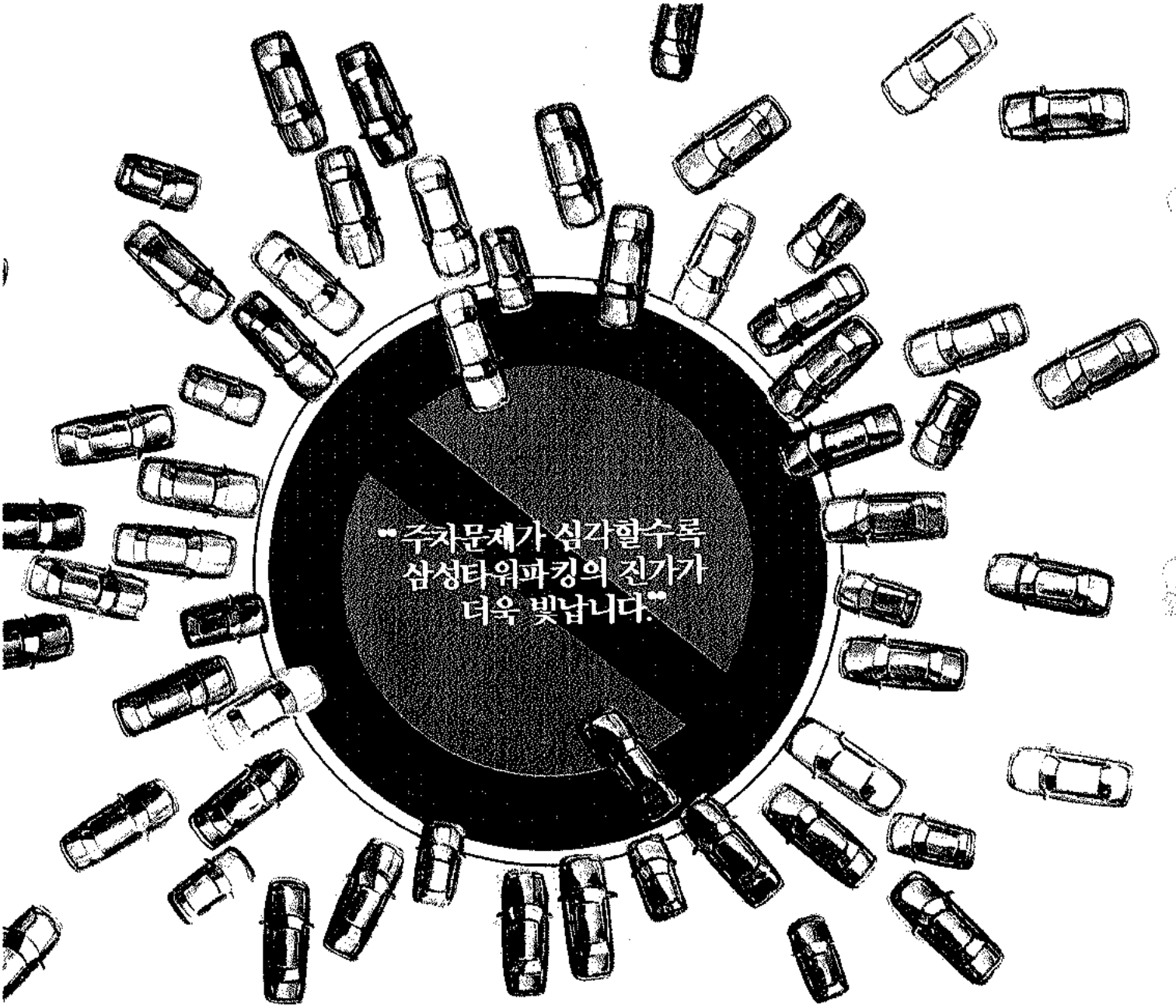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

주요기능
편리한 EDIT, 모서리 처리, 창 또는 출입문의
자동 설계 삽입 등.

첨단기술의 정밀화
Jepcom
제일 第一精密

■ CAD 사업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B/D 801호
대표전화 : 783-9503, FAX:783-9504
■ 공장 : 경남 창원시 내동 456-8
대표전화 : 82-4131 · 5131 FAX:84-7141

■ 대리점 : 서울 · 부국 782-1888, 시스텍 675-4701, 위켄 588-0386, 대구 · 신일 956-9570, 캐드비전 421-5549, 캐
53-4153, 부산 · MIS 807-1301, 화일 644-3151, 광주 · 대화 223-0006, 대전 · 국제 254-1269



삼성타워파킹

국내 처음으로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일찌기 15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차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층순환방식
- 2,3단 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본 사 : (02)728-6431~3 FAX : (02)728-6214, 756-9358
창원공장 : (0551)60-6382~3 FAX : (0551)60-6767
부산지점 : (051)607-6814 FAX : (051)85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5 FAX :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53-2252~3 FAX : (042)253-3988

三星立體駐車設備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부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 ——

수직순환방식 :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상자(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엘리베이터방식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시스템(횡식, 종식)

1. 초고속형 :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턴테이블내장형 : Cage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2대를 주차

CAD교육안내

AutoCAD Rel.11

당 협회가 설립 운영하는 CAD교육연구소에서는 기존 ARRIS교육과는 별도로 미국 AUTODESK사에서 개발되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범용 CAD SYSTEM, AutoCAD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신설된 AutoCAD 교육에서는 지난 11월 미국에서 발표된 최신 Version인 Rel.11을 서통 AI사업부의 협조로 교육하게 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개요

- 인원 : 매기별 20명 • 장소 : 본협회 1층 CAD교육연구소 • 참가비 : 과정별 20만원
- 기간 및 시간 : ARRIS, AutoCAD 각각 매기별 1주일 단위(56시간)

교육 일정표

일 자	ARRIS	AutoCAD
91년 2월 4일 – 2월 9일	실무과정 6기	–
2월 11일 – 2월 20일	실무과정 7기	실무과정 1기
2월 22일 – 2월 28일	경영자과정 2기	실무과정 2기

* 2월 14, 15, 16(구정연휴)는 휴강합니다.

교육과정

- 실무과정 : COMPUTER 또는 CAD에 사용경험이 적은분을 대상으로 컴퓨터개론에서부터 CAD의 기초 및 응용까지 교육하는 실무과정입니다.
- 경영자과정 : CAD SYSTEM의 기본적인 조직과 함께 운영의 특성, 효율적인 관리방법등 설계사무소 소장 및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하는 경영자 과정입니다.
- 연구과정 : CAD이용경험(6개월 이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Arris의 경우 Xenix 및 ADD (Architectural Drafting & Documentation), M & R (Modeling & Rendering)에 교육의 비중을 높였으며 AutoCAD 의 경우 AutoSOLID, AutoSHADE 는 물론 AutoLISP 까지 교육되는 CAD의 이용차원을 한단계 높인 고급과정입니다.

교육신청방법

- 기한 : 매주 수요일(수강개시 前週 수요일)
- 장소 : 본협회 총무부
- 방법 : 아래의 교육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비와 함께 내방접수 또는 우편이나 FAX (586-8823)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협회 구좌(제일은행 429-20-166612, 예금주 : 대한건축사협회 출납원)로 송금후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

교육의 특징

- **1인 1대 실습위주의 교육**
  국내 CAD교육센타중 최대의 장비보유로 1인 1대의 실습위주교육이므로 단기간에 최대의 교육효과를 보장합니다.
- **경험많은 전문강사진 운영**
  서통 AI사업부의 전문강사진으로 건축과 전산을 전공한 해당분야의 유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완벽한 책임교육**
  교육이수후 당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여야만 수료증이 발급되며 불합격자에게는 합격시까지 무상교육이 계속되므로 교육의 책임을 다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협회 총무부 또는 CAD교육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21-7296)

교육참가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근무처주소			
직 위		참 가 일 정	CAD 기	CAD사용기간	개월

* 신청서가 부족한 경우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 해당과정의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조정후 통보합니다.

ARRIS 486 출발

486 Turnkey system configuration

- 썬파워 486
  i80486-25MHz
  MAIN MEMORY:8MB
  5.25″FDD
  200MB HDD
  14″ MONITOR
  PC-MOUSE
- DISPLAY
  NEC XL 20″ Color Monitor
  1024×768×256
  COBRA-PLUS-3BI-HS with VMI
- ARRIS
  BD & D+AD & D+M & D+ 한글
- 3 rd Party
- Xenix & DOS

2,300만원 off ➡ 1,895만원

썬파워 486은 i80486을 탑재한 현존하는 최고의 PC입니다.

Land Mark Test시 112MHz의 속도를 나타내며 Co-Processor가 내장되어 있어 기존의 386 System 보다 3배~5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ARRIS의 특징

-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건축 전문 CAD S/W PACKAGE
- 과거 MAIN FRAME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 건축 SCHEMATIC DESIGN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 SEQUENCE로지원
- XENIX O/S 사용으로 기존 PC CAD의 DOS한계극복
- 화면 MENU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투시도등 완벽한 3 D기능과 시간별 광원지원 등으로 완벽한 음영 CHECK기능 보유(일조권)
- 건축 자료의 DATA BASE화로 인력에 의한 기술누수 방지
- 2D, 3D 도면에 입·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등 SYMBOL지원
- 1,600만 칼라제공 및 신속한 칼라변화
- 컴퓨터에 의한 대고객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확보

■ 3 rd Party의 특징

국내 유명건축사무소인 (주)우일건축 (주)정림건축의 협조로 그동안 설계 사무소에서 절실하게 필요로하던 Detail Library, 한글단복선체 및 구조일람표 철근, 보, 슬라브, 기둥, 철골접합 등을 함께 공급하여 건축설계사무소의 CAD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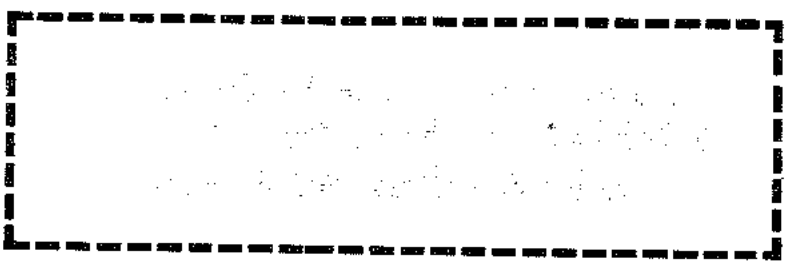
- Detail Library
  일반상세, 실내마감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살가구상세, 외부시설상세등 총 450개
- 한글 단 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장기능, 칸메우기 기능, 공간채우기 기능등
- 구조일람표
  철근-보, 기둥, 스라브와 철골접합상세등

OPTION

■H/W	• Memory
	• 3.5Inch FDD
	• 5.25Inch FDD
■PLOTTER	• F-920ER(Ao, Roll)
	• F-920E(Ao)
	• ip-530EL(Ao)
	• ip-530E(A_1)
	• ip-210(A_3)
■DISPLAY	• 2A(800×600, 14″)
	• 3D(1024×768, 14″)
	• 4D(1024×768, 16″)
	• 5D(1280×1024, 20″)
■TABLE	• TB-8830

F-920ER은 연필사용이 가능한 MUTOH PLOTTER의 최신기종으로 Ao Size의 날장 사용은 물론 Roll Type의 연속용지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긴도면이나 여러장의 도면을 쉽게 Plotting할 수 있습니다.

icense 확인사항
와 DOS 구매시에는 License여부를 확
불법 copy는 바이러스 감염의
물론법적 보호를 받을 수없



과학기술처에 프로그램등록이 되어 있
무단복제시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의거 처벌받게됨을 알려드립니

OPEN
'90.12.3

■ 대한건축사협회부설 CAD 교육연구소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운영 : 서통 AI사업부 교육팀
문의 : 521-7296 , 581-5711

■ 교육과정 및 일정

● 실무과정, 연구과정, 경영자 과정의 3단계로 각과정 1주일 완성입니다.

9 Page 교육안내 참조

■ TURNKEY-SYSTEM의 특징 —

● HARD WARE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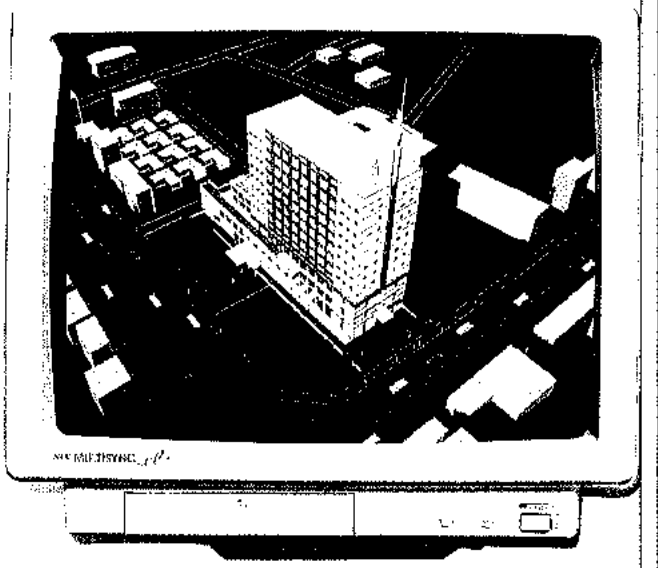
풍부한 기술력을 보장하는 서통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엄선하여 권장하는 각종 주변기기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초고속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씨스템이며, 완벽한 A/S를 통하여 User를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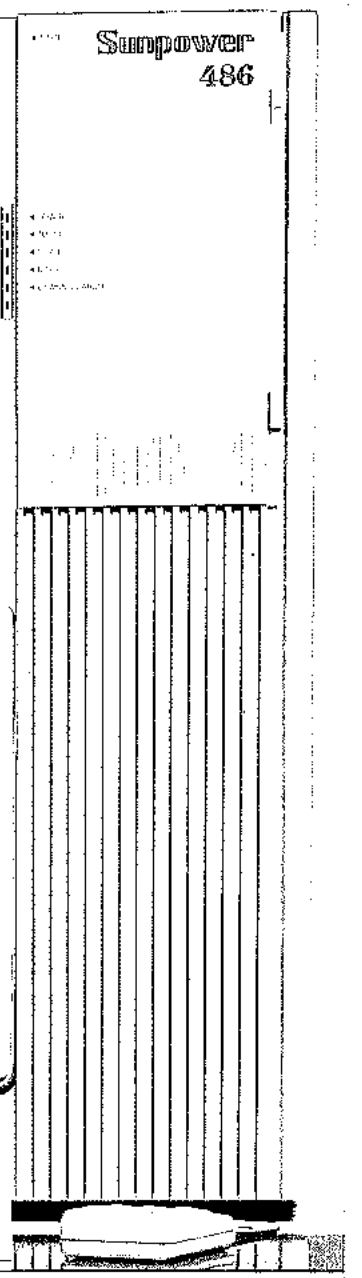
● CAD SYSTEM FEATURE

- 최고의 건축전용 CAD인 ARRIS를 채택 2D/3D그래픽등 모든 CAD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씨스템입니다.
- 범 DRAFT 전용의 2D-씨스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3D및 그래픽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유물인 건축물 창작에 노력하시는 건축사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완벽한 CAD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 효율성 · 다양한 기술개발등에 적합한 씨스템입니다.

● 지원분야

MS-DOS로 지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팩케지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범 DRAFT 전용 S/W, AutoCAD, VERSACAD, MICROCAD, Micro Station D/A(Design Analysis), 구조, 기계, 전기등의 각종 계산용 S/W + 기획설계 W/P(Word Processor) 각종 시방서, 보고서등 문서작성용 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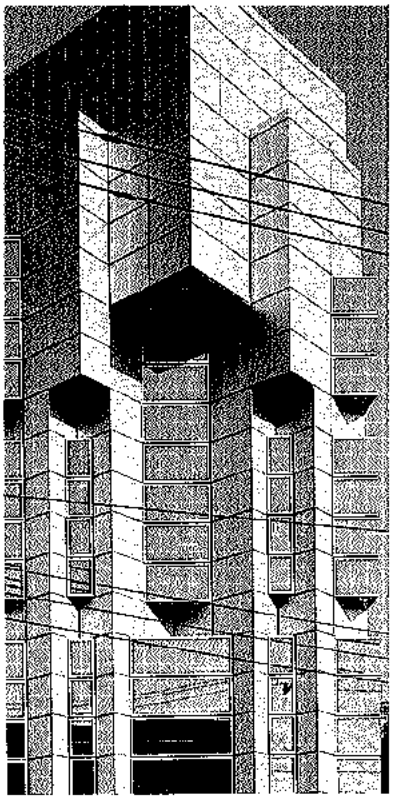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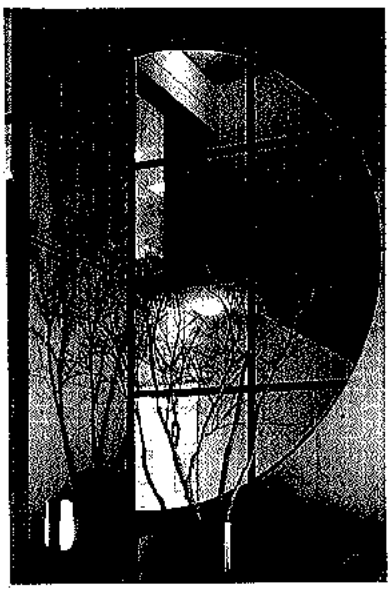
서통 AI사업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썬파워컴퓨터전시장
Tel. (02) 5140-386 (代) Fax. (02) 545-0296

교육장/전시장/A·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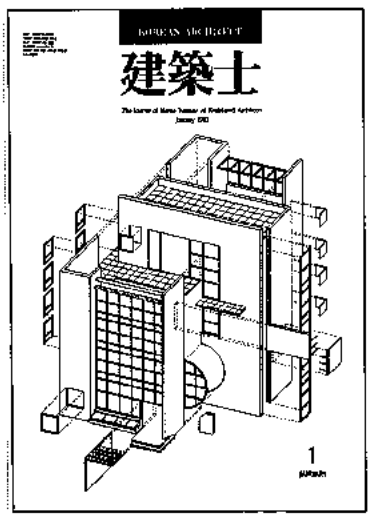
■ 서울 : • 교육장, 전시장, A·S 센타 : 강남구 논현동 6-21 TEL : 514-0386
• 교육장 : 대한건축사협회 1층
■ 부산 : • 교육장, 전시장, A·S 센타 : 중구 대창동 32-4 성림빌딩 태창캐드픽스 TEL : 464-6350
■ 대구 : • 교육장, 전시장, A·S 센타 : 중구 동인동 3가 271-17 TEL : 421-2856





차례/1991년 1월호 통권 제261호

[illegible]		14
[illegible]	경로수녀회—평화의 모후원/徐輔光	18
	한원빌딩/金昌壽+朴 昇+韓相默	22
	코오롱 기술연구소/崔寬泳	26
	국회의원 회관/李永熙+李錫文	30
	중원빌딩/金洛中+趙大熙	33
	성림빌딩/林長烈	36
	중앙대(안성캠퍼스)조소과 실습동/(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38
[illegible]	공간의 유희/兪元在	40
[illegible]		
	韓國 現代建築의 反省/金熙春	44
	우리 建築環境의 反省/安秉義	46
	專門化, 國際化와 우리 現實/蔣應在	48
	우리 建築의 現況과 問題点/李範宰	50
	21世紀를 向한 우리의 對應姿勢/成仁洙	53
	갈 길은 멀고 험하다/趙仁淑	56
[illegible]	새해에 걸어보는 기대/崔英集	58
[illegible]	한국의 전통건축㉚ 朝鮮時代의 建築/張慶浩	60
	헤닝 라센의 코펜하겐 경영대학교/朴賢燦	68
	메소포타미아의 건축순례(5)/裵元泰	74
	클린룸 설계에 관한 기본사항/설비분과위원회	80
[illegible]	ARCASIA대회 및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이사회/李廷根	88
[illegible]	인도를 다녀와서/鄭用贊	92
[illegible]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령 등	96
	1990년 11월분 도서신고현황	102
[illegible]		101
[illegible]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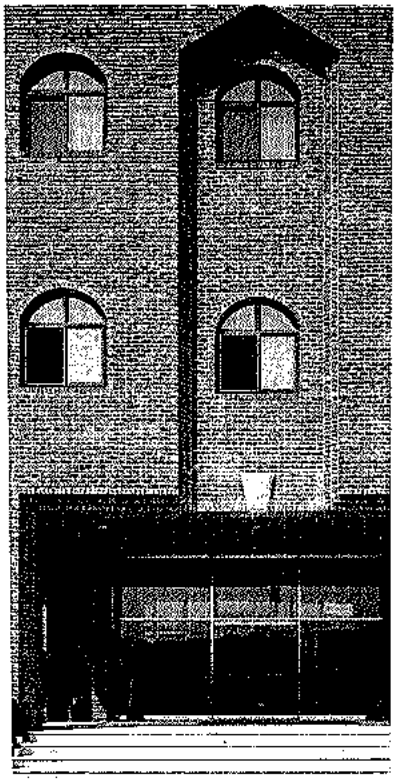
표지 : 金洛中+趙大熙 作 중원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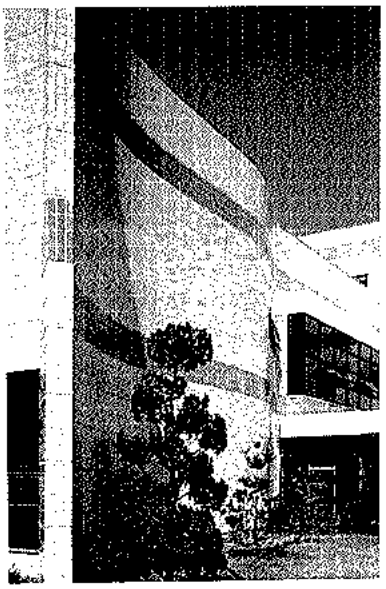
發 行 人:吳雲東
編纂弘報委員會
委 員 長 : 禹南龍
委 員 :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喆, 金周喆
編 輯 : 出版事業部
發 行 處 : 大韓建築士協會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071
電 話 :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 (02) 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 刷 人 : 全允珪/洸文精版社

Publisher : Oh, Woon-Dong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Woo, Nam-Yong*
Member : *Dong, Jeong-Keun / Park, Seo-Hong / Oh, Teak-Kil / Kim, Kee-chul / Cho, Sung-Yul / Choi, Jeong-Il / Jeong, Jung-Chi / Park, Yeon-Sim / Choi, Myung-Chul / Kim, Joo-Cheol*
Editor :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1*
TEL : *(02) 581-5711~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172(054-2):0612(519)*
Printer : *Jeon, Yun-Kyu(Kwa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261, JANUARY 1991

[illegible]		14
[illegible]	*Little Sisters of the Poor–Jeanne Jugan / Suh, Bo–Kwang*	18
	Hanwon Building / Kim, Chang–Soo . Park, Seung & Han, Sang–Mook	22
	KOLON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 Choi, Kwan–Young	26
	National Assembly Office Bldg. / Lee, Young–Hee & Lee, Suk–Moon	30
	JACE Buliding / Kim, Nak–Joong & Cho, Dae–Hee	33
	Sunglim Building / Lim, Jang–Ryul	36
	Chungang Univ. Dept. of Carved Clay Model Bldg. / Group–3	38
[illegible]	*SW Model House / You, Won–Jae*	40
SPECIAL ISSUE / [illegible]		
	Reflection of Modern Korean Architecture / Kim, Hee–Choon	44
	Reflection of the Circumstances of Modern Korean Architecture / Ahn, Byung–Eui	46
	Speci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Actual World / Chang, Eung–Jae	48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 of Korean Architecture / Lee, Bum–Jae	50
	Countermove for the 21st Century / Seong, In–Soo	53
	Architecture–Distant and Steep Way / Cho, In–Sook	56
[illegible]	*Expectation of 1991 / Choi, Young–Jeep*	58
[illegible]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 Chang, Kyung–Ho*	60
	Henning Larsen's School of Science Management / Park, Hyun–Chan	68
	Tours of Mesopotamia Architecture / Bea, Won–Tai	74
	A Basic Study for Clean Room Design	80
[illegible]	*ACE–4 and 11th ARCASIA Council Meeting / Lee, Jeong–Keun*	88
[illegible]	*Travels of India / Chung, Yong–Chan*	92
[illegible]		96
[illegible]		101
[illegible]		104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31, 634-2143 ·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종로분소/종로구청진동201-1, 738-5416 · 마포분소/마포구성산동275-1, 333-5251 · 송파분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소/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소/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 은평분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소/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 노원분소/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소/중랑구면목동166-46, 436-0587 · 성북분소/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 구로분소/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가1(부산데파트내)(051)246-6284~7 ■ 대구직할시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가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지부/대전시중구대흥동437-1, (042)254-2441 ■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7-6129~31 · 적할분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8, (0331)42-6490, 7072 · 안양분소/안양시안양6동523-5, (0343)49-2698 · 부천분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소/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1)2-1082 · 송탄분소/송탄시서정동343-22, (0333)4-6153 · 고양분소/고양군원당읍주교리38블럭16롯트, (0344)63-8902 ·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소/이천군이천읍중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 (0371)42-3257 · 강릉분소/강릉시성내동6-14(0391)2-2262 · 속초분소/속초시동명동466-33, (0392)33-5081 ·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흥1리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가6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소/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소/제천시의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소/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88 ·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853 ·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2-2271 · 대천분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568-116(전원빌딩6층), (0652)87-6007 · 이리분소/이리시남중동1가77-21, (0653)52-3796 · 군산분소/군산시신창동35-4, (0654)445-4059 ·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062)364-7567, 33-9944 · 목포분소/목포시대안1동1, (0631)43-3348 ·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51-11(0661)3-2457 ·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가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43-22, (0562)44-6029 ·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42-2(0561)3-3638 ·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964-264, (0546)52-6351 · 안동분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소/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41 · 영주분소/영주시휴천2동642-52, (0572)33-7504 · 점촌분소/점촌시중앙동280-3, (0581)2-2706 · 상주분소/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3-47, (0551)46-4530~1 ·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52)74-8836 ·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 충무분소/충무시서호동163-18, (0557)43-3577 ·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4B-10L, (0525)2-6114 · 밀양분소/밀양시삼문동184-108, (0527)53-2110 ·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2-7090 ·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22-4, (0523)84-3050 ·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소/삼천포시동금동91-6(0593)33-9779 ■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32-7777

우리 建築士가 마음놓고 創作活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당한 모습의 協會相을 정립해 나가고자……

辛未年 새해를 맞아 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祈願합니다.

21세기를 향한 길목에 섰던 지난 庚午年은 國內外的으로 뿐 아니라 우리協會도 우리의 權益 伸張과 새로운 時代에 대비하기 위한 努力과 진통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 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으로 점철되었던 지난해에도 建築界의 成長과 建築文化 發展을 위해 여러가지로 애쓰셨던 會員여러분의 勞苦에 敬意를 표하며, 지난 25회 定期總會에서 본인을 제18대 會長으로 선출되도록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衷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協會는 創立 四半世紀의 歷史를 거치는 동안 會員들의 굳건한 造形創作 意志와 獻身的 努力으로 세계 속에 "韓國의 建築"을 확고히 뿌리 내리는 한편, 국민의 住生活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建築文化를 先導하는 團體로 의연히 成長·發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오늘이 있기까지 한자루의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듯, 建築界의 밑거름이 되어 協會와 建築文化의 發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歷代 任員을 비롯한 많은 會員들의 헌신적인 勞苦가 있었음을 상기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빛과 그림자는 항상 함께하듯 우리들이 이룩해 놓은 結實 뒤에는 간과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建築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認識不足과 政府의 協調의 未備는 建築文化 發展에 沮害要因이 되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國民에 대한 啓導와 弘報努力이 부족했던 점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建設行政의 拙速한 運營은 오늘의 혼돈된 都市環境의 문제에 責任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우기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의 懸案問題에 대해 協會를 主軸으로한 理論的, 經驗的인 政策的 代案의 제시에 미흡했던 점은 물론이려니와, 會員들의 뒷받침 또한 마음일 뿐 실천면에서는 불합격선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今世紀를 정리하고 大望의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이 시점에서 이러한 지난 時代의 歷史를 거울삼아 더이상의 시행착오와 묵은 시대의 잔재를 없애도록 겸허한 省察과 自己革新이 요구되는 重且大한 時代的 狀況에 놓여 있습니다.

昨今의 國內外的 상황은 우리 固有業務領域을 침식하고자 하는 氣運이 여러 경로를 통해 높아가고, 政治·經濟的으로도 불확실한 상황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本質的 理解와 方向에 대한 正確한 判斷을 根幹으로 한 對應能力입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難關과 困境 속에서도 남다른 意志와 슬기로써 난국을 훌륭히 극복하여 왔던 것과 같이, 닥쳐올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位相을 再創出합시다.

우리의 底邊에는 크나큰 潛在力과 底力 그리고 산 經驗으로 얻어낸 값비싼 資産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것을 本人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막중한 所任을 느끼며 엄숙한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重點的으로 推進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聯合會制度의 準備 作業입니다.
우리 協會가 年間 집행하고 있는 막대한 豫算과 人力을 규모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本協會는 물론, 市道支部가 점차적으로 自立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地方自治制에 대비하여 本協會의 運營方式을 理事中心制로 전환하고 市道支部會員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組織과 機構를 民主方式으로 대폭 개선하여 協會의 기능을 活性化시키겠습니다.
둘째는 建築士 業務와 關聯되는 諸法規를 現實性있게 改善하겠습니다.
建築士는 물론, 對國民關係에 있어서도 융통성없이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現行 建築關係 法令들을 立法, 行政府와의 긴밀한 協調體制 아래 현실성 있게 강력히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立法豫告된 建築法 全文改正案의 문제조항과 建築士法 개정작업에서 單獨·綜合사무소의 一元化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는 建築行政制度의 改善입니다.
현행 官주도하의 建築審議制度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리 協會의 自律的이고 責任있는 창구로 대폭 위임받아 지역적으로 示範실시함으로써 폭넓은 建築行政代行業務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建築士들의 實務領域 保護와 社會的인 位相을 再定立하겠습니다.
넷째는 현재 協會가 推進中인 主要業務들은 持續的으로 繼承하겠습니다.
－綜合建設業免許制度와 우루과이라운드 對策
－設計, 監理 報酬料率의 現實化
－建築士 所得標準稅率引下
－會員年金制度의 補完, 不實會員의 團束 등은 물론, 會員 다수인 소규모 사무소의 保護育成과 權益伸張에 주력하겠습니다.

本人은 이와같이 막중한 所任을 다하기에는 微力하나마, 그동안 協會 일에 참여했던 經驗과, 훌륭하신 任員분들과 會員 여러분의 秩序있는 意見開陳을 통해 名分을 앞세우기보다는 現實에 입각한 理性的 判斷으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같은 所信과 意志가 始終一貫하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員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時間의 混沌과 낭비적 요소를 정돈하여 大望의 21세기를 준비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모두 大望의 辛未年을 始作하는 出發點에 서서, 心機一轉하여 再跳躍을 기약하는 엄숙한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眞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會員 여러분들이 본 協會에 보내주신 忠告와 激勵, 그리고 關心을 올해에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會員 여러분의 事業에 無窮한 發展과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祈願하며 就任에 즈음한 新年人事에 갈음코자 합니다.

辛未元旦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雲東

'91韓國建築

本 協會는 每年 가을에 開催하였던 建築士 作品 巡廻展과 新人·學生 建築設計公募展을 發展的으로 統合, 1991年부터는 「韓國建築展」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全國建築士大會와 竝行하여 開催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71年 '農村住宅 懸賞募集'으로 始作된 建築士 作品巡廻展은 그동안 우리나라 建築界 發展의 礎石이 되어 왔으며, 더불어 開催되어 왔던 新人·學生 建築設計公募展은 새로운 建築文化의 開拓者를 養成해온 產室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協會는 우리나라 建築文化 幅達이란 時代的 使命 아래 그동안 未洽했던 점들을 補完, 發展시켜 全 建築界의 盛大한 祝祭가 되도록 할 豫定입니다

특히 施賞 制度를 大幅 强化하여 會員 및 新人·學生들의 創作 意慾을 북돋우기 위해 그 格을 높이는 한편, 一般人들의 參與를 誘導하여 建築 底邊 擴大를 圖謀하는 立體的인 展示 計劃을 樹立하였습니다.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새로운 氣風 造成을 위한 本 協會의 努力에 建築界 모두의 積極的인 聲援을 바라며, 會員 및 新人·學生들의 폭넓은 參與뿐 아니라 "韓國의 建築을 새롭게 자리 매김"할 優秀한 作品과 斬新한 아이디어가 出品되어 우리 建築文化 位相을 한층 더 드높이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 開催時期

—1991年 3月의 '91 全國建築士大會와 竝行하여 開催
(1991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 순회 전시)

■ 出品資格

◆ 建築士部門 : 1991년 1월 現在 개업 建築士
◇ 新人部門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 學生部門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 施 賞

◆ 建築士部門
* 大 賞(1)—國務總理賞 : 상장 및 트로피
* 最優秀賞(1)—建設部長官賞 : 상장 및 트로피
* 優 秀 賞(3)—協會長賞 : 상장 및 트로피
※ 수상작품의 건축물에 수상기념패 부착

◇ 新人部門
* 最優秀賞(1) : 상금 300만원 및 상패
* 優 秀 賞(1) : 상금 150만원 및 상패
* 奬 勵 賞(3) : 상금 50만원 및 상패

◇ 學生部門
* 最優秀賞(1) : 상금 200만원 및 상패
* 優 秀 賞(1) : 상금 100만원 및 상패
* 奬勵賞—市道支部會長賞(多數) : 상금 30만원 및 상패
※ 수상자중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2명을 선발, ARCASIA 학생잼버리 파견특전 부여.

展 作品公募

■ 出品內容

◆ 建築士部門

—'88년~'91년 2월중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 작품.

◇ 新人部門

1) 建築物의 用途 : 복합건축물(주거, 상업,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

2) 垈地條件 : 전면도로 25m, 후면 또는 측면에 12m도로와 접하는 주거지역. 대지면적 3,000평(9,917.4㎡) 【대지면적의 50%이상은 노선상업지역】

3) 垈地狀況 : 대지주변에 5층~8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등이 산재하여 있음.

4) 建築法令 適用基準 : 건폐율, 용적률 등 제규정은 각 지방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관계없이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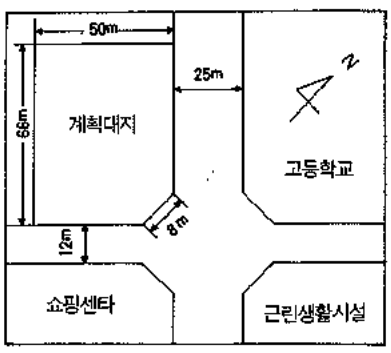
◇ 學生部門

1) 建築物의 用途 : 자유

2) 垈地條件 : * 지역지구/일반상업지구
* 지 형/평탄지(도면참조)
* 대지면적1,000평(3,305.8㎡)
* 도시기본시설/전기, 가스, 상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음.

3) 設計條件 : 현행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단, 시·도조례는 무시한다)

4) 圖面作成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지하층 포함)



학생부문
대지배치도

■ 應募申請 및 接受期間

◆ 建築士部門 : 1991年 2月 18日~2月 20日

◇ 新人·學生部門 : 1991年 2月 18日~2月 20日

■ 出品方法

◆ 建築士部門 : 90cm×90cm 규격 패널 2~4매

◇ 新人·學生部門 : 120cm×120cm 규격 패널 1~2매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설명서 첨부)

■ 出品規定

* 동일작품에 대한 작가명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출품된 작품의 전시권과 출판권은 본 협회에 속하며 저작권은 제출자에 있음.
* 신인·학생작품은 타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에 한함.

■ 作品審査

◆ 建築士部門 : 1991年 2月 26日

◇ 新人·學生部門 : 1991年 2月 25日

■ 審査委員

—建築界의 權威者로 委囑되며, 그 名單은 受賞作 發表와 함께 發表함.

■ 問 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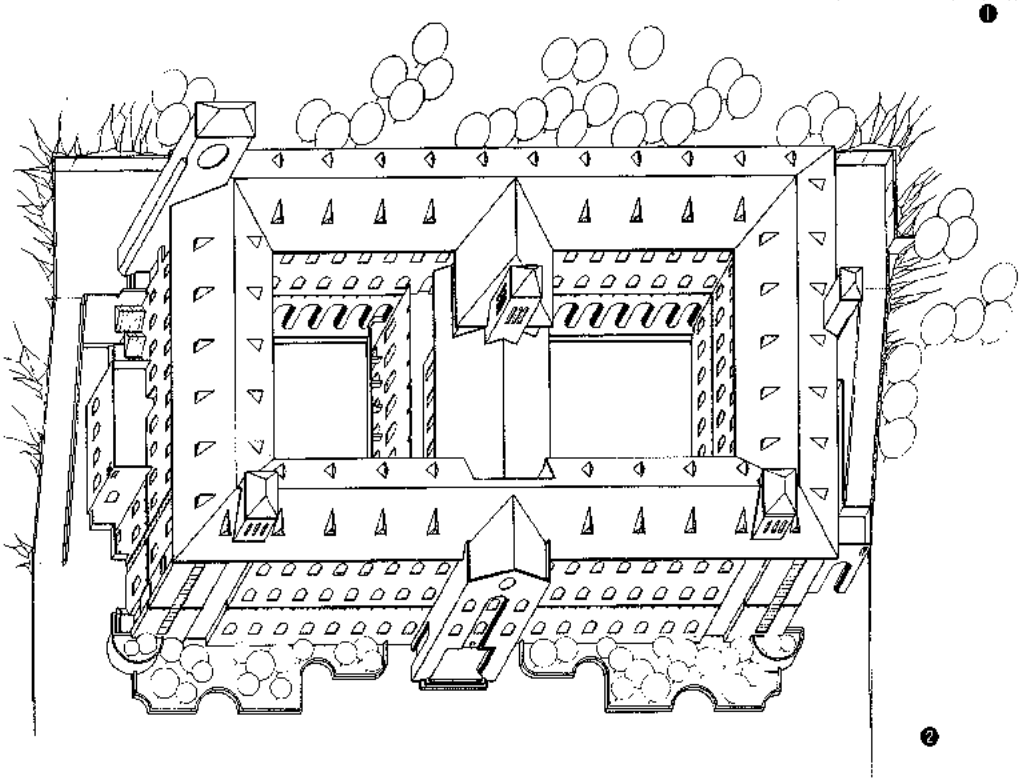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 出版事業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호 ☎ 581-5711~4

경로수녀회—평화의 모후원

Little Sisters of the Poor–Jeanne Ju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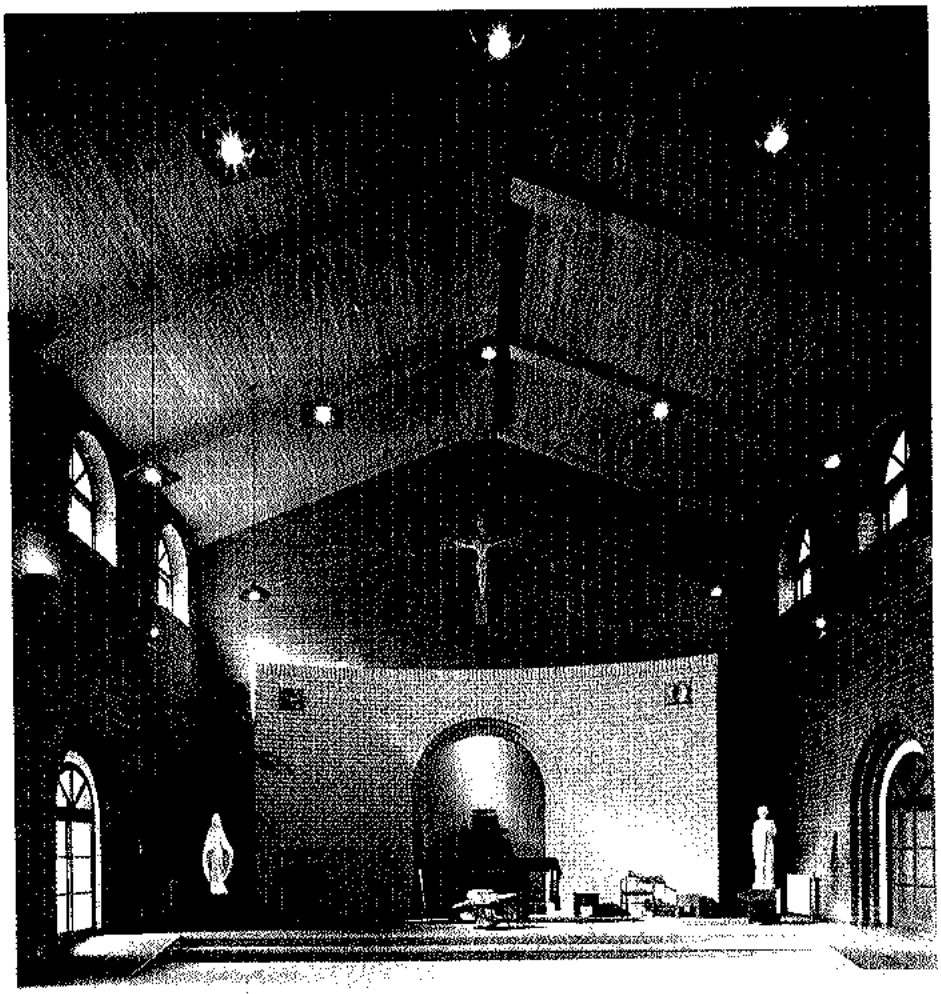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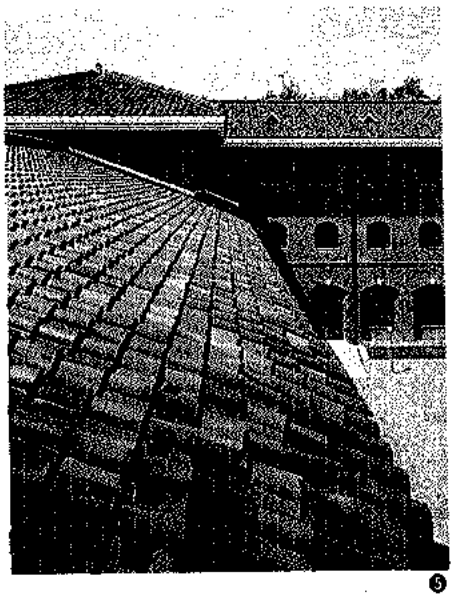
대지위치/경기도 수원시 초원동 산1—31
대지면적/13,348㎡
건축면적/2,602.84㎡
연면적/8,081.16㎡
건폐율/19.5%
용적률/60.04%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적벽돌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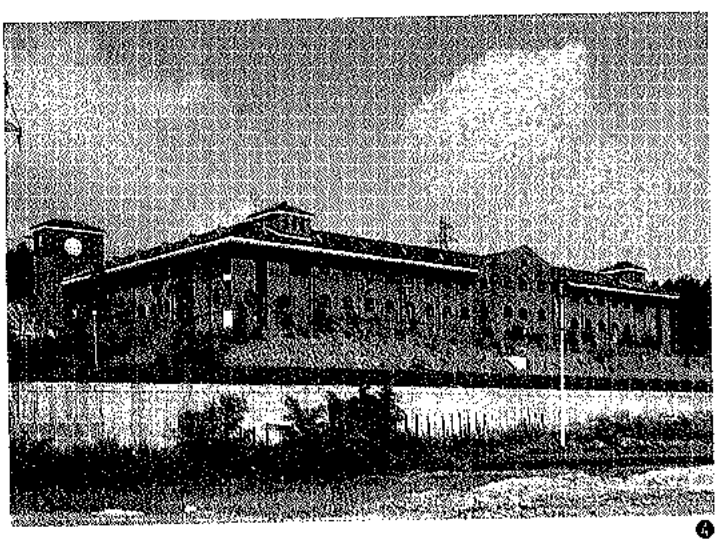
徐輔光/종합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Designed by Suh, Bo-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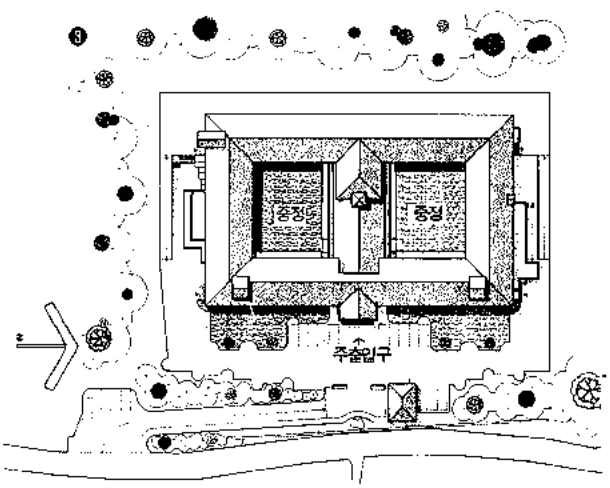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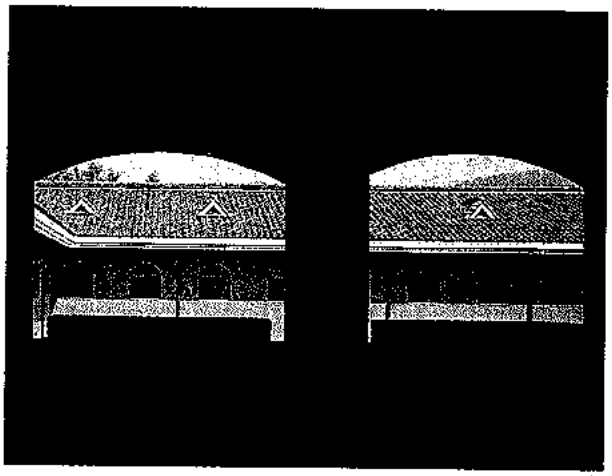
❶ 전경
❷ 아이소메트릭
❸ 성당 내부 제대전경
❹ 원경
❺ 지붕측에서 본 외벽상세
❻ 배치도
❼ 회랑내부에서 본 중정측 외벽상세
❽ 2층평면도
❾ 1층평면도
❿ 주출입구부 상세
⓫ 주출입구로비
⓬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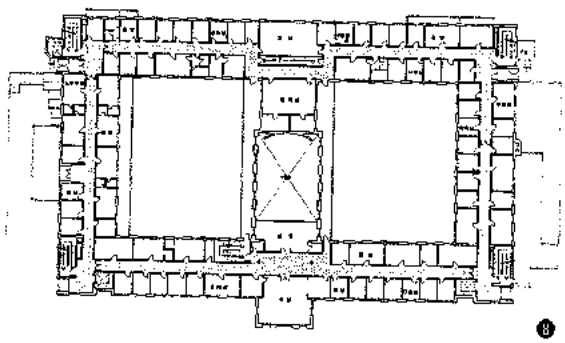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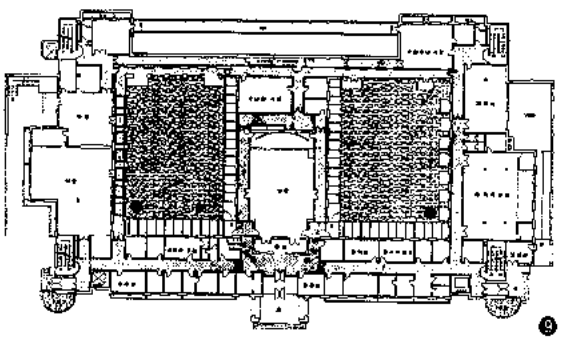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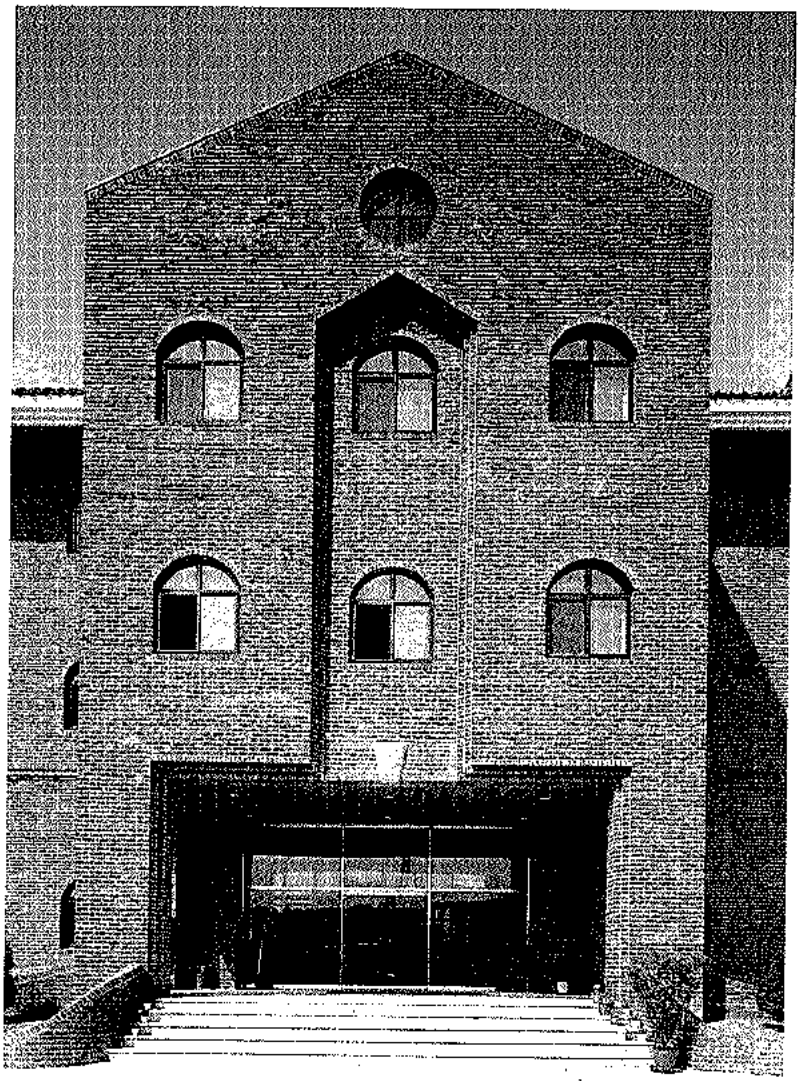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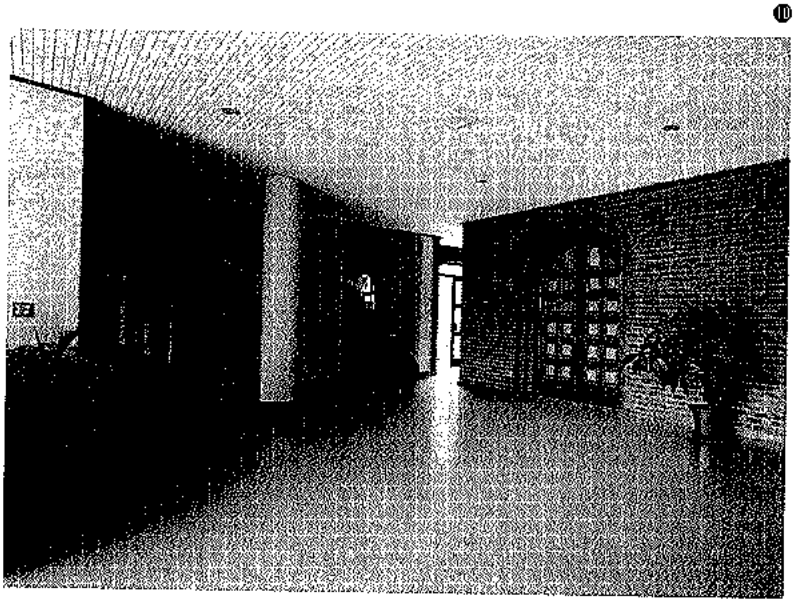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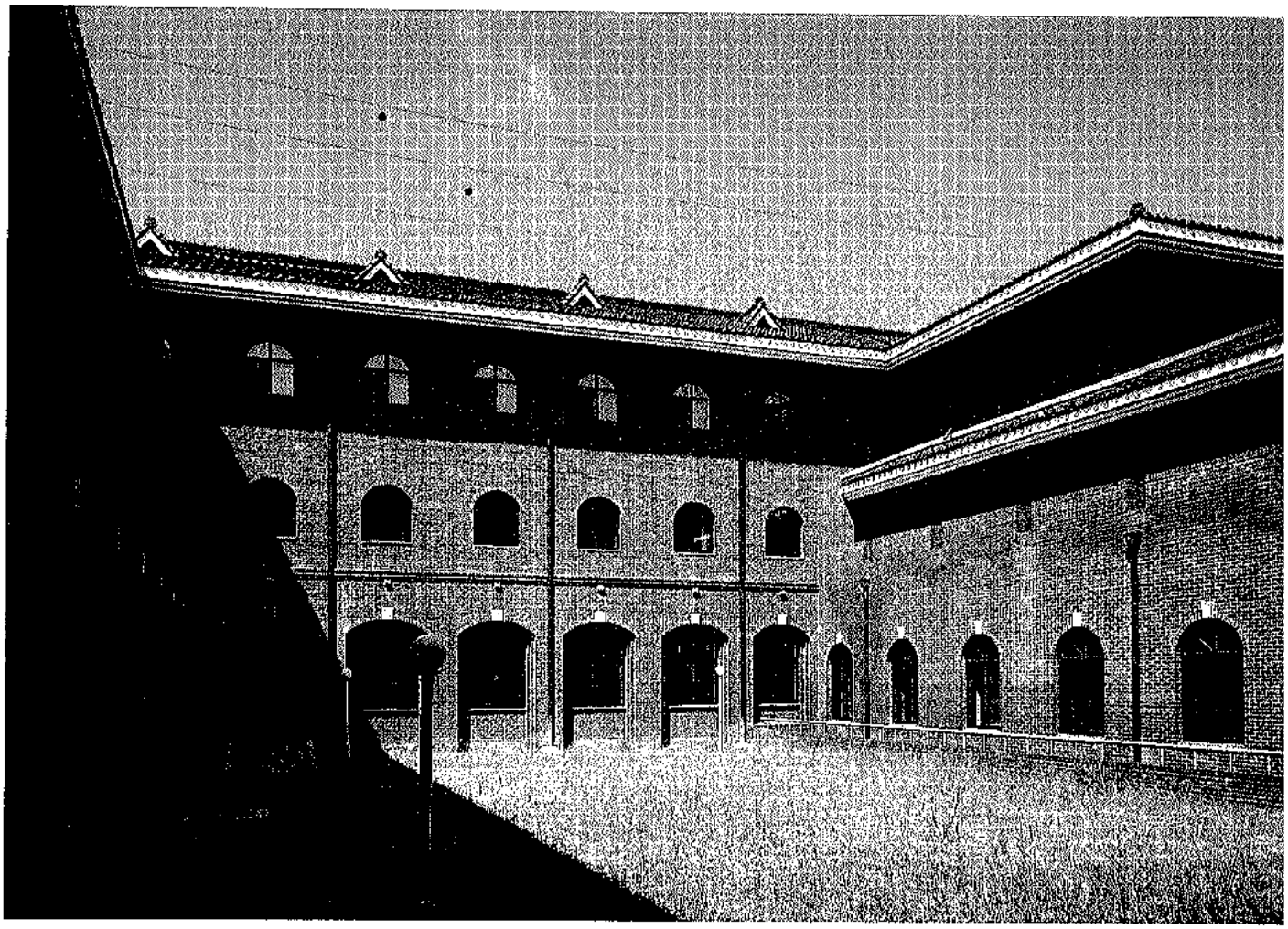
❾



❿



⓫



⑫

■ 설계소묘

평화의 모후원은 가장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과 이들을 사랑의 손길로 보살필 수녀님들이 살게 될 보금자리이다. 전체 대지는 숲으로 덮인 산중턱의 경사지로 앞으로는 트이고 뒤로는 막힌 곳으로, 건물의 전체 배치는 건물의 프로그램상 '日'자를 옆으로 누인 형태로 사용자에 따라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건물의 전반부는 양로원 기능으로, 후반부의 좌측은 일반수녀, 우측은 수련수녀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주된 디자인 어휘로서는 앞선 대구의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 마산의 트라피스트 수녀원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 적벽돌 쌓기, 기와지붕, 아치형 창문, 선큰가든과 'ㅁ'자 평면 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가능한 장식을 배제한 입면의 적벽돌 쌓기와 붉은 색의 스패니쉬 기와지붕으로 통일성과 절제감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전체 건물은 3m×3.6m를 기본 모듈로 계획하였다.

지하층은 선큰부분에서 저장창고 벽이 외벽이 되어 햇빛이 복도공간에 넘치게 된다. 이는 유리를 통하여 창고에 유입되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채광과 통풍의 문제가 무리없이 해결되었다. 또한 1층에서 이 부분을 덮은 버트리스를 8m 간격으로 설치하여 옹벽의 하중을 분담하면서 지하복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1층은 로비와 성당이 동선상 중앙에 배치되며 2층은 주로 침방과 병실 등의 주거공간이, 3층의 파빌리온 형태의 테라스는 수녀들의 사색 장소로 이용된다.

15.8m×24m 크기를 지닌 두 개의 중정은 잔디로 처리하여 외부에 대하여는 정적인 폐쇄감과 안정감을 유도하고 내부로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여러가지 야외활동을 수용하면서 서로의 교류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공상 양로원 부분에서 휠체어의 사용을 위하여 각 실간의 턱을 없애고 계단난간 등은 나무로 마감하여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화장실마다 내부에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를 설치하였다. 특히 내부마감에서 노인들이 각자의 방을 용이하게 찾고 활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연이은 방들에 세 가지 다른 색상의 바닥, 벽지, 천장재를 사용하여 방별로 구별이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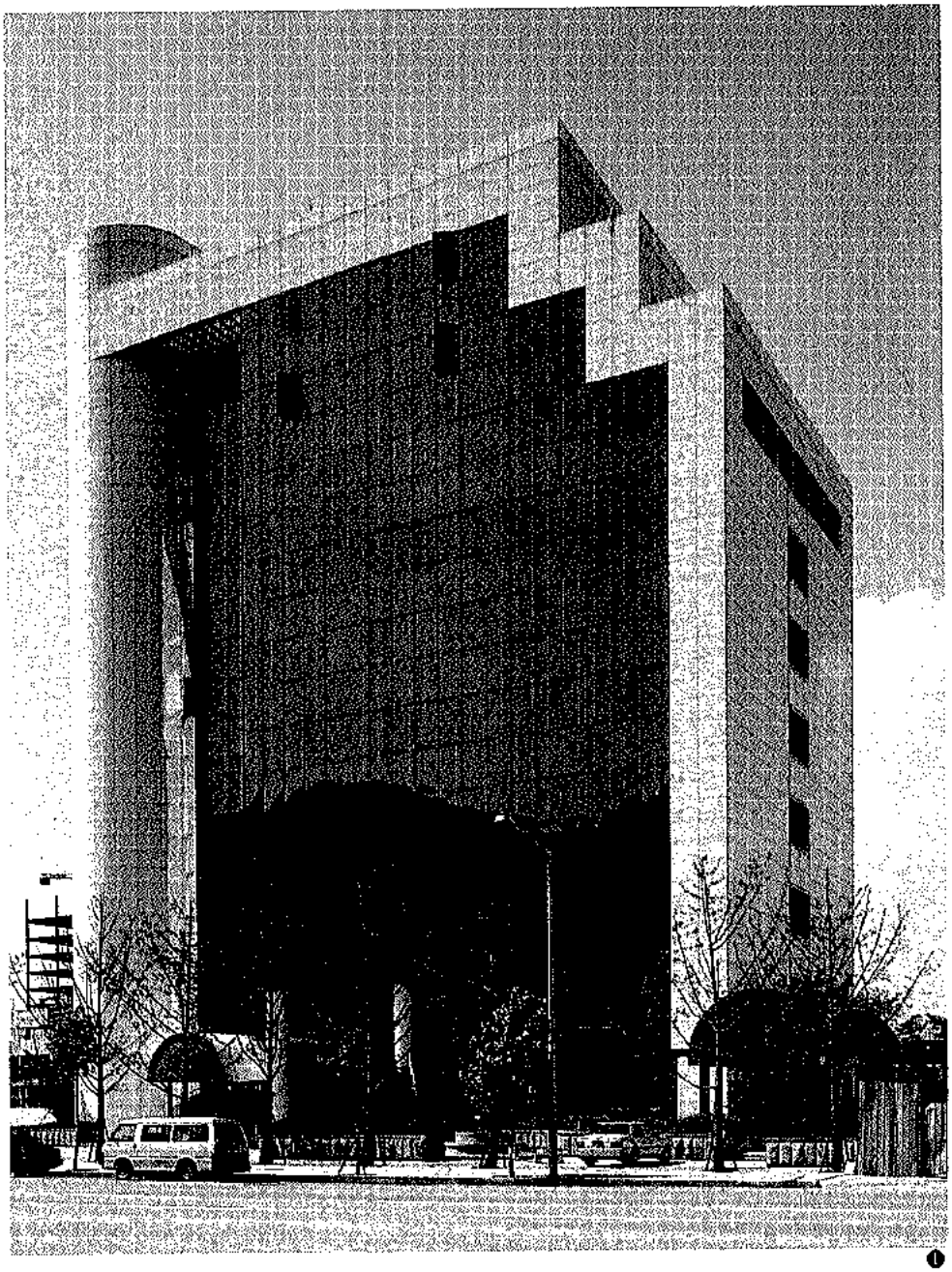
이 건물은 설계에서 완공되기까지 건축주의 성의있는 참여로 마치 중세의 석공이 돌을 하나씩 쌓아 나가듯 외면의 화려함보다는 건물 자체의 목적에 충실하고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용하면서도 내밀한 공간을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이들의 튼튼하고도 견고한 성채(城砦)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설계와 시공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한원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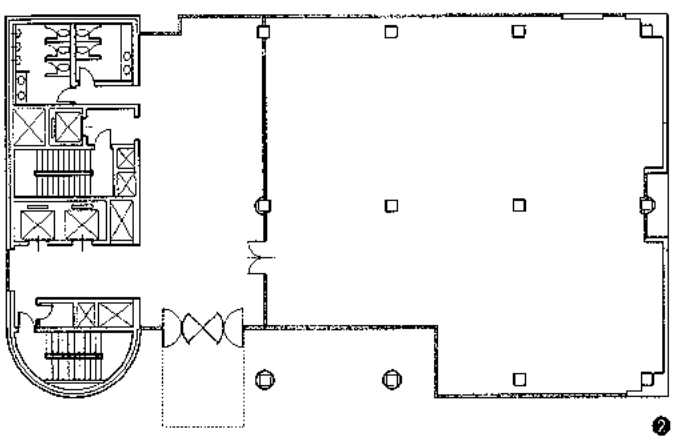
Hanwon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9
지역 · 지구/주거지역, 4종미관, 주차장정비지구
건축면적/655.32㎡
연면적/9,950.30㎡
건폐율/32.42%
용적률/299.82%
규모/지하 4층, 지상 10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용도/업무시설(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설계담당/건축—이종현, 장혁,
구조—이필호,
설비—서정두,
전기—이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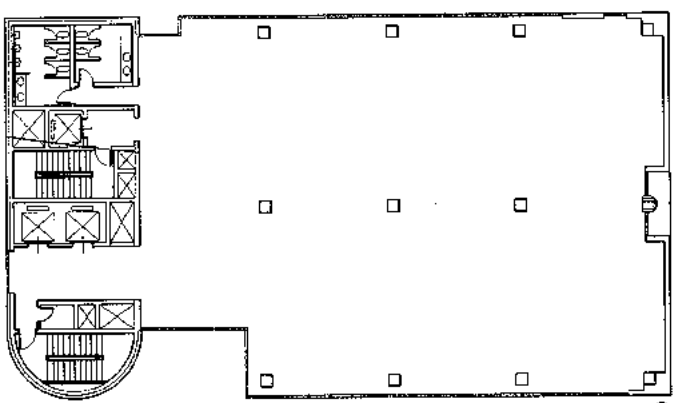
金昌壽+朴昇+韓相默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ang-Soo
Park, Seung
Han, Sang-M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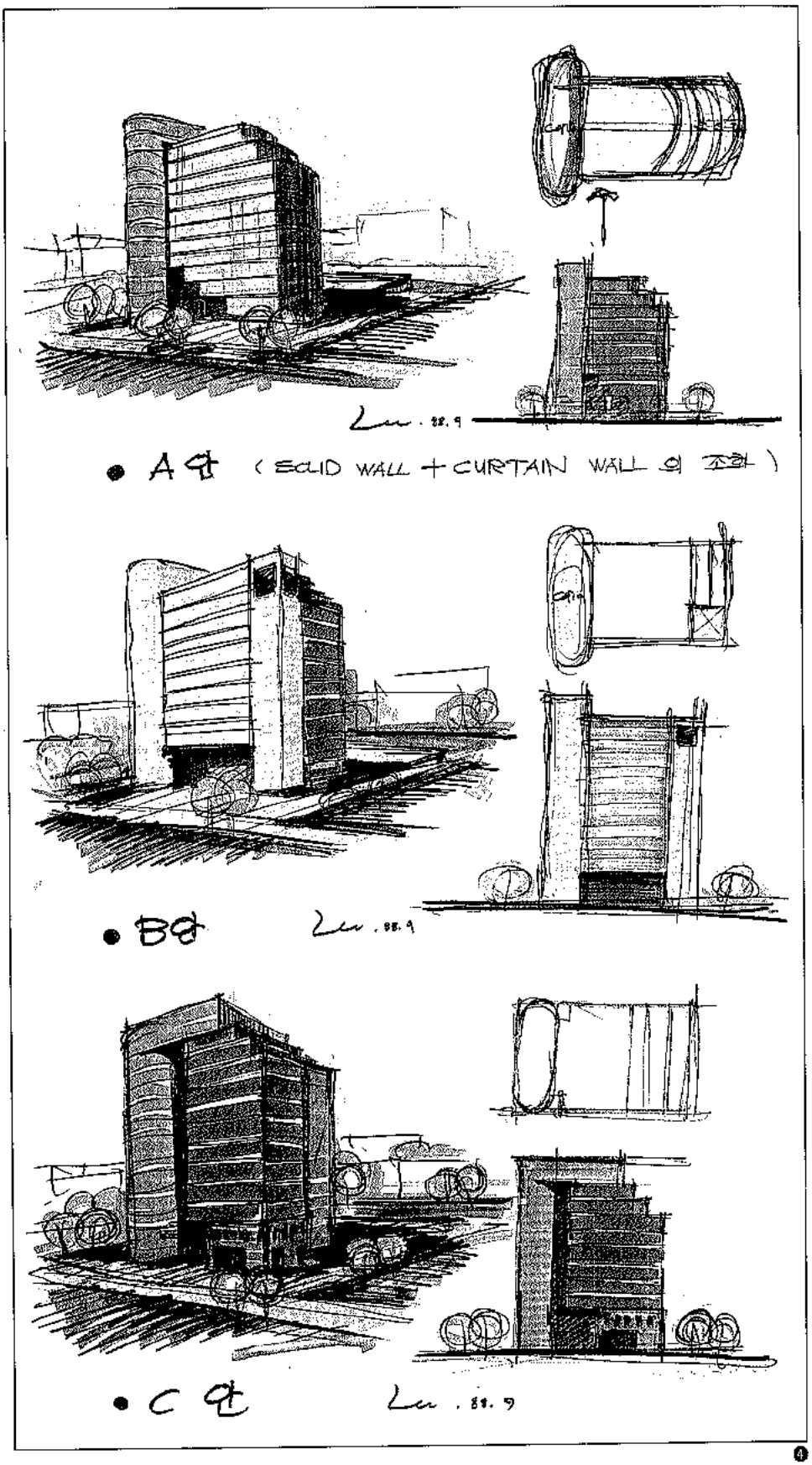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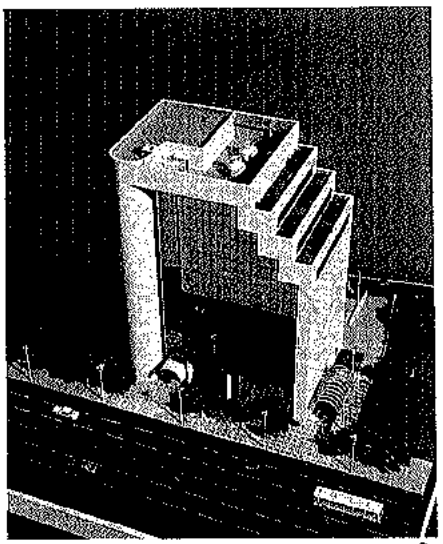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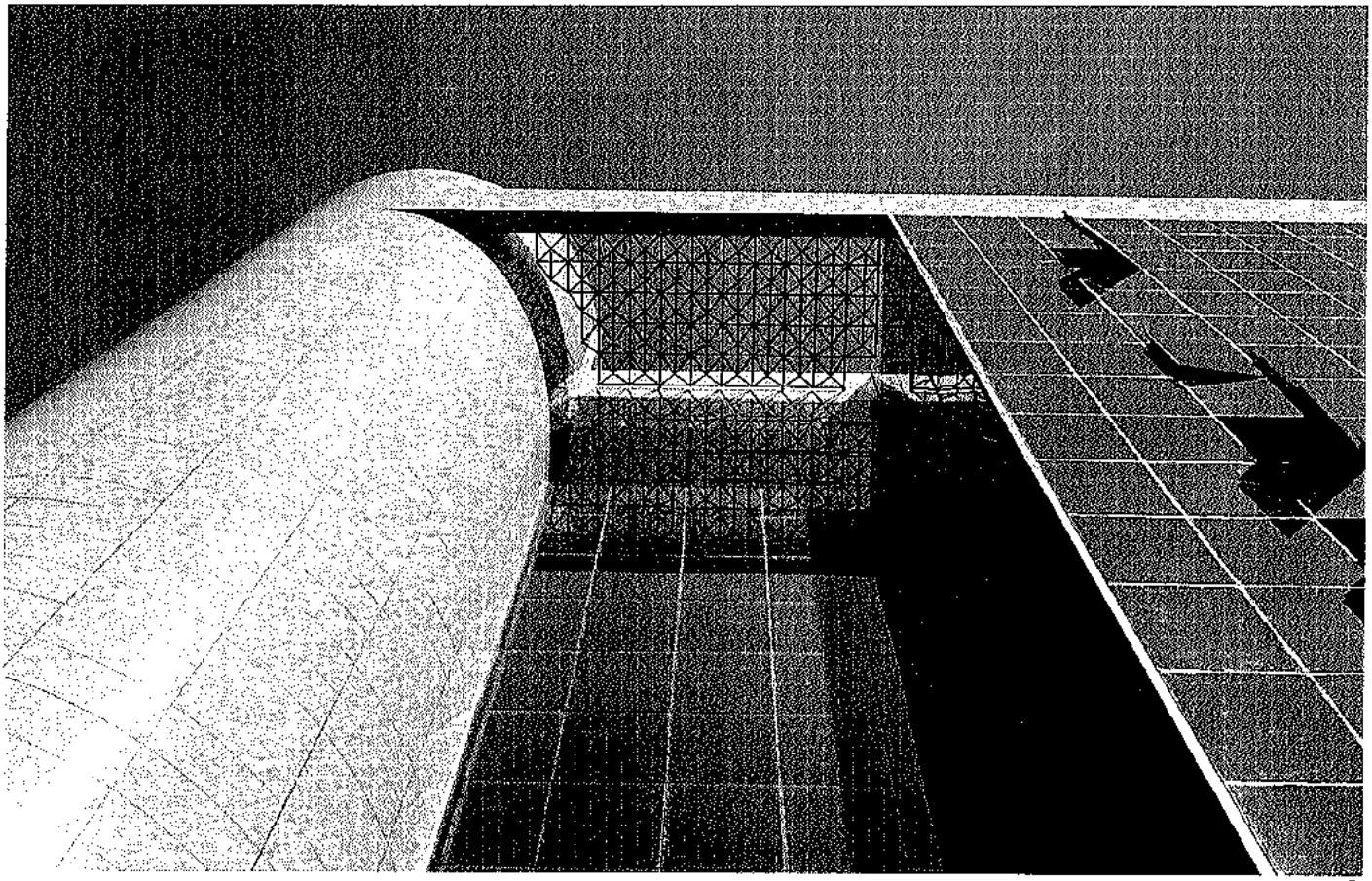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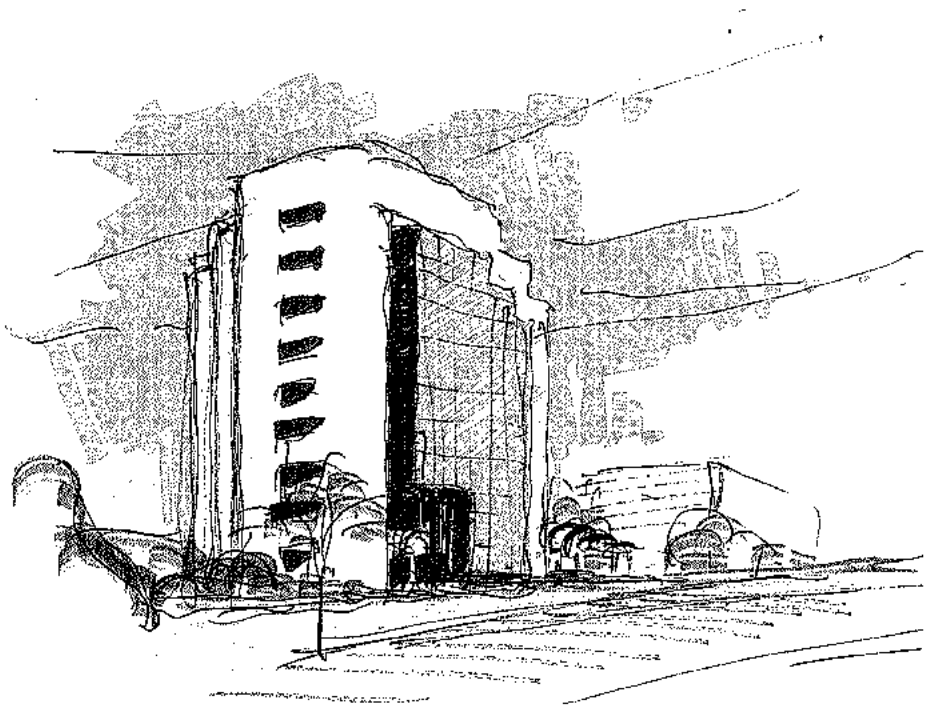




❶전경
❷ 1층평면도
❸기준층평면도
❹입면계획개념 스케치
❺스터디모형



❻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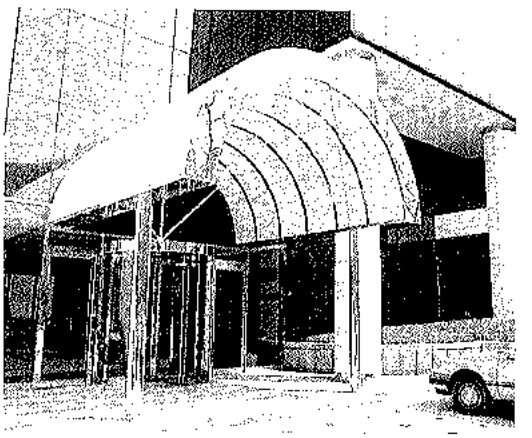
■ 설계소묘

본 대지는 폭 40m 남부순환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전면에 예술의 전당과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는 우면산과 접하여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예술적인 분위기를 제공받고 있어 이러한 주변여건들을 어떻게 계획안에 반영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였다.

따라서 건물배치는 전면도로와 건물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각적 Mass의 부담을 덜게 하였고, 전면 Open Space를 조경과 휴게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넓은 Public Garden으로 처리하였다.

기준층 평면계획은 편측 Core를 채택하여 가급적 넓은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Dead Space를 최소화 시켰으며 외관은 평범하지 않은 Mass 처리 및 백색의 네오빠리에와 청색 반사유리를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경쾌한 분위기로 주변 경관과 잘 조화를 이뤄 이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로 부각되길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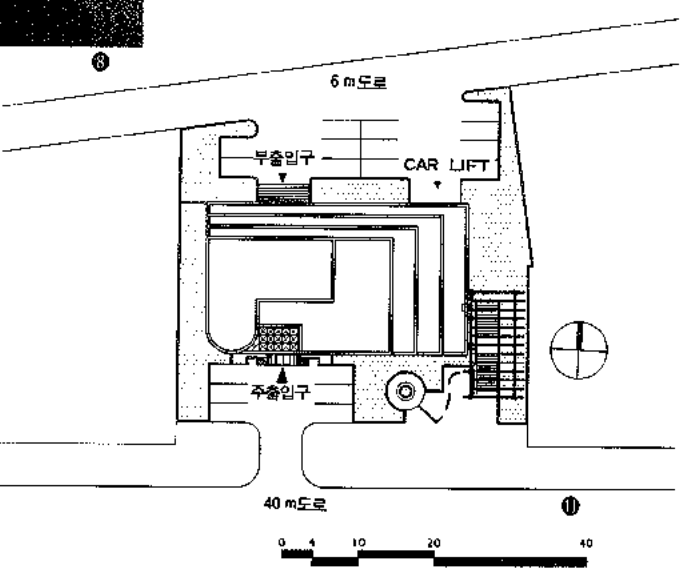
❽



❿

❻ 외벽상세
❼ 입면스케치
❽ 지하연결 계단실
❾ 옥외휴게광장
❿ 주출입구 캐노피
⓫ 배치도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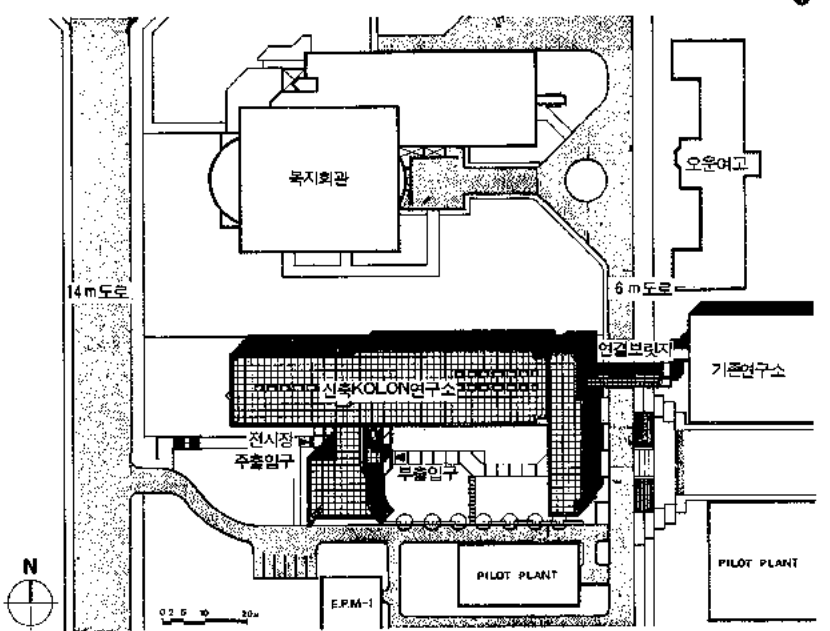
⓫

코오롱 기술연구소

KOLON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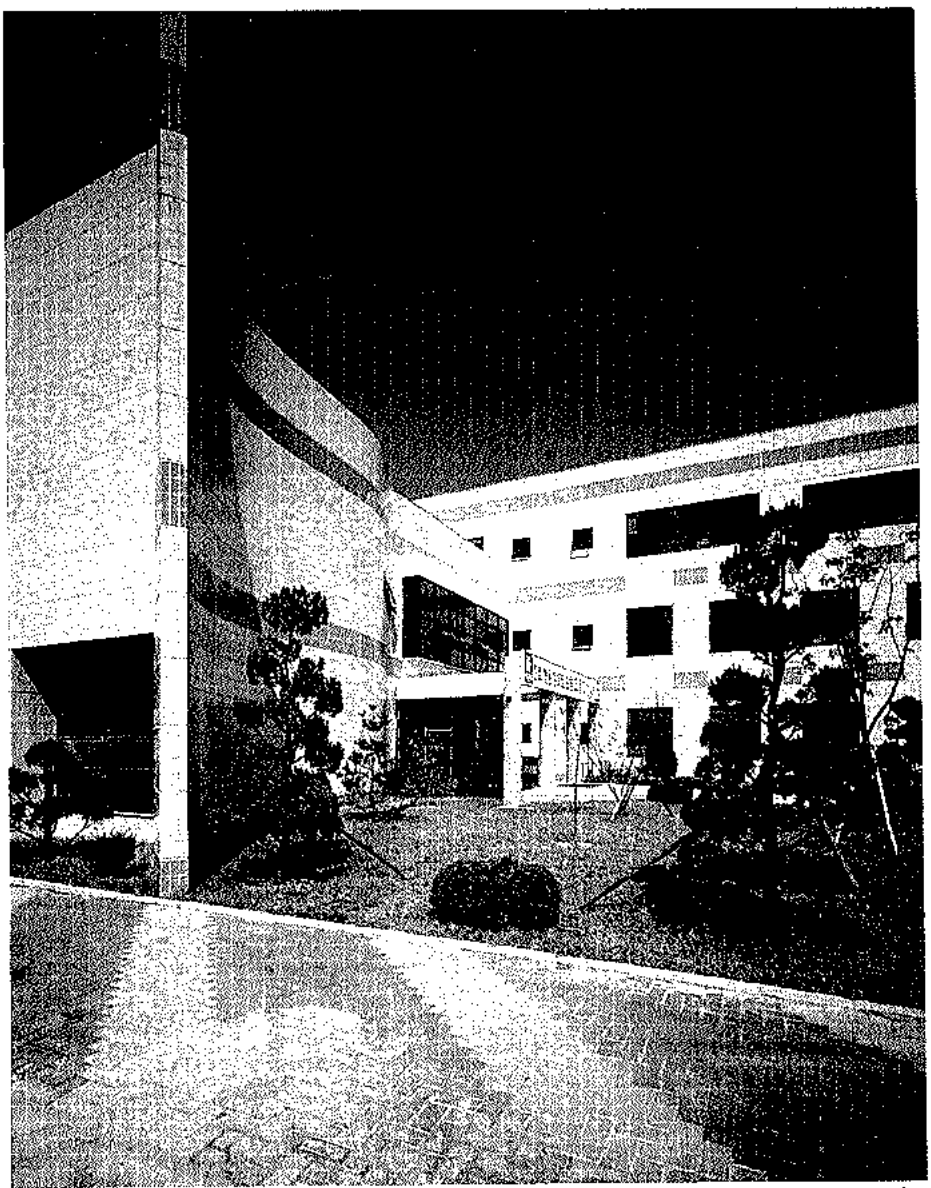
❶

대지위치/경북 구미시 공단동 코오롱공장내
대지면적/693,320㎡
건축면적/1,789.3㎡
연면적/5,262㎡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R.C조, Stl Pipe Truss
외부마감/녹색 자기질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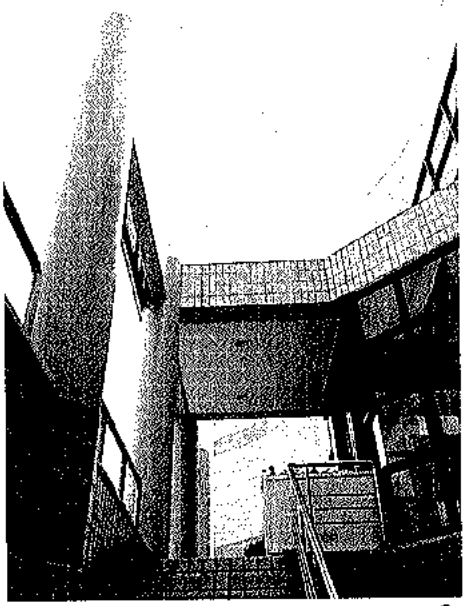


❷

崔寬泳/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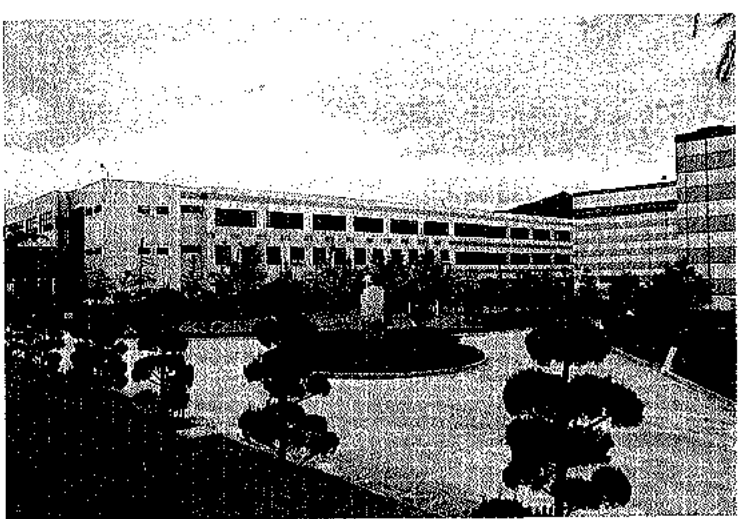


❸



❷

❶ 연결브릿지측 전경
❷ 배치도
❸ 전시장외관상세
❹ 북측진입로에서 본 전경
❺ 전시장 출입구 캐노피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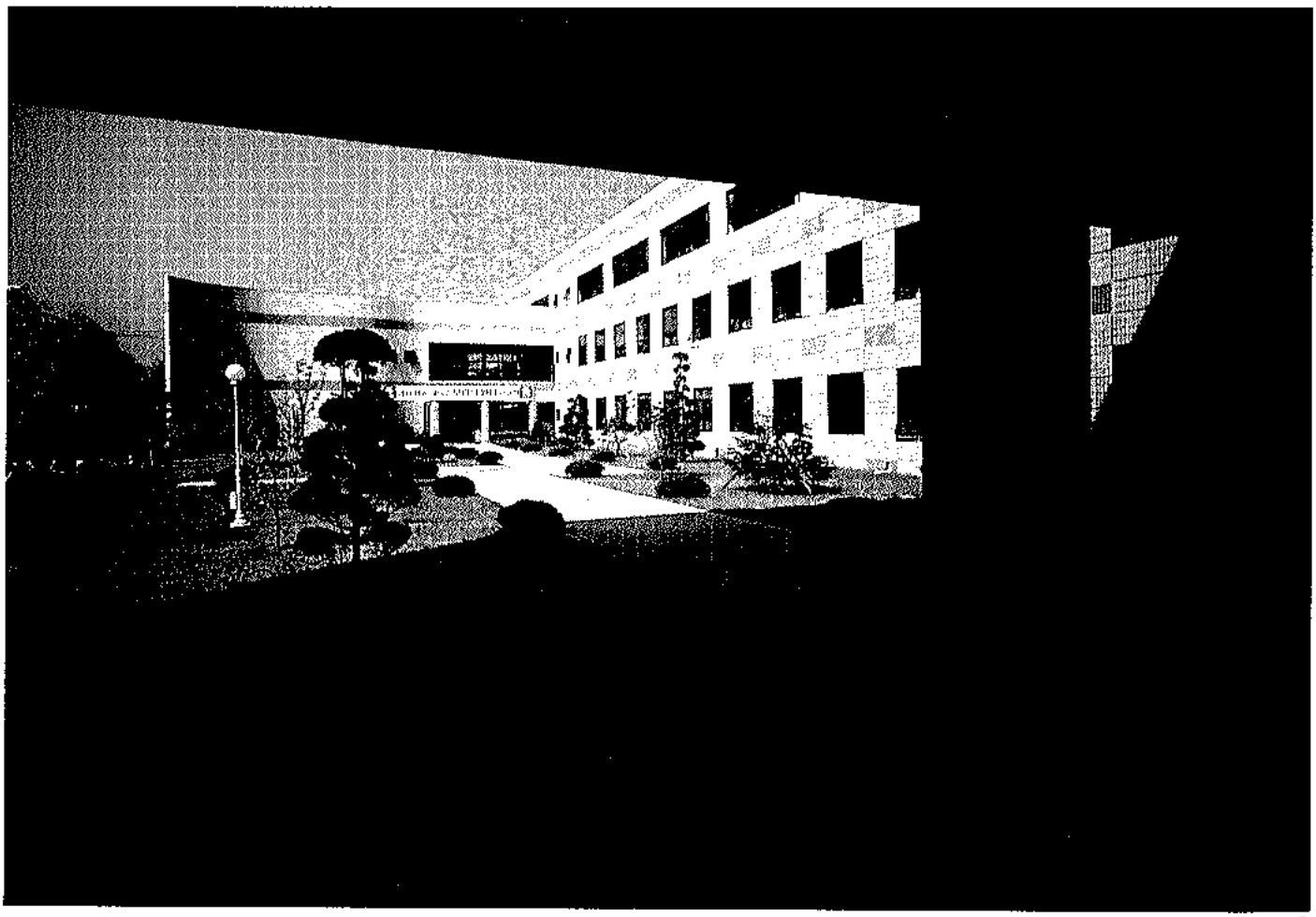
■ 설계소묘

본 연구소는 (주)코오롱의 광대한 구미공장 부지내의 잿빛 공장건물들 사이에서 사원복지회관인 '우정관', 기숙사 및 식당 등의 후생시설들과 함께 활기차고 친숙한 모습이 기대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연구소의 증축요구에 따라 87년 연구소 Master Plan과 함께 사무동과 연구동 일부에 대한 1차증축이 이루어졌고, 89년에 이르러 2차증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미 설정된 기존의 공단내 서비스도로가 기존 연구소와 증축부지 사이를 관통하고 있어 기존과 증축분과의 연계 방법이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중요한 설계상의 쟁점이었다.

병렬형으로 배치된 기존 연구소를 대칭으로 가르는 진입축을 설정하고, 그 정면에 사무동을 배치하여 Terminal Vista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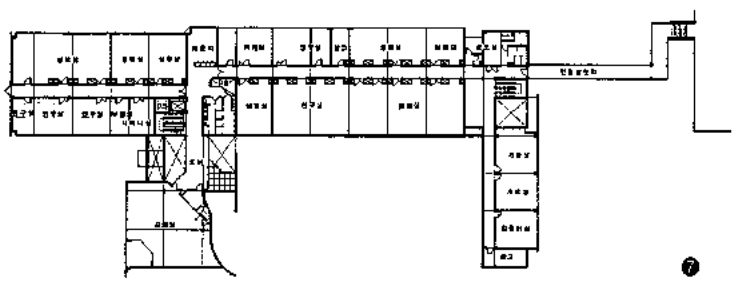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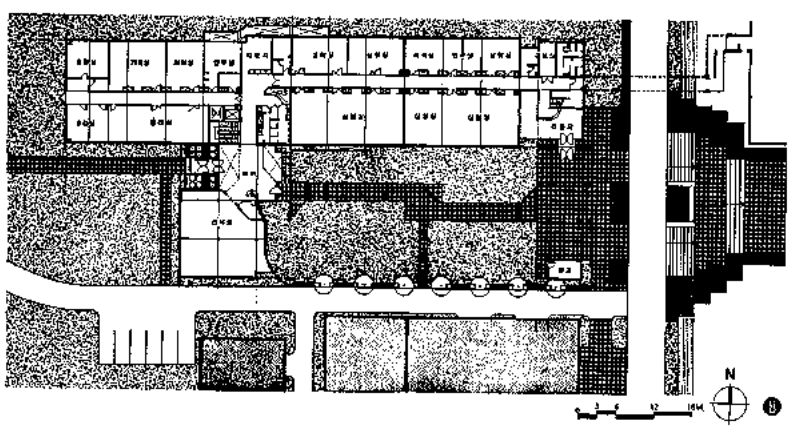
연구소건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간적 구획을 의도했다. 그와 동시에 사무동 하부를 필로티로 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중정으로의 역동적인 공간연계를 꾀함으로써, 폐쇄와 개방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연구소의 독자적 분위기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연구소와는 서비스도로를 가로지르는 철제 프레임 Bridge로 원활히 동선 흐름을 유도하였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부각된 점은, 몇차례에 걸쳐 증축이 이루어질때 애초의 개념을 마지막까지 일관된 하나의 흐름속에서 유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건물배치나 Mass에 있어서는 Master Plan에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조형성을 부여하는데 주력했으며, 우정관과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2차 증축시 짙은 녹색의 수평띠를 입면에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증축부분에도 부분적으로 모자이크하여 요소의 통일을 기했다. 이전에 미비했던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던 점은 증축설계만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증축 설계에서는 이전의 무질서한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고 기존의 질서를 이해함으로써 이를 유지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설계자의 의지가 최종 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축적으로 느껴지게하는 Project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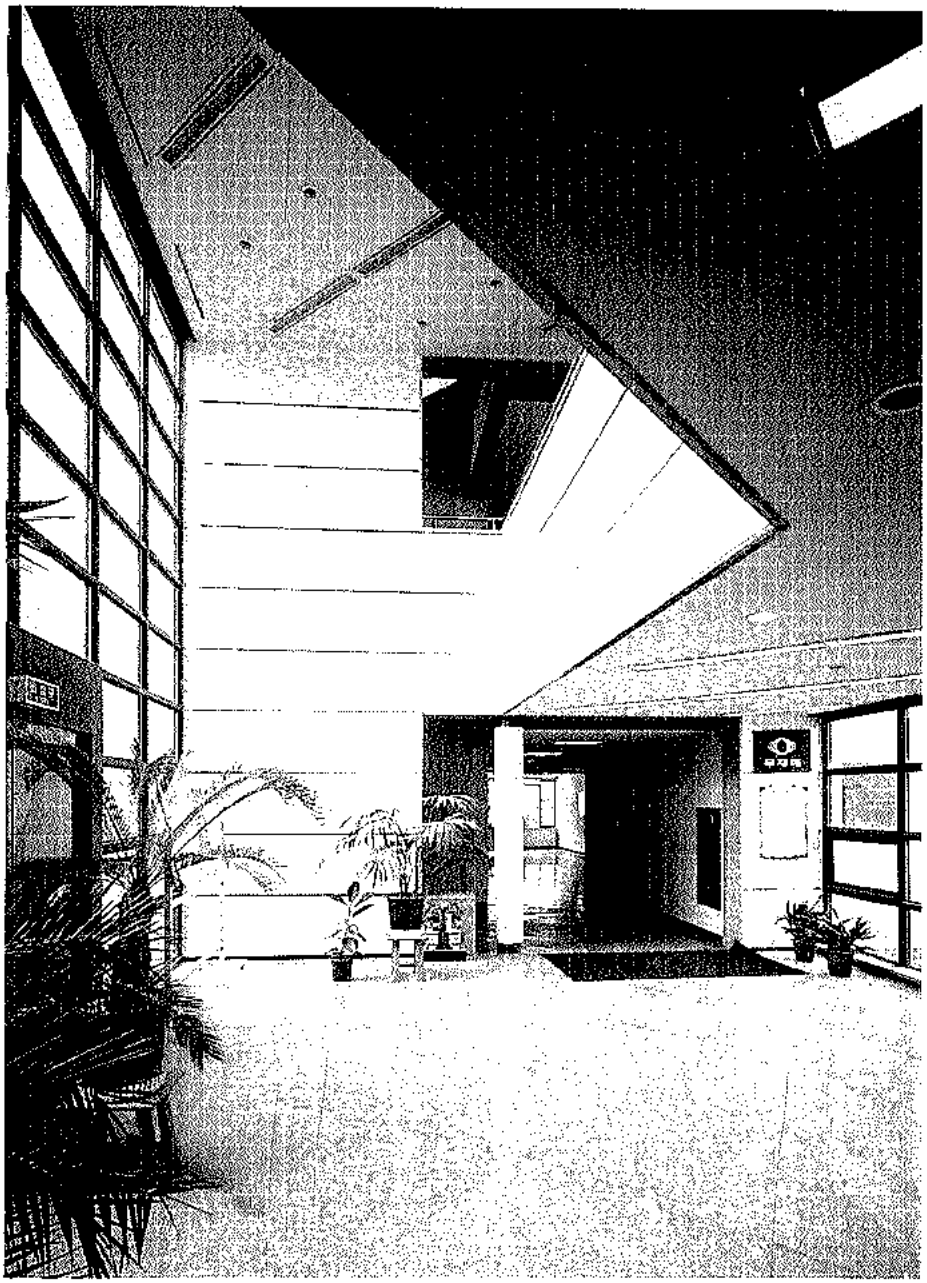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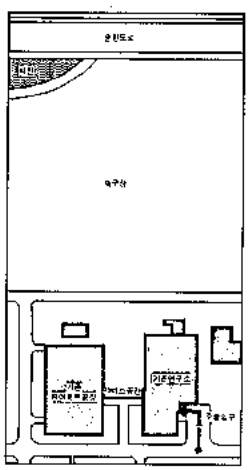
❽

❻ 필로티 내부에서 본 중정부
❼ 2층평면도
❸ 1층평면도
❾ 서측로비
❿ 연결통로 내부전경
⓫ 증축에 따른 대지 및 입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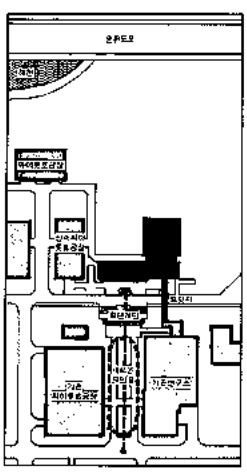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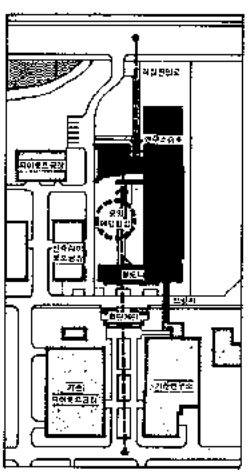
❿



기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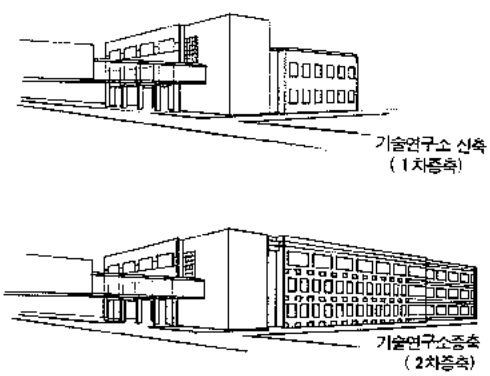


기술연구소 신축(1987)



기술연구소 증축(1989)

증축에 따른 입면의 변화,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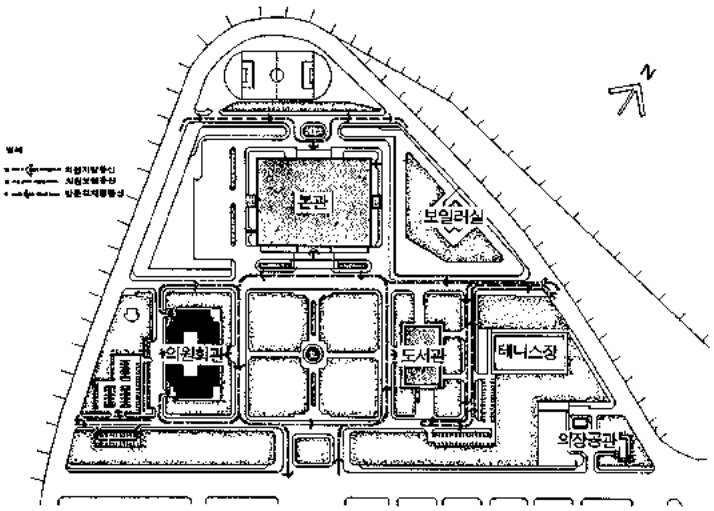


⓫

국회의원 회관

National Assembly Office Bldg.

❶



❷

李永熙+李錫文/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 Lee, Suk-Moon

■ 설계소묘

• 배치계획

기존 의사당과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부지 성격상 좌우대칭의 중심축이 강조될 수 있도록 중앙광장 좌측에 배치하여 의원회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표출시켰다. 아울러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보·차동선의 접근용이를 고려하고 전·후면 동선의 성격을 구분하여 전체부지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하였다.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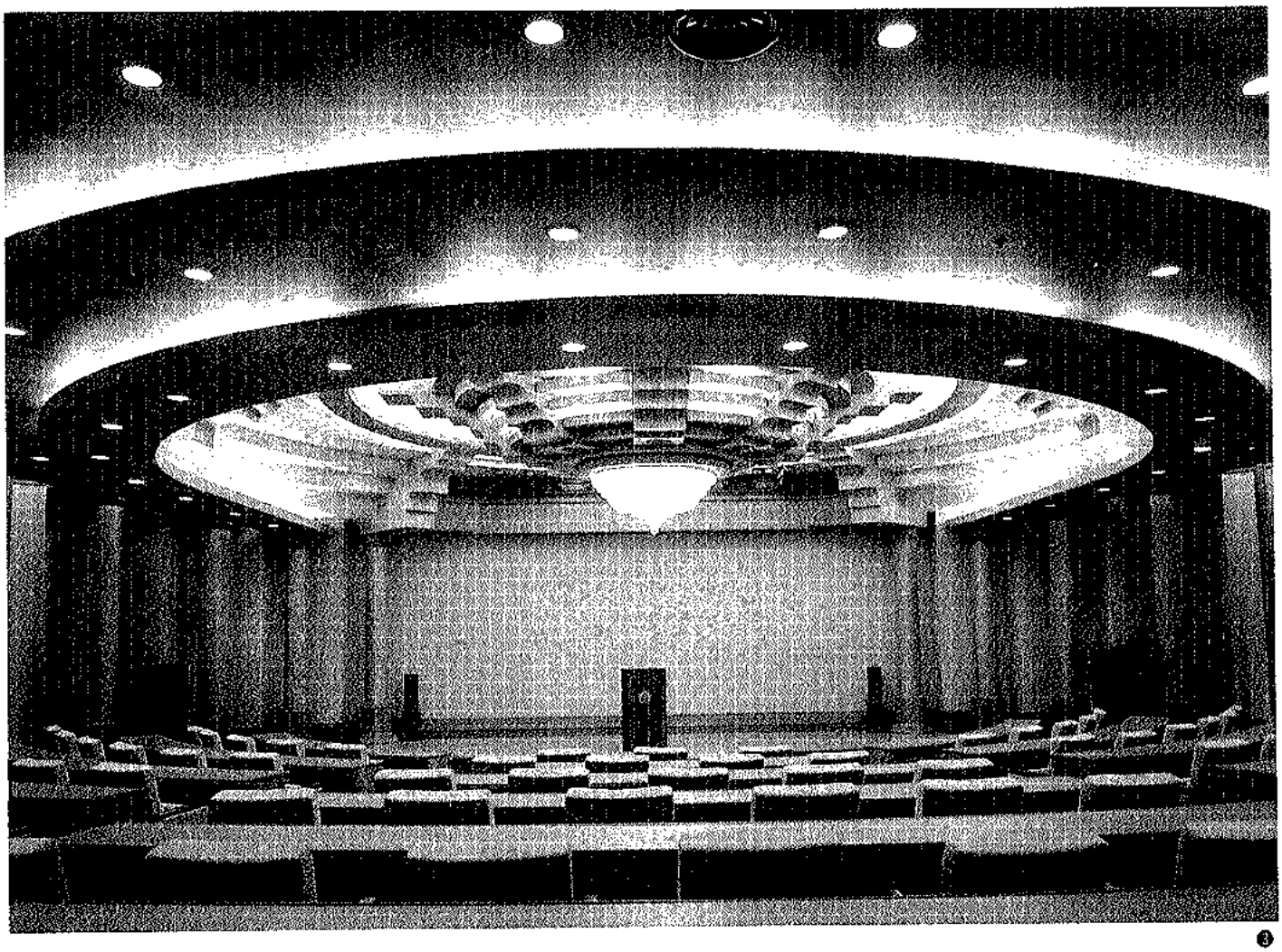
지하1층 건물후면에 직원 및 방문객의 출입구를 두었고, 의원은 1층에 전용출입구를 이용케 하였으며, 2~7층에 의원실을 계획하였다.

본 회관건물내의 중정 2곳은 적절한 조경계획으로 이용자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옥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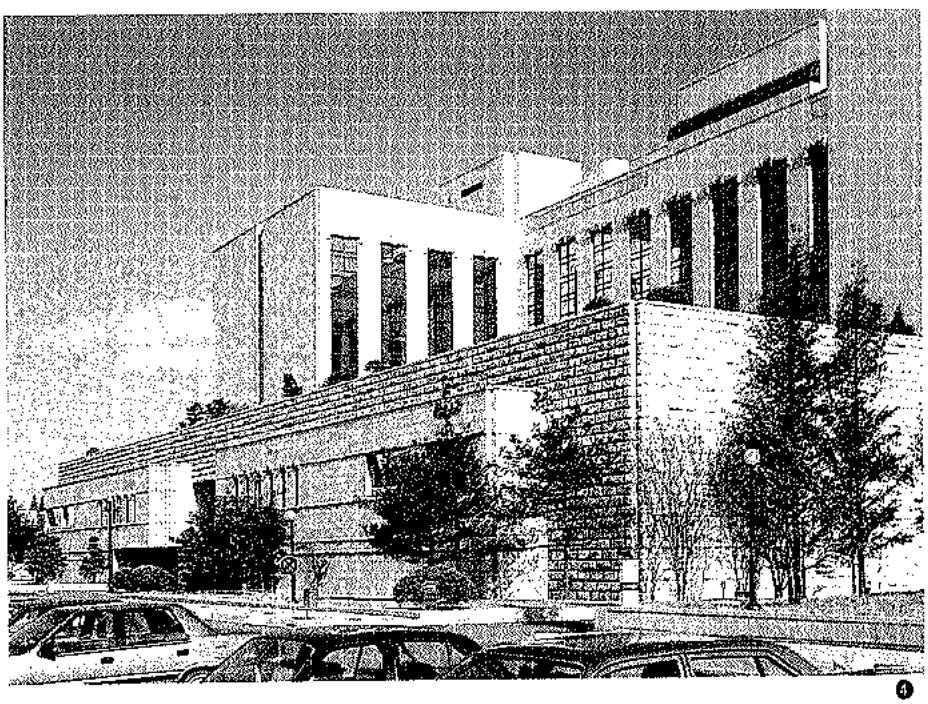
• 입면계획

의사당 전체 경관을 고려하여 본관과 도서관, 의원회관이 잘 조화되도록 외적비례 및 외부마감, Sky-Line의 조화를 도모하여 의원회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주요 외부마감재는 화강석과 반사유리를 선택하여 의원회관 건물의 품위를 유지하며 아울러 현대적 감각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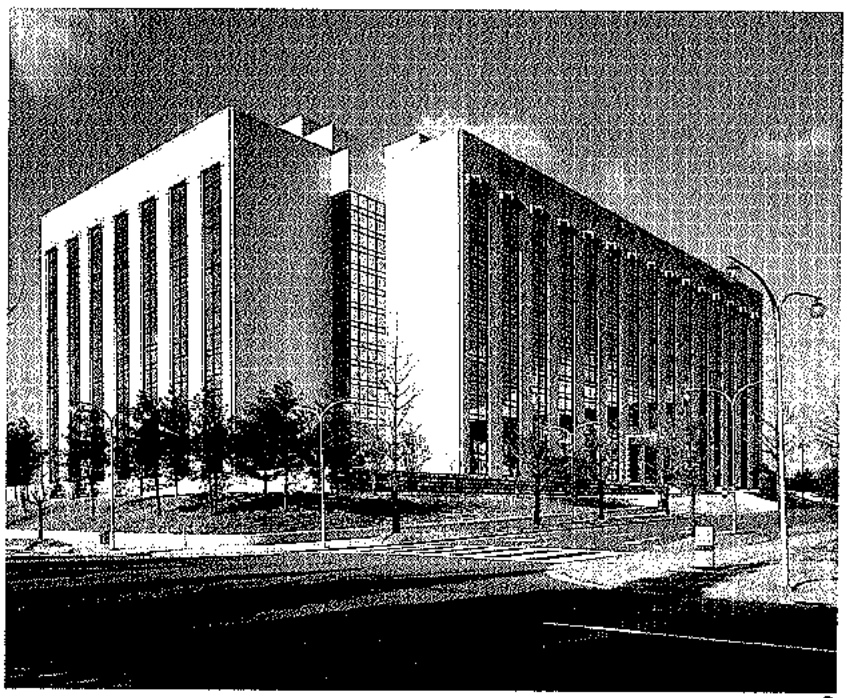
❸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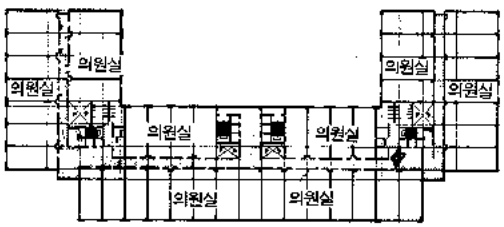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지면적/330.58㎡
건축면적/7,769.77㎡
연면적/57,198.26㎡
건폐율/12.19%
용적률/38.02%
규모/지하 2층, 지상 8층, 옥탑 2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화강석 버너구이+반사복층유리

❶ 전경
❷ 배치도
❸ 중회의실 전경
❹ 배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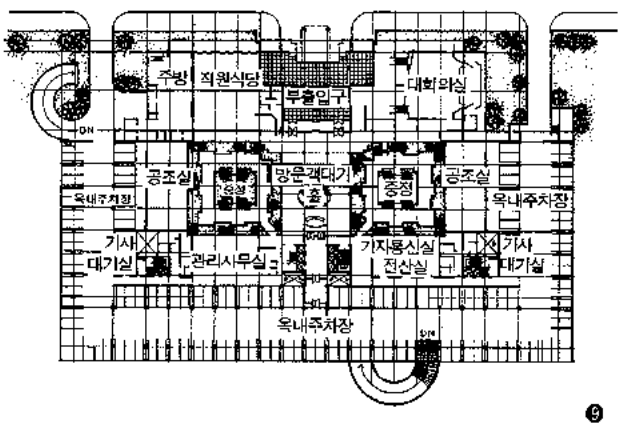


❺

❺ 측면전경
❻ 식당내부
❼ 대회의실내부
❽ 기준층평면도
❾ 1층평면도
❿ 지하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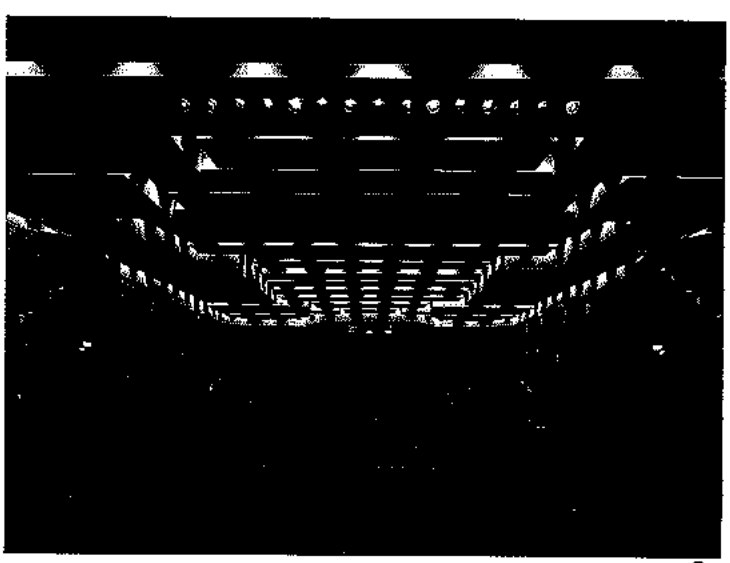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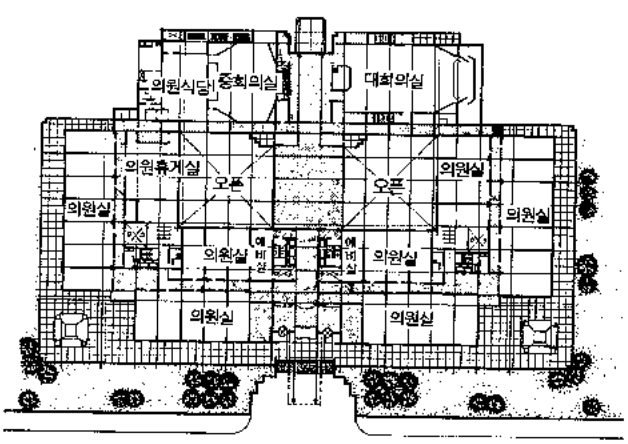


❾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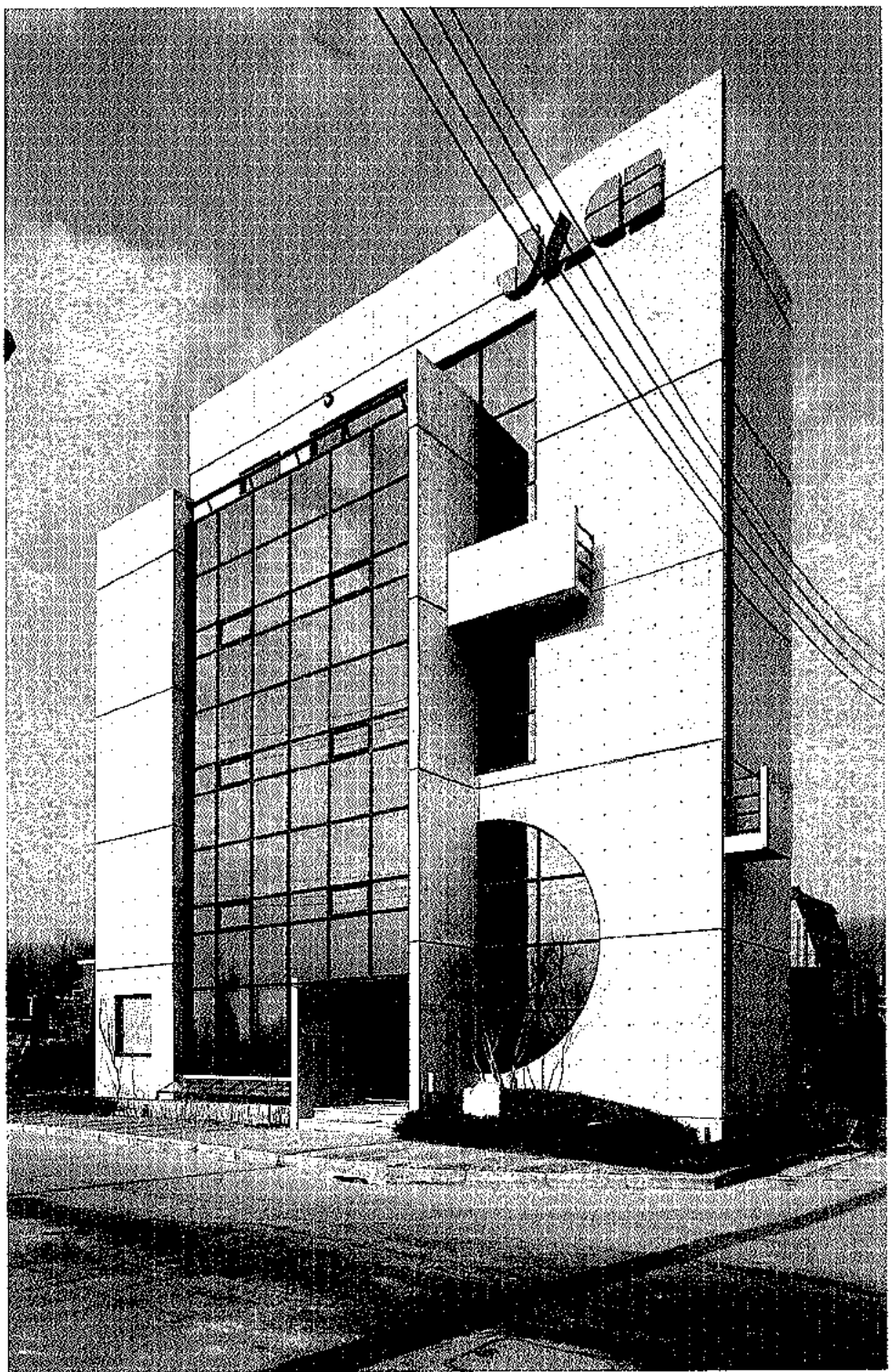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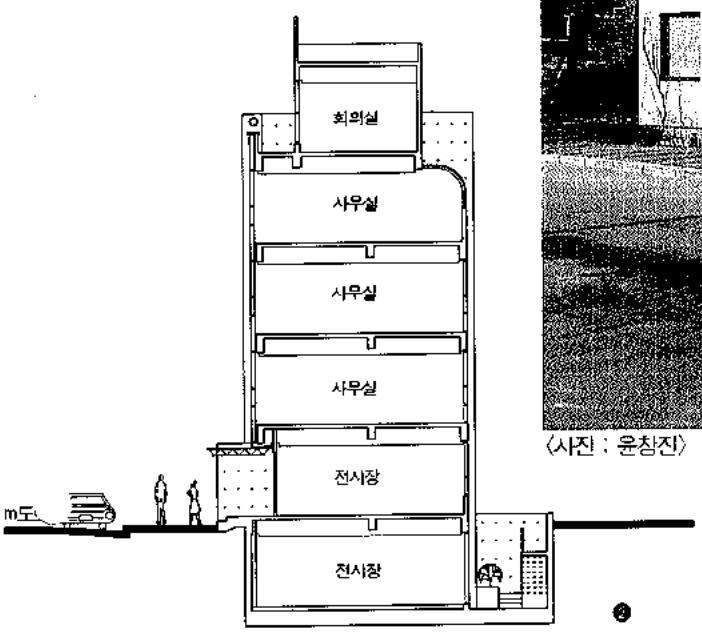
⓫

중원빌딩
JACE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대지면적/200㎡
건축면적/95㎡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외부마감/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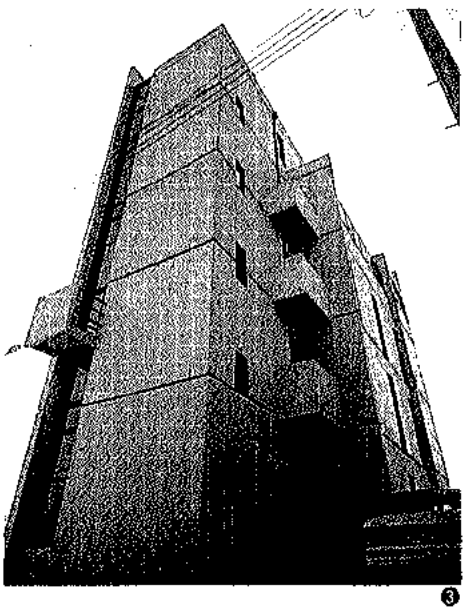
〈사진 : 윤창진〉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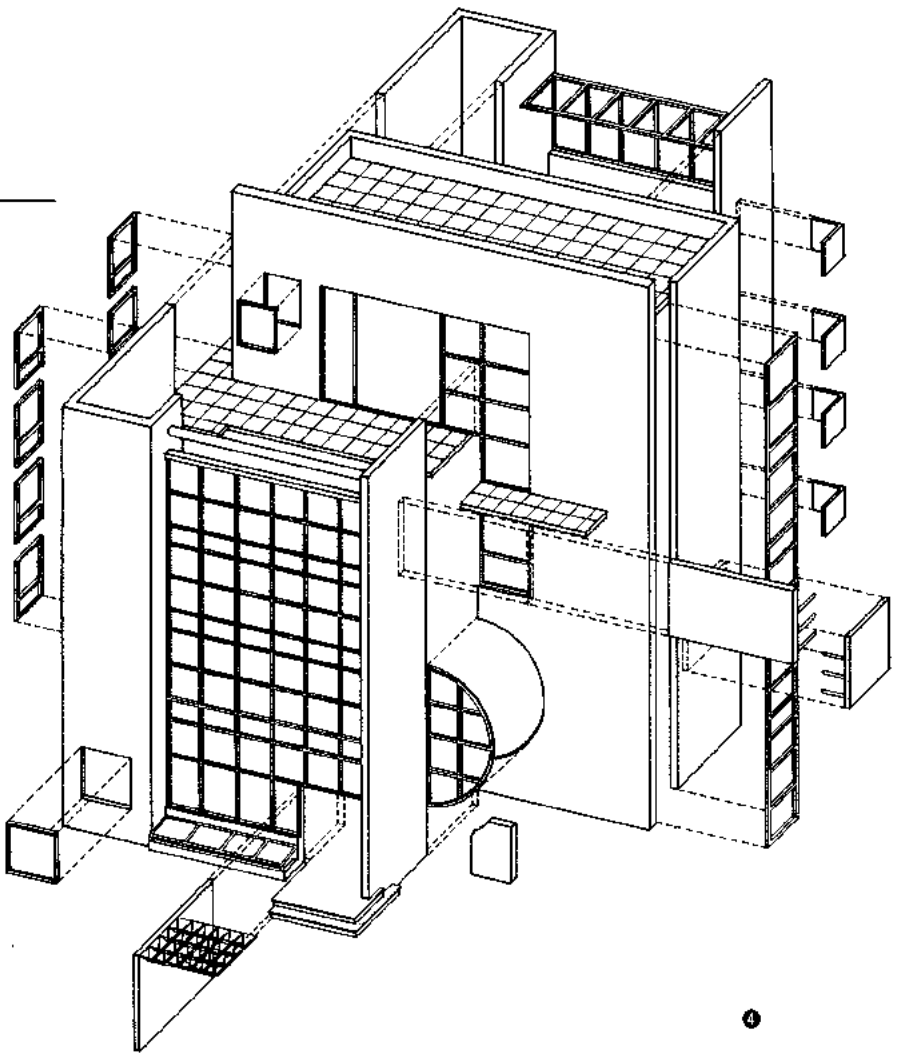
❷

金洛中+趙大熙/(주)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Designed by Kim, Nak-Joong & Cho, Dae-Hee

❶ 전경
❷ 단면도
❸ 측배면전경
❹ 엑소노메트릭
❺ 지하출입구부분
❻ 주출입구상세(야경)
❼ 사무실 내부
❽ 1층계단실
❾ 계단실상세
❿ 배치 및 1층평면도



❸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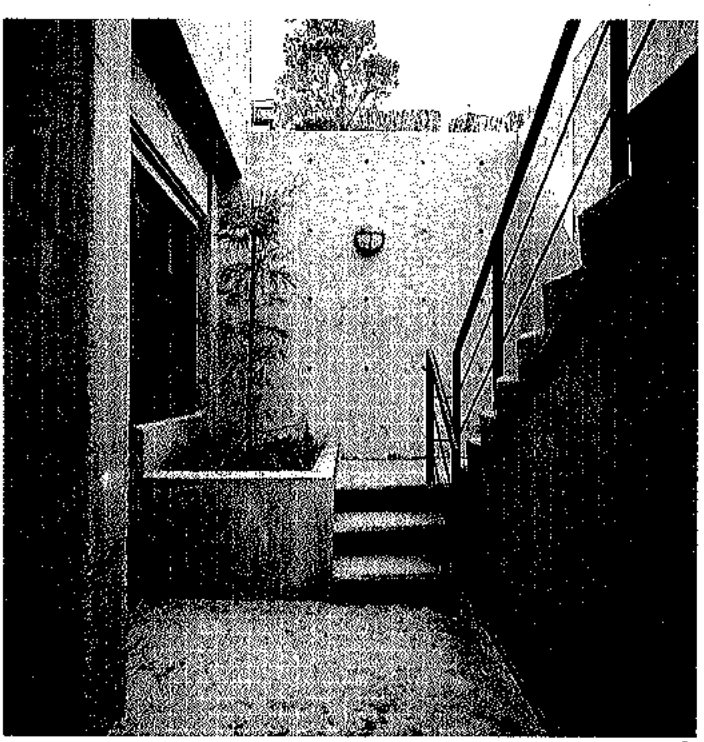
■ 설계소묘

양재동 "시민의 숲"에 인접한 이 건축물은 남쪽으로 작은 내(川)와 숲이 펼쳐져 있는 전망이 툭 터진—도심에서는 그나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심지에 있어 이런 입지조건이란 혜택받은 경우라 하겠으며 이러한 주위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의 목표를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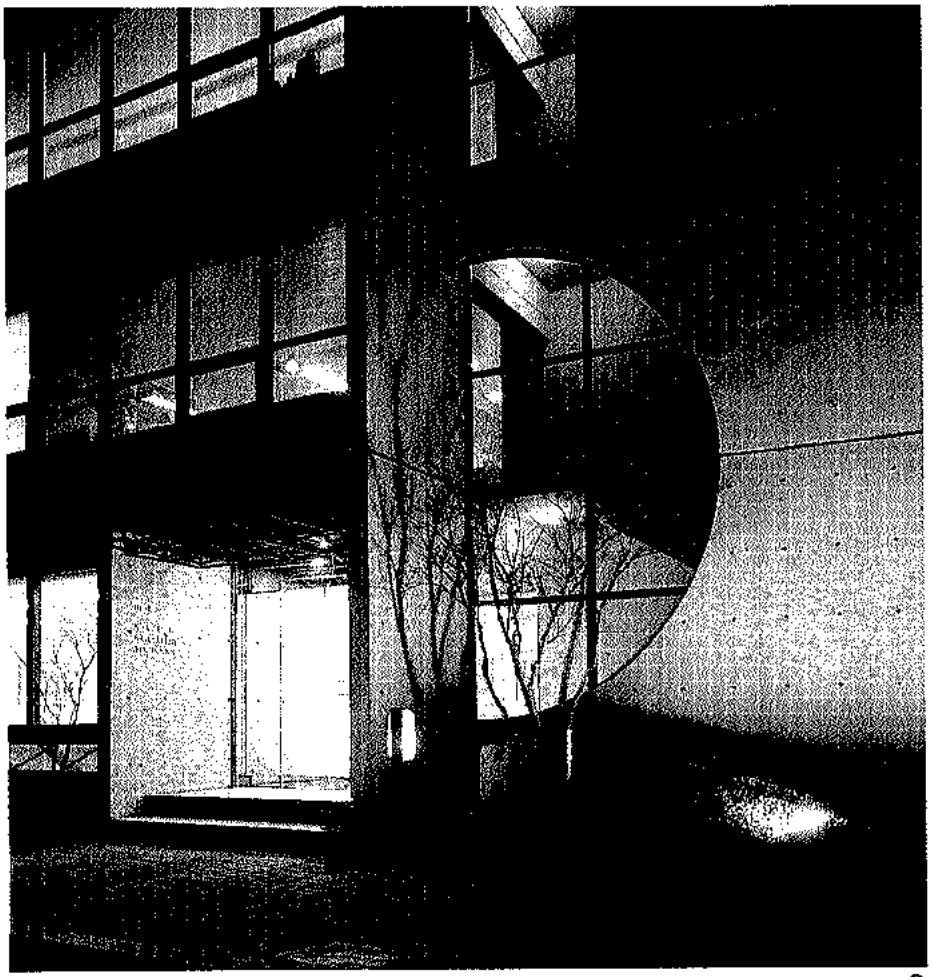
자연환경과 이 환경을 제어하는 벽, 이것이 이 건축물의 주제의 하나이다. 벽은 내외부를 구분하는 동시에 전망을 제어하는 필터 역할을 하며, 주요건축형태 어휘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건축가는 벽에 개구부를 설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바라본다는 원초적 행위를 제어하며 또한 이것에 의해 조형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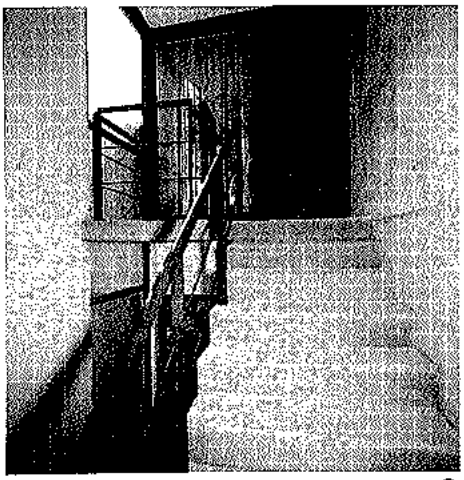
즉, 이 건축물의 기본주제의 하나는 "전망좋은 방"을 지닌 건축물이며,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재료와 조형의 순수함이다. 자연에 어울리는 흙, 돌, 콘크리트, 철, 유리같은, 자연에서 추출된 기본 건축재료와 그 재료에 의한 솔직한 표현, 그리고 원, 삼각형, 사각형같은 순수한 기본도형에 의한 가식없는 형태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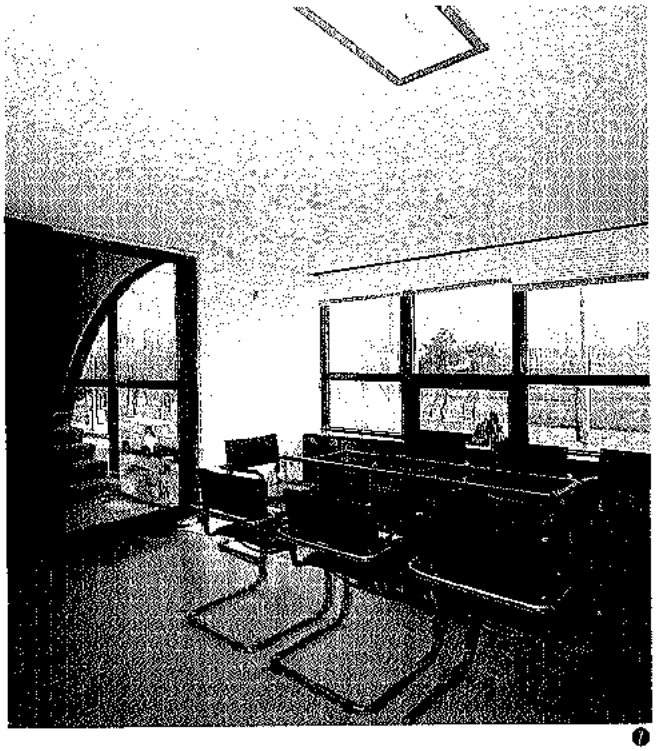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화장기 없는 건강한 피부의 美人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이 이 건축물을 구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온 것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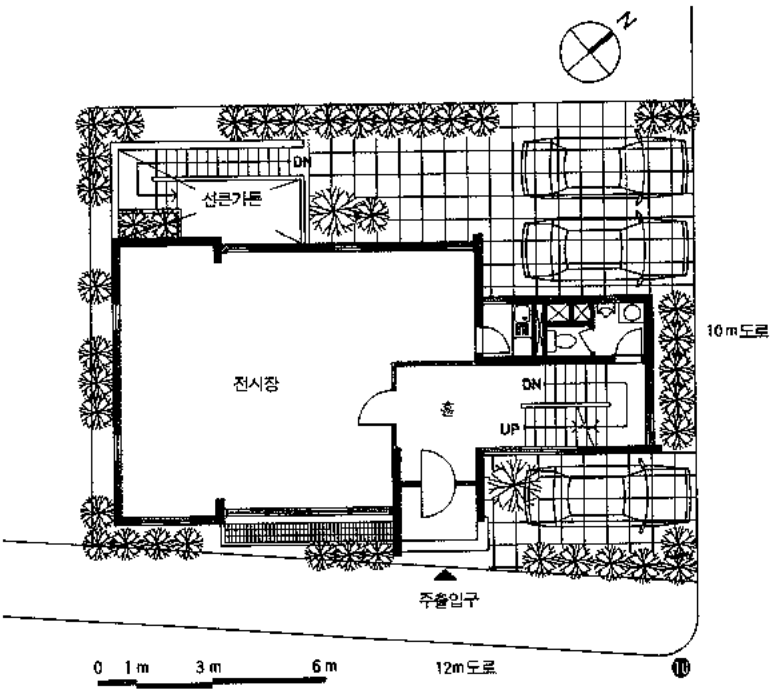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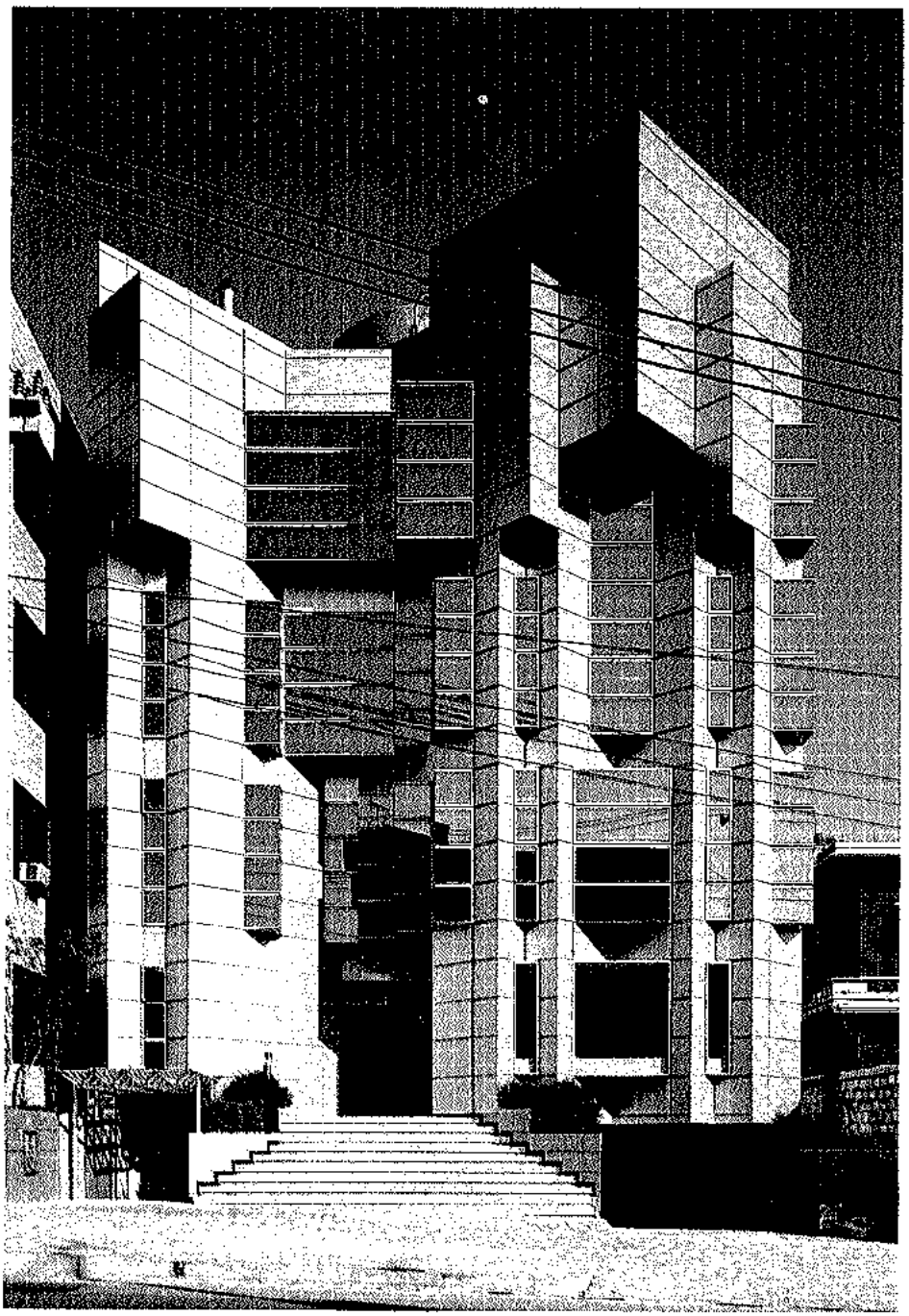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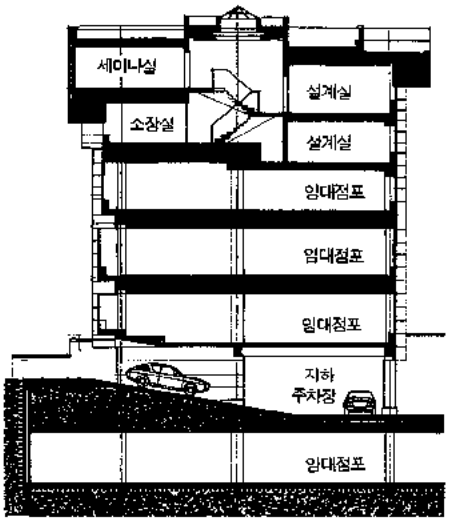

N
DN
상른가든
전시장
홀
DN
UP
10m도로
주출입구
0 1m 3m 6m
12m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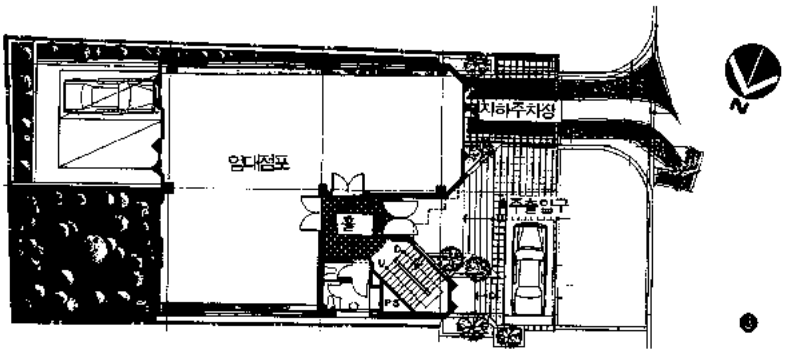
성림빌딩

Sunglim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5-9
지역 · 지구/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4종미관지구
대지면적/396.6㎡
건폐율/48%
용적률/250%
건축면적/196.6㎡
연면적/1,467.03㎡
규모/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4THK 알미늄복합패널,
18THK 복층유리(CTS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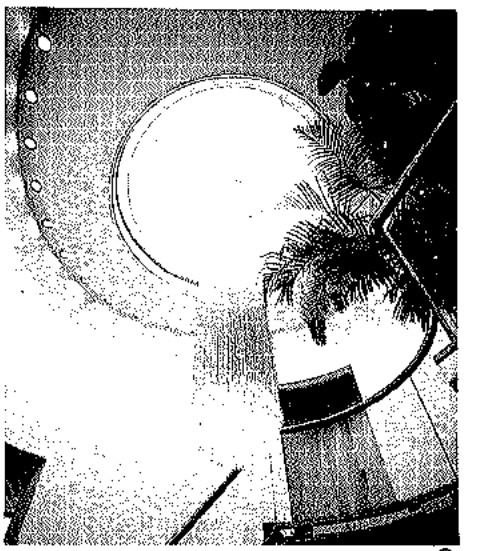






林長烈/(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im, Jang-Ryul

❶ 전경
❷ 단면도
❸ 배치 및 1층평면도
❹ 실내중정
❺ 4층 원형지붕 홀
❻ 주출입구측 상세
❼ 사무실 내부 전경



■설계소묘

본 대지의 전면에는 강남구청에서 선릉 쪽으로 연결되는 폭 25m의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어 교통상 잇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교통량이 도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폭주하고 있어 업무차량이 노선변에 일시적이나마 주·정차할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협소한 대지 내로 차량을 모두 흡수해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 발견되었다.

다행히 전면의 도로가 대지경계선을 따라 경사진 관계로 1층 바닥을 조금 들어올려 반지하 주차장을 배치함으로써, 손쉬운 주차진입이 가능하였다. 전면의 주진입은 지하층 별도진입과 1층의 주진입으로 구분하여 진입동선 간의 혼란을 막고, 전면에 진입대기공간을 전체적으로 확보하여 여유감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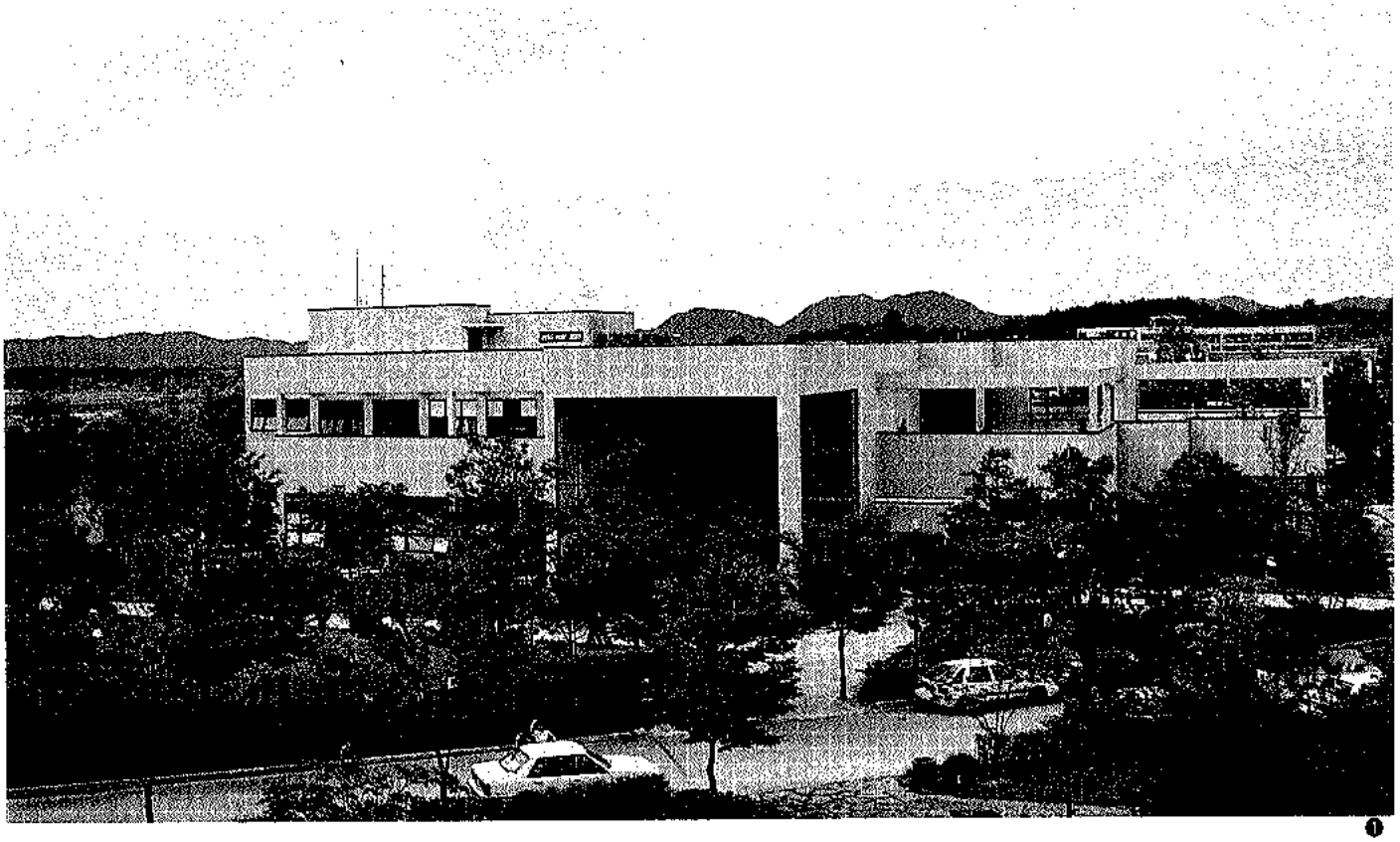
사선의 전면 형태가 보여주는 것은 평면의 구성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실내계단의 삼각형 계단참은 조금 야박스러울 정도로 바닥면적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에서였으며, 각 층 홀의 안내공간은 콤팩트하게 구성하여 불필요한 공간의 손실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3층 이상의 상층부 평면은 설계실 전용으로 할애하여 층고를 2.15m~2.45m 범위에서 각 실별로 가변성을 주어 실내공간의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특히, 4층 원형지붕의 홀(rotunda)은 천장 유리돔 밑에 샹데리아를 설치하여 밤하늘을 배경으로 찬란한 정삼각형 모듈의 반사체로서 하늘을 향해 무한히 뻗어나는 '성림'이고픈 기백을 연출해 본 것이다.

입면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의 재발견을 위하여 산고를 치른 구성이다. 물론 평면의 합목적성에 의해 발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의도적인 구성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표피재료에 의한 감각적 변화보다는 평면적 형태구성에 의한 구조적 변화가 시공의 영속성에 부합하는 절차라 믿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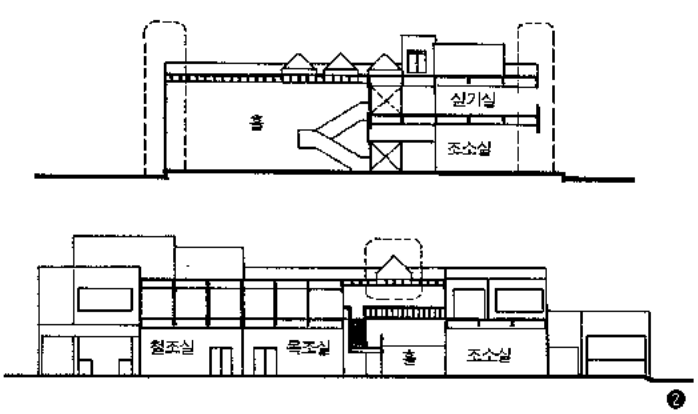
중앙대(안성캠퍼스) 조소과 실습동

Chungang Univ.(Anseong Campus) Dept. of Carved Clay Model Bldg.



❶

대지위치/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내리
대지면적/7,736㎡
건축면적/1,218.24㎡
연면적/1,972.95㎡
구조/철근콘크리트조
규모/지상 2층
외부마감/드라이비트



❷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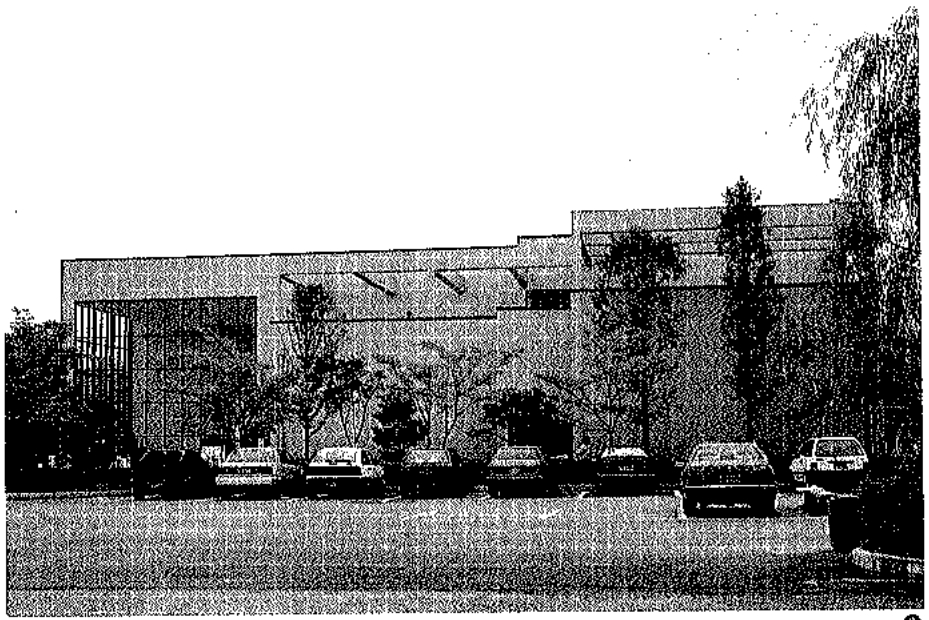
조소실습은 하나의 형태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조소가 갖고 있는, 공간속의 채워져 있는 조형물과 더불어 조소를 통하여 외부와 내부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관된 공간을 표현하고저 하였다. Frame과 가벽의 연속된 리듬에서 숨겨져 있는 중간공간의 의미를 파악코저 하였으며, 전체로서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코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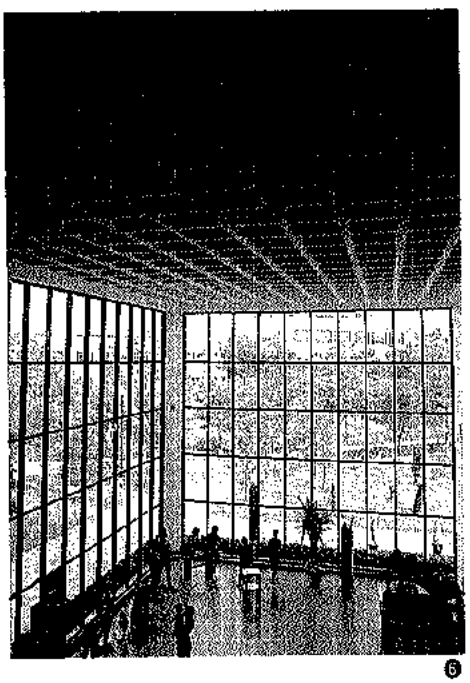
주 홀부분의 높은 천장을 가진 전시 Space에서는 여러가지 실습실의 행위가 한곳에 수렴코저하는 의욕을 표시하도록 유리와 그 유리의 Grid를 연상케하는 격자보 천정노출을 상관시켜서, 가장 융통성 있고 제한성이 없으면서도 또한 규정되어진 내부공간을 형성하되, 이 내부공간이 외부의 야외 조각·조소 전시장과 투명성을 갖고 교류하여서, 정원과 집안의 알맞은 조화를 이루어 보고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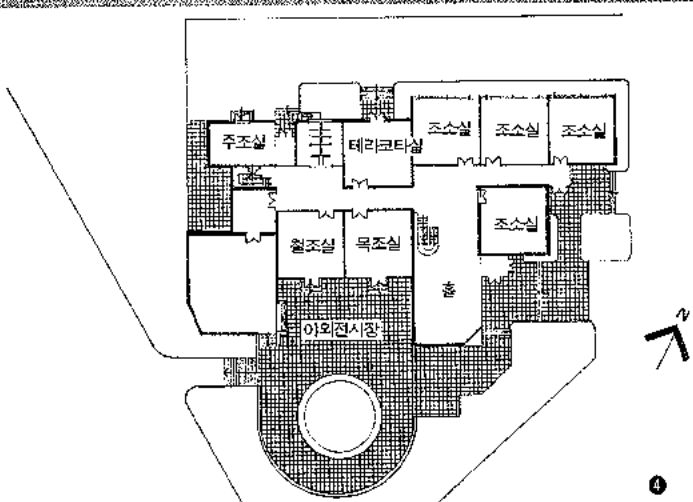
각 부분에는 테라스와 하늘이 보이는 가짜보(Frame)를 서로 엇갈리고 엮어감으로써 우리 건축에서의 지붕없는 Space와 재미에의 호기심을 나타내려고 하였으며, 일부러 단조로운 색조를 선택함으로써 아무 것도 없는 무장식의 장식적 의미를 음미하였으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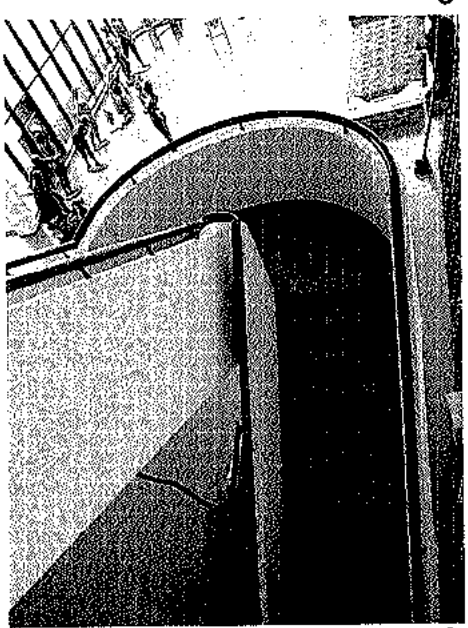
하늘이 저리도록 파랗게 보이는 가을날에 단조로움과 햇빛에 의한 까만 그늘에서 건물의 의미가 돋아보이면서 애정을 주는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였다.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Group-3









❶ 전경
❷ 단면도
❸ 측면전경
❹ 배치 및 1층평면도
❺ 전면외벽상세
❻ 내부 전시홀
❼ 내부 연결계단

공간의 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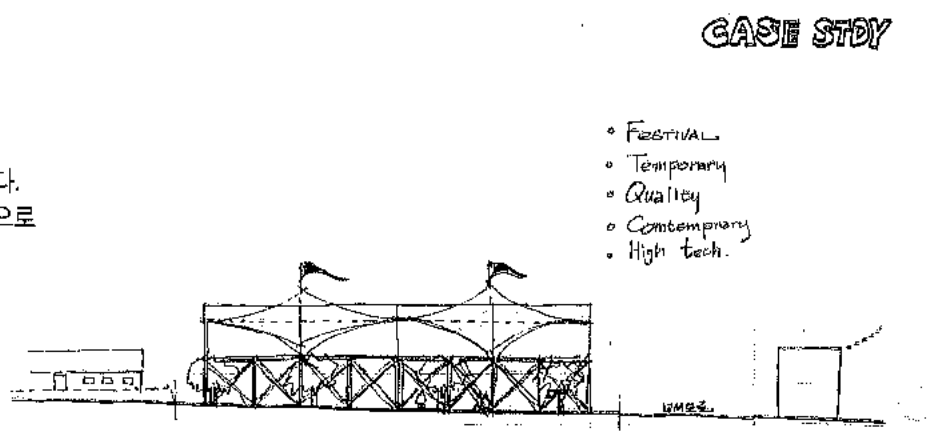
작곡가의 휘파람,
그 느낌을 피아노 건반으로,
해서 정리된 것을 악보에.

그렇다면 여기 스케치들은 그저
휘파람 소리거나 낙엽위의 메모.
오선지에 정리할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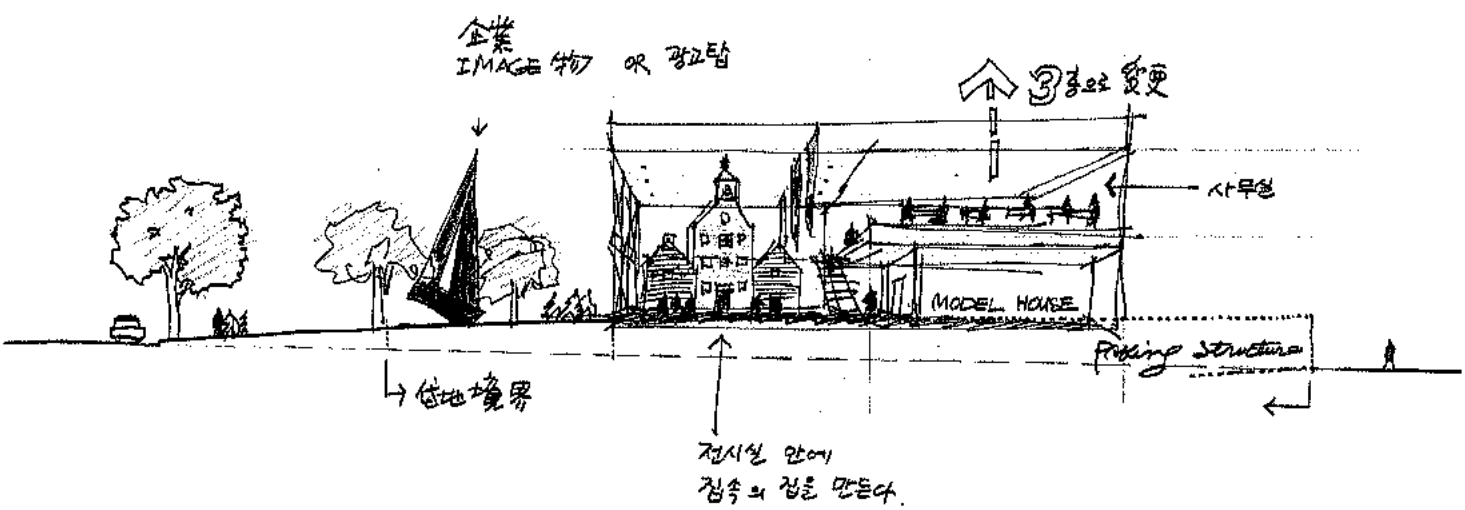
우선 마음이 가볍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가설건축물—휘파람같다.
건축에 대한 평소의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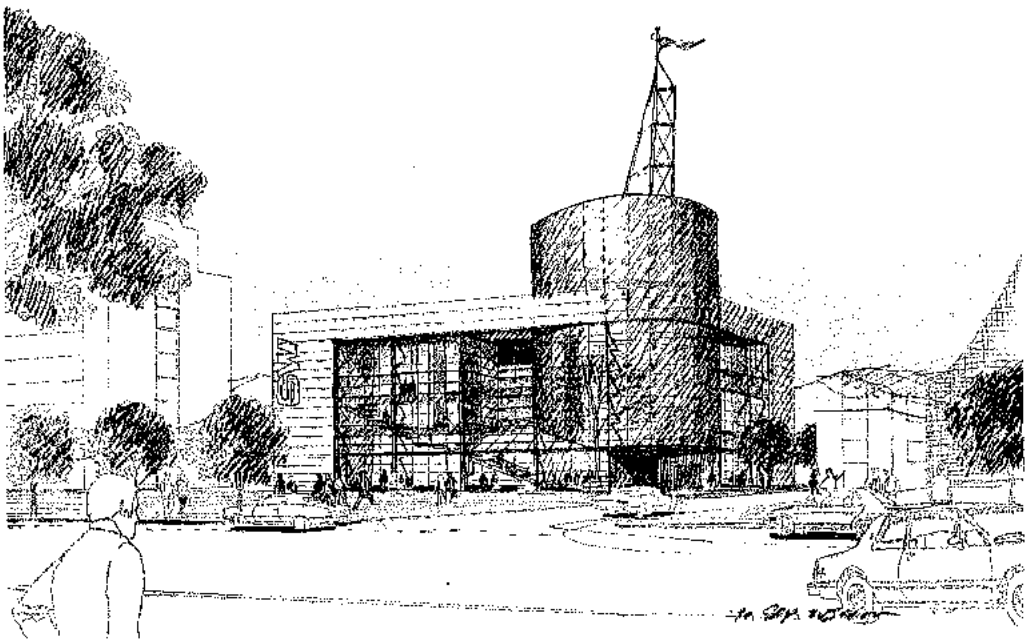
허나 늘상 굴레를 못 벗는다.
굴레는 내가 스스로 씌운 것이다.
머리와 손끝이 각각 따로 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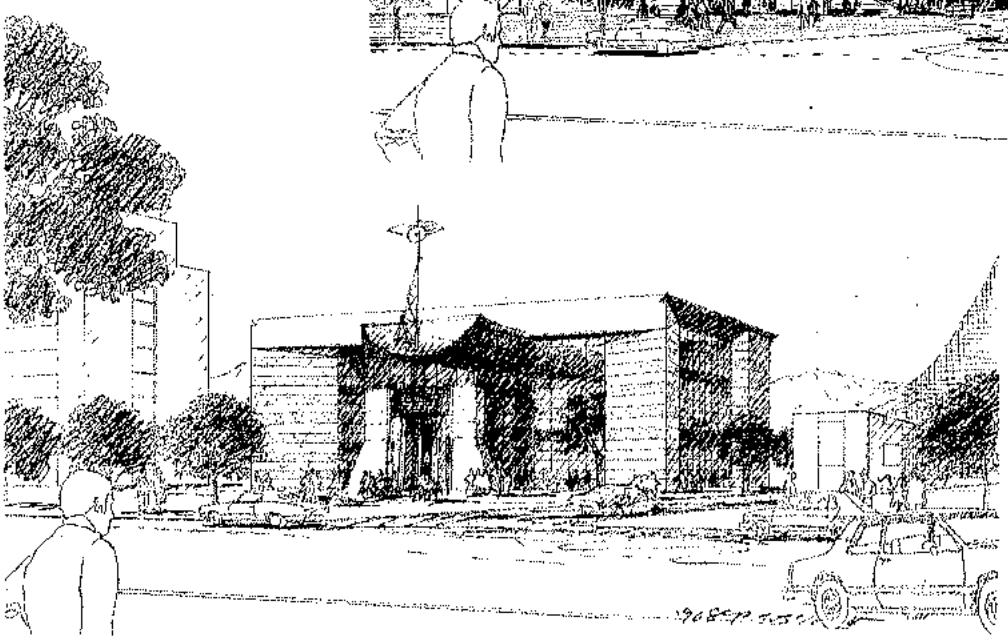
항상 좋은 눈요기의 스케치가 좋은 질을 낳지 않는다.
정말 좋은 생각, 해보고 싶은 것은 손끝으로, 혀끝으로
표현이 안되어 엉킨 실처럼…… 안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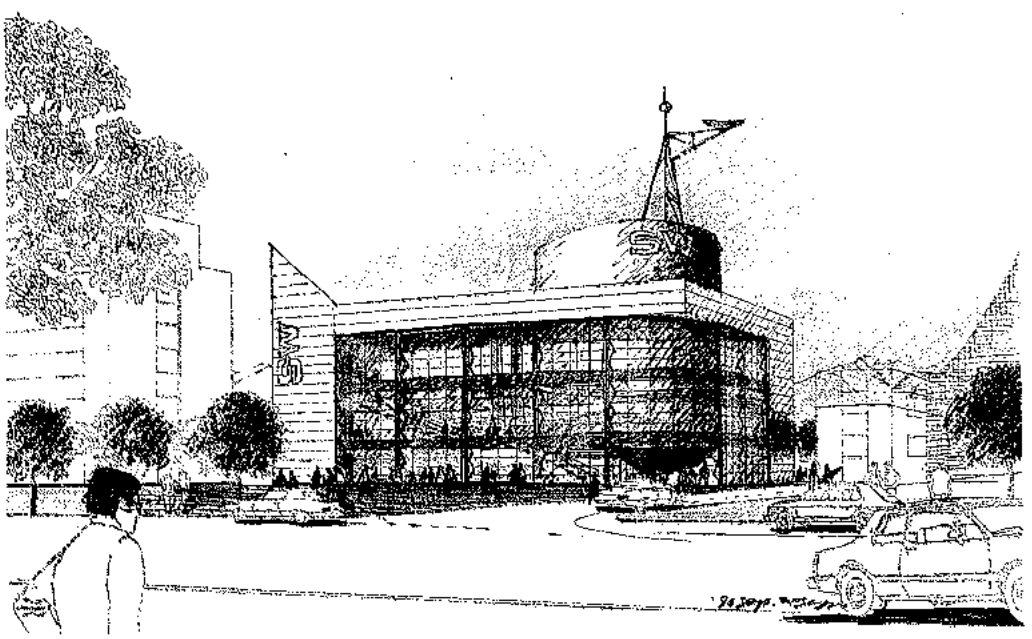


兪元在
건축사사무소 디건축









KOREAN ARCHITECTURE EXHIBITION 1991

'91 한국건축전

건축사 작품공모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출품작품
'88~'91.1월중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 작품

■ 작품규격
90cm×90cm 규격의 패널 2~4매
(패널에 유리 및 모형 부착을 금함)

■ 시상
- 대상(1) : 국무총리상/상장 및 트로피
- 최우수상(1) : 건설부장관상/상장 및 트로피
- 우수상(3) : 협회장상/상장 및 트로피

(수상작품의 건축물에 수상기념패 부착)

■ 기타 자세한 것은 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2)581—5711~4

대한건축사협회

우리建築의 反省과 21世紀를 向한 對備

特輯을 시작하며

건국이후 일어난 우리 건축환경의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성장과 변혁의 규모와 같이 엄청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의 다양화와 산업기술의 발달에서 비롯된 다양한 표현방식의 형성 등, 양적인 면에서의 놀라운 성취를 이룩하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급속한 수요의 확대에 따른 단순 대응으로 물량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건축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무분별한 외국의 양식을 모방한 無國籍의 표정으로 표피적이고 즉흥적인 환경을 가꾼 부분도 감출수 없는 사실로써 우리의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今世紀를 마무리하고 21世紀의 길목에서 선 辛未年을 맞아 그러했던 지난 시대을 問題占을 점검하며 겸허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21세기를 향한 우리建築의 새로운 位相을 再定立할 時點에 놓여 있다.

本誌에서는 이러한 時代的 요청에 부응하고자 본 특집을 기획하여 우리 건축계 重鎭들의 意見開陳을 통해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現代建築의 反省	金熙春
우리建築環境의 反省	安秉義
專門化, 國際化와 우리의 現實	蔣應在
우리建築의 現況과 問題點	李範宰
21世紀를 向한 우리의 對應姿勢	成仁洙
갈 길은 멀고 험하다	趙仁淑

現代建築의 反省

金熙春/서울大 名譽敎授

한국건축은 한국 근대사의 비극만큼이나 그 정통성이 계승될 충분한 배양액을 갖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내적성숙이 성취될 겨를이 없이 항상 외적인 의식이 몰아닥쳤고 여하히 그것에 적용하는가에 급급한 과정이 과정이 韓國의 現代建築史를 이끌어온 것임을 이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축세대로의 이행이 시도되어야 할 시점에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도를 제시하는 의무와 권리는 아울러 우리 건축전문가가 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단한 제도와 의식의 개편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현대의 비극

"現代"라고 하는 시대가 갖는 비극의 근원은 技術文明의 進步와 生物體로서의 人間 本然의 要素와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류가 현재와 같은 고도의 기술문명 발전 속에서 그 삶을 영위하게 된 역사는 全 人類史의 과정에서 극히 짧은 최근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西歐에서는 산업혁명이후인 그 짧은 기술문명사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인위적인 문명의 스톡(Stock)은 놀라운 가속도로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과 지혜, 정보 등의 폭발적인 스톡에 대한 제어능력을 상실하고 억압당하고마는 自家撞着의 모순에 빠져 버리고 만 것이다. 이것은 일찌기 중국의 철학자 老子가 주장한 "無爲自然"의 원칙에 거역한 자연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보복의 섭리일런지도 모르겠다. 돌이켜 보면 60년대 초기에 있어서는 풍요로운 "技術文明"시대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긍정적이고도 낙관적인 시대관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이 무렵 선진국 경제성장의 상승세는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세계도처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불안과 개발일변도의 산업기술의 진보주의 및 인구증가와 도시확대화 등으로 야기된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와 결집된 世紀末的 현상은 최근의 동구권의 개방, 화합정책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후에 또다른 비관적인 전망을 예견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의 구체적인 인식은 70년대 초반 지구상의 가속적인 성장과 진보가 갖는 한계가 냉철하게 可測的으로 보여졌고 나아가서는 범세계적 차원의 성장에 대한 "計劃的 제어"의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구의 성장은 늦어도 향후 5~60년이내에 급격한 퇴보의 징후를 보이게 된다는 연구결과로부터 출발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동의 궁극적인 이익과 생존을 향한 성장제어의 노력보다는 오히려 "自國主義"에 입각하여 개발과 진보일로의 성장가속화를 더욱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며 이 결과 세계도처에서 나타나는 인구, 자원, 식량, 오염 그리고 기상이변 등 환경문제의 제반문제들은 연구보고서의 可測들이 점차로 현실의 징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후 20년내지에 근 100%의 인구증가가 예측되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인구의 증가분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定住環境의 터전을 구비하는데 있어서 현재도 그러하듯이 더욱 많은 물량, 인력과 재정의 투입이 예상되는 동시에 정주터전으로서의 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의 침식이 낳은 "人間生態學"적 불균형과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의 대처 또한 심상치 않은 큰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國土空間"이 과국으로 치닫을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의 노력과 先驗 그리고 시행착오를 주시하여 보다 질서있는 정주환경의 터전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과제는 과거의 반성과 동시에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주요문제인 것이다.

○建築思潮의 변천

근대건축의 출발은 통념적으로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두게 되며 그 변화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으며 그 한가지는 새로운 산업사회적 기술적인 요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상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에 대하여 다른 한가지는 反産業主義的이고 復古的인 과도기적사실로서 나타난 건축의 여러가지 경향으로써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구성적사실로서의 전자의 경향이 20세기 건축이념의 모체로 이어지고 후자의 경향은 그러한 전자의 이행과정에 대한 반작용적 징검다리로서의 과도기적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들어와서 건축의 영역에 있어서 사조의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20세기적인 건축의 전가를 찾아내어 새로운 건축으로 구현한 Le Corbusier, Mies van der Rohe, F.L. Wright, A. Aalto 등 거장 건축가의 탄생인 것이며 이로부터 「英雄主義」「國際主義」「機能主義」 등으로 불리우는 현대건축의 새로운 기점을 맞게 된다. 이들의 천재성으로 말미암아 현대건축은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면 부정되지 못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념은 획일성 단순성 등 기계미와 편익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미학과 보편성과 규격화라고 하는 실용주의의 정신을 건축의 표현으로써 잘 소화해 내었던 것이지만 이들은 기능과 "건축공간과 형태"사이의 합목적적 연관을 추구하는 건축작업의 과정에 있어서 그 건축속에 내포되는 현실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다도 그들의 이상주의 내지는 개인주의적 야심과 독선에 우선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英雄主義"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거장 건축가들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공적은 건축의 문제를 최초로 도시와 주거의 문제로 확대시킨 의지였다고 본다.

이 무렵 세계는 전술한 바와 같은 소위 후기산업사회 또는 전자사회로 이행하게 되며 이러한 이행의 반영으로서 「전체보다 부분을, 고정보다 변화를 조직보다는 개인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최후 CIAM 회의를 향하여 준비한 "Team 10"의 건축가들이 거장 건축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국제주의 건축운동은 종식을 고하게 되고 이로부터 현대건축의 새로운 기점이 성립하게 된다.

이후의 현대건축의 경향은 극히 혼돈스러워서 한마디로 대변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그것은 현대건축의 이념과 방법의 바탕위에 현대적인 요구를 상응 신화시키고자 하는 後期現代主義(Late Modernism)적인 경향과 현대건축의 이념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건축을 만드는 문법을 원점에서 부터 재구성하고자 하는 脫現代主義(Post Modernism)적인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한 뚜렷한 이념을 갖는 "ism"이라기 보다는 무언가 현대건축과는 달려져야만 하겠다는 현대건축의 원점을 향한 구미 신진건축세대들의 다양한 표현일런지는 모르는 것으로서 R. Venturi 의 저서가 바로소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建築史의 주요한 맥락을 돌이켜 볼 때 혼성과 부조화 그리고 복고를 표방하는 경향들은 으레히 새로운 시대의 의지를 주도하고 반영하는 새로운 경향들에 의해 결국 굴복하여 도태되곤 하였던 것이다. 어떻든 「현대주의」는 20세기말 통일된 건축이념으로 집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극도의 「개인주의」 「감각주의」의 표방 등 저마다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난해한 건축적 표현과 그럴싸한 관념어휘들은 상업주의적인 경쟁이 심한 미국에서 독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이며 뿌리없는 이념일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Team 10"으로부터 「탈현대주의」에 이르는 현대건축의 경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의지중의 하나는 현대건축에서 상실되었던 것, 즉 건축 및 도시의 제반 정주환경과 그것이 속한 시대와 지역 그리고 그속에 담기어지는 현실의 인간이 그 환경과 맺는 심리적 기능적 상징적 연쇄관계에 관하여 새로이 人本主義的 관심을 쏟고자하는 소위 風土主義의 경향일 것이다. 이는 면에서 토속적인 전통건축이 갖는 "인간환경"을 의도적으로 정주환경속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반성이기도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한국건축은 한국 근대사의 비극만큼이나 그 정통성이 계승될 충분한 배양액을 갖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내적성숙이 성취될 겨를이 없이 항상 외적인 의식이 몰아닥쳤고 여하히 그것에 적응하는가에 급급한 과정이 韓國의 現代建築史를 이끌어온 것임을 이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축세대로의 이행이 시도되어야 할 시점에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도를 제시하는 의무와 권리는 아울러 우리 건축전문가가 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제도와 의식의 개편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건축은 현실적인 생활범주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한 그 생활과 같이 변화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그 지역 그 시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특성들은 모든 문화를 생성하는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항상 변화하는 유기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은 생활의 "패턴"과 사회제도 사회구조와 遊離된 상태에서 평가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현재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쾌락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풍조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서구의 20세기말적 건축사조, 이른바 "Post Modernism"이니 하는 요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이러한 건축사조의 변천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뿌리가 있으며 그들의 문화발전의 역사적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근거를 둔 표현으로 건전하고 풍부한 삶이 되도록 그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建築環境의 反省

安秉義/종합건축사사무소 향건축

언젠가, 백남준(白南準)씨의 예술관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왜 뉴욕에서 사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예술을 하려면 120퍼센트의 자유가 보장된 곳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들은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도저히 빛나는 예술의 싹이 마음놓고 움트고 자랄 환경이 아니다.
우리가 건설부에게 바라는 것도 이러한 자율적인 분위기이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들은 작금의 건축디자인의 방향을 살피고 분석하고 생각하여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겠다.

한해를 보내면서 돌이켜 생각해, 지난해는 多事多難했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이룩하자고 다짐한다. 지난 일년전의 새해 때도 그랬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영부영 자랑스러운 기억보다 수치스러운 일로 한해를 마감했다.

정치가 그랬고, 경제가, 그리고 사회전반이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일로 가득찬 한해였다. 건축계도 별로 이렇다할 자랑스러운 일로 채워진 한해는 아니었다.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판에 건축계라고 별수가 있었을리 없다. 지난번 건축사협회 지부임원 선거는 좀 볼품사나웠다.

왜 그렇게 많은 후보자들이 입후보하는지 통 모를 일이다. 과연 그들을 움직이는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명예욕인가, 다소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도 있단 말인가.

흔히 정치인들을 나무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건축사들의 선거운동 또한 별 칭찬할 일이 못된다.

입후보자들의 선거에 내세운 공약 또한 정치가들의 식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누가 임원이 되어야한다고 아옹다옹하는 것보다 더 힘써야할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건축관련 법규의 정비는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 제정때 쓰던 건축법규를 그때 그때 짜깁기 하고, 손을 보아 쓰고 있는 건축과 도시계획관련의 법규들은 새로운 시대에 알맞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다. 쓰인 어휘나 법해석의 정신 또한 명확치 않고 뚜렷하지 않다.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그릇된 법규때문에 건축의 창조적인 면이 고스란히 희생되어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법은 사용자의 안전과 건축가의 창의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다.

종합이니 단독이니 하는 제도 또한 오랫동안 왈가왈부해왔지만, 그리고 역대 건축사협회장의 입후보연설에서도 한결같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감소식이다.

내기억에도 이 제도는 약 20여년전에 구청앞의 대서사출신의 영세설계사무소를 치기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는 이 제도가 있어야 할 당위성이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만들어진 법은 비록 그것이 악법일지라도 그 亡靈이 남아 우리를 괴롭힌다.

공교롭게도 변호사사무소들이 합동이라는 이름 밑에 복수의 사무소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은 발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희정권때의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러나온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하나, 수십 여년 이어지면서 많은 건축가지망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건축사 시험제도이다. 해마다 100대1 정도의 경쟁을 거쳐야 하는데, 아마도 고등고시에 버견할 만한 힘든 난관이다.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째는, 너무 힘들다는 점이다. 도시 건축사시험은 건축사가 될 수 있겠는가를 묻는 한낱 자격시험에 지나지 않는다.

몇 사람을 입학시킨다는 대학의 입학시험과는 달리,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합격시켜야 하는 자격시험인 것이다. 따라서 그 기준은 될수록 많이 합격시켜야 한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기돈으로 공부하고, 세금을 바쳤고, 쌓은 만큼 사회경험도 쌓아 이제는 설계사무소를 차리겠다는데 국가는 이 국민의 소망을 막을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이다.

모든 기회는 모름지기 평등해야 하는데 이 건축사시험제도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즉 건축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응시자에게는 혜택을 주어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애당초 시작은 건축직공무원으로 일하려는 지망자가 없어 미끼를 던진 셈인데, 이번에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 곧 공무원을 사직해 사무소를 차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기회의 균등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건축사법보다 앞서는 母法이다. 따라서 이러한 처사는 앞뒤가 않맞는 모순덩어리다.

또한 이 특혜조치는 건축사의 질을 저하시켰다. 이렇게 질적으로 저하된 건축사는 종합이라는 건축사사무소에 이름을 빌려주면 적어도 매달 상당액의 명의값을 받을 수 있다 한다.

건축과 도시계획, 건축사 등에 관계되는 모든 법, 제도들이 이처럼 모순투성이다. 적어도 건축관계의 법령이란, 좋은 건축, 아름다운 건축을 창작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하는 정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의 역사는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결국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철학자 「헤겔」은 말했다.

그런데 내가 건축을 하기 시작한 지 어언 30년이란 세월 속에 좋아진 것은 한가지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세상은 정권이 바뀌면서 점점 민주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정부가 관여하는 일은 좀처럼 옛날의 봉건주의적인 사고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애당초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보다는 국민 위에 서서 국민을 억누르는 쪽인 것같다.

어느 문공부장관의 기자회견 때의 이야기인데 장관이 예술가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때 임석했던 어느 예술가가 답하기를 '그저 돈이나 충분히 지원해 주셨으면 됐을 뿐 나머지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건축사시험에서 건축사협회의 운영, 나아가서는 건축법규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건축가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건설부는 고작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면 족하다.

자율이라는 말은 자칫 자유와 혼동하기 쉬운데, 물론 자유쪽이 보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다. 자율이란, 영어로 바꾸면 「리베랄」하다는 뜻이다. 굳건한 의지로 자칫 방종에 빠지기 쉬운 마음을 통솔하고 감성보다는 이성과 지혜로써 향기높은 예술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을 말한다.

언젠가, 백남준(白南準)씨의 예술관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왜 뉴욕에서 사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예술을 하려면 120퍼센트의 자유가 보장된 곳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들은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도저히 빛나는 예술의 싹이 마음놓고 움트고 자랄 환경이 아니다.

우리가 건설부에게 바라는 것도 이러한 자율적인 분위기이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들은 작금의 건축디자인의 방향을 살피고 분석하고 생각하여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겠다. 생각에 몰두하면 그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다. 하여, 생각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반성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풀이함으로서 「리베랄」한 사고의 작품이 움트게 된다.

최근의 건축작품의 경향은 한마디로 말해 너무 主義이론, 이치적인 사고, 디자인방법론 따위가 앞장선 것으로 느껴진다. 너무 이론을 앞세운 작품은 즉, 관념을 원형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참다운 아름다움이 아니다. 일종의 모범답안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부족하다. 나쁘게 말하면 척하는 것이며 진부하며 냄새가 난다. 참다운 예술은 이론 추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초월한 곳에 탄생된 것이다.

이성이나 知覺에 대립하는 존재로서 감각의 세계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감동적인 작품이다. 너무 이론에 파묻힌 디자인을 해오지 않았는가, 하고 한번쯤은 깊이 반성해 볼만도 하다. 하여 다시 무디어진 감각을 새로이 예민하게 다듬어 건축작품을 구상하는 길잡이로 삼아야겠다.

감각이란, 습관적이므로 쉬어 마비되게 마련이다. 하여 언제나 새로운 경험과 사고를 통해서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재즈나 트롯트가요가 아닌 좀더 우렁차고 힘차며 감동을 주는, 말하자면 교향악 같은 것, 그런 건축을 빚어야 하지 않을까.

專門化, 國際化와 우리의 現實

戴應在 /(주)원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무척이나 많은 용역비를 지불해가며 국내의 관계법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건축가에게, 드물지만 수주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우리 「건축사」들은 우리자신으로부터의 변혁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항상 이와같은 논의가 있을 경우마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정부의 보호책이나 무조건적인 저지에만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 사실이며 긍정적 대비책이나 또 우리들 자신의 소화능력이나 일반인에 대한 건축용역의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건축사」스스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각자에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 흔히들 요즈음을 「전문가」의 시대라 칭하는 사람이 많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치, 경제 및 모든 분야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고보니 보통의 사람이 이 모든 분야를 「전문가」의 수준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일반인은 의존하게 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다 금전으로 환산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또 「국제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에 의해 지구상에 있는 어느나라도 더이상 「홀로」일 수 없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위의 영향과 역학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보니 「국제화」란 어휘가 실감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거리나 시간적으로 단축된 「국제화」가 아니라 주위의 변화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 파급되므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과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블록화 시대에서 최근 경제적 공통이익의 지역에 의한 블록화로 재편성되는 것을 EC 나 「아세안」등에서 의식할 수 있으며 전세기, 힘과 부의 상징이던 미국이, 아직은 그 위력을 유지하는 셈이지만 점차 경제적으로 뒤져가고 기술적 초강대국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변화를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제 겨우 선진화의 문앞에 도달한 우리에게 그리 이롭지 못한 「압력」으로 되돌려 받는 느낌이며 못살아서 도움을 받던 시대에서 잘살아서(?) 내놓는 시대로 「강요」되는 듯한 상황에 도달된 셈이다.

국내적으로는 60년대부터 출발한 성장위주의 정책과 "잘살아보자"는 노력에 의해 70년대, 1000불 GNP 달성을 앞당겨 성취했으며 국제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을 육성한 결과 자본과 기술력의 집중화가 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 점이 크게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더욱 일부 국제적 수준에 도달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의해, 외형적인 GNP 의 성장에 힘입어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과대하게 팽창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정부 주도형이 보호육성에 상당하게 의존해온 점 또한 취약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이와같은 「전문화」 「국제화」되는 사회 일반적인 배경과 「선진화」를 향한 경제활동 속에서 우리들 「건축인」의 입장에서 조금더 축소하여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건축사」업무로서의 전문화, 국제화는 어느 수준으로 파악되어지며, 실효성있는 노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 「건축의 전문화」란 국제적인 의미로 무엇을 이야기함인가?

다른 분야에 대비되는 「건축」이라는 의미로서의 「건축의 전문화」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건축분야의 「전문화」,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화」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는 점을 볼 수 있다.

설계, 시공, 기획, 행정 등의 「전문화」로의 분류가 될 수 있고 구조, 기계, 전기, 조경, 실내디자인, 그래픽 등 건축계획 또는 이와 관련을 갖는 대개의 순수디자인이 아닌 기술적 전문분야로 나열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재료나 그 시스템의 개발이나, 음향관계, 에레베타 엔지니어링 등에 이르면 너무나 많은 「전문화」로의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이 「건축전문화」라는 용어는 건축행위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파악과 경제활동에서의 건축분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그렇게 혼재되어 쓰여지고 있는 어휘로 보인다.

의사직업에 「전문의」제도가 있고 건축과 유사한 업종으로 파악되는 토목분야에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등의 많은 「전문화」가 이뤄져 있으며 시공회사보다는 토목용역회사의 경우 엄밀하게 「전문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도 건축용도별 분류에 의한 설계용역의 전문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건축설계 용역의 경우 타분야와 같은 전문화 분류와 건축용도별 전문화를 동일 위계의 분류로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유사한 용도의 설계가 반복되므로서 타용역자보다는 경험에 의한 강점을 갖는 점을 볼 수 있으며 왕왕 실적위주로의 건축설계사무소를 선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한 「전문화」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주거, 상업, 위락, 의료, 교육 등의 분류에 의한 「전문화」는 「건축가」위주의 설계조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술자」위주의 설계조직과 「건축가」위주의 설계조직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으로 특수한 경험과 기술의 축적에 의한 「전문기술자」라는 의미는 이해되나, 「전문건축가」나 「전문건축사」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가」의 경우 특수부문의 전문기술이 필요할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의 전문화」보다는 「건축기술의 전문화」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국제화」되는 사회와 경제의 일반적 경향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인식되어져야 하며, 그에 의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건축인에게 부과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역류하려하는 것은 아니나, 자발적이고 내면적 필요에 의한 발로가 아닌 외부적인 압력이나 정부시책에 의해 「국제화」 또는 「국제경쟁력」이 항상 거론되는 것에 거북스러움이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전면적 기술 및 생산품에 대한 보호주의 철폐에 의한 개방도 이러한 맥락에서 불리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부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등도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역업체의 조직화, 대형화를 유도함이겠으나, 국내 건축설계 현실로서는 많은 우려와 반대를 볼 수가 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의 타분야의 경우 국제경쟁력이나 기업의 성장이 대단한 수준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과연 업계와 학계가 입을 모아 「선진국」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이제 세계 어느곳에도 한국인과 한국상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력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용역업계도 타분야만큼 「국제적」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건축설계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국제적수준에 도달되었는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국내 절대다수의 설계사무소가 극히 영세한 수준이며 용역의 질적인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일반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아서 서로 악순환되는 것이 현실로 보이는 때 타분야를 의식한 「국제경쟁력」을 거론함이 여간 거북스러운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에 의해, 법적인 설계용역업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설계행위가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며 아무리 제도적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어도 서울의 거리에서 외국건축가의 작품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용역의 개방이 시행된다고 해서 국내의 용역비수준과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수준에서 외국의 용역회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는가.

오히려 그들의 처리능력과 용역비의 수준에서 국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는 점이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수주능력을 부여하는 「종합건설업법」이 시행되면 우리 「건축사」들의 설계수주량이 금방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민한 생각이 아닐까.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일괄발주방법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의 중첩식 추진등의 방법에 의해 공기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이 공사비와 요율체계에 의한 용역비 산출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가 아니고는 건설회사에서 설계팀을 유지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건축가」위주의 설계조직으로서의 가능성은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그 작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점일 것이다.

반대로 그와같은 규모의 프로젝트에 현실적으로 소화능력을 가진 설계사무소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점이며 자신의 현실적 능력을 도외시한 「나눠먹는 떡」으로서 용역을 생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형조직에 의한 대형프로젝트의 소화측면에서 건축계의 소화능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척이나 많은 용역비를 지불해가며 국내의 관계법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건축가에게, 드물지만 수주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우리 「건축사」들은 우리자신으로부터의 변혁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항상 이와같은 논의가 있을 경우마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정부의 보호책이나 무조건적인 저지에만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 사실이며 긍정적 대비책이나 또 우리들 자신의 소화능력이나 일반인에 대한 건축용역의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건축사」스스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각자에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建築의 現況과 問題點

李範宰/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90년대의 첫번 해를 마무리짓고 辛未年 새해를 맞았다. 사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가지의 불확실한 요소가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처하여야하는 대응태도도 불명확할 수 밖에 없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의 문제점 속에서도 우리가 의연히 가지고 있어야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 사실인 것인데, 이러한 태도가 사회의 변혁과 사회환경의 불확실한 점때문에 포기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 몇가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저 한다. 건축 사회 환경적인 차원, 건축적인 제반제도, 건축인 자신의 자질과 태도, 통념적인 차원에서의 건축계등에 대해 논하고저 한다.

아직 우리는 외국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건축은 아직도 그 패턴 자체가 외국건축의 모방과 외국조류의 흡입에 활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언이라고 할 것인지? 우리의 오리지날리티를 확고히 계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건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자리잡아야 할 것인지는 우리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1. 건축사회 환경적 차원의 문제

우선 우리가 건축을 어째서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청교도적인 입장에서 논하고저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깊이 개입되거나 개인적인 경제사항이 깊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건축가(건축사, 설계사, 기사 등으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총칭하기로 한다)의 의미와 역할이 얼마나 변했는지 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였던 건축가의 이미지와 역할이 근대 건축시대의 종료에 의해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것은 미국의 필립 존슨과 같은 건축가의 변신일 것이다. 그는 근대건축의 제 2 세대로서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포스트 모더니스트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이제는 소위 해체주의건축에 대한 깊은 관여로서 자신의 건축세계를 확장해왔던 것이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소위 신념없는 건축가로 보일지도 모르나 이만큼 자기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있고 자신있는 행동도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변신에 대한 하나의 신념이나 견해를 가질 수 있는가?

건축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신의 태도가 명확해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수한 건축가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어쩔 수 없는 사회환경 속에 받아지는 영향도 크다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건축환경은 어떠한 것일까? 결국은 통제 속에서의 제한되어진 창작과 영세성 속의 아트리에 작업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법이나 제반 법에 의한 통제는 이제 자율적인 자체 제어장치로 바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건축가들을 믿지 못하는 자체 불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자업자득이라고도 생각되어진다. 건축주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비방하였기 때문이고 건축물과 그 환경의 자신있는 제공자로서 또는 그 자신이 주체로서 행동하기를 주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회적인 철학과 개념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건축가들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통념적

사회적인 의미로 건축가가 하나의 사상가로서 뚜렷한 대우를 받는 외국의 예에 전혀 미칠 수 없는 "업자"의 입장에 스스로 만족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2. 건축제도 및 운용

건축법규나 제반 통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집행과 적용과정이 불공평하고 시간에 따라 너무 변화가 크며, 관청에서의 융통성이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실무에 접해보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점이다. 건축가의 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창작과 개념이 허가업무나 법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단호히 변절되는 경험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건축허가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건축가만이 해야할 디자인의 분야가 침해되는 경험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들은 이것을 소위 건축가들과 건축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법의 시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건축허가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심의와 협의 과정, 각종 통제와 조건들의 이행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숨겨진 부조리가 도처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허가과정에서의 금전의 수수와 기술적인 부정, 소위 우리 건축 사회에 남겨져 있는 테크니컬 파울(Technical Fual)에 우리가 너무 숙달되고 체념하고 있음이 아닌지? 우리의 건축가들이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시간이 이러한 어이없는 손해로 인한 일(Faul Bussiness)로 인하여 빼앗고 있는 것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 이러한 심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의의 시간을 택하는 것부터가 정치 사회적인 영향과 환경의 지배를 잘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것은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인 것이라고 하여 넘어간다하더라도, 미리 찾아가서 안을 설명하여야 하고 적당한 의미의 저자세를 가져야하며, 심의의 안 자체보다 어느 때는 심의위원의 개인 취향도 잊으면 안되는 등의 노고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다 실제의 상황이라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 사회적인 환경에서 이러한 개인적이고 독선적이며 불필요한 일들이 사라져야만 우리가 대등한 국제적인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가가 생각하고 실현하고 싶은 사상이 행정적인 편의나 개인적인 취향과 감정으로 무참히 잘려나가서야 되겠는지 정말로 심각히 생각할 일이 아니겠는가?

금년에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건축계에도 얼마간의 영향이 미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가지 자기 지방나름대로의 토속적인 의미의 건축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라고 할 것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축문화가 점차 보편성을 갖고 각지방에 전파되어 갈 수 있다는 점과 각 지방의 특수한 사정과 요소를 접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역시 지역적인 폐쇄성을 동시에 갖게된다는 부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같은 모양과 같은 패턴을 가진, 특색없는 도시들이 각자 특수성을 갖는 도시로서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보편성과 특수성, 이 두가지의 장점이 자치를 통하여 건축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3. 건축보수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개념

건축과 건축가의 작업을 기술적인 전문가로서 이해함으로 해서, 건축기술을 이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얻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에 그 보수의 다소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결국 여기에서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계량이 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값과 사용되는 의료기자재의 사용료를 근거로 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은 것과도 같고, 화가가 그림을 그 그림물감값으로 환산하여 그림값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설계비의 산정에 이러한 어려운 비물성적인 차원이 있음으로 해서 설계비의 자율화를 언젠가 한번 글로서 이야기한 바도 있다. 지방자치의 시행에 있어 각 지역에 이러한 설계비의 자율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의 연구도 같이 병행해 보았으면 한다.

실제로 현재의 설계비의 요율을 가지고 설계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리로 보여진다. 반면에 이러한 설계비의 요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설계비를 대폭 올린다고 해서 이러한 이율적인 현상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은 지금의 설계비 요율대로 받으면 적다고 하면서 엄연히 지금의 요율의 심지어는 반정도로도 설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 대상과 행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바이다. 따라서 능력있는 건축주들은 능력있고 규모가 있는 설계사무소나 건축가들에게 많은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게 할 것이며, 서민이나 하위 중산계층에게는 저렴한 설계비로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는 건축가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인정하는 상식이 전반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초기에는 있을 것이며 당연히 나중에는 도태될 것으로 보아진다. 건축가 상호간의 경쟁은 결국 건축가들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동질감의 회복이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된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이 설계비의 자율화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우리가 설계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의 설계비 속에는 엄밀한 의미의 계획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초기의 계획을 하기 위한 연구비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의 적용항목이 없어서 다른 기준을 원용하거나 계획설계비의 일부를 구차하게 차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도 하다. 계획설계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의 구분을 초기계획 및 연구 또는 기본 구상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크게 분류하던가, 또는 기본연구비, 계획비, 허가설계비, 실시설계비, 행정감리비, 감리지도비 등으로 세분하여, 업무에 따른 선별 협약과 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감리부분의 업무가 명확히 되어야할 것이다. 감리와 감독을 혼동하는 건축주들의 오해 여지도 있을 수 있으며, 감리의 참뜻이 시공과정의 융통성있는 디자인 디벨로프라는 개념이 건축가 자신들도 외외로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실제로는 시공자가 하여야하는 시공도의 보완이나 제작의 협조와 공정의 검토 보조자화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건축감리는 시공과정에서 도면대로 시공하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더 나은 건축물을 위한 변경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하여주는 역할이라고 하겠다.

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개념의 출발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나 결국 이 개념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같지 않다. 건축사 3인이 같은 사무소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소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일종의 신디케이트화되어 있어서 건축계로서나 건축주의 편에서나 다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다. 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인의 건축사들로 이루어진 종합건축사사무소도 믿지 못한다하여 다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보증을 받아오라는 건축주도 있는 현실이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최소 6명이 보증하는 것이 됨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상인가? 따라서 불필요하고 현실성이 없는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없애서 그것을 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시간과 장소의 낭비를 없앴으면 한다. 보증이 필요하면, 다른 건축사무소가 보증을 하던가 하는 간편한 방법을 택하여 주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된다.

4. 맺음

'90년대의 첫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제적으로는 다 아다시피 냉전의 종식으로 일컬어지는 여러가지 현상이 정착되고 있고 독일이 통일되는가 하면, 경제적인 세계대전인 우루과이 협상이 결렬되어 우리네 살림에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것은 명확한 것 같으며, 국내적으로는 급진전은 없으나 남북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선발개도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기로에 서있게 된 것 같다. 어쨌든 이제까지 세계 건축계에서 가장 사각지대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외국의 유명 건축가들이 알게 모르게 드나들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건축가들이 외국방문을 통하거나, 외국에서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여 점차 건축계의 인적 물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겠다. 설계사무소의 변화도 많이 눈에 띄게 되어서 이제까지의 소규모 아뜨리에 형태의 사무소로부터 점차 경영의 개선과 경영의 합리화, 정보화되는 사무소로 변환하고 있다. 아직 우리는 외국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건축은 아직도 그 패턴 자체가 외국건축의 모방과 외국조류의 흡입에 활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언이라고 할 것인지? 우리의 오리지날리티를 확고히 개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건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자리잡아야 할 것인지는 우리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21C를 향한 우리의 對應姿勢

成仁洙/울산대학교 건축과 교수

21세기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에 반대되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그것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것도 아닌 현실로서의 미래일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근간으로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동시에 끝날 것이다." 최근 들어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제부정적인 변화가 결코 정보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토플러는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희망을, 불안을 동시에 안겨다 주는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에서 인간들이 서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게 되는가에 따라, 建築士로서의 행동반경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산업혁명이 일어난지 3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직도 그 증상이 진행중이라서 아무도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래도 세계는 변화할 것이며, 21세기는 다가오고, 뒤이어 태어난 인간은 이에 적응하며 살아갈 것이다. 21세기의 변화는 어떠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인류가 처한 문제는 다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① 동서문제(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간의 문제)
② 남북문제(선진국과 후진국가간의 문제)
③ G 7문제(세계정상 7개국가간의 견해차이)
④ 종족문제(각나라 인종의 종족간의 분쟁)

21세기의 인간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이다. 핵에 의한 인류멸망에 대한 공포, 인구폭발의 위기상황, 지구 생존환경의 저하, 산업화된 국가와 발전도상국가 간의 격차, 개인적, 공공적 도덕의 타락 등이 국가들을 막론하고 고민거리이다.

21세기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에 반대되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그것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것도 아닌 현실로서의 미래일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근간으로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동시에 끝날 것이다." 최근 들어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제부정적인 변화가 결코 정보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토플러는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희망을, 불안을 동시에 안겨다 주는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에서 인간들이 서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게 되는가에 따라, 建築士로서의 행동반경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보를 세계적으로 주고받는 정보화사회를 맞이하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북문제의 하나인 우루과이라운드를 우리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의 세계경제조건을 좌우할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 21세기의 변화는 가속화할 것이다. 2차세계대전기간 이전부터, 산업이 급속도로 신장하여 세계무역시장을 독점해 온 미국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때문에, 고질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최초적자 1958년 발생) 그 원인이 GATT 체제하의 자유교역에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GATT 의 본래 취지대로 자유로운 국제간의 상품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협정을 강화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과 후진 개발도상국가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미국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공산품 보다는 생산량이 풍부한 농산품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으로 금융, 보험, 통신, 건설 등의 서비스 분야를 수출상품으로 내세우게 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 분야이다. 이 부분에서 비교적 열세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의 서비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우리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비스품목으로 건설산업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수출품목대상이 끼여있다는 것이다. 89년에는 건설, 통신, 교통, 관광, 전문직업서비스 등 6개 분야에 관한 분야별 검토가 시행되었는데, 우루과이라운드의 역사적 배경은 표와 같다.

우루과이협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제간 거래, 각국의 제한사항을 완전히 공개, 개방한 상태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의 폭을 확대해가는 상품자유거래의 GATT 협정보다 더 강력한 多者間협정을 체결하자. 이 협정은 교역당사국의 경제성장과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며, 모든 당사국의 국내법규와 정책목표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궁극적인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정의 목표로 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문구가 아름답고 후진국의 입장을 고려해 준다해도, 이러한 목표가 선진국,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가중에서 어느 입장을 위한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다.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각료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서비스협상개시가 선언되었다. 서비스의 교역은 아래와 같은 거래를 포함한다. 즉,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 생산요소의 국경간 이동이 포함된다.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이란 「모든 자료와 정보의 이동」 및 「同 목적달성을 위한 공중통신망」과 국내유통망의 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협상타결 실패로 연기되었다. 대신 미국은 雙務통상 협정으로 이를 나라별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소매시장 개방압력(한국경제신문, 1990. 12. 16)으로 자동차, 화장품, 서적, 의류 등 4품목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이 빠져있는 것으로 중요도가 낮다고는 하나, 미국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건축인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고, 건축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 전문화가 미흡한 건축설계 분야는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며, 우루과이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잃을 것은 무엇인가? 시장개방 압력을 받게 될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 건설부나 상공부를 향해 대안으로서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가? 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고 누가 할 수 있는가? 건축계의 패쇄적 현상은 국제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바는 많다.

턴키베이스에서와 같이 건축설계작업이 시공의 한 단계로 가볍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한다. 건축을 예술작품과 공업생산품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건축의 입장이 달라질텐데, 이것은 우리들의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정부가 또는 우리정부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이것이 건축사에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건축사법으로 설계에 관한 참여를 제한한다해도, 외력에 의해 풀리기는 시기의 문제만을 남기고 있을지 모른다.

이상과 같이 단계에서 건축인으로서 준비할 것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단체나 협회를 통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A. 정보화 사회를 맞으며

앞으로 대기업이나 일반회사들이 경영정보시스템(Managemment Information System : MIS)를 채택하여 운영한다면, 건축사에게도 그러한 방법으로 대안을 요구해 올 것이다. 즉, 경영정보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조직에 있어서, 경영, 그리고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인간과 기계사이의 이 시스템에는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무의 절차, 경영과 의사 결정 모형,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기술 등이 이용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구하고자 하는 해결책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지능적 모형
②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분석하기 위한 의사결정모형
③ 최적해결책을 제공하는 최적화 모형
④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따라 결정하는 충족모형

건축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해 올지라도 이에 대응할 분석, 판단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년도	허용업무 내용(1차 시안)
~1993년	현행대로 국내업체와 합작투자조건, 토목건축특수전문 시공업분야
1994년이후	토목건축업 전면개방
1996년이후	건축사업, 감리전문업 전면개방

년도	허용공사비 한도	허용업무 내용(2차 시안)
1992~94년	50억 이상	토목공사에 대한 외국업체 참여
	30억 이상	토목공사에 대한 외국업체 참여
1994년 이후	50억 이상의 대형공사	토목 : 국내업체와 공동도급 건축 : 국내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사무소 국내진출허용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	외국감리전문업체의 참여 허용
	국내업체 보호를 위한 예상 단서조항	① 일정부분 한국에 하도급 의무화 ② 일정비율이상 국산기자재 사용 의무화 ③ 외국건설업체에 기능인력 양성의무부과 ④ 턴키공사발주 확대 ⑤ 고급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건설전문대학 설립 ⑥ 문화보호를 위하거나(고유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경우) 안보, 국방시설의 경우, 외국업체 참여 배제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문전박대'받았다고 말을 했다. 정보화시대에 건축사들이 모니터앞에서 박대받지 않고, 건축주를 컴퓨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축주들이 건축사에게 요구해 오는 전달매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1차적 의무일 것이며, 그것은 직원의 힘을 빌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전달매체가 저너는 제한을 뛰어넘어 매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21세기를 맞아 창조적인 건축사가 해야할 바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개인적 차원으로 미래를 맞을 준비를 하자는 말이다. 시대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아마도 현재에 충실한 분이면 가능하리라 본다.

사무소의 입장에서 직원재교육을 통해 직원의 능력을 배양한다.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비의 현실화를 뛰어넘어 설계를 위해 이상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단체를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무자동화에 적응하도록 한다. 일반기업의 MIS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무소구조를 가동한다.

얼굴을 마주해야만 업무가 추진되기에는 교통이 혼잡하고,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또, 자료를 구하는 시간보다 이를 판단하는데 드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다 보면, 실제로 설계할 시간은 적다. 우리의 관행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벌고, 정보화사회를 효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B.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처

건축사협회나 3단체의 입장에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된다.

1. 우루과이 라운드등에 대한 건축인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정부입장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시기선택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관련업계의 반발이란 일을 지연시키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는 협상의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건설업분야는 외국의 참여를 생각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듯한데, 설계분야는 피동적이라는 인상이 든다. 건설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이기 보다는 조건이나 단서를 건축인 스스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3. 이 문제에 피동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효과적으로 설계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렵다. 국내 일을 잠식당하지 않고, 선외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능동적이어야 할 것이다.
4. 현재 설계를 발주하는 관행에 대해 발주처들이 면밀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지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에 주문해야 할 것이다.
5. 외국업체와의 공동계약을 통해 설계를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는 건축사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며, 대형설계사무소나 엔지니어링등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아틀리에를 원하는 사무소라도, 계약상의 불이익이 없이 외국업체와의 팀웍을 유지하며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공동으로 외국사무소와의 공동계약을 위한 기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감정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계약으로 말한다.
6. 외국 설계사무소와 협력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사무소를 위해 알선창구를 마련하여, 충분히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무소를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건축사협회만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7. 건축에 관한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건축박물관을 운영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산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합하여 정리한다. 역으로 외국의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인력 해외파견을 통한 자의적인 정보수집을 해야하고, 나라별 법규와 규제에 관한 연구도 해야한다. 외국의 설계사무소, 아틀리에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도 필요하다.
8. 세계가 하나의 무역시장으로 좁아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과제지침에 맞는 조건과 성능의 제품을 고르다 보면, 기본적 자재로 가능한 국산화비율내에 드는 자재를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외제를 쓰게 될 것이다. 건축자재의 모듈화와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제조업자것만이 아닌 장기사용경험에 의한 협회자체의 자재평가보고서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체의 노력에 의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국제품에 버금가는 제품이 있어야 선외의 경쟁도 가능하다. 외국들의 설계자체 보다는 우수한 건자재를 합법적으로 팔기위해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9. 외국에 대해 피상적이 아닌 충분한 이해를 해야하고,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설계발주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자. 또, 기술협력을 적극적 측면에서 수용한다. 기술협력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요구를 한다. 지속적으로 외국건축가들의 활동상황을 바라보되, 우리만의 과제를 잊지 않도록 하자.
10. 그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피상적인 여행이 아닌 효과적 건축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속적인 대정부, 대언론 홍보 및 요구를 한다. 자발적인 대안강구를 통해 우루과이대책을 마련한다. 협상안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피해가 적도록 유보조항을 설치한다.
1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세이며, 존경하는 모든 건축사들의 노고와 단합에 의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화업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원전체의 협동을 바탕으로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화감독들이 U.I.P. 직접 배급에 봉착해 시위를 하고, 극장에 뱀을 풀어 놓는등 법석을 떤다해도, 행차후의 나팔격이 되었을 뿐이다.

영화 배급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U.I.P. 직배에 참여하고 있다. 더우기 배급업자들은 감독선임의 능력도 있는 법이다. 가끔 외국에 출품해서 감독들이 수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다.

건축사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어떠한 대처를 하려는지, 회원과 임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갈 길은 멀고 험하다

趙仁淑/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기술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는 틀림이 없다. 아무도 우리처럼 빨리 흡수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제와서 우리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야만 하는 정신을 찾고 있다.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너무 급급해서 서둘러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그냥 가기만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은 각자가 알아서 찾을 일이다. 갈 길은 멀고 험할 뿐이다.

드문일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설계의뢰를 해오면 겁이 더럭 난다. 과연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동안 면허증을 한 번 갱신하고도 일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건물이 남은 게 없고 아직도 병아리 신세를 못면하고 허덕거리고 있다. 더욱 딱한 일은 이거다하는 무엇이 안 보이는 것이다. 그냥그냥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제도판 앞에 앉아 자를 잡고 연필을 잡는 순간부터 꽉 막히기 시작한다. 본 것,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막힘없이 줄줄 풀릴텐데 정답은 잘 몰라도 이게 아니라는 것은 안다. 아는 것이 病이다.

아침에 출근하여 전화 몇 통 주고 받고, 점심먹고 잠깐 나갔다 오면 하루가 가버린다. 다들 퇴근하고 나면 잠시 앉아 이것저것 시작해본다. 어쩌다 밤에도 그냥 앉아 있어본다. 매일밤을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집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며칠 지내고 나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일 년이 눈 깜박 할 사이에 지나간다. 골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가 버린다.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설계하였는가? 무엇을 공부하였고 무엇을 듣고 보았는가 돌이켜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최근 외국에서 초청하여 요즈음 나와 함께 일하는 그씨를 보며 많은 것을 느낀다. 이 친구 하루에 열시간 이상 집중하여 일을 한다. 외국의 대가들이 하루 여덟시간 일 한다면 그들보다 서너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내가 차분히 앉아 일하는 시간은 과연 몇시간인가? 하루에 여덟 시간씩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최소 40시간, 일 년이면 적어도 2천시간 이상의 차이가 난다. 프로젝트 하나 수행하는데 6개월 걸린다면 약 1천시간 고민을 더 하는 것이고, 설계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그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준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 사무실을 열고 10년이 흐른 후를 상상해보자. 1년에 2천시간이면 10년 지나면 2만 시간의 고민의 차이가 난다. 고민의 정도가 우선 量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운이 좋아 천재를 타고난 건축가도 있다. 천재의 아이디어도 건축에 있어서는 다듬지 않으면 쓰기에 불편한 것으로 밖에는 남지 않는다.

시장개방이 된다고 난리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아직도 우리는 건축 그 자체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건축가 스스로가 만든 갖가지 제도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모두가 다 안다. 알아도 어쩔 수 없다.

앞으로 10년 후면 소위 말하는 21세기로 접어든다. 그때가 되면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 한창 일할 때이다. 지금 건축에 입문하는 졸업생들에게는 어떻게 시작할까가 큰 숙제거리이다. 사무실을 열고 있는 선배된 입장에서 이제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으며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내 사무소에 들어온 이번 졸업예정자에게 요즈음 무척 부끄럽다. 원하지 않아도 날마다

돌아다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 붙잡고 앉아 있고 제도판 위에는 며칠이 지나도록 같은 종이가 붙어있고 그렇다고 공부를 따로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노는 것도 아니고 괜히 허둥대기만 하는 것이다. 학생 때부터 1년에 2천시간 이상씩 차이가 났다고 하면 학창시절 4~5년에, 사무실 생활 10년이라 가정하면 자기 사무소 시작하는 동년배의 외국인 건축가와의 능력차이란 적어도 3만시간이 되는 것이다. 시장개방이 되면 이런 사람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한국적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 무엇인가라도 개척해 놓았는가? 얼마전 불가리아 소피아에 약 한 달간 신도시설계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 일이다. 같은 그룹이었던 유럽의 한 건축가가 '너희 한국은 올림픽을 치룬 부자 나라인 줄 아는데 TV 를 통해 보니까 인터내셔널 건축밖에는 눈에 안 띠더라 너희가 미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왔다. 순간 발끈해서 이러고 저러고를 변명(?)했는데 한편 돌아켜보니 우리들의 책임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물론 어느 나라이건 대도시는 같은 실정이다. 자본주의 국가로 가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현재 개방의 물결을 타고 과거에는 미국영향을 받지 않았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도 인터내셔널 건축과 하이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다. 허나 우리는 자기발로 서기도 전에 미국의 영향을 너무 받아 벨도 내장도 다 드러내놓고 만 것이다. 이제와서 거두어 들이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끊임없이 전통이니 한국적인 것이니 하는 논의가 있어 왔으나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하고 논의하는 사람은 논의만 한다. 수평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즈음 재미있는 현상중의 하나는 외국에 유학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건축을 주제로 택한다. 한국의 학생들은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한다. 또 하나는 서울지역의 학생들의 대다수가 유학의 길에 오른다. 지방의 웬만한 학생들은 졸업 후 모두 서울로 올라온다. 지방자치제를 하려는데 역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 일하던 건축사가 타지역에 사무실을 차리려면 여지없이 배척당하고 만다. 서울은 점점 복잡해지고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지니 남의 입 속에 있는 떡이라도 아직 삼키지만 않았으면 뺏어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만다. 이런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 울타리를 자꾸만 친다. 속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설계공모를 보면 참 재미있다. 수 천평되는 산물의 계획설계 기간이 한달도 채 안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격제한은 왜 그리 많은지, 설계 아이디어 공모에 전문감리자격이 왜 필요한지 또한 지금 우리 실정에 왜 그리 많은 기념관들 및 전망대들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너도 나도 참가를 한다. 좋은 건축을 하겠다고 각종 어려운 문구들을 써가며 이잡지 저잡지 기고를 하는 온갖 작품을 창피한 줄 모르고 잡지에 게재하고는 수 십 권씩 사두었다가 고객에게 한 권씩 준다. 유명 건축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학연·지연을 통해 확보했던 일들이 바닥이 드러날 즈음이면 여기저기서 두 배씩 주고 스카웃해 왔던 인력들을 내 보내야한다. 이러면서도 얼토당토않는 현상설계 조건에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고가 나는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연줄을 찾기 시작한다. 내정자가 있다는 냄새가 나도 아랑곳 않는다. 힘센 놈이 이기기 마련이니까. 과연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 요즈음 졸업생들의 사무소 입사의 최대의 목표는 5년 후 번허따서 사무실 차리는 일이다. 이유인즉 좀 더 낳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이다. 수 천 만원씩 들여 사무소개업을 한 후 경영에 허덕이다 보면 선배들이 해왔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언가 일을 만들어야 하고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것이다. 시장개방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울타리만 치고 있을 수 있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는 틀림이 없다. 아무도 우리처럼 빨리 흡수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제와서 우리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야만 하는 정신을 찾고 있다.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너무 급급해서 서둘러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그냥 가기만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은 각자가 알아서 찾을 일이다. 갈 길은 멀고 험할 뿐이다.

새해에 걸어보는 바램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탑

'90년대의 서막을 열며 숱한 희망의 보라색 꿈을 그렸었는데 벌써 그 첫해가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정말 얼떨결에 세계의 질서가 바뀌어 생각도 못하던 독일의 통일을 멍하게 바라도 보았고 하루 아침에 한 작은 나라가 힘없이 잡아 먹히는 냉혹한 장면도 볼 수 있었다. 경제계는 온통 우루과이 라운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사회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될 만큼 병들어가고 있다. 공사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하고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으며 향락산업만 사람들이 넘쳐대고 있다. 급기야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해괴한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른 '90년대의 첫해를 우리는 그렇게 우울하게 보낸다. 보랏빛 꿈을 펼치려 하였는데 잿빛으로 온통 뒤범벅이 된 한 해를 보내며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언제나 힘차게 떠오르는 새해 새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보신각의 타종과 함께 열린 새해는 그 여운처럼 우리를 휘감으며 다시 무언가를 다짐하게 한다. 새해의 반복이 수없이 이어져 역사를 끌고 나가듯이 우리는 다짐의 반복으로 발전의 밑거름을 삼는다.

1991년을 맞으며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건축계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역사, 사회, 문화에 우리는 어떠한 위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떠한 철학으로 우리를 키워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건축이라는 절대존재를 위해 우리가 지켜나아갈 일은 무엇인가 반성해 보자. 우리의 협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누구를 위하여 비대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지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습관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지 말고 한번 빠져나와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들을 구경해 보자. 무엇을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대한건축사협회 본부 회장도 바뀌고 서울지부 회장도 새로 선출되었다. 치열하다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당선의 고지를 탈환하지만 이기고 난 후 선거 때의 마음가짐을 얼마나 유지하며 공약의 이행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정말 임기는 짧고 할 일은 많은데 누가 되던 협회의 목적은 같을 테니까 전임자의 바톤을 이어 받아 계승발전시키는 통일된, 지속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얘기가 나온 김에 몇가지 생각들을 새해의 바램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우려

새해부터는 온통 선거열풍이 전국을 뒤흔들어 나갈 것이다. 상반기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필두로 전국토가 열병을 앓을 텐데 30년만에 실시하는 지자제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폐쇄주의, 배타주의가 이 좁은 나라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만이 민주화의 지름길이고 찾아야할 권익이라고 생각하는 독선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방색의 골이 깊은 풍토에서 발전적인 상호 교류가 아니라 퇴행적인 지방보호가 앞장서 건축계에서도 불협화음을 일으킬까 두렵다. 지방자치제 본래의 뜻을 망각하고 편협한 사고나 행정이 가로막는다면 우리나라 민주화의 정착이나 건축문화 발전의 궤도를 모두 망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우리 건축계도 보다 큰 마음을 갖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 같다.

■ 협회 선거방법의 개선

그간 협회의 선거형식을 보면 본부 회장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각 지부회장은 회원들 전원에 의한 직접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본부 회장의 경우는 사실 대의원이 아니면 누가 입후보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형편이며 또 대의원들이 회원들을 대변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부 회장의 경우는 좁은 강당에 엄청난 수의 회원들이 모여 투표를 한다고 법석을 떠는 촌극을 벌이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가 적은 지방은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서울의 경우는 사실 교통문제, 주차문제등과 함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차제에 협회 임원 선거형식을 개선해 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본부 회장의 경우는 대의원의 추천에 의해 2~3명의 후보를 결정한 후 우편물에 의해(엄격히 통일된 형식에 따른) 선거운동을 일정기간 일정회수에 한해 하게 하고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전회원이 우편으로 투표하고 총회에서 개표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서울같이 회원이 많은 지부의 경우는 지부 회장도 그러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협회든 각 지부이든 회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협회를 위해 활동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나 건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분위기로 추대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개 우리 협회지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을 터이니 굳이 직접 현장 선거를 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원로급 회원은 정말 봉사적 자세로 협회를 위해 마지막 헌신을 한다는 정신으로 임해 준다면 더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 건축사 면허 제도 재고

그동안 건축사 면허제도가 여러번 바뀌었으나 아직도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사의 막중한 책임으로 보나 기술자격면허간의 균형으로 보나 건축사의 비중이 기술사보다는 조정통제력이 우위에 서야하는 종합적인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응시조건이 약화되어 있다. 물론 응시조건이 약하다 하여 자격이나 면허의 비중이 약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차라리 옛날처럼 수습기간을 대졸 후 7년으로 하되 설계사무실 경력일시는 5년으로 완화해 주는 것은 설계사무실 즉 건축사사무소 수습에 특혜를 준 것이 되어 좋은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정통 수습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시험에 유리한 실정이니 건축계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려니와 브로커 건축사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공무원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다는 공무원 특혜전형은 오히려 조기 이직을 장려하고 있으니 그것도 유례없는 시행착오가 아닐까 싶다. 무릇 모든 시험은 그 성적을 통해 배출되는 자격이나 면허의 사회적 비중과 권위와 책임을 나타낸다.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책임과 권위가 동시에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시험은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 점점 어려워지는 건축사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책임있는 시험제도의 정착이 아쉽다. 건축사의 자질향상을 노래만 하지말고 처음부터 노란 싹은 골라 자를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해보자.

▩ 단독이니 종합이니 하는 형식의 배제

도대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건축사사무소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억지로 종합이니 단독이니 하고 무리하게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작품을 만드는 종합창작의 마당을 합하여 놓는다고 그 능력이 커지고 질이 좋아진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르, 꼬르뷔제가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세계적 대가가 되었고 알바 알토가 단독건축사사무소라 대가가 못되었는가? 안도 다다오는 또 조직이 커서 주목받는 건축가가 되었을까. 작가의 능력은 작가에게 달려 있고 설계의 질은 작가의 태도에 좌우되지 종합이라 해서 질적으로 우수하고 책임있는 작품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사무실이 너무 영세하여 작품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일 경우는 문제이겠지만 그것은 건축주가 먼저 알아서 판단하고 맞추어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건축사의 됨됨이나 그 그릇에 따라 사무실의 조직이나 규모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터이니 그것이 진실한 경쟁력이고 질적향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점점 건축사계에도 대자본이 침투하여 사무실이 대형화하고 있고 점차 대형회사무실(기업형), 아뜰리에형 사무실, 행정형 사무실 등으로 크게 3분 재편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실에서, 굳이 형식적인 틀이나 규제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건축창작은 자본이나 조직에 의한 공장생산이 아니며 작가의 철학이 깃든 수제품의 정성이어야 하는데 최종 책임을 건축사 스스로에게 맡겨주는 슬기로운 행정이 아쉽다.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❶

6. 祠廟建築

1. 祠堂

1. 사당의 뜻

사당이란 祖上의 神主를 모시어 祭祀를 지내는 건물을 말한다. 이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왕실의 사당은 宗廟라 하고 私家의 사당은 家廟라고 한다. 이 사당은 전술한 서원이나 향교에도 반드시 있어 특히 문성왕인 공자를 비롯한 儒賢을 모신 향교나 성균관의 사당을 文廟 혹은 大成殿이라 한다.

2. 우리나라 祠堂의 由來

우리나라의 사당에 제도는 원래 삼국시대부터 있었음을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으나 그 제도가 家廟로서 嚴格하게 다스려진 것은 「朱子家禮」에 의하여 비롯된 고려말~조선시대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초기에는 사당을 설치하지 않은 사대부는 문책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시비가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중기 이후에는 양반층에서는 가묘를 두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일반서민들도 사당을 따로 두지 못하는 경우 대청의 한 모퉁이나 기타 적당한 곳에 부설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당에 대하여 고려 恭讓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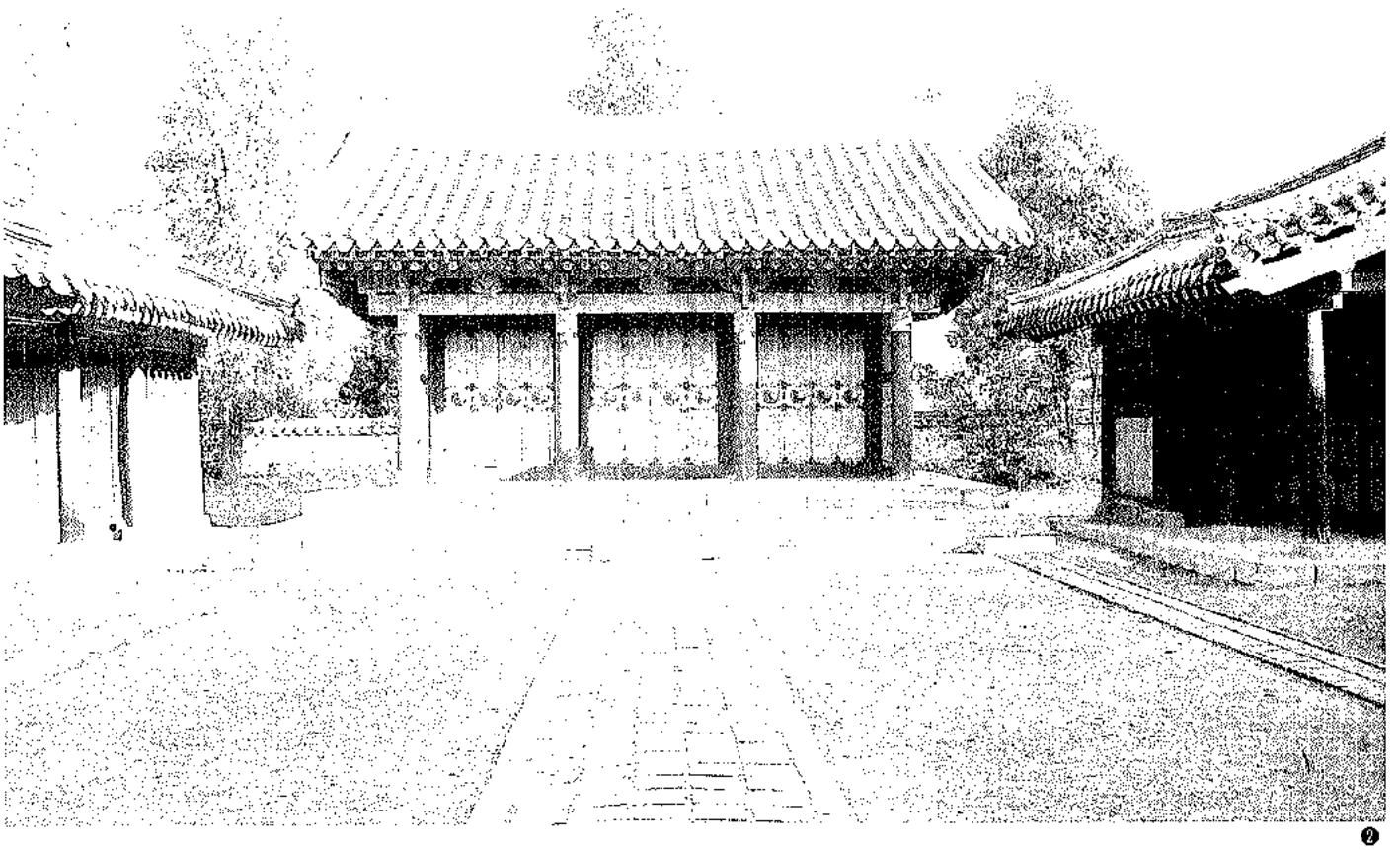
張慶浩/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元年(1389년)에 大司憲 趙浚이 상소하여 조상의 제사를 함에 있어 「朱子家禮」를 쓰되 大夫 이상은 三世, 六品 이상은 二世를 제사지냈고 七品이하 서민은 父母만을 제사지내되 淨室一間을 택하여 신주를 모셔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해 「士大夫家祭儀」가 頒布되어 각 가정에 신주를 모시는 祠堂을 짓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였고 조선 중종때 趙光祖 등의 건의로 국가에서 가묘를 장려함에 사대부집은 모두 사당을 짓고 서민에 이르기까지 적으나마 집 모퉁이에 사당을 마련하여 조상의 신주를 모시어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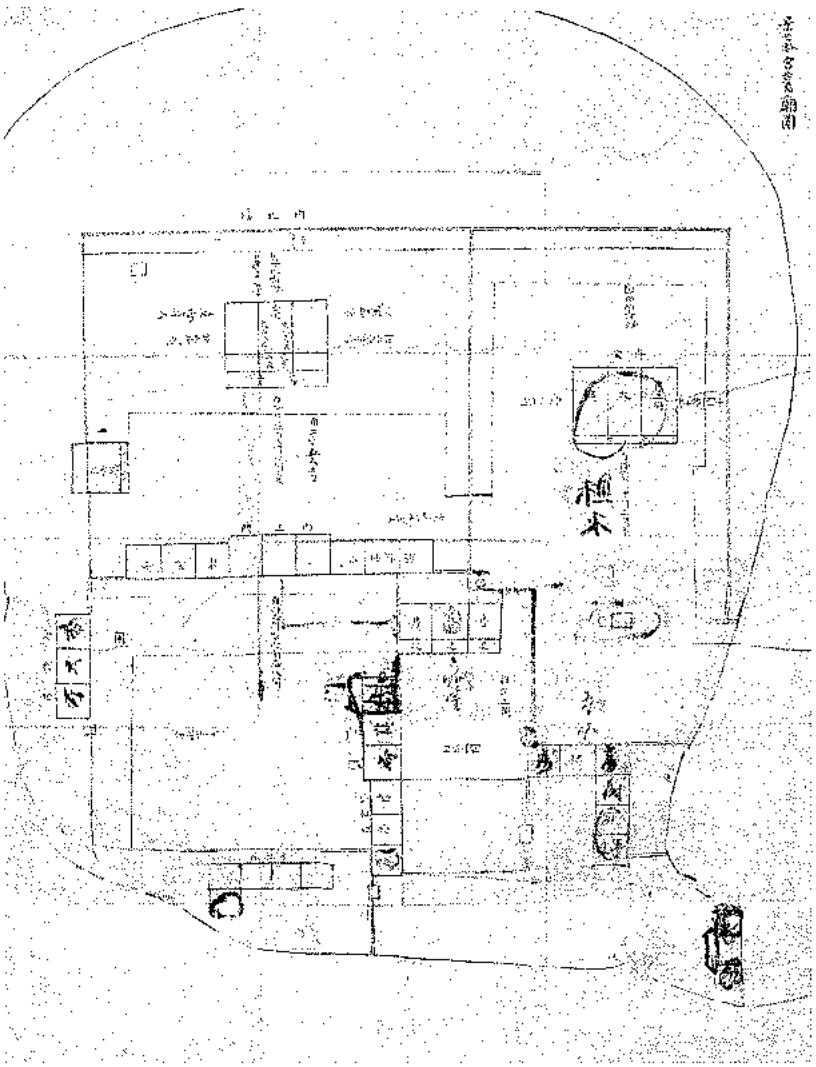
3. 사당의 制度

조선 영조때의 徐有榘(1764~1845년)가 저술한 「林園十六誌」 鄕禮誌編에 '君子가 궁실을 지으매 먼저 正寢 동쪽에 祠堂을 세운다'고 기록하여 사당의 자리를 명백히 하였다. 또 여기에는 '사당의 제도에 따라 三間을 세우되 밖에 중문을 두고 중문 밖에 양계단을 두는데 동쪽 계단을 阼階라 하고 서쪽 계단을 西階라 한다. 대지의 넓고 좁은데 따라서 집의 크기와 모양을 정하여 遺書, 衣物 祭器庫 및 神廚를 동쪽에 두고 주위에는 담을 두르므로 별도의 문을 두어 항상 빗장을 잠구어 두는데 만약 집이 가난하고 땅이 좁으면 單間을 세우는데 그쳐 廚庫를 세우지 않고 다만 동·서壁 아래에 兩櫃를 두고 서쪽에는 遺書, 衣物을 두고 동쪽에는 祭器를 둔다. 또 무릇 사당이 있는 바 집은 종가가 대대로 지켜 나눌 수 없다. 집의 제도는 전면을 남으로 하고 뒤를 북으로하여 좌를 동으로 우를 서로 한다.
四龕으로서 先世神主를 받든다. 즉 사당내 북편에 四龕을 짜아 每龕에는 탁자를 두고 高祖를 서쪽에 받들고 曾祖를 다음에, 祖를 그 다음, 父를 다음으로 차례로 모시는데 神主는 모두 函에 넣어 탁자 위에 남향을 하여 모시고 龕外에 小簾을 세우는 외에 香卓을 堂內에 두고 그 위에 香爐, 香盒을 둔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사당은 정면 3間의 남향을 하고 사당앞에 중문을 두어 담장을 따로 두르고 계단을 동·서에 놓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 남아있는 사당의 실예를 보면 대부분이 3間 정면에 터진 退間을 둔 측면을 하여 5樑架를 하고 지붕은 맞배 혹은 팔작지붕을 갖는다. 또 정면에는 판문이나 분합문을 달고 있는데 판문을 함이 보통이고 건물의 바닥은 塼을 깔았거나 마루를 깔고 천장은 반자가 없는 연등천장을 한다. 또 단청은 가급적 간소하고 화려하지 않은 단색이나 긋기 정도로 함이 보통이고 가묘인 경우는 단청을 하지 않는다.

❶ 慶基殿 肇慶廟 舊圖
❷ 肇慶廟 正殿과 神道



❷



❸景廟宮 舊廟圖
❹조경묘 정전 정면
❺배치도
❻정전 평면도
❼內三門

또 사당은 一家門의 조상을 모시는 개인적인 가묘로서의 사당뿐만이 아니라 學問이나 덕행 그리고 武功이 있는 인물의 사당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사당은 그의 연고지와 백성들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보통인데 충무공 이순신 사당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의 遺墟에는 公의 殉國 후 그 위업과 정신을 추모하여 많은 사당들이 건립되어 奉祀되어 오고있다. 1606년 왕명에 의하여 李雲龍이 창건한 충무 忠烈祠를 비롯하여 孝宗 10년(1659년)에 사당으로 改建한 남해 충렬사 그리고 공이 젊은 시절을 보낸 아산의 顯忠祠 등이 있다. 특히 아산 현충사는 1970년에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사당을 정면5間 측면4間, 다포계 형식의 팔작지붕의 거대한 사당을 콘크리트로 세워서 공을 봉사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일곽에는 기념관을 세워서 공의 유품을 전시하고 기념함으로써 그의 업적을 길이 보존하도록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

4. 景慕宮의 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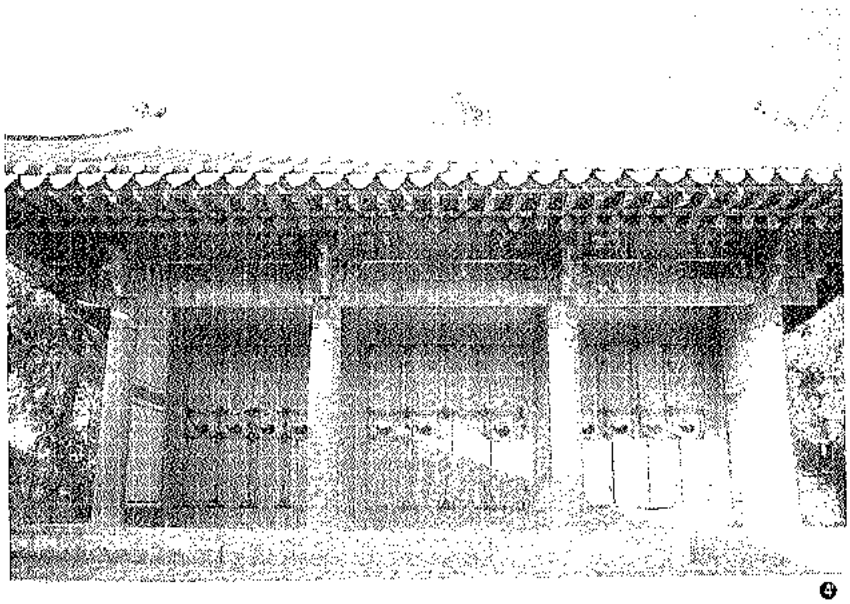
한편 王家에서 신주를 모시는 종묘제도에 대하여는 「國朝五禮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엄격한 제도가 있어 행해지는 宗廟의 행사가 있지만 왕족이라 하더라도 종묘에 奉祀하지 못하는 이들은 일반私家에서 모시듯 소규모의 사당을 건립하여 봉사하였다. 그 좋은 예가 비정한 父王에 의하여 젊은 나이에 삶을 빼앗긴 思悼世子의 廟인 景慕宮을 들 수 있다. 경모궁은 현 창경궁 동쪽 서울대학병원 있는 부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마침 이 경모궁의 건축계획을 부왕인 英祖가 직접 지휘하여 案에 수정을 가한 「景慕宮舊廟圖」가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이것은 영조40년(1764년)에 都監郎廳戶曹正郎 宋欽明이 계획하여 왕의 裁可를 받으면서 일부의 계획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계획圖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계획도는 잘 정리된 평면도인데 전체적으로 남향하여 배치한 것이다. 그 배치는 境域 서북쪽에 있는 사당구역과 그 앞 남쪽에는 守僕房과 祭官房구역이 있고 사당구역의 동쪽에는 齋室區域을 따로 배치하고 그 남쪽에 떨어져 典祠廳을 두고 전사청과 제관청 구역 사이에는 香大廳이 배치되고 여기서 동쪽 수복방 구역으로 통하는 3間門이 있다. 사당구역은 사방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서쪽내에 移安廳이 있으며 사당 남쪽에는 내삼문과 그 양 옆으로 翼室이 각 3間式 있어 동쪽에는 中配設廳, 서쪽에 祭器庫가 있다. 이 계획도에는 祠堂 등 중요한 건물에는 주칸의 수치가 기록되었고 內庭의 규모도 표시되어 대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일반 士大夫의 사당 규모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王의 御筆로 수정된 내용을 보면 사당 동쪽에 따로 둔 재실은 그 남서쪽에 향대청으로 옮기고 이곳에는 植樹를 하도록 표시했으며 또 수복방을 향대청으로 바꾸고 이 앞에 놓인 수복방과 軍士房을 동남쪽 출입문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다시 그 동남쪽에 솟을대문을 표시하였다. 이 묘의 계획은 비록 왕족이긴 하나 그 제도를 화려하지 않게 꾸미고 있음이 특징이며 또한 이 자료는 조선시대 왕족의 廟를 계획한 배치 계획도로서 우리나라의 건축사학적 가치가 큰 것이다.

5. 肇慶廟와 慶基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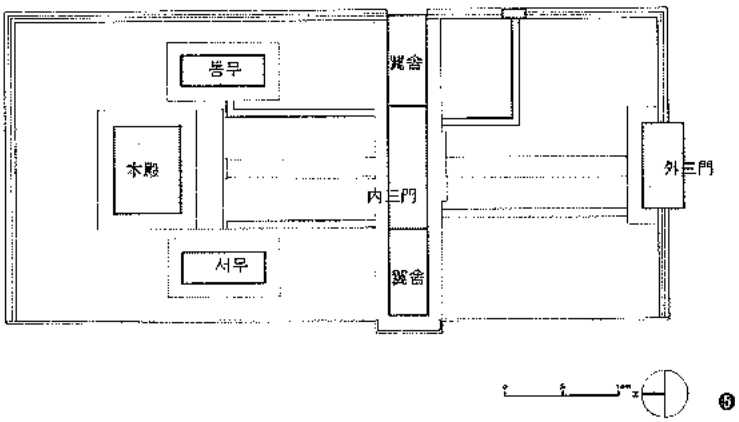
祠廟建築으로 특수한 예는 전주에 있는 肇慶廟를 들 수 있는데 이곳은 李氏王家의 발상지라 하여 이씨 시조의 位牌를 봉안한 곳이다. 殿內에는 「始祖考新羅司空神位」라고 한 것과 「始祖妣慶州金氏神位」가 墨書된 위패가 안치되어 시조는 신라의 司空이란 벼슬을 한 분 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조의 휘는 翰인데 전주 동교 滋滿洞에 거주하였다고 하며 이는 이태조의 21世祖이다. 또 그의 妣는 신라 태종 10世孫인 軍尹 金殷義의 딸이라고 한다. 이 조경묘는 영조47년(1771년)에 7道 儒生의 상소에 따라 창건된 것으로 그 祭禮儀는

기히 운영되고 있는 慶基殿에 따르도록 하였다 한다. 따라서 그 규모는 경기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건물의 배치방식은 그와 유사하였다. 사당은 담으로 둘러져 內·外三門을 통하게 되어있고 사당앞 左·右에는 東·西廡가 서로 마주보며 놓여있다. 사당은 정면3間 측면2間의 익공계 맞배집이다. 밑에는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짜은 장대석 2중기단을 놓고 그 중앙 앞에는 박석 포장의 도로를 두어 內三門으로 통하게 하였다. 정면에는 各間마다 골판문 4매로 된 쌍여닫이문을 달고 내부에는 북벽에 붙여서 壇을 설치하여 위패를 모시었다.
內·外三門은 정면3間의 익공계 맞배집으로 특히 내삼문 양측에는 각2間의 翼舍를 두어 祭具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은 조선 말기에 개축된 것 같고 원래의 배치로 보이는 「慶基殿肇慶廟舊圖」를 살펴보면 조경묘는 조선 왕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이 '丁'字로 되어 있고 양측에는 附屬건물들이 격식을 갖추어 있었다. 즉 중앙에 있는 조경묘 구역 동측에는 밑의 남측에서부터 守僕廳, 齋室, 祭器庫, 春室, 典祀廳, 御井 등이 있고 북동쪽에 따로 떨어져 守直幕이 있다. 그리고 조경묘 서쪽에는 紅箭門과 下馬碑가 있고 그 북쪽에 별채의 집이 2채 있다. 또 조경묘 西北담장 안에는 燒祝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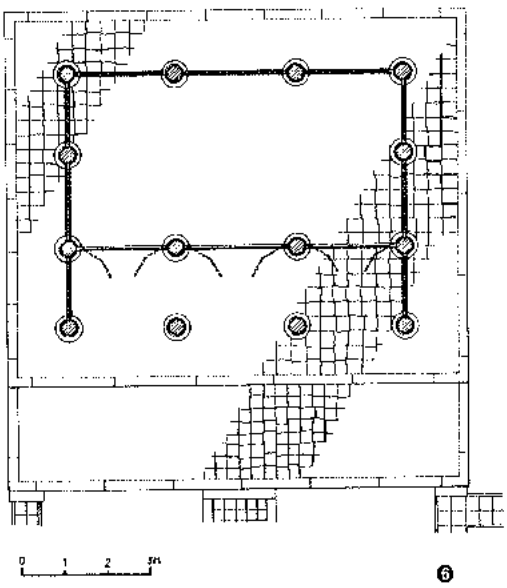
조경묘 앞에는 太宗 10年(1410년)에 창건한 慶基殿이 있는데 여기에는 李太祖 影幀을 奉安한 곳이다. 이곳은 경주의 集慶殿, 평양의 永崇殿과 함께 처음에는 御容殿이라 하였다. 이 경기전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조경묘보다는 규모가 컸고 軍幕과 守門將廳, 侍衛廳 등이 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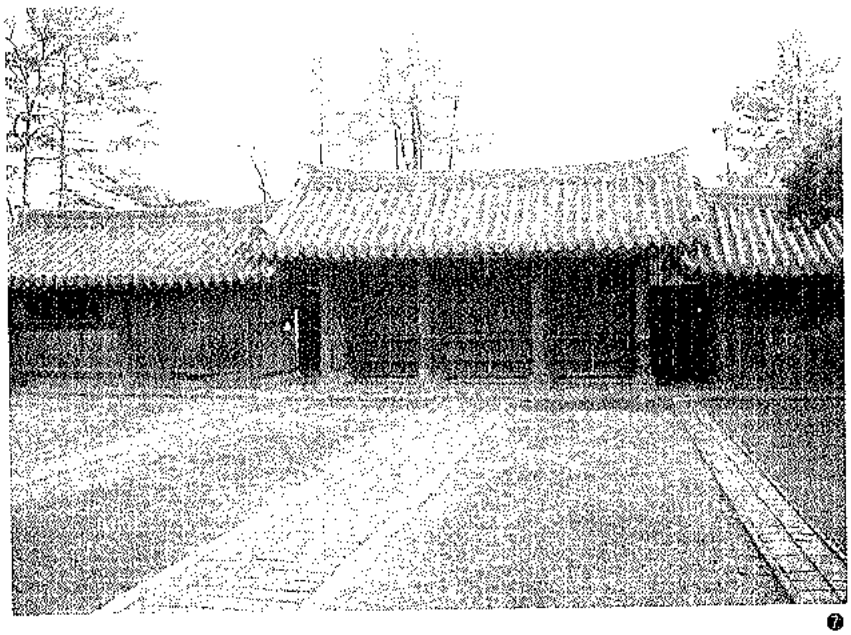
❹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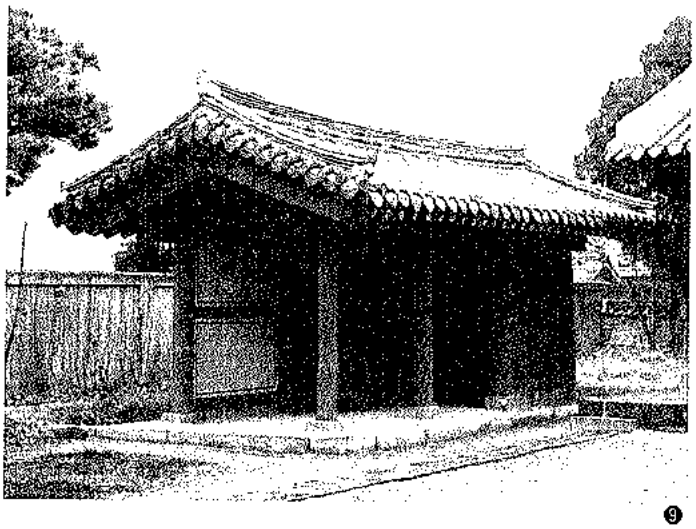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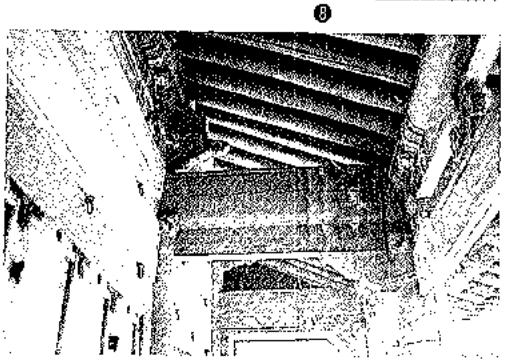
❼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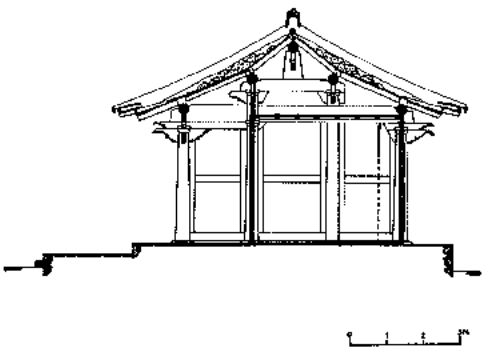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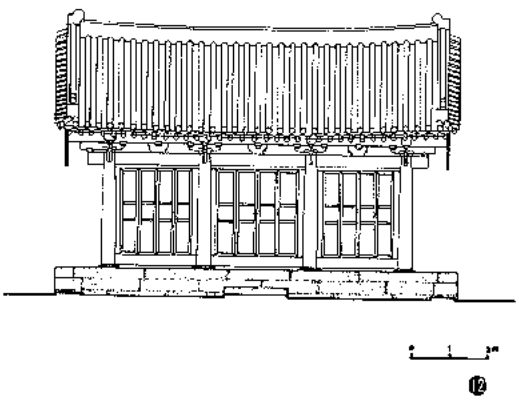
❽동무
❾서무
❿정전 전퇴 상부
⓫본전 단면도
⓬본전 정면도
⓭東廟 本殿 전경
⓮동묘 동무 전경
⓯서무 전경
⓰평면도
⓱배치도



❿



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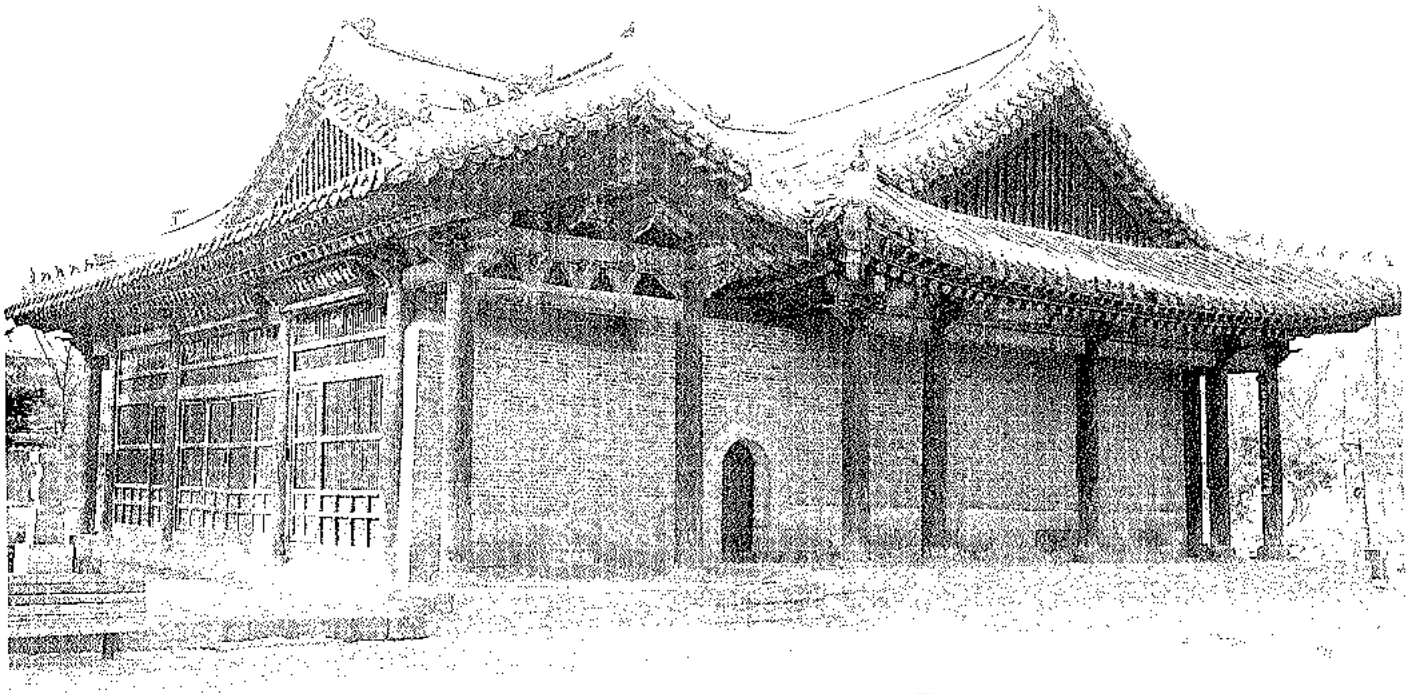
⓬

6. 서울東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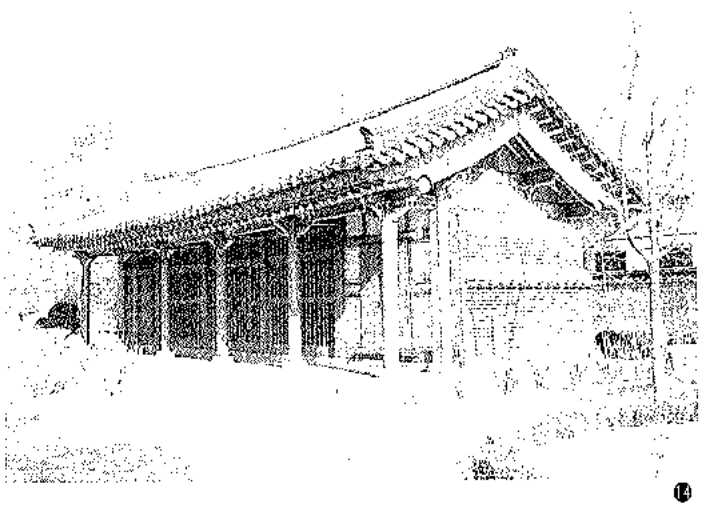
서울 동대문 밖에 있는 東廟는 중국의 三國志에 나오는 關羽장수를 奉祀한 祠廟로서 關王廟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때 明의 장수 陳寅의 발원으로 남대문밖 現중구에 南廟를 세우게 된 이후 각처에 세워진 사묘의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관우장수의 塑像 등을 봉안하여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일반인의 염원을 기원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도 前記 明將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상처를 낫게 하였다 하여 그의 평소 관왕에 대한 돈독한 信心에 따른 영험으로 믿었던 것이다.

동관왕묘는 선조32년(1599년) 明帝의 명에 의하여 착공하여 2년후에 완공한 것으로 중국의 사묘건축형식을 따라 건립된 특이한 건축이다. 숭인동의 동대문과 청량리로 뻗은 대로남변 낮은 지대에 남향하여 위치한 것으로 남쪽에 정문과 중문이 있고 이 경내에는 북쪽에 정전이 놓여 그 앞 양옆에 동·서무가 놓여있다. 그리고 주위에는 담장을 돌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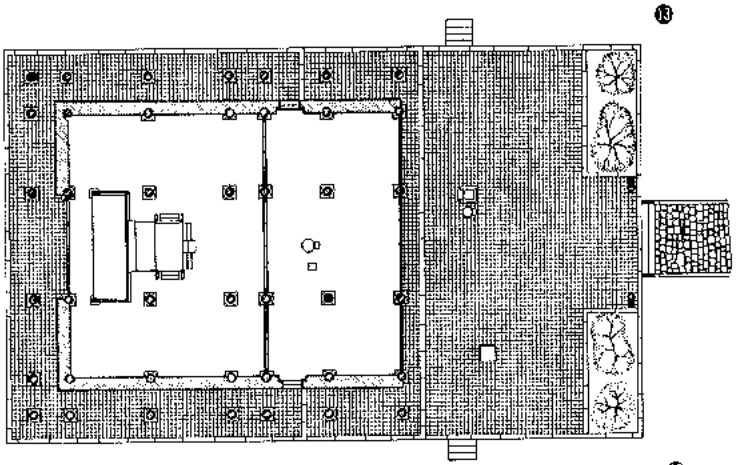
正殿은 평면으로 보아 남북으로 길게 장방형을 이루고 있는데 양측면과 후측에는 출입을 위한 판문을 제외하고는 전벽을 쌓아 올렸으며 밖으로는 트인 列柱를 세워 退間을 이루도록 하였다. 건물의 전면은 左·右兩退를 제외한 3間에 분합 살문을 달았다. 건물의 내부는 前室과 本室로 구분되어 2室사이에는 문짝을 달았다. 본실의 후측 중앙에는 단을 만들어 관우의 木像을 안치하고 그 양측에는 그의 眷屬인 關平·周倉 등 4人의 像을 모시었다. 건물의 바닥은 塼을 깔고 천장은 전실에는 연등을 본실에는 중앙에 우물천장을 짜았다. 또 공포는 특이한 형식의 익공계의 공포이다. 특히 지붕은 '一'자와 '丁'자형 평면이 혼용된 복잡한 지붕을 하고 양성과 잡성을 올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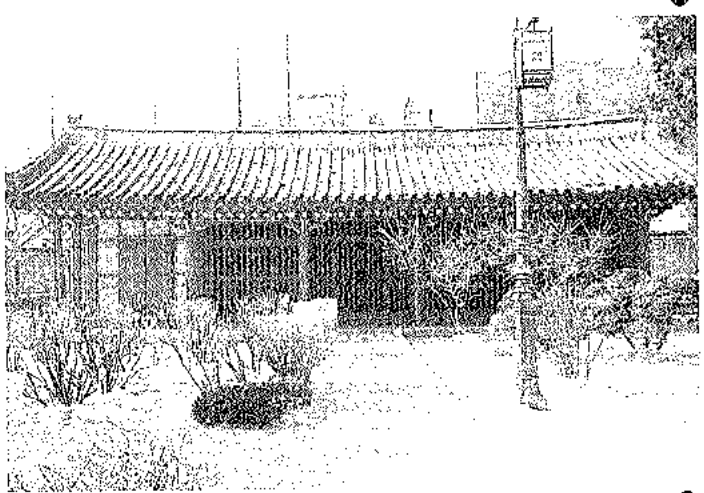
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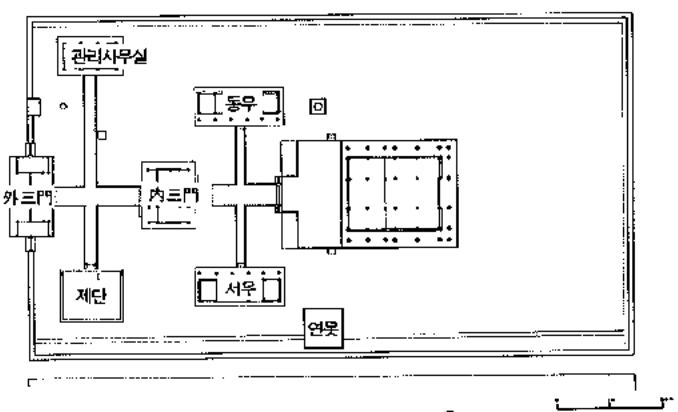
⓮



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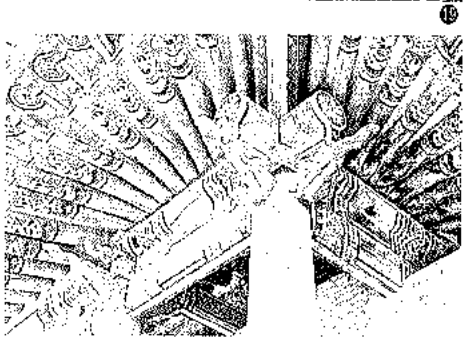
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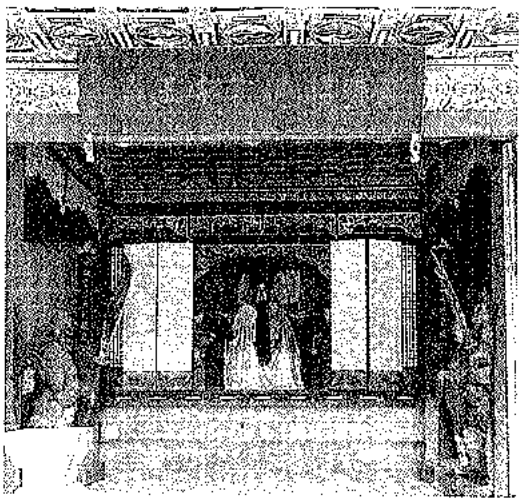
⓱

⑱

⑲



⑳



㉑

⑱內三門
⑲본전 정면
⑳본전 공포
㉑정전 내부

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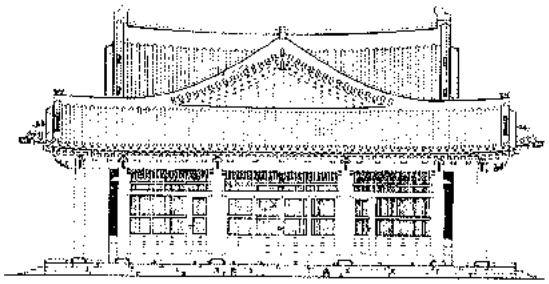
이외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國家에 공헌이 있어 그 연고지에 사당을 건립하는 忠烈祠나 忠義祠 등이 있는데 이 경우 사당이 3間을 넘지 못하고 그 규모도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齋室과 守直舍 등을 두어 祭祀에 기능을 갖게 한다. 그러나 牙山 顯充祠와 같이 근래에 聖域化한 李忠武公의 祠堂은 정면5間으로 확장하고 경역을 확대하는 등 그 규모에 있어 전통을 깨뜨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書院에 있는 廟나 士大夫의 家廟 3間 이상을 쓰지않고 있다. 祠廟의 바닥은 肇慶廟와 같이 塼乭을 깔거나 충남 孟氏杏壇사당과 같이 마루를 깔거나 前退를 포함하여 마루를 깔거나 경남 진주시에 있어 충의공 鄭文孚를 제사하는 忠毅祠와 같이 退는 塼을 깔고 내부는 마루를 깐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또 해남 表忠祠와 같이 바닥을 짚과 자리로 깐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종묘에서도 가용되고 또 咸興本宮이나 永興本宮에서도 사용됨을 볼 수 있어 소위 일본의 다다미와 상통되는 것이 아닌가 주목이 된다.

사묘건축에는 이외에도 충남 鷄龍山 中嶽壇과 같이 國太民安을 위하여 名山에다 山祠를 두어 봄·가을로 祭를 지내는 곳도 있다. 이 중악단에 관련하여 妙香山의 上嶽壇과 智異山의 下嶽壇을 두었다. 또 밀양의 表忠祠는 四溟大師의 넋을 奉祀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한쪽에는 절이 있고 한편에는 사당이 있어 佛敎와 儒敎제도가 共存하는 特例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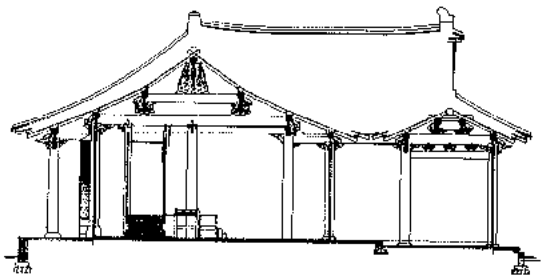
8. 祠廟의 附屬建物

사묘건축에 부속된 건조물과 그 기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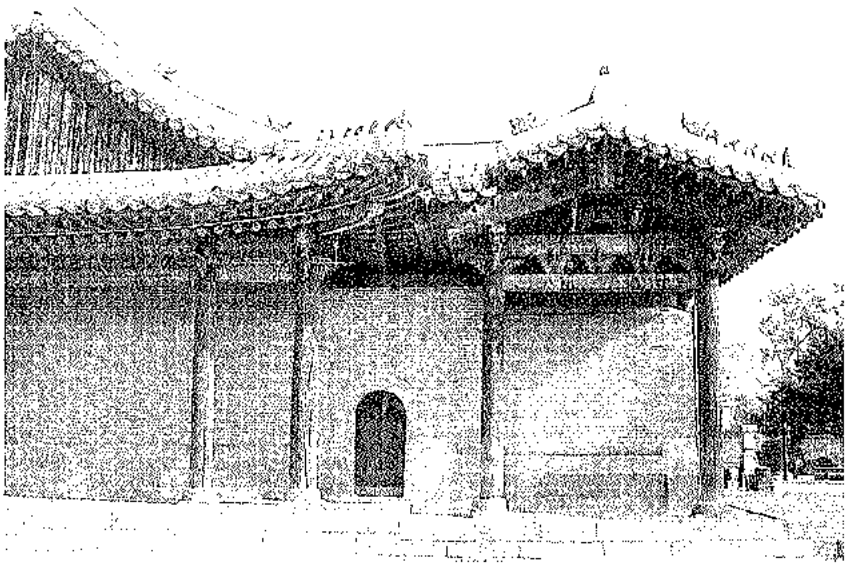
• 守僕廳 또는 守僕房 : 廟·祠·陵·園·書院



㉒



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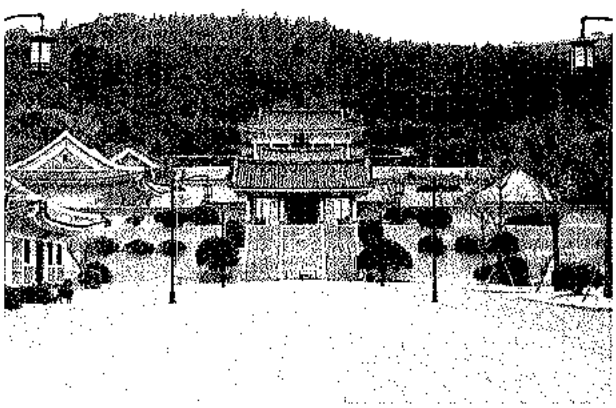
㉔

같은 곳에서 祭祀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守僕이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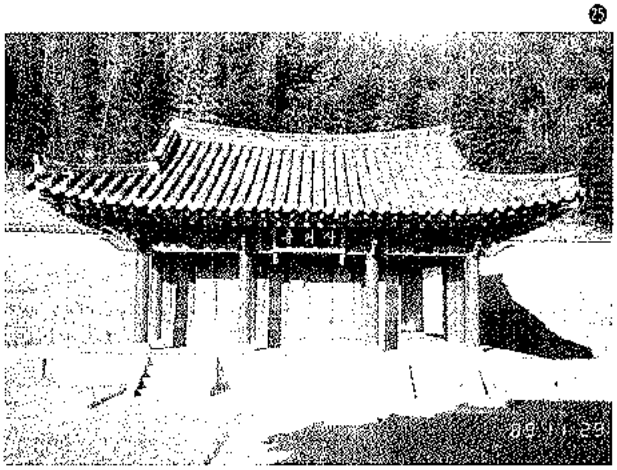
- 香大廳 : 祭祀에 쓰이는 香과 祝에 관한 일을 맡아하는 곳.
- 祭器庫 : 祭祀用 器具를 보관하는 곳.
- 典祀廳 : 祭祀와 贈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
- 移安廳 : 神主를 옮기는 일을 맡아보는 곳.
- 眷　室 : 방아를 찧는 곳.
- 神　廚 : 祭需나 제물을 만드는 곳.
- 齋　室 : 廟나 사당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어진 집으로 재각이라고도 함. 또는 文廟에서 儒生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함.
- 東·西廡 : 文廟에서 儒賢을 배향하는 집으로 보통 大成殿 앞 양편에 마주 놓여 있다.
- 守直幕 : 祠廟를 지키는 곳.
- 紅箭門 : 둥근 기둥 2개를 양측에 세워 상부에 가로대를 2열로 대고 그 사이 살대를 등간격으로 꽂은 문으로 붉은 석간주칠을 하였다. 보통 陵·園·廟와 관아 등에 入門으로 사용됨.
- 下馬碑 :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알리는 碑石임.

以外에도 宮廟인 경우 왕을 호위하는 侍衛廳과 軍幕 그리고 守門將이 있는 守門將廳이 있다.

끝으로 祠堂祭禮에는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당을 찾아 뵙는 晨謁禮를 비롯하여 주인이나 주부가 집을 出入할 때 告하는 出入禮와 親正이나 冬至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지내는 參禮, 그리고 계절에 따라 새로운 음식을 올리는 薦新禮, 무슨 일이 있으면 告하는 告事禮 등이 있다.



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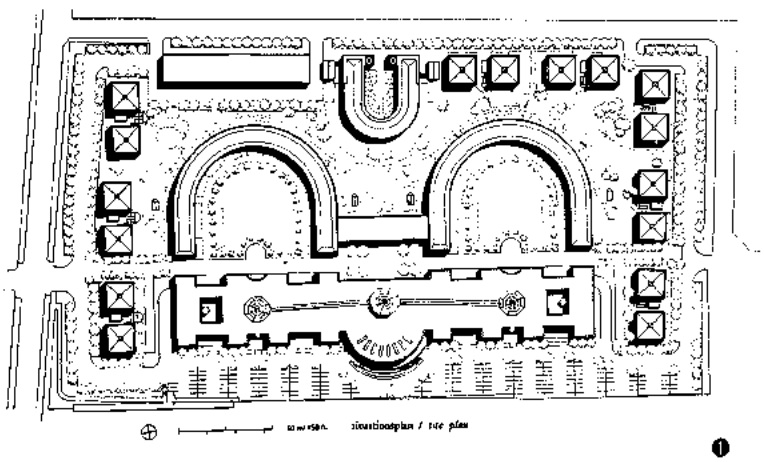


㉖

㉒ 본전 정면도
㉓ 종단면도
㉔ 측면상세
㉕ 釜山 忠烈祠
㉖ 晋州 忠毅祠 전경

헤닝라센의 코펜하겐 경영대학교

Henning Lasen's School of Scince Management



❶

朴賢燦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프랜
by Park, Hyun-Chan

■序

안 야곱센(Arne Jacobsen , 1902~71), 요른 웃존(J ϕ rn Utzon , 1918~)과 함께 덴마크의 근대건축을 연결·발전시키며 국제적 성공과 명성을 얻고 있는 헤닝 라센(Henning Larsen)은 1925년에 출생하여 코펜하겐의 왕립 예술 아카데미, 1951~52년 런던 건축학교, 미국의 보스톤건축학교 석사, MIT 에서 수학하였다.

그후 북미와 덴마크의 많은 건축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데 즉, 1952년 그가 처음 실무를 시작한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그레솔드(Grassold)와 존슨(Johnsson)의 사무소에서 일하였고, 다음해 안 야곱센과 일하며, 1956년에서 1959년 브루엘(Bruel), 본느부쉬(Bornebush), 셀쇼(Selchau)와 함께 실무 경험 후 그 자신의 사무소 Henning Larsen Tegnestue A / S 를 설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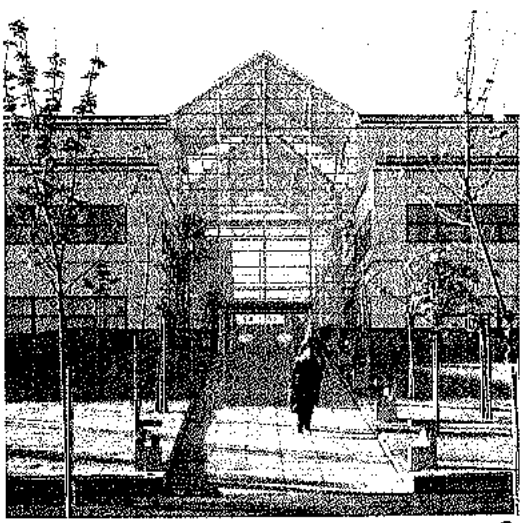
1958년 이래로 코펜하겐 왕립예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프린스톤, 예일대 초빙강사, 덴마크와 아루스대학과 노르웨이의 트론드하임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1961년 불행하게도 실현되지 않았던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설계현상경기 1등 당선안, 노르웨이의 트론드하임 대학 콤플렉스(1969~70년 현상설계 당선, 1975~78년 시공), 베를린 자유대학(1973~81년), 1979년 코펜하겐 근교의 호제 타스트럽(H ϕ je Taastrup)학교, 덴마크 젠토프트의 중앙 도서관(1978년 젠토프트시의 현상설계 당선), 영국의 킹톤 버니 오페라와 캠브리지의 처칠대학 현상설계 당선, 사우디아라비아 와무부(리야드, 1979~80년 현상설계 당선, 1982~84년 시공, 1989년도 Aga Khan 상 수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소재의 덴마크 대사관(1985~87년 시공), 덴마크의 코펜하겐 경영대학교(프레데릭스버그, 1982~88년)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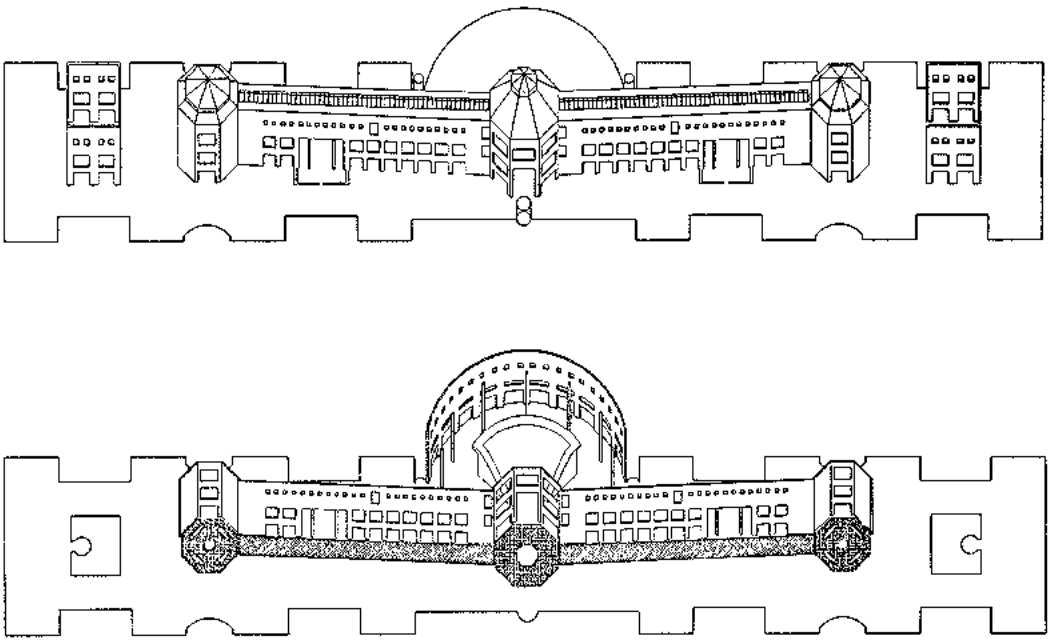
■프레데릭스버그 소재 코펜하겐 경영대학교(1982~1988)

코펜하겐의 경영대학교는 여러 학과가 코펜하겐시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최근에 프레데릭스버그(Frederiksberg)의 산업지구에 어학과를 위한 새로운 건물이 설계되었다. 이 학교는 헤닝 라센 사무실에서 작업한 마스터플랜의 일부로서,(배치도 참조) 완전히 대칭되는 계획으로, 집합주택도 포함하고 있다. 이 학교는 연면적 67,000㎡로 주위에 475호의 단순집합주거가 지어지고 있었으며, 남쪽으로 향하여 철길로 둘러싸여 있다.

계획안의 주개념은 남쪽 끝을 지나는 철길과 반대편의 고층건물, 그리고 부지 나머지 부분에 위치한 조용한 주거지 사이의 칭각 및 시각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큰 블럭과도 같은 대학건물이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도시 주변에 연결짓는 것이다. 2개의 큰 말발굽 모양으로 양쪽 끝이 서로 연결되어 학교건물로 향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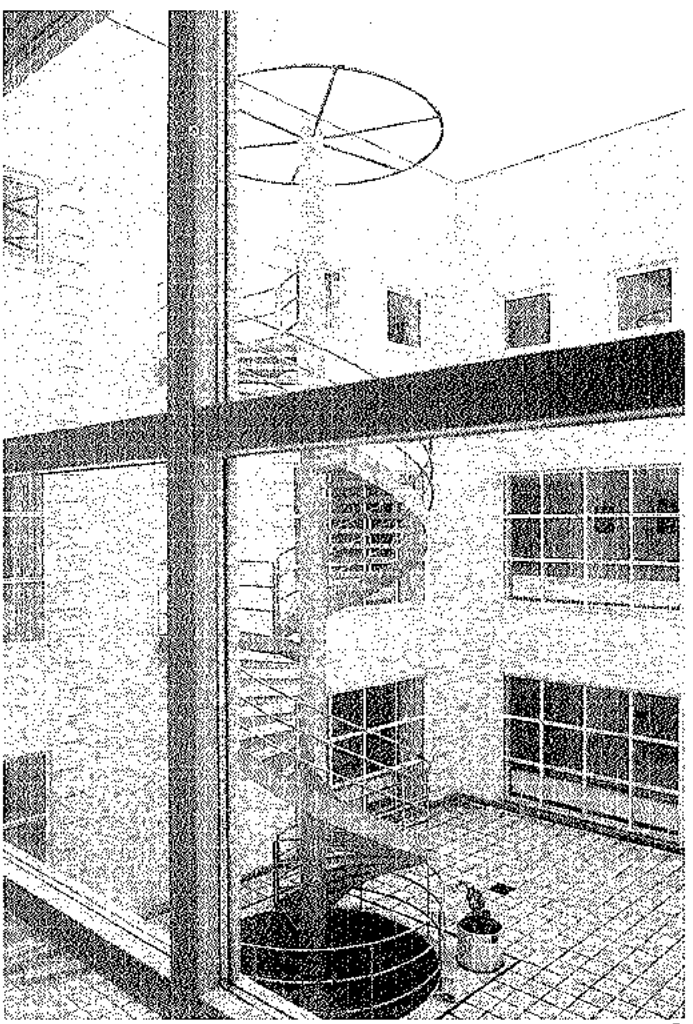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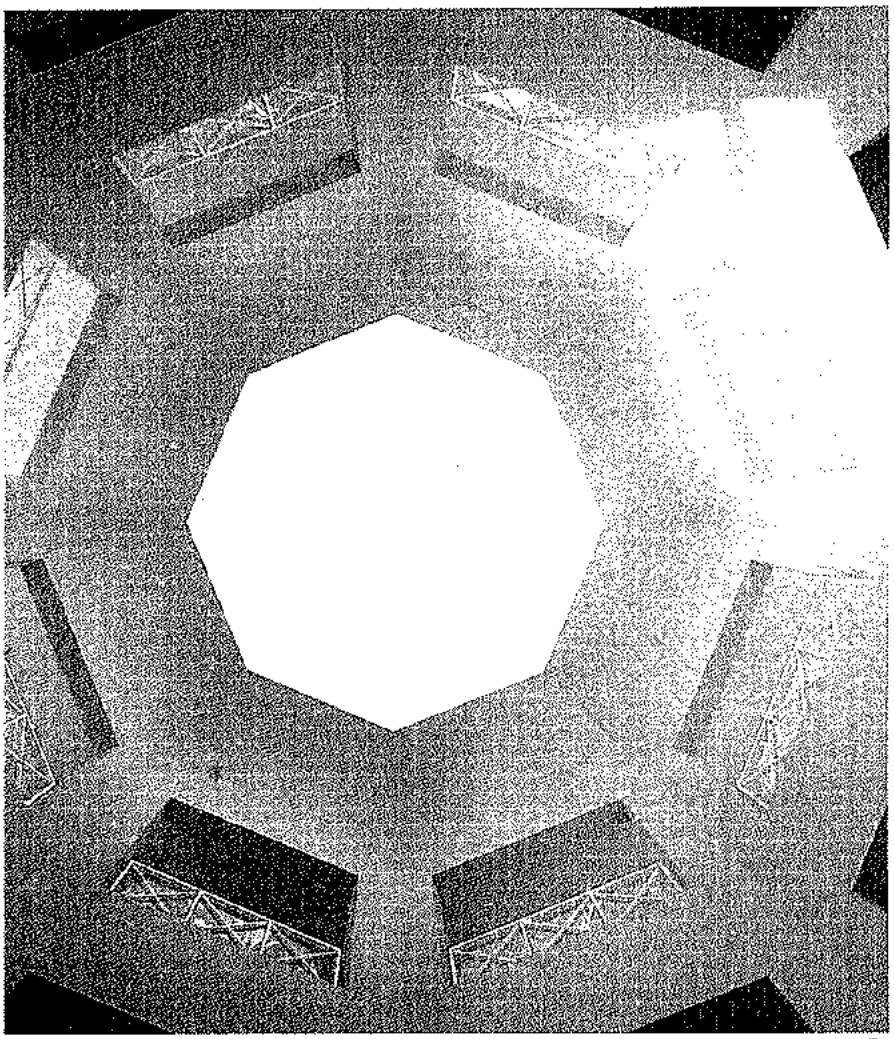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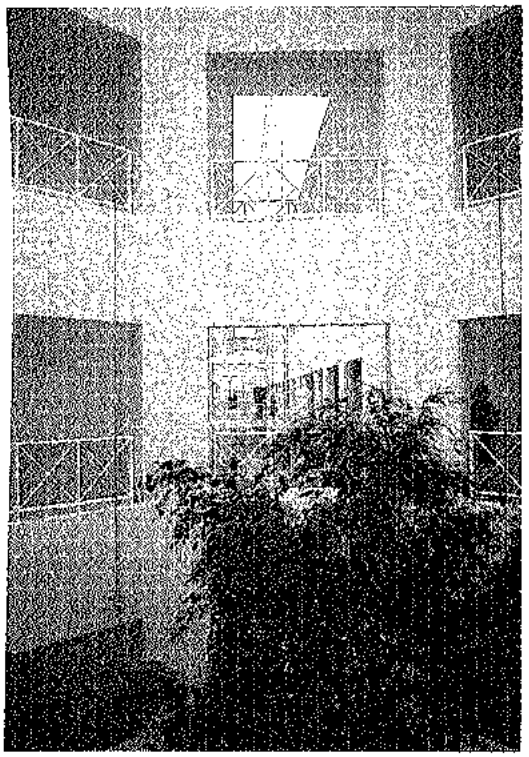
❹



❺



❻



❼

❶ 코펜하겐 경영대학교 배치도
❷ 해닝 라센이 설계한 노르웨이 트론트 하임 대학
❸ 코펜하겐 경영대학교 개념 엑소노메트릭
❹ 건물 남측의 계단실 부분
❺ 건물 양단에 있는 중정

중간규모의 주거동을 저층레벨에 위치시키고, 학교와 도시개발 사이에 전이적 지역으로 앙질의 주거복합을 주위에 배치하여 이 작은 대학도시는 기존의 도시경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도시 한가운데에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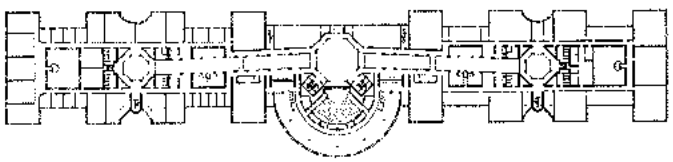
외부의 인상은 내부기능을 명확히 밝혀 주지 못하는데, 즉 병원에서 사무실측은 교육기관같기도 한데, 건물내부로 진입하면서 빠르게 해소된다. 라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익명성과 내·외부의 심한 대조가 내부공간을 보다 가치있게 하고, 예기치 않았던 큰 기쁨을 주는 것 같다.

본 건물은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구성은 3층 높이의 222m 길이와 큰 파빌리온으로 행정사무실은 최상층에 있고, 강의실이나 다른 학생센터는 아래의 두 개층에 위치해 있다. 중앙의 반원형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매스에 의해 강조되었듯이 평면에서도 대칭이며, 1층에 학생식당이 있고, 상층부에 대강당과 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그 측면에 소강당과 대강의실 그리고 소강의실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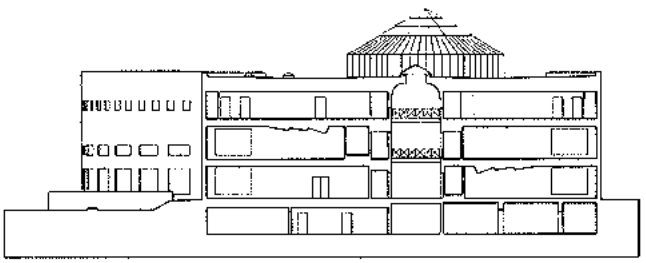
Kim Dirckinck-Holmfeld 가 「ARKITEKTUR」지에 '건물의 다양한 기능들을 연결한 중앙의 통로 혹은 가로는 덴마크 건축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공간적으로 가장 호화로운 내부가로중 하나이다. 이것은 정제되고 엄격한 고전주의를 표현하며, 라센 사무실에서 계획한 라야드소재 외무성 건물의 내부와도 매우 유사하다. 두 건물은 공간적 특성과 재료선정에 있어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데, 중앙축의 양단에 경계를 이루는 팔각타워는 라야드에서도 사용했던 요소이며, 대리석 바닥 패턴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평한대로 내부의 배치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소 모뉴멘탈한 효과를 내며, 내부의 가로는 횡적 방향에 대하여 약간 굽어 있음으로 해서 특기할 만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재미있는 일화로, 본 건물을 설명해준 이에 따르면, 건축가가 본 건물 설계시 모형 스터디과정에서 큰 근거없이 내부가로의 축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하면서 약간 틀었다는 것인데, 내부가로가 직선이었다면, 매우 지루하고 투시효과도 적었으리라 생각된다. 또 한 가지는 소방법규상 220m 길이나 되는 내부가로 중간에 방화벽이 있어야 하나 본 건물은 이례적으로 특혜를 받은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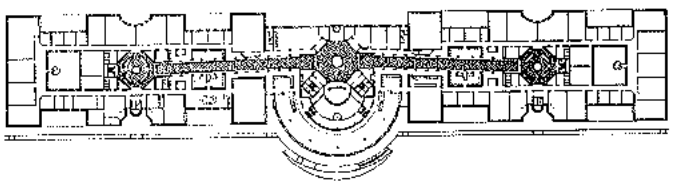
건물의 중앙부분으로 진입했을 때 양쪽으로 보이는 예기치 못했던 높고 긴 거대한 공간, 가로축과 천장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용한 부분적 색상과 장식으로 인하여 내부공간의 액센트가 주어지고 있으며,

longdesma & longitudinal section ca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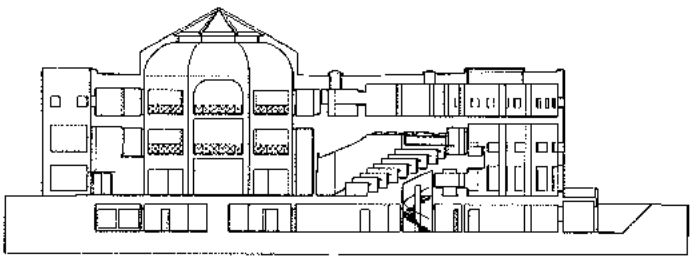


1 tahplan / 1st floor plan ca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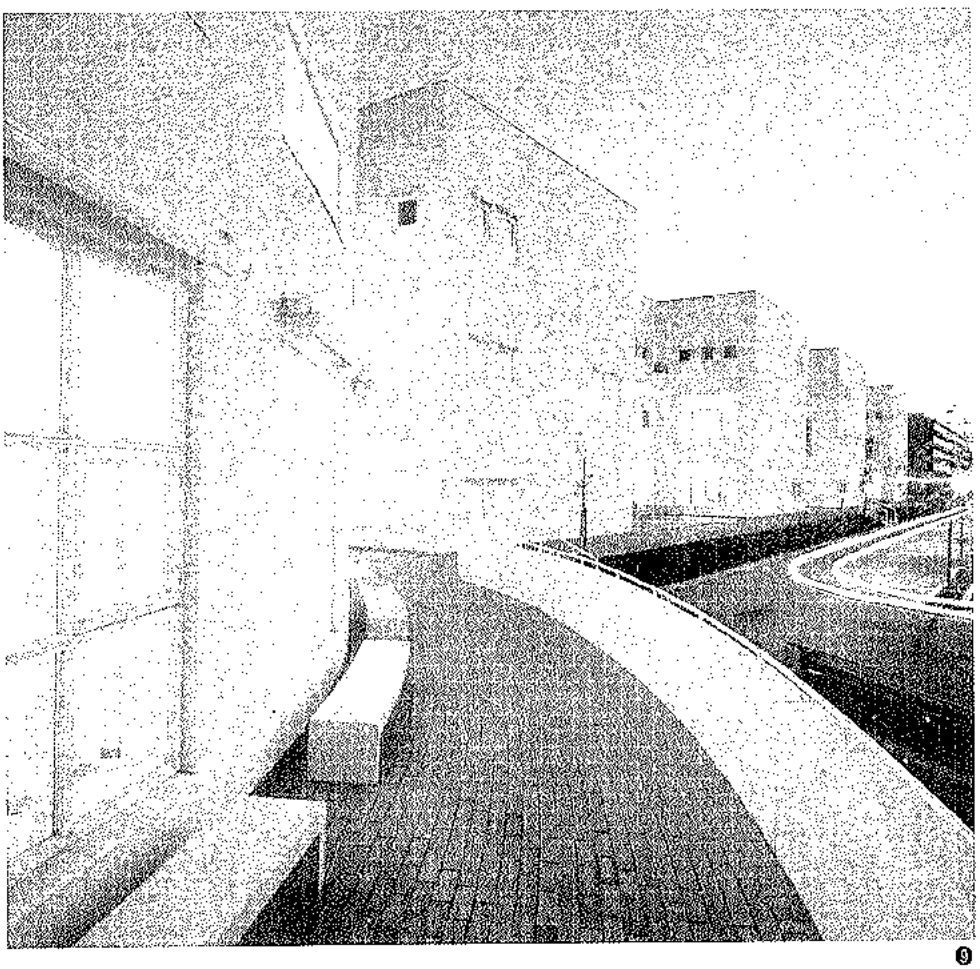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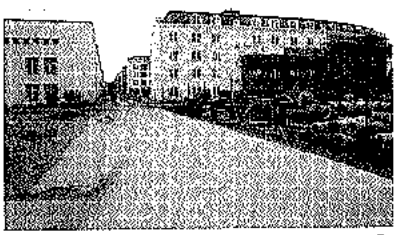
mueplan / ground floor plan ca 1:800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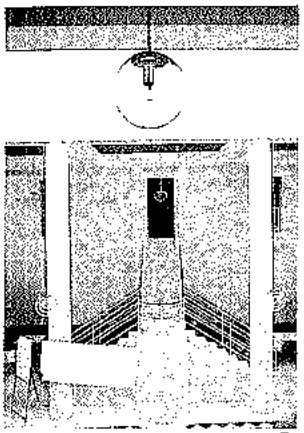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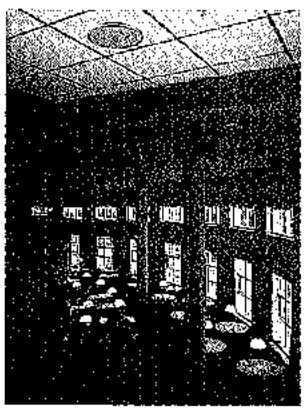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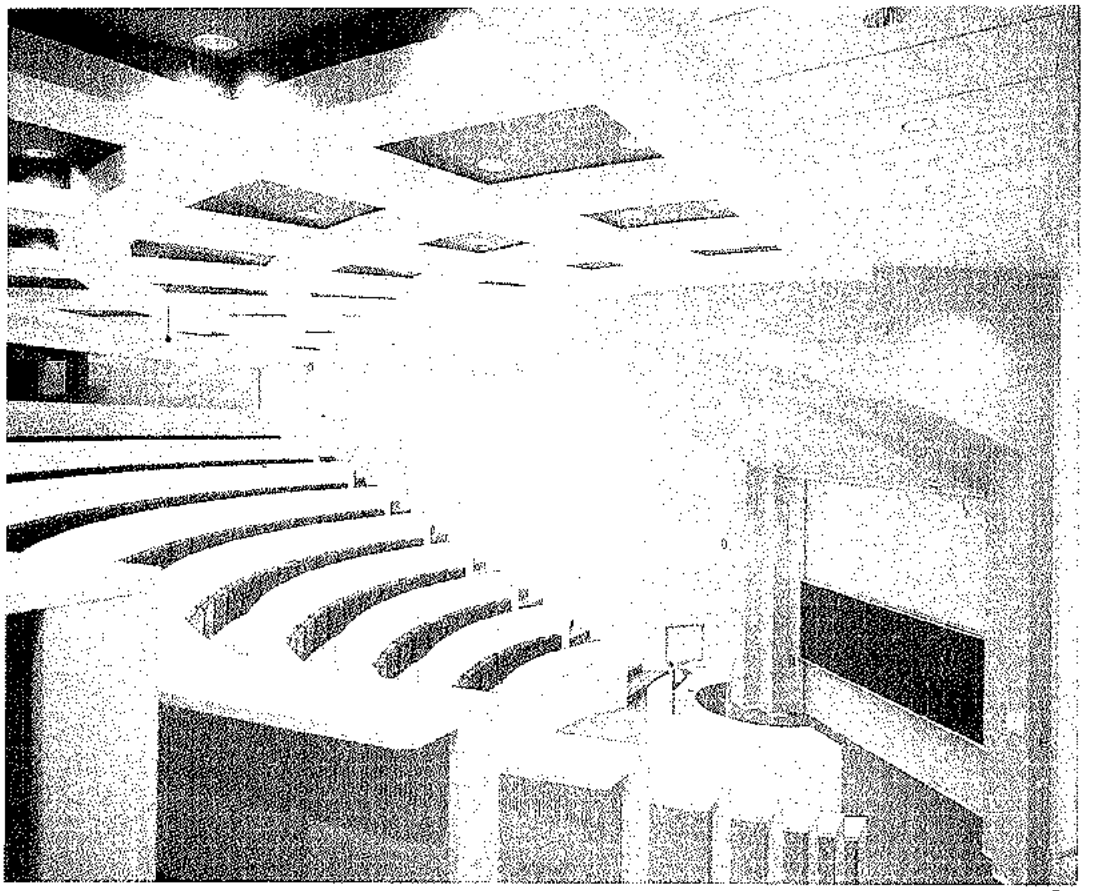
❻ 팔각타워의 천장
❼ 내부 원형타워의 천장과 난간
❽ 평면도 및 단면도
❾ 외부통로 부분
❿ 대학건물과 공사중인 말발굽형 주거동



❶



⓬



⓭

중앙부분에 있는 분수와 바닥의 패턴 그리고 계단이 있는 부분에 유리조각으로 장식된 벽면 등이 아랍건축적인 인상도 들게한다. 웅거스(O.M. Ungers)가 설계한 프랑크프르트 소재 '건축박물관'(1979~84)에 적용된 '집속의 집' 개념이 길게 선형으로 퍼진 것같은 연상이 가능했고, 실제적으로 흰색이 주조를 이루는 공간분위기가 상당히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내부 분위기가 감옥같다거나 너무 차다고 평하는 견해도 수용할 만하다.

내부가로는 평행복도들 상부의 개구부가 있는 벽들로 규정지어지고, 3층 높이의 중앙공간에서 브릿지에 의해 연결된다. 중앙의 거리를 따라 복도를 지나치면 개구부들이 마치 벽 속에 작은 그림들이 들어가고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좋은 비례감을 유지시켜 준다. 원형부분의 학생식당은 2개층 높이로서 풍부한 공간감과 내부 가로 공간의 천창으로부터의 빛과는 또 다른 질의 빛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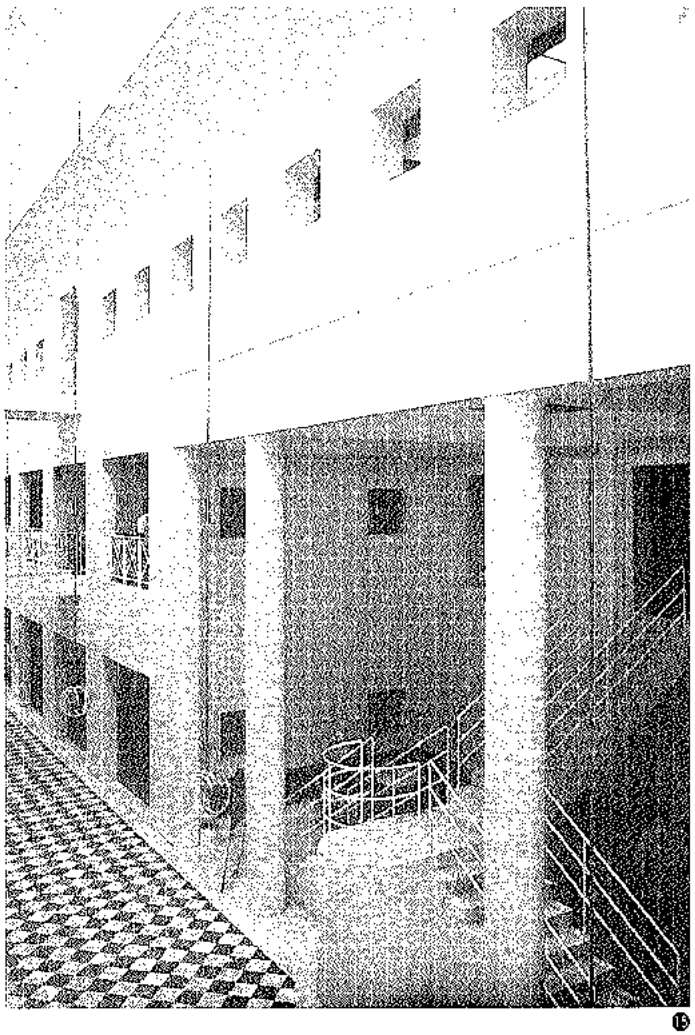
■結

헤닝 라센의 국제 현상설계경기에의 끊임없는 시도와 강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크리스 아벨(Chris Abel)의 표현대로 '북미와 북구의 전후

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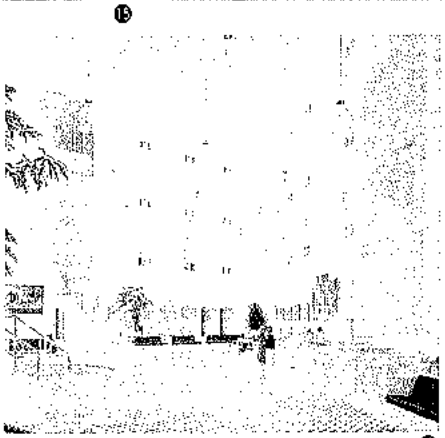
근대주의를 재해석'했으며, 덴마크의 절제된 디자인과 임격함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건축 조류·유행에 동요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그의 건축을 발전시켜온 변함없는 자세가 매우 교훈적이다.

절제된 외부의 인상과 내부의 탁월한 공간감은 건축의 본질을 재인식시켜주는 것 같고, 외부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건물의 익명성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흡인력도 갖고 있는 듯하다. 단순한 계획안같지만 매우 풍부한 감흥과 건축공간적 체험을 배제함이 없이 이동할 때마다 크고 작은 충격 및 희열을 부여하며 디테일과 시공면에서도 매우 세심한



변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흰색 대리석 길은 회색 대리석으로 된 바닥 패턴과, 중앙 통로의 알코브 부분이 흰색 타일과 6백개의 유리 조각이 들어가 붙어 있으므로 하여 다양하고 변화있는 공간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생식당의 경우도 커텐과 리놀리움 바닥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색상계획하에 계획되었다고 한다.

본 대학건물은 배치계획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변환경에의 존경과 조화를 이루고, 내·외부에서 큰 이미지를 주고,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공간의 창출과 뛰어난 재료의 선정 그리고 정교한 시공 및 디테일같은 건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례로, 소도품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영원성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근대건축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는 별개로 포스트모던이나 해체주의 건축으로 가려는 우리의 단절된 건축상황에, 근대건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헤닝 라센의 작업은 매우 교훈적이다.



⑪계단부분 유리조각 장식과 기둥
⑫원형으로 된 학생식당
⑬강의실 내부
⑭헤닝 라센이 설계한 리야드 소재 덴마크 대사관
⑮상부에서 본 코펜하겐 경영대학교의 내부 가로 벽면
⑯중앙 통로와 바닥 패턴
⑰사우디 아라비아 외무성

• 참고문헌

-Danish Architecture, Tobias Faber, 1978, Copenhagen
-La Grande ARCH'Chitecture Danoise, 1978, Paris
-ARKITEKTUR DK 2 / 89
-Annual of Architecture / 1, European Masters, Barcelona
-Annual of Architecture / 2, European Masters, Barcelona
-Architectural Record, 9006

메소포타미아 건축 순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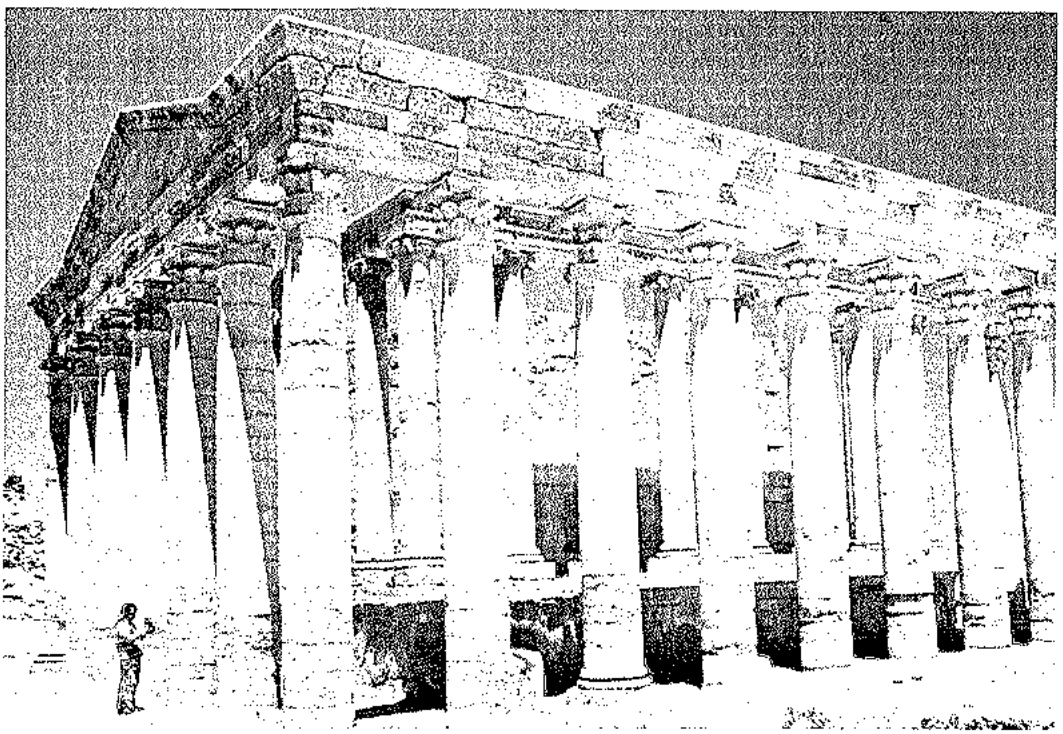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HATRA 신전의 교훈—

고대의 도시이자 신전이 있는 Hatra.

황야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거의 알려지지 않아 인적이 드문 고대의 도시이다. 그러나 만약 이곳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곳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곳에 산재하고 있는 아름다운 조각과 찬란한 유물과 화려했던 건축의 모습에서 그것이 입증될 것이다.

건축가인 필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감명을 받은 곳이 또한 이 Hatra 였었다.



❶

裵元泰
楠美건축구조연구소 소장
by Bae, Won-Tae

1. 특수한 스타일의 Hatra

Hatra 市는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지방으로서 북부의 도시 Mosul 에서 서남쪽으로 110㎞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준사막(Semi desert)의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Hatra 市는 캐러반(Caravans)들의 숙역도시로 1세기경 번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누가 이 고대 Hatra 시를 설립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그 기원은 아마 기원전 1세기경 Assyrian 시대의 작은 마을이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앗시리아(Assyrian)제국이 멸망한 후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동해 온 베드윈 족들이 이곳에 풍요의 신이나 태양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살았던 것 같다.

Hatra 의 市는 비상시의 방어로서 매우 튼튼한 성벽으로 구축하여 요새화하였는데 이것은 두 방향에서 오는 캐라반들의 공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하나는 시리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목에서 또 하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나란히 놓여 두강과 평행한 길목에 위치하였으므로 이 두방향의 캐라반들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함이었다.

즉, 이곳은 바로 인도와 중국으로 통하는 Silk load 의 중요한 길목이었으며 이 Hatra 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장엄하고 화려한 도시국가를 이루었던 곳이다.

최근 얼마전 우리나라의 T.V. 에 인기리에 연속 방영된 「실크로드」의 프로에는 이 Hatra 가 방영되지 않았었다. 일본의 제작팀도 이 Hatra 를 몰랐던 것 같으며 취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Hatra 가 「실크로드」에 취재되지 않은 것은 실크로드의 서쪽 중동의 주요한 요충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Hatra 는 두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외곽성벽(out wall)은 벽돌로 축조되었으며 그 길이는 8㎞에 이른다. 외곽성벽의 안쪽으로 500m 위치에는 Ditch 를 설치하고 내부성벽(inner wall)을 쌓았는데 그것은 돌로 축조되어 그 길이는 6㎞로 둘러 싸여졌다. 그리고 그 성벽의 사방향에

4개의 성문이 있다.

2세기 초에 트라야누스제가 3세기에는 셉티마우스제가 로마군을 이끌고 파르티아에 원정하여 파르티아(Hatra)를 포위했지만 견고한 성채 안의 주민이 타르에 불을 붙인 화살을 쏘아 저항했으므로 끝내 함락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Hatra 에 건설되어 남아있는 유적들은 귀족의 저택, 운동장, 경마장, 공중목욕탕 그리고 많은 우물과 원형의 호수들이다.

신전과 성벽등의 도시는 Lime Stone 과 Gypsum 으로 건설되었다.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일하게 돌로 건설된 것이다.

가장 큰 신전의 크기는 437.5m×322.5m 크기의 대규모 돌로 축조되었으며 지금은 가장 큰 신전은 허물어졌으며, 각 신전은 각각의 신을 위한 신전들이 건설되었다.

신전은 특별한 담장인 성벽으로 둘러싸여 도시의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Hatra 는 특수한 스타일의 건축양식으로서 이 특수한 양식은 Assyrian 스타일과 Hellenistic 스타일을 혼합한 건축양식인 것이다.

그 외에도 페르시안(Parthian)과 Roman 과 그리고 현지 스타일을 가미한 혼합 양식으로 보인다.

건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큰 홀과 복도로서 이것은 모스림 아라빅(Muslim-Arabic) 스타일의 건축양식에서 발전되었다. 이 건축양식은 아마 이스라믹 말기시대의 아랍건축이 인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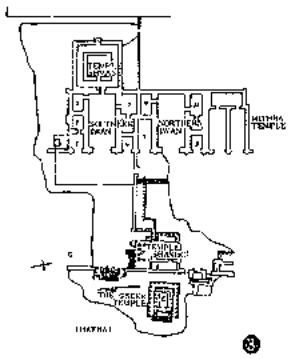
Hatra는 오랜세월 허물어진 유적더미로 묻혀 쌓여진 채로 방치되어 오다가 1951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사진과 같이 복구되고 있다.
Hatra는 원형 형태의 도시로서 도시의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대규모의 "Great Temple"내의 각 신전 건물들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일부분들은 복원되었으며 허물어져 흩어진 채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과 흐트러진 건물들의 돌조각들이 무수히 널려져 있을 뿐, 찾아오는 사람의 인적도 거의 없는 적막한 분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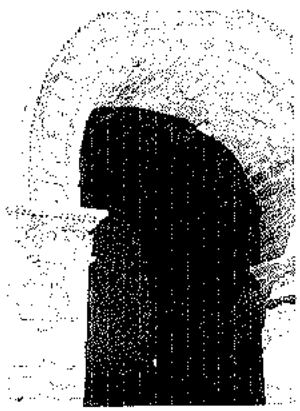
동쪽으로(아시아) 번창한 양식의 원형(시효)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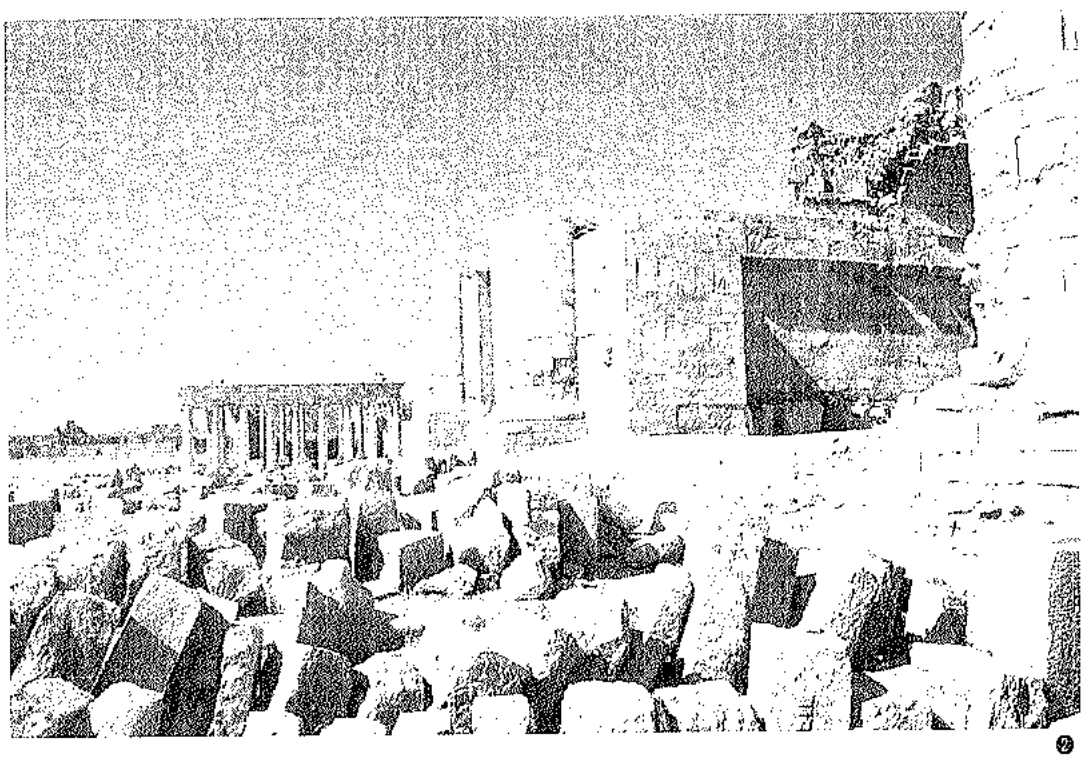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적인 혼합양식은 바로 실크로드의 길목이라는 위치와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던 시대의 양식임을 짐작케 한다.

Hatra 는 오랜세월 허물어진 유적더미로 묻혀 쌓여진 채로 방치되어 오다가 1951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사진과 같이 복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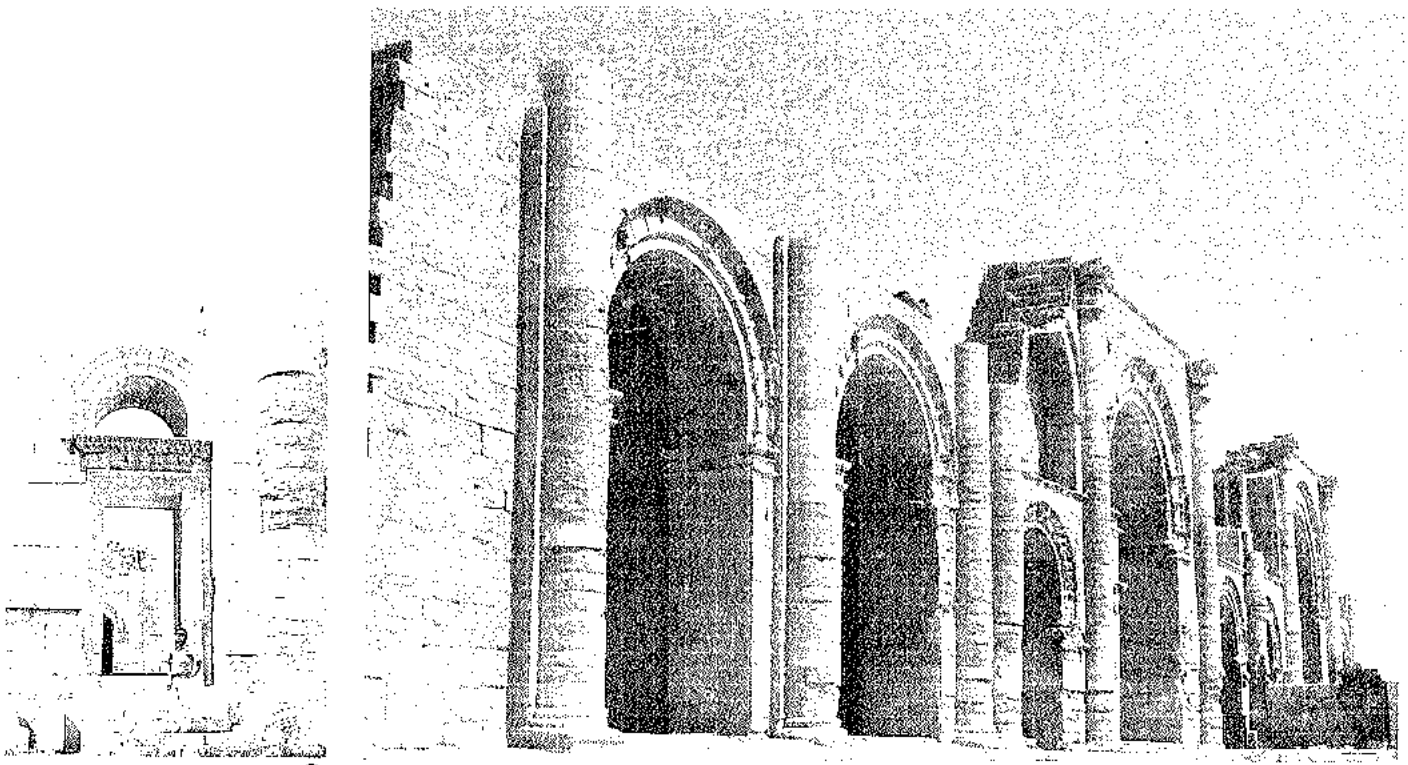
Hatra 는 원형 형태의 도시로서 도시의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대규모의 " Great Temple "내의 각 신전 건물들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일부분들은 복원되었으며 허물어져 흩어진 채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과 흐트러진 건물들의 돌조각들이 무수히 널려져 있을 뿐, 찾아오는 사람의 인적도 거의 없는 적막한 분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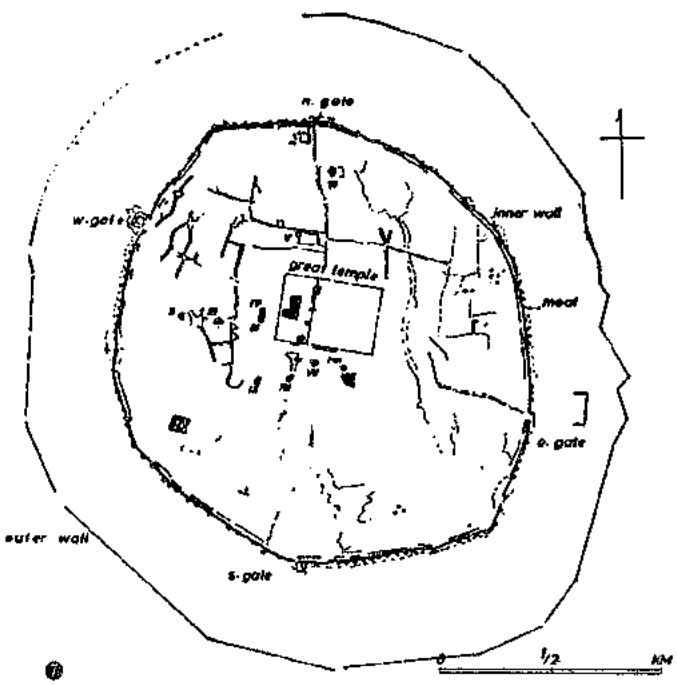






❶ 그리스 문명의 시효가 이스라믹 말기시대의 작품임을 보이고 있는 HATRA신전
❷ HATRA의 이중성곽 내부에 있는 Mam Temple 주위에는 허물어진 건축물의 잔재들과 부서진 조각물의 잔재들이 무수히 산재하고 있다.
❸ 현존하는 신전부분의 평면도
❹ 당시 신전을 건축한 건축가의 상과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Southern Iwan의 벽 정면





PLAN OF THE CITY OF HATRA

2. 숭배의 대상 Hatra

Hatra는 하나의 고대도시라기보다는 실제로 왕이 있었던 아랍세계의 최대 숭배의 대상이었던 대아랍의 왕국이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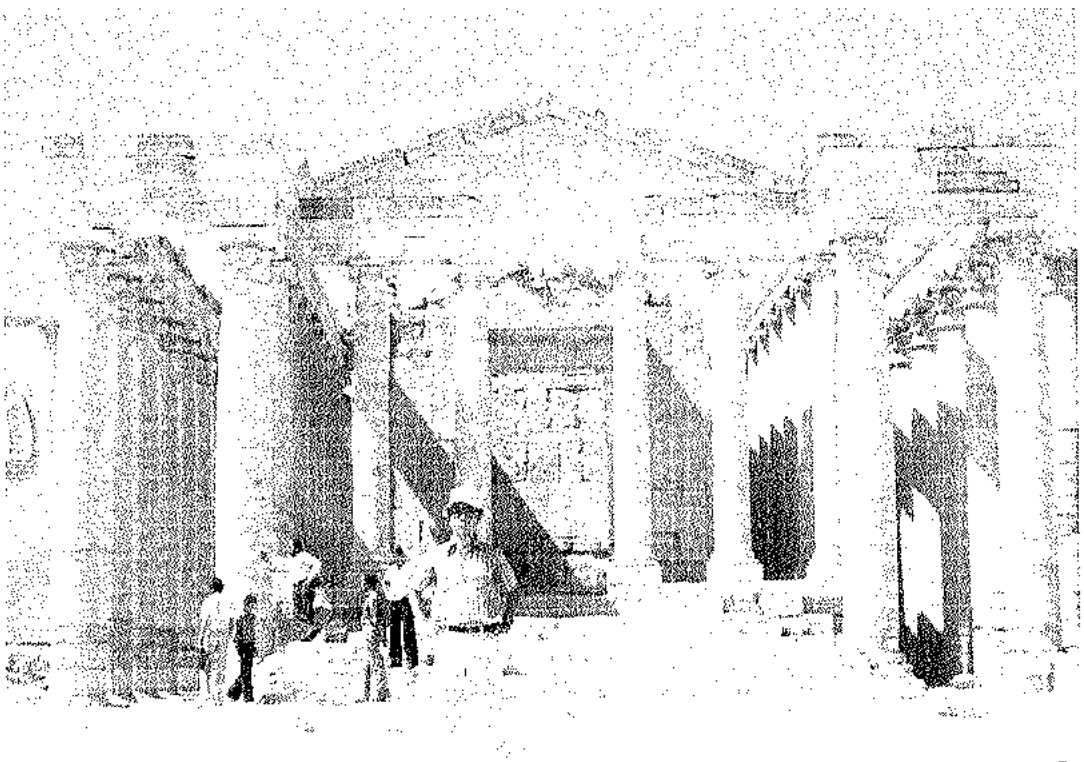
대신전의 내부에는 북쪽과 남쪽을 분리하는 담이 설치되어 신전들의 前庭(Front Courtyard)들을 이루고 있으며 이 Courtyard는 바닥이 Limestone으로 포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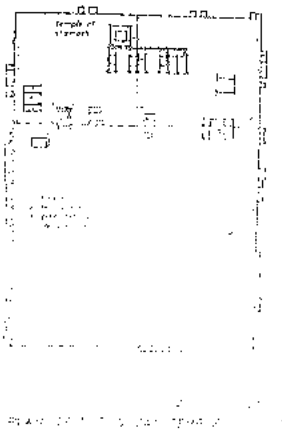
Great Vault Iwan의 폭은 15m이고 그 깊이는 30m이다.

Great Iwan의 양쪽에는 특이하게 주목할만한 신전 건물의 방들이 배치되어 있다. Great Iwan의 양쪽 옆에는 3개씩의 Room이 배치되어 있고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작은 Iwan의 전면 아취에는 왕과 건축가와 엔지니어 등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훌륭한 몰딩의 건축물로 되어 있다.

이곳 Hatra 신전에서는 Greek 스타일의 조각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태양의 神인 Apollo, 바다의 神인 Poseidon, 사랑의 神인 Eros, 神의 사자인 Hermes, 영웅 Hercules, 상품 이름에 많이 나오는 승리의 여신인 Nike, 그리고 Bacchus 등의 많은 아름다운 조각들이 현재 Hatra 신전의 현지에도 있고 이라크의 박물관에도 보존되고 있다.

이 Hatra를 건축한 건축가는 한 건축가의 가족이 대를 이어 3대에 걸쳐서 건축을 하였다. 그





❺ HATRA 성곽 내부에 있는 Temple Shaniru의 허물어진 일부분

❻ HATRA신전 내부에 있는 Great Iwan
큰 Iwan의 양쪽에는 작은 방들이 있는 Iwan이 있고 또한 양쪽 Iwan은 2층으로 되어 있다.

❼ 2중 성곽으로 둘러싸인 HATRA City의 평면

❽ HATRA신전 The Greek Temple의 정면
그리스 건축문명의 시효는 바로 이 아스라믹 시대 말기의 HATRA신전 건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❾ HATRA신전 건축의 주두부분 디테일

❿ 내부에 여러 신전들이 배치되어 있는 내부 성곽부분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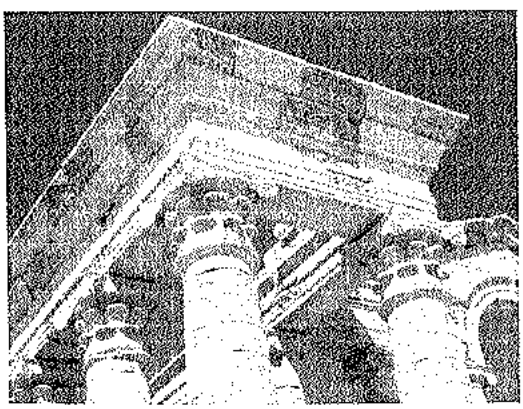
건축가들은 스스로 "신의 건축가"라고 하였다. "Brnny"라고 하는 건축가의 이름이 Southern Iwan 의 신전 측면에 있는 이 방은 특별히 건축가를 위하여 제공된 방이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의 신전을 건축한 건축가의 상이 Southern Iwan 의 벽면에 조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이 조각 왼쪽 아래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필자는 이곳에서 한동안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사회적인 지위와 사명감은 대단했다는 것일 것이다.

「이탈리아의 반은 神에 의해, 반은 건축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神은 들판과 언덕과 호수와 하늘을 만드셨으나, 건축가들은 그 언덕과 들판 위에 돔과 건물과 탑과 그리고 집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지오폰티의 말은 바로 이 Hatra 를 건축한 건축가를 두고 생각한 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지오폰티는 과거 이 지방인의 건축심의 위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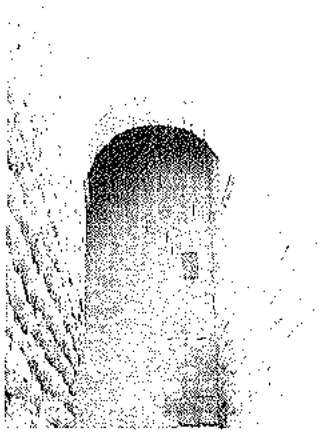
이들 Hatra 의 건축가들은 스스로 신의 건축가 즉 "Ardkla(Architects) The God"라고 했었던 것으로서 신전내에 건축가의 방이 특별히 설치되었던 것이다. 신전을 건축한 건축가는 신에 가까운 신격화된 창조주로서 신성화 되었으며 그들 건축가들은 대를 이어 3대에 걸쳐서 천직으로서 이 신전 건축을 창조했던 것이다.



그들 건축가가 이룩한 그의 이름은 2천년을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당대의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2천년은 커녕 건축 당일의 기공식이나 준공식에도 이름조차 없는 것이니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위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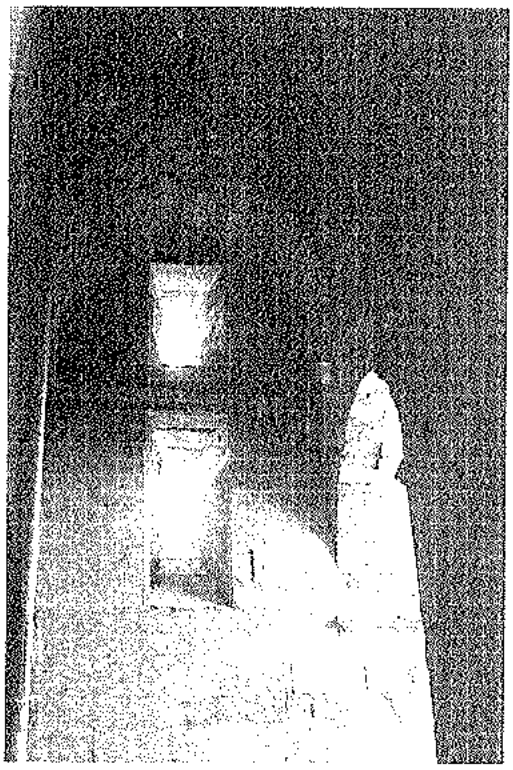
Hatra 신전에 조각된 건축가의 상과 이름과 신전에 제공된 건축가의 방은 이것들을 보는 오늘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교훈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Hatra 의 건축에서 또 한가지 특기 할만한 것은 건설 당시에 만든 건축의 모형이 출토된 것이다. 2천여년전 당시에 건설을 하기 위한 설계에서 이러한 건축모형을 만들었던 것으로 이것은 가장 오래된



⓫

⓬



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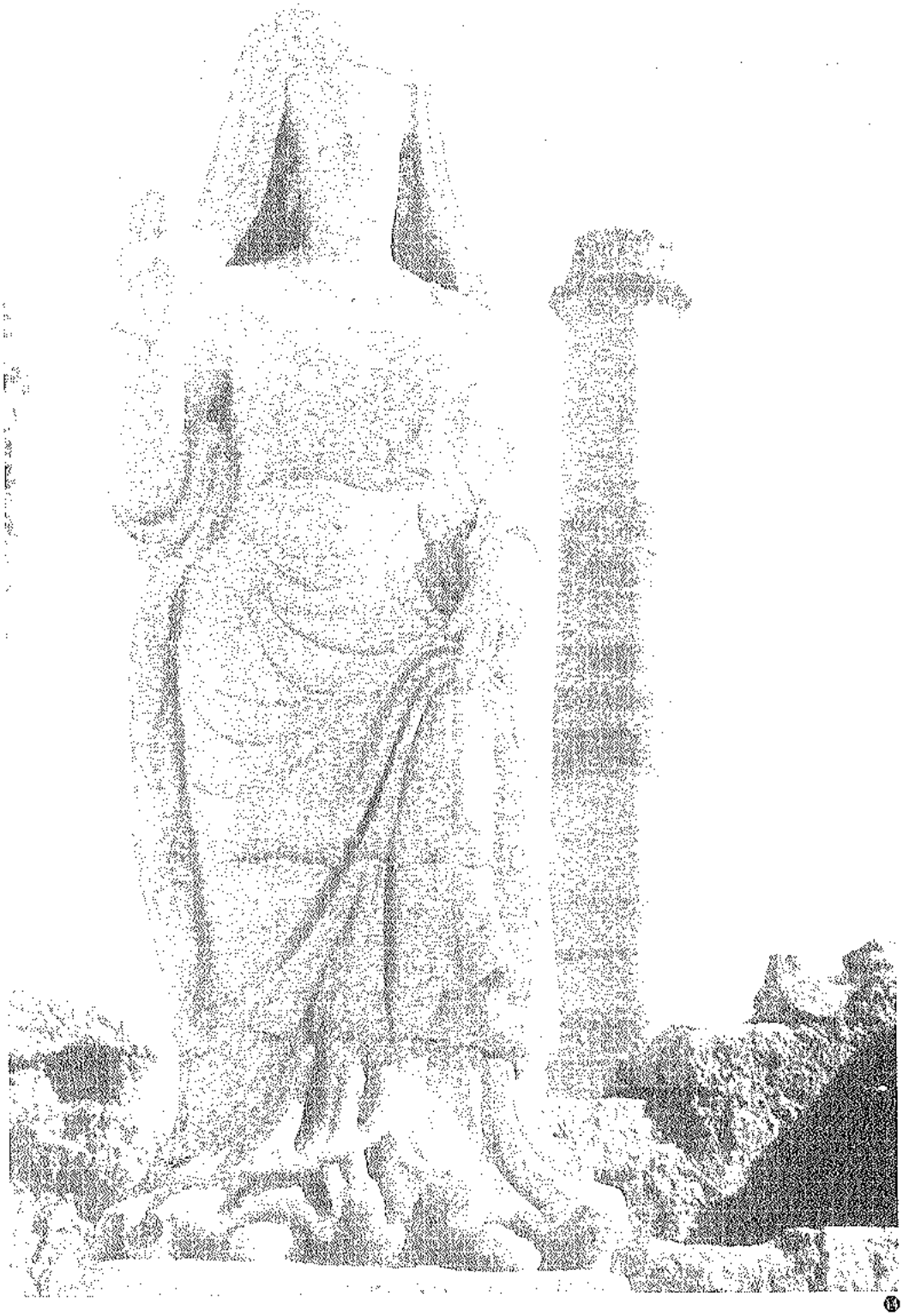
⓫ 내부통로
⓬ HATRA신전 내부의 Great Iwan의 상부 디테일
⓭ 꼬르뷔제가 설계한 론샹 교회의 창과 흡사한 창

건축 모형으로서 당시의 뛰어났었던 건축 계획임을 짐작케 한다.

Hatra 신전의 Southerm Iwan 의 서쪽에 면한 복도로 두리번 거리다가 필자는 빛이 새어 들어오는 한 곳에서 시선이 딱 머물고 발걸음이 굳어져 버렸다. 그곳은 바로 창을 바라다 본 순간이다.

이것은 필자에겐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 창은 바로 저 유명한 금세기 가장 유명한 건축가인 꼬르뷔제(Le Corbusier)의 작품인 「Ronchamp 교회」의 창과 흡사하지 않은가! 아니, 론샹교회의 창이 바로 Hatra 신전의 창이 아니었던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 창은 이 지방 환경과 생활을 느껴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창의 형태로 이해가 된다. 그것은 조적조 건물이라 벽이 두꺼울 수밖에 없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혹서로 인한 무더운 열을 차단하고 그러나 최소한의 채광을 받기 위해서는 高窓으로 되어 최소한의 개구부로 최대한의 빛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외벽의 개구부 면적은 아주 작으면서 내부 쪽으로 벽을 경사지게 해야 같은 면적의 개구부일지라도 벽의 두께로 인하여 경사지지 않는 것보다 벽을 경사지게 뚫는 것이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창이 가장 적합한 모양의 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진 우측의 아취에서 채광되는 것은 현재 지붕이 허물어지고 없어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며, 원래의 유일한 채광은 바로 이 창인 것이다. 그러나



⑱

⑱ HATRA 여신상
⑲ 신전의 모형
이것은 건설 당시에 만든 모형이 발굴된 것으로 이러한 시공을 위한 건축모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이다.

「론샹교회」의 창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난해한 작품이라는 설명으로서만 주장되어져야 한다.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두꺼울 필요도 없는데 반대쪽 벽은 두껍지 않은데 한 쪽벽만 고의적으로 두껍게 하여 그 두께로 창의 개구부의 벽을 경사지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즉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두꺼워야 하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창 모양을 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 창이 있는 한쪽벽만 두껍게 하였으며, 그 창의 형태란 것도 극적인 채광 효과를 고의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그러한 창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닌지.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 론샹교회의 창의 형태는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물론 론샹교회의 작은 창들은 기능이나 구조의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가치와 관심은 형태 뿐이라는 것을…

「르 꼬르뷔제」의 현대 건축작품이 바그다드에 세워진 「Saddan 실내운동장」이 있듯이 꼬르뷔제는 이곳의 고대 건축을 분명 보았을 것이며 물론 高窓이 이곳 메소포타미아 건축에서 생겨난 것도, Hatra 의 이 창도 보았을 것이며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Hatra 의 이 高窓과 론샹교회의 窓은 우연일까? 인용일까?

필자는 이 Hatra 의 高窓을 보고는 충격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클린룸 設計에 關한 基本事項

A Basic Study for Clean Room Design

1. 머리글

1980년대부터 클린룸을 필요로 하는 分野는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尖端産業分野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클린룸이 상당히 어려운 특수한 技術分野로 취급되었으나 우리나라에 導入된지 20年 이상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空調技術의 한 분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클린룸을 設計·施工하는데 있어 몇가지 유의점을 고려한다면 그 기본적 기능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高度의 청정도를 요구하는 슈퍼 클린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많고, 經驗을 통하여 얻어지는 Know-how的인 요소 또한 남아있다.

클린룸은 크게 工業用클린룸(Industrial Clean Room, I.C.R)과 바이오클린룸(Biological Clean Room, B.C.R)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I.C.R은 주로 粉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B.C.R은 細菌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對象分野를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1) 電子·精密産業
(2) 製藥·食品 等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對象産業
(3) 病院의 無菌手術室
(4) 기타의 動物實驗 GLP(Good Laboratory Practice), Bio-Hazard 대책 等 안전성에 관한 것 等이 있다.

電子·精密産業에 의해 구분되는 工業用클린룸(I.C.R)의 설비투자는, 생산성의 향상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특히 LSI(大規模集積回路)産業에 있어서 클린룸은 불가결한 設備이다.

바이오클린룸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라 불리우는 첨단산업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클린룸이란
전자정밀산업, 제약, 식품등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ace)대상산업, 병원의 무균수술실 등 일반산업에서부터 첨단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기의 청정도를 요구하는 공간에 있어 건축설비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시공으로 고도의 공조기술을 동원하여 청정공간을 연출하는 것으로, 최근 건축물 전반에 걸쳐 클린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특히 공장등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에 직결되어 그 활용도가 많아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硏究論文은 본 協會에서 '90년도 연구사업으로 실시한 「인텔리전트빌딩과 클린룸에 대한 조사연구」의 일부로 그동안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소외되어온 분야에 대해 일선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연구성과물이다.

本協會 設備分科員會
(연구진행 : 조민관)

以下, 클린룸 設計의 실무적인 要点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클린룸의 方式

클린룸을 氣流흐름方式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亂流式, 非層流式(Conventional, Non-Laminar-Flow)
○水平層流式(Horizontal Laminar-Flow)
○垂直層流式(Vertical Laminar-Flow)

대부분의 클린룸은 上記 方式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조합 및 적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턴널클린方式

IC, LSI공장에서 주로 채용하는 방식이며, 기류흐름방식은 亂流式이다. 空氣의 淸淨度를 클라스(class) 1천~1만 정도로 유지하며, 高淸淨度를 필요로 하는 제조라인 상부에 層流式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2) 스포트클린方式

작업공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高淸淨度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局部的으로 클린화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스포트 이외의 作業域에 대해서는 클린度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클린룸 자체의 클라스는 1십만~3십만 정도의 것이 대부분이다.

3) 클린튜브方式

LSI, 超LSI의 관련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超高淸淨度를 필요로 하는 제조라인을 주위의 공간과 격리시켜 제조라인만을 超淸淨空調로 하는 방식이다.

작업자로부터 발생하여 먼지 및 주위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淸淨度를 얻을 수 있다. 이 방식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제조라인이 필수적으로 자동화되어야 한다. 또한, 송풍량이 적어 搬送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에너지節約面에서 유리한 방식이다.

〈表-1〉은 氣流와 適用方法에 따라서 분류한 클린룸의 方式을 나타낸 것이다.

3. 클린룸의 內裝材와 工法

클린룸의 建設은 다음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건축물 자체를 클린룸으로서 新築하는 경우

(2) 旣存의 건물내부를 改修하여 클린룸으로 하는 경우

(3) 旣存의 생산라인 일부가 小形의 獨立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

로 나눌 수 있으나 각기 施工法, 內裝材의 選定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1)과 같이 전부를 신축할 경우에는 構造體의 구성에서부터 클린룸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설계를 할 수 있다. 즉, 無窓, 二重슬라브, 독립기초, 天障內의 保守路, 배관, 덕트스페이스의 확보 等을 충분하게 고려한 설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구조체와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外壁內面에 클린룸내에 적합한 마감재 즉, 클린룸의 用途에 따라서 강판, 세라믹판, 도장마감 等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칸막이벽 및 슬라브의 시공등은 표면재의 선정에 유의하면 기타의 시공은 종래의 공법과 거의 비슷하다.

(2)의 경우와 같이 旣存建物의 改修일 경우에는 내장의 벽, 천장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벽, 기둥, 보와 같은 構造體는 클린룸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내장구조는 自立强度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즉, 클린룸의 주위벽과 칸막이벽은 어느 정도의 강도와 두께가 필요하며 천장은 지지대에 의한 지지로서 기본적으로 체육관 속에 건물을 세우는 감각으로 벽, 천장, 바닥을 새롭게 조립하는 工法이다.

(3)과 같은 小形·獨立 클린룸은 일반적으로 프리패브패널方式이 적용된다.

모든 것이 공장에서 제작되므로 현장에서는 단기간에 施工을 끝낼 수 있다.

출입구, 창, 통로, 취출구, 압력제어댐퍼, 에워샤워 等도 내장재와 일체화된 상태로 搬入되며, 强度的으로는 自立構造이다.

1. 클린룸에 필요한 內裝材의 條件

클린룸 內裝材에 요구되는 條件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벽·천장재

① 塵埃의 축적 및 침입의 원인이 될만한 균열, 흠집, 구멍 등이 없을 것

② 표면에 塵埃의 부착이 잘 안될 것

③ 마모 및 표면 剝離을 일으키지 않을 것

④ 靜電氣 發生이 없을 것

⑤ 가공이 용이할 것

⑥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할 것

⑦ 老化 및 주기적인 온도변화에 대해 안정성을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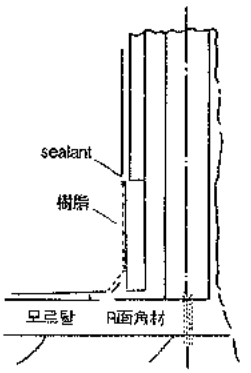
⑧ 재질이 균일할 것

(2) 바닥재

① 휘거나 깨지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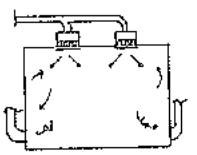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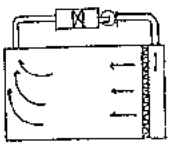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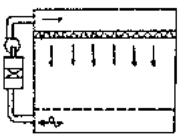
② 틈새가 없을 것(接合部가 적을 것)

③ 마모, 충격에 강한 耐久性을 가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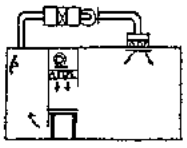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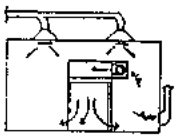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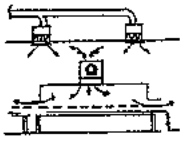


[그림-1] 樹脂塗裝의 마감

〈表-1〉氣流, 適用方法에 의한 클린룸 方式의 分類

項　目	亂流式	水平層流方式	垂直層流方式
氣流形態			
特徵과 適用	클린룸의 기본 방식으로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내에서 발생된 분진을 청정공기로 희석하여 청정도를 높히는 방식이다. 송풍량이 많을수록 청정도는 높아지나 기류가 난류이기 때문에 청정도에 한계가 있다. 클라스 1,000 정도가 한계점이다. 클린룸의 다른 방식과 겸용으로 사용된 예가 많다.	수평류의 상류에는 클라스 100정도의 청정도 유지가 가능하나 하류에는 인체 및 작업인의 발진으로 청정도는 저하된다. 실내 전역을 클라스 100으로 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한 부분만을 고청정시킬 경우 적용된다. 무균수술실, 무균병실, 식품의 포장공정등 바이오 클린룸에 적용되는 예가 많다.	클린룸내 전역을 높은 청정도로 유지가 능하다. 발생한 분진은 즉시 하류로 운반되기 때문에 다른 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중요작업역의 상류에서 발진이 없는 한 오염이 되지 않는다. IC, LSI공장의 웨이퍼공정에 많이 채용되며 실의 규모가 1,000㎡이상의 대규모인 것도 있다.
淸淨度	클라스 1,000~100,000	클라스 100~1,000	클라스 100(全域)
換氣횟수	15~80회/h	100~300회/h	300~500회/h
吹出風速	1~3m/s	0.45~0.6m/s	0.25~0.5m/s
정압도	0.5~2.0mmH_2O	0.5mmH_2O 정도	0.5mmH_2O 정도
建設費	小	大	최대
運轉費	小	大	최대
融通性	어렵다	어렵다	용이하다
補修·管理	中	용이하다	용이하다
騷音	小	大	최대

〈표-1〉계속

項　目	턴널클린方式	스포트클린方式	클린튜브方式
氣流形態			
特徵과 適用	IC, LSI제조 공정에 주로 적용된다. 마스크, 웨이퍼등 고청정도를 요구하는 작업이 턴널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업공정과 작업원이 구분됨으로 초청정공간의 실현이 용이하다. 턴널내의 클라스 수준은 100으로서 전면수직 층류식에 비하여 설비비, 운전비가 경제적이다.	작업공정중 일부분만을 고청정도로 유지할 경우 적용된다. 작업의 종류에 따른 기기의 형상 및 작업성과 일치되도록 여러가지의 타입이 유니트화 되어 시판되고 있다. 보통 클라스 10,000~100,000의 난류식 클린룸내에 병행하여 설치된다. 국부발진을 스포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배기 유닛트도 함께 선정하면 고효율의 청정화가 가능하다.	작업의 공정이 콘베이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인체와 주위의 발진원으로부터 격리되므로 적은 급기량으로 고청정도를 얻을 수 있다. 작업의 자동화가 필수조건으로 장래의 초 LSI제조 라인에는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급기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절약으로 급수보급이 활발하리라 기대된다.
淸淨度	턴널내에는 클라스 100	취출구부근은 클라스 100~1,000	클라스 100
換氣횟수	턴널내 500~1,000회/h	—	100~30회/h
吹出風速	0.3~0.5m/s	0.25~0.45m/s	—
정압도	0.5~1.0mmH_2O	—	1.0~3.0mmH_2O
建設費	大	최소	中
運轉費	大	최소	小
融通性	어렵다	약간 어렵다	어렵다
補修·管理	용이하다	中	어렵다
騷音	大	中	中

④ 청소가 용이할 것
⑤ 필요에 따라 耐水性, 耐알카리性이 있을 것
⑥ 청결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것

2. 클린룸의 內裝材와 特徵

上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內裝材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보통 바닥재로는 에폭시 등으로 도장한 것이 사용되고 벽·천장재는 樹脂燒付鋼板 등이 이용되고 있다. 벽·천장의 접합부에는 보통 실리콘을 충진시켜 마감하나, 강판의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접합부가 1㎜이하의 조립식 구조일 경우에는 특별히 실리콘을 충진시킬 필요는 없다. Bio-Hazard와 같이 고도의 밀폐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클린룸에 있어서는 약간의 틈새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실내의 正壓維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表-2〉는 벽·천장재의 특징을, 〈表-3〉은 바닥재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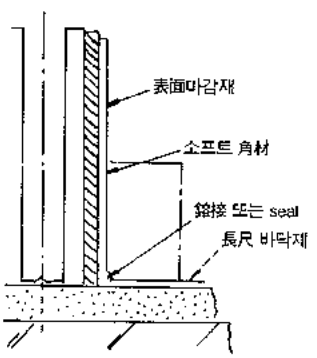
3. 內裝材의 工法

[그림-1]은 樹脂塗裝에 있어서 마감상태의 施工例를 나타낸 것이다. 클린룸의 바닥을 塗裝에 의해 시공할 경우 모서리 또한 같은 樹脂로 마감하여야 한다. 一般的으로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도장하나 칠의 두께가 균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2]는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 직각이 아닌 곡선일 경우의 시공법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바닥을 이용하여 클린룸으로 개조할 경우, 부드러운 角材(소프트 角材)를 이용하면 시공이 간단하다. 소프트 각재를 벽면에 부착시키고 바닥재와의 접촉면을 실리콘으로 충진시키거나 동일 재질로 용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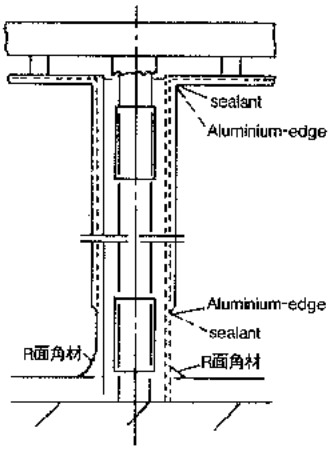
곡면이 커다란 코너부분에는 角材를 구부려 부착시키며, 曲面이 없는 경우에는 절단하여 이음매를 용접한다. 각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두께 2㎜, 높이 100㎜, 75㎜, 길이 20m 정도이다.



[그림-2]소프트角材의 施工

[그림-3]은 천장, 벽, 角材의 마감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바닥면에 부착시킨 장방형의 마감재를 각재 높이까지 같은 접착방법으로 시공한다. 특히, 모서리 부분의 시공은 그림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裁斷하여 이음부분은 반드시 용접하여 마감한다. 이 방법은 일반 클린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천장과 벽의 칸막이는 동일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과 같이 표면재의 이음부분은 통상 실리콘으로 충진되기 때문에 이음부분을 수㎜정도



[그림—3]천장·벽·모서리의 마감재

띄워 놓으면 시공이 편리하다.

〔그림—4〕는 클린룸내에서 水噴霧을 행할 경우, 창틀 구조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는 물의 排水와 청소에 편리하다. 이와같이 클린룸내의 구석진 곳은 청소하기에 편리하도록 둥굴게 하거나 면을 평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코너면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속재 또는 프라스틱의 코너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클린룸의 計劃

클린룸의 계획에 있어서 첫번째로 考慮할 사항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對象은 무엇인가, 왜 클린룸을 필요로 하는가, 어느 정도의 淸淨度를 필요로 하는가, 작업내용·실내에 설치되는 生産機器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용자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等이다. 먼저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에 대하여 설계자는 성능을 만족시키는 전제조건하에 과잉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運轉費·消費에너지의 節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 考慮할 사항은 청정도의 檢收條件인데 이러한 것은 클린룸의 계획에 있어서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착공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淸淨度는 作業時와 非作業時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작업내용에 따라서 發塵量이 너무 많아 淸淨空氣에 의한 稀釋效果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製藥工場의 粉末·散劑工程, 맥주공장의 충진공정 等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클린룸의 設計는 실내에 설치되는 製造工程, 製造裝置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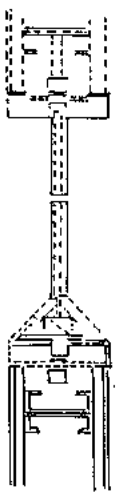
〔그림—5〕는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과 이에 따른 設計檢討事項, 검토결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 等을 나열한 것이다.

製造라인의 機器種類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計劃時 사용자에게 機器特徵에 관한 의견을 收斂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留意해야 한다.

① 發塵源이 되는 機器의 내용을 가능한 상세히 把握하여 發塵量을 추정한다(벨트의 驅動部, 체인, 오일미스트, 粉體 發塵源 等).

② 機器의 형상, 据付상태, 작업성 等에 따라 局部換氣 또는 全體換氣를 고려하여 機器로부터 發塵量이 상당히 많다고 예상될 경우, 특히 粉體發塵일 때에는 局部排氣를 고려해야 한다.

③ 機器로부터의 排氣가스 發生有無, 특히 이들



[그림—4]水噴霧를 고려한 창틀의 構造

〈表—2〉天障 및 벽표면 마감재의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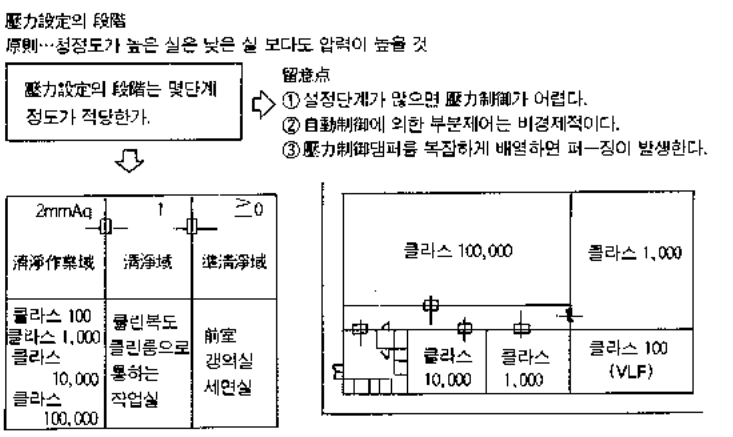
종 류	특 징
강제 칸막이 (스텐레스, 알루미늄)	일반적이다. 耐火性이다. 약간 高價이다(스텐레스, 알루미늄의 경우). 施工性이 좋다.
불연세라믹화장보드	耐火性이다. 현장가공이 용이하다. 충격에 약하다. 曲面 가공이 곤란하다.
에폭시 또는 폴리우레탄수지도장	바닥과 一體化가 가능하다. 작업자의 기능도에 따라 施工度가 다르다. 정전기가 일어나기 쉽다.

〈表—3〉바닥재의 種類와 特徵

종 류	특 징
free-access floor재 (Alumimium dicasting-,steel)	이중바닥(垂直層流型) 탄력성이 없다. 高價이다. 耐荷重에 한계가 있다.
도장 바닥재 (에폭시,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工事에 숙련공이 필요하며, 공기가 길다. 접합부가 없다. 耐水性이다.
장방형 마감재	工事가 간단하다. 탄력성이 있다(보행감이 좋다). 용접이 가능하다.

(表—4)對象別 클린룸의 淸淨度와 換氣횟수(參考値)

업 종	구체적인 대책	클린룸청정도(클라스)	환기횟수(회/h)	비 고
전자산업 정밀기계	초LSI전반, IC마스크 공정, 로켓트의 제어장치, 인공위성, 박막회로등	100	400~500	일반적으로 수직층류를 채용 토출풍속 0.25~0.45m
	자기테이프, 필름, IC제작, 마이크로 접점, T.V브라운관, 컴퓨터, 광학기기, 정밀도장 등	1,000	30~50	바닥면 흡입의 경우에는 30회/h, 벽면·천장면 흡입일 경우에는 5회/h정도
	시계, 미사일부품, 유체소자, 렌즈, 컴퓨터, 정밀기기조립, 반도체소자, 종이테이프	10,000	15~30	제조장치의 구동부, 벨트, 체인 부근에서는 부분적으로 오염도가 크다.
	컴퓨터조립 및 사용실, 프린트기판, 전자부품, 시계, 카메라 베어링, 크린룸전실	100,000	10~20	냉방부하가 크기 때문에 좌기의 환기횟수보다 커야한다.
제 약 식품업	주사약충진, 실험용동물, Long-life, 식품세균실험	100	200~400	크린·부스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예가 많다.
	약품충진, 포장공업, 항생물질 식품포장, 맥주충진공정	1,000	50~80	분말을 취급할 경우, 발진부위를 격리시키지 않는한 클라스 1,000은 곤란하다.
	의약품準클린역, 어육2차가공	100,000	15~20	일반공조, 고성능휠타
병 원	무균수술실, 무병균실, 미숙아, 실험, 배양	100	200~400	수평층류가 많다.
	일반수술실, 회복실, 신생아실 ICU, CCU	10,000	20~30	충분한 외기량 확보, 소음방지, 주위의 청정역 확보.
	약국, 수술관련제실, 중앙재료실	100,000	10~20	일반공조, 고성능 휠타



[그림—5]壓力設定의 段階

機器의 排氣量, 臺數, 使用條件 等을 기종에 따른 排熱, 배기가스의 목적으로 환기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④발열양이 큰 機器가 있을 경우에는 水冷·空冷 中 어느 장치를 선정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클린룸의 空調負荷는 제조장치의 발열과 필요배기에 따른 外氣負荷로 결정된다.

클린룸內를 正壓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排氣量보다는 導入外氣量이 항상 많아야 하는데, 잉여분의 外氣量이 가압공기가 되어 항상 일정량을 실외로 유출시키는 것이다. 排氣量이 변동하면 정압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負壓이 되어 클린룸의 기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배기량의 변동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外氣量의 自動制御가 필수조건이다.

이외에 고려할 요소로는 작업인수, 운전시간, 耐用年數, 보수작업자의 능력 等이 있다. 작업인수가 많을 경우에는 발진량 뿐만 아니라, 작업개시·종료시의 입퇴실에 필요한 시간의 에어샤워구조, 臺數의 관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전체 공조시시템중 클린룸의 운전시간만이 다를 경우에는 獨立熱源이 필요하다. 耐用年數가 특히 짧은 試作라인의 경우는 경제적인 建築材料의 선정, 다목적용도의 Clean Unit를 채용하여 移設時 재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보수작업을 전문가가 아닌 생산라인의 작업자가 겸임할 경우에는 복잡한 조작이나 方式 等은 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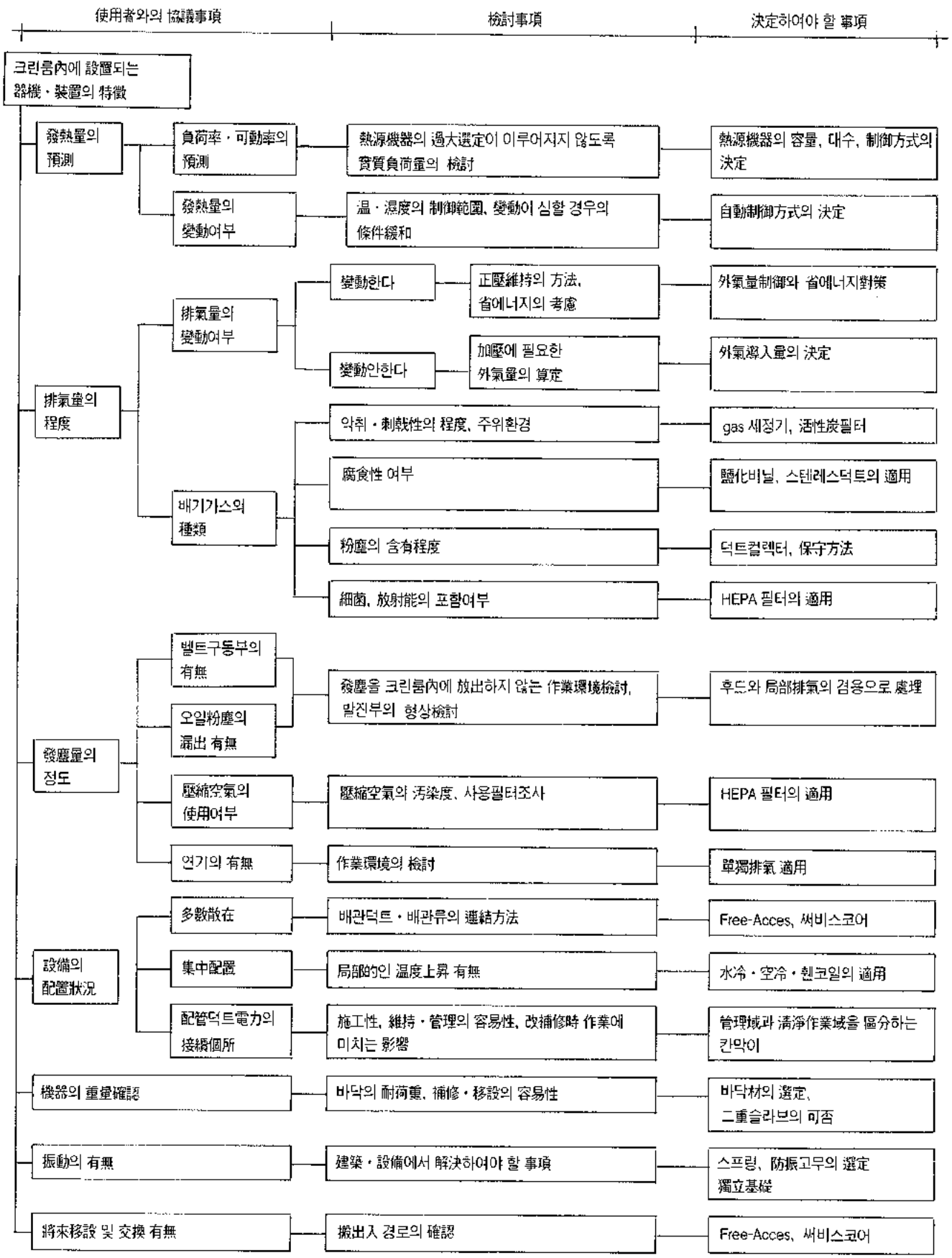
5. 클린룸 設計上의 要點

1. 亂流式 클린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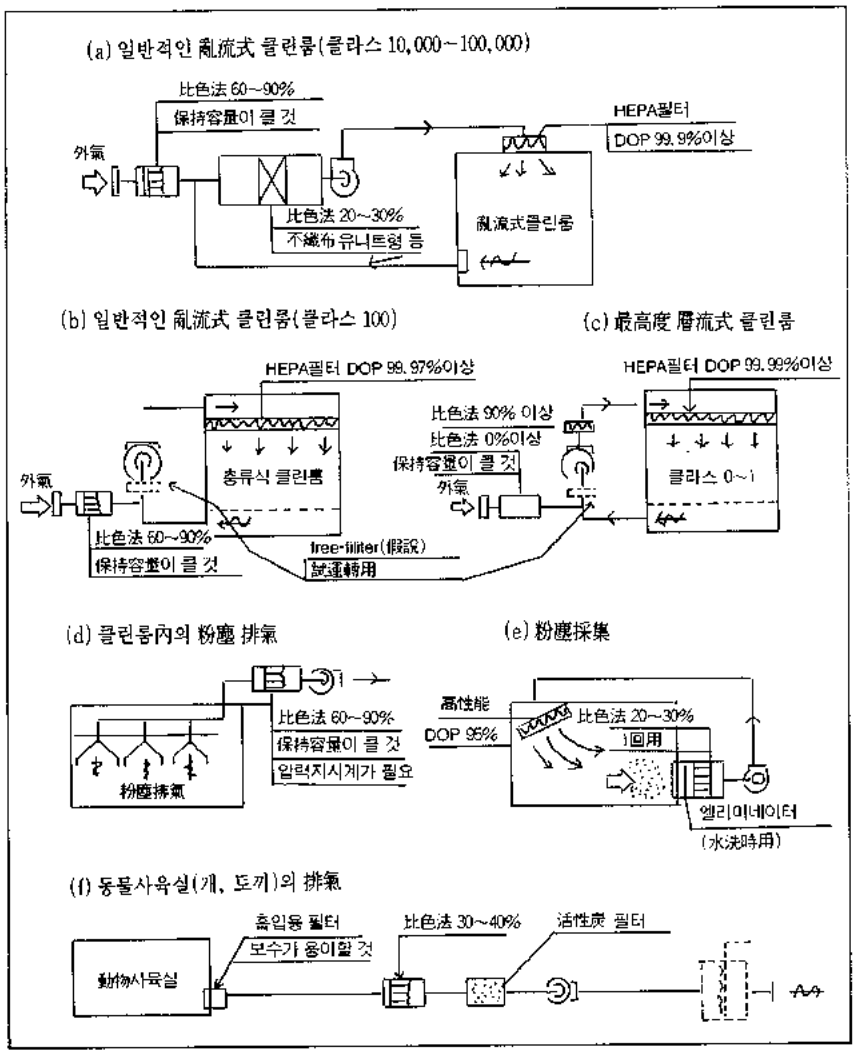
亂流式 클린룸은 淸淨空氣에 의해 실내의 발진을 희석시켜 청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희석시키는 淸淨空氣量이 많을수록 즉, 환기횟수가 클수록 청정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공기의 흐름이 亂流이기 때문에 발생한 粉塵이 실내의 여러 곳으로 분산되므로 환기횟수를 증가시켜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청정도가 향상되지 않는다. 그 한도는 클라스 1천 정도이다. 亂流式이라 하여도 발진량이 적을 경우에는 클라스 1백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안정적인 淸淨度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주로 클라스 1만~1십만의 클린룸에 적용된다. 또한, 클라스 1백의 높은 청정도를 필요로 하는 클린룸에 있어서는 우선 넓은 공간을 亂流式으로 클라스 1천~1만 정도로 청정도를 유지하며 Clean-Booth을 설치하여 클라스 1백의 域을 형성하는 예가 많다.

1) 正壓의 유지

亂流式 클린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압의



[그림-6]클린룸內에 설치되는 裝置의 檢討事項



[그림-7]方式 및 用途에 따른 필터 組合의 例

유지이다. 클린룸內에 외부 공기가 침입하는 것은 외부의 공기압이 클린룸내의 공기압 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淸淨域의 공기압은 오염역의 공기압보다도 항상 높게 유지시켜야 한다. 正壓의 유지는 클린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正壓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량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실외에 배출시키는 것이 가장 안정된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導入外氣量=排氣量+加壓에 필요한 공기량

을 유지해야 한다. 加壓空氣量은 클린룸의 室容積, 출입구의 數와 구조, 벽체의 틈새 및 구조 등에 따라서 달라지나 일반적인 환기횟수로 2~3회/h 정도가 필요하다.

압력의 단계는 간단히 하는 것이 좋다. 클린룸에서는 "淸淨度가 높은 실은 淸淨度가 낮은 실보다 압력이 높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 너무 집착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압력단계가 필요하여, 안정된 正壓維持가 곤란하다. [그림-6]에 나타낸 것과 같이 3단계 정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2) 局部發塵의 처리

클린룸內에서 발생하는 發塵은 주로 작업자와 제조장치에서 생긴다. 인체의 발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無塵衣, 후드, 구두 등의 착용에 의하여 보다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製造裝置 및 作業工程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機器의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발진원을 세밀히 조사하여 국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發塵源을 그대로 방치하면 희석법에 의한 亂流式 클린룸에서는 환기횟수를 증가시켜도 효과는 올라가지 않는다.

3) 필터의 組合

[그림-7]은 각종 클린룸에 있어서 발진에 대한 처리과정에 있어 어떠한 필터를 사용하는가의 實例를 나타낸 것이다. 필요이상의 고성능 필터를 선택하면 압력손실에 의한 送風動力의 증대로 인하여 동력의 낭비를 가져 온다. HEPA 필터의 수명은 亂流式일 경우 3년, 層流式일 경우에는 7년 정도이다. 클린룸내의 커다란 발진원, 예를 들어 제약공업의 분말·동물시설의 털 등은 국부배기 또는 프리필터(pre-filter)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淸淨度와 환기횟수

亂流式 클린룸의 송풍량산정은 이론적으로는 발진량과 필터의 효율에 의해 구해진다. 그러나 발진량의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에는 경험적인 환기횟수에 의해 송풍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表-4〉는 청정도와 환기횟수와의 관계를 산업분야별로 나타낸 참고값이다.

2. 層流式 클린룸

層流式 클린룸의 淸淨化기구는 실내의 발진을 균일한 기류(층류라 칭함)에 의해 신속히 배출시키는 것이다. 즉, 발생된 粉塵을 항상 하부로 흐르게 하고 실의 상층부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層流式 클린룸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HEPA 필터, 프리필터의 綜合捕集效率이 높을 것
②HEPA 필터의 Frame System의 信賴性이 높을 것
③誘引現狀을 일으키지 않을 것
④室內氣流가 均一하게 흐를 것

等이 있다. 이 중 HEPA 필터, 프리필터의 종합효율은 고성능의 필터선정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면,

1) 均一氣流의 확보

層流를 균일하게 하지 못하면 벽면을 따라서 誘引을 일으켜 高淸淨度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垂直層流方式의 클린룸에 있어서 균일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吹出口의 풍속이 일정할 것

②바닥면 吸出口의 풍속이 일정할 것

吹出口 풍속의 균일화는 HEPA필터 상부의 공기압이 균등하면 취출풍속은 일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상부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상부공간으로 취출되는 연결덕트의 風速은 작을수록 좋다([그림-8]參照). [그림-3]에 있어서 연결덕트의 吹出風速은 V_1이 7~8m이하, 플리넘안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풍속 V_2는 3~4m 이하로 制御할 경우 吹出風俗의 균일화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된다. 실제로 層流方式은 大風量으로 되기 때문에 기계실과 덕트스페이스는 작아지며 "나쁜 예"와 같이 될 경우가 크다. 이 경우 V_1은 10~15m까지 달할 경우도 많아 動壓이 집중하는 곳과 안하는 곳의 壓力分布의 차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즉, 덕트의 흡입구 근처는 HEPA필터의 토출풍량이 부족하게 되며 흡입공기의 도달점 부근에서는 토출풍량이 과다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한 內部空間으로의 덕트 연결구를 다수확보, 분산시켜 低風速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공명판을 흡입구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분포상 유리하다.

두번째는, 바닥흡입구의 風速均一化이다.

[그림-9]의 Free Access Floor에 있어서 덕트연결 최단부의 풍속 V_e는 가능한 한 낮은 것이 좋다. 이것은 吹出덕트와 같은 개념이나 吸入덕트의 경우에는 吹出보다도 복잡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그림-9]의 壓力線圖에서 알 수 있듯이 Free-Access내의 風速은 송풍기에 가까울수록 크게 되어 동압은 항상 정압이나 정압·전압은 흡입측의 영향을 받아 부압이 된다. 그 결과, $P_T=P_S+P_V$의 관계에 있어서 Free Access내의 정압은 풍속의 상승과 함께 급속하게 負壓度가 커지게 되어 이 부분의 바닥면에서는 흡입이 과다하게 된다. 즉, 송풍기에 가까운 바닥면에서는 흡입이 편중하여 공기의 흐름은 송풍기측으로 편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다흡입이 되는 e점, d점의 흡입면에 저항을 증가시켜 各 바닥면 a, b, c, d, e점이 同一風量을 흡입하도록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에 의한 조절을 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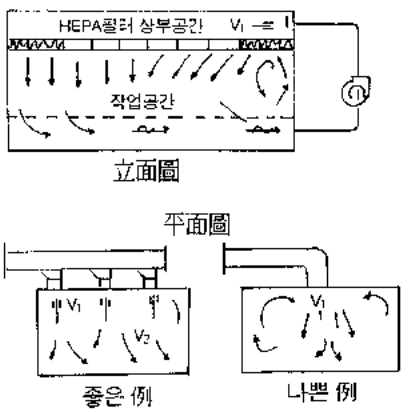
調節方法으로는 e점, d점의 통기구 크기를 조절하여 通過風速抵抗을 증가시키거나, 吸入口 뒷면에 필터를 설치하는것 등이 있다. 調節時에는 천장의 토출구에 얇은 종이나 실 등을 부착시켜 이들의 움직임으로 偏流를 조절한다. Ve점의 풍속은 5m/s이하가 바람직하다. 또한 Ve는 建築構造, Utility 配管 등의 장해물에 의해 設計値보다 클 경우가 많으므로 設計時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HEPA Filter Frame System의 信賴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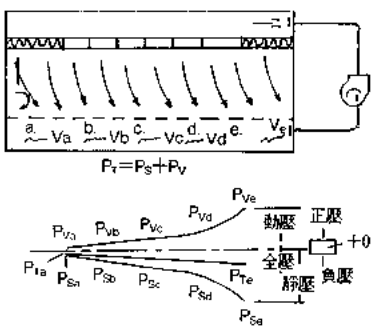
HEPA 필터 본체에서 粉塵이 누출되는 확률보다도 필터와 프레임과의 접촉부분에서 漏出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HEPA필터용 프레임의 신뢰성이 높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層流式 클린룸의 淸淨度를 향상시킬 수 있다.

3) 誘引現狀을 일으키지 않을 것

여기서 말하는 誘引現狀이란 層流(均一流)의 흐름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기류가 발생하여, 실내에서 발생된 粉塵 또는 인접오염역의 분진을 상층부까지 유인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誘引된 粉塵은 층류에 의해 다시 하류로 운반되기 때문에 重要作業域(crifical area)에 부착할 가능성이 크다. 유인에 의한 분진수는 일반적으로 그 양이 적기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우며, 발견하여도 유인源을 해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가 층류식 클린룸에 있어서 풀어야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유인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일류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림-8]吹出口의 例



[그림-9]free-acess內의 壓力分布와 偏流

이상, 亂流式과 層流式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였는데 요약하면 亂流式에 있어서는 정압유지와 커다란 발진원에 대한 국부처리, 層流式에 있어서는 均一流(層流)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제 4 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및 제11차 ACAE이사회 참가기

DELHI				AGRA		
ARRIVALS		CONFERENCE		TOUR	COUNCIL MEETINGS	
DAY 0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26.9.90	27.9.90	28.9.90	29.9.90	30.9.90	1.10.90	2.10.90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STUDENTS ARRIVE	DELEGATES ARRIVE	ACA 4 SESSION Ⅰ RURAL CONTEXT	ACA 4 SESSION Ⅲ REGIONAL CONTEXT	LOCAL SIGHT SEEING AGRA	ARCASIA COUNCIL SESSION 1 ACAE MEETING SESSION 1	ARCASIA COUNCIL SESSION 3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OPENING OF EXHIBITION AND STUDENT JAMBOREE		ACA 4 SESSION Ⅱ URBAN CONTEXT	ACA 4 CONCLUDING SESSION	ARCASIA WORK SHOPS	ARCASIA COUNCIL SESSION 2 ACAE MEETING SESSION 2 LEAVE FOR AGRA	ARCASIA COUNCIL SESSION 4
	INAUGURAL CEREMONY KEY NOTE ADDRESS & DINNER	FRIENDSHIP NIGHT AT SURAJKUND				CLOSING CEREMONY AND DINNER

[표-1] 제 4 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일정표

李廷根
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本 協會 국제위원회 위원
by Lee, Jeong-Keun

3. 제11차 이사회의

29일 점심시간 후에 마지막 회기를 짤막하게 끝내고 참석하는 대표단은 3대의 버스에 분승하였다. 서너시간 걸려 아그라에 도착하리라 예상했는데 데모와 폭동으로 인해 여러 지방도로들이 교통이 차단되어 돌고 돌아서 8시간 이상 걸려 자정이 넘어 아그라의 호텔에 도착하니 모두들 지쳐버렸다. 우선 30일은 단체여행 일정이 잡혀 있고 10월 1~2일 이틀에 걸쳐 이사회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 다행이었다. 30일 점심후에 Agra Fort 와 Taj Mahal 을 관광하였다. 오래 찬찬히 보고 싶었지만 대충돌아볼 시간밖에 없었다. 만찬이 있기전 저녁에 Ar.P.L.Sharma 기념 강연회가 있었다. P.L.Sharma 는 Agra 지방 태생으로 일찌기 건축의 선진교육을 받고 이 지방의 건축 문화와 건축교육에 많은 공헌을 한 분이라 한다. 이미 타계했지만 이 지방 건축인들이 흠모하는 건축인인 것 같다. Agra 시의 건축인들과 유지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연사는 이번 ACA -4중 첫 회기의 좌장을 맡은 바 있는 그리스의 Psomopoules 씨였다. 그는 아테네의 Doxiadis Associates 의 부소장이며 Ekistics 이론의 추종자인 듯하다.

Broken English 웅변대회에 나가면 3연패는 무난할 것 같다. 강연 내용보다는 웅변적인 그의 설득이 장내를 압도한다. 강연 요지는 건축은 삶의 총체적 체계라는 것이고 개발에 의한 성장은 사람들의 선택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무방한 것이며 환경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정치가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 교육은 중요한 것인데 이는 기술이나 예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문제(Humanity)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닿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일 아침 이사회의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후로 연기하고 오전에는 관광을 가기로 했다는 전갈이 왔다. 맥이 풀렸다. 끝낼것 끝내고 관광을 해야지 시작과 끝이 흐린 것이 인도식인지 아니면 이번 대회조직위원회만의 케이스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처음부터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었다. Fatehpur Sikri 란 유적인데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1일 오후에 제11차 이사회의가 시작되어 2일 오후까지 계속되었고 회의끝에 마감파티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인도의 정치상황이 어두워 교통편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관계로 모두들 일찍 떠나게 되어 유야무야되고 우리 한국대표단도 예정을 바꾸어 일찍 떠나기로 했다. 아그라에서 상봉하기로 된 우리 학생 대표들과의 연락 이 두절되어 모두들 불안한 마음으로 델리로 향발하였다. 다음은 이사회의 토의사항 요점을 요약한 것이다.

1. 의제번호 1.0.~4.0.

이번 이사회의에는 회원 12개국중 스리랑카가 빠져서 11개국이 참가하였고 옵저버로 호주, 마카오, 일본 건축사협회와 코먼웰스 건축사협의회 회장 및 세계건축가협회(UIA) 회장이 참석하였다. ACA -4의장인 인도건

축사협회장 Deobhakta 와 현 아시아 건축사협의 회장 Khambatta 및 옵저버로 참가한 나라의 대표들 순으로 인사가 있은 후에 작년 방콕에서 있었던 제10차 이사회의 회의록의 검토 및 정정이 있었고 이어 인준되었다.

세계 건축가협회(UIA) 회장 Rod Hackney 씨는 UIA 에 소속된 아시아 회원국이 18나라이고 UIA 제4지역에 속한 아시아 각국의 활동이 아시아 건축사협회와 중첩되므로 UIA 의 지역활동 활성화를 위해 UIA 제4지역 기구와 ARCASIA (아시아 건축사협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협의와 사무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보고였다. 그리고 마닐라의 ACA -1에서 채택된 건축실무 국제윤리강령이 UIA 에서 인준된 내용의 유인물이 각 협회에 전달되었다.

현 Common Wealth 건축사협의회(CAA) 회장은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그는 근래 35개 회원국에서 중점적으로 해온 사업은 학교 건축을 개선하는 일이었으며 건축가들이 자력갱생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마카오 건축사협의 회장은 마카오도 홍콩에 이어 1990년에는 중국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지만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신일본 건축가협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고이찌씨는 일본도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에 합류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양건축계와 교류가 빈번한 자국의 건축수준에 자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강국들이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 건축계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것을 느끼고 늦기전에 가입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Meera Deobhakta 의 재무보고가 있었는데 필리핀과 스리랑카가 회비미납 상태이고 전임 회장단으로부터 전회기 동안의 협의회 재정 잔금처리 인수인계가 확실치 않았다. 회원국들은 전, 후임 집행부간에 재무인계인수를 분명히 하도록 촉구하였다.

	Presentation / Action
1.0 Introdection	
1.1 Welcome Speech by Host-Chairman ACA 4	Mr. Madhav Deobhakta
1.2 Chairman's Opening remarks	Mr. Russl Khambatta
1.3 Greeting from invertees	
2.0 Agenda	
2.1 Addition / Alteration to Agenda	Mr. N. Badheka
3.0 Minutes of 10th Council Meeting in Bangkok 1989	
3.1 Review and Corrections	Delegates
3.2 Adoption of Minutes	
3.3 Matters Arising	
4.0 Hon. Treasurer's Report	Mr. Meera Deobhakta
5.0 National Reports	Delegates
6.0 Report of Practice Working Group	Mr. Kington Loo
7.0 Report of Outreach Programme Group	Mr. Akhtar Chauhan
8.0 Report of Architect Selection Working Group	Mr. Sangkoon Atthakor
9.0 Arcasia Think Tank	Mr. Zaigham Jaffery
10.0 Arcasia City followup	Mr. Husseln hamzah
11.0 Arcasia Information Centre	SLIA
12.0 Arcasia Awards	Mr. S.A. Bilgrami
13.0 Arcasia Bye-Laws	Mr. Russl Khambatta
14.0 Arcasia Proposal for compilation of Statues	Mr. Russl Khambatta
15.0 Forum-Venue	Delegates
16.0 Miscellaneous	Delegates
17.0 A.C.A.E. Report	Mr. Shrish Deshpande
18.0 Membership Extension	Mr. Madhav Deobhakta
19.0 A.C.A.5-Venue-Invitation-Theme	Delegates
20.0 Election of Office Bearers	Delegates
21.0 Venue-Date for next Council Meeting	Delegates
22.0 Any other matter with Permission of Chair	Delegates

[표-2]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제11차 이사회의 의제

2. 의제번호 5.0.

각국 협회가 작년 이사회이후 일년동안 시행한 주요 사업 내용과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대한 건축사협회에서는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두 번째를 맞이했던 전국 건축가대회의 경과와 전망, 건축법령연구소의 설치와 활동, 건축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법령 개정 추진을 위한 활동. 각 위원회의 활동상황과 국제 학술회의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3. 의제번호 6.0., 7.0., 8.0., 10.0., 11.0., 14.0.

제9차 서울 이사회때에 Practice Work, Outreach Programme, Architect Selection 등 3개의 활동구룹을 만들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번 회의에 그 책임자들도 참석치 않아서 토의할 내용이 별로 없었다. 제8차 이사회에서 설치한 바 있는 Think Tank 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사업계획이 불확실하고 실현성이 없는 것은 일을 벌이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아직은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의 일하는 방법이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으며 시간을 두고 개선해야 할 것 같다.

활동구룹의 책임자가 불참하는 경우 그가 속한 나라의 협회에서 책임지도록 하였다. 의제 11.0. Arcasia Information Center 에 대해서는 담당국인 스리랑카가 불참하여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제 10.0 Arcasia City Followup 은 말레이시아에서 담당했는데 회원국 주요도시의 건축을 책자로 꾸미는 사업으로 잘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도 발돋음해서 제법 햇수를 거듭했으니 좀더 효율적인 운영과 각국의 회원들간에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실질적인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과 제도운영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시아 건축계가 세계 건축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도 이제는 아시아 건축사협의회가 돌아가는 사정들을 어느정도 이해할 만하게 되었으니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름대로의 공헌을 투여해야 할 시기에 이른것 같다.

대한건축사협회가 말레이시아와 협력하여 주관하도록 위촉 받았다.

의제 14.0.는 인도 건축사협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각국의 건축법령을 요약하여 한데 묶어 아시아 건축법령 모음집을 만들자고 제의하였다. 각 나라마다 제도가 많이 다를 수 있고 용어와 해석의 차이등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인도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추진해 보도록 결정하였다.

4. 의제번호 15.0. Forum 6- Vanue

작년 방콕의 제10차 이사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작년에 새로 가입한 중국 건축학회가 제6회 포름과 제13차 이사회의를 초치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고문이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름을 조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홍콩의 Ronald Poon이 중국 건축학회를 많이 도와서 중국 건축학회에서 제6회 포름과 제12차 이사회의 개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이사회의는 내년 9월 24~25양일간, 그리고 포름은 27~28일 양일간 각각 북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포름의 테마는 "아시아에서의 대단위 주거단지 계획의 새로운 방향"이다.

5. 의제번호 13.0. Arcasia Bye - Laws

ARCASIA Contitution에 따라 더욱 자세하게 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따로 사행규칙을 만들기로 제10차 이사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파키스탄의 빌그라미씨가 초안을 준비해와서 이를 심의하였다. 각국에서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토의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 가입조항에 이사회에서 가부를 심의하기 전에 입회원서를 제출한 단체에 대한 심사조항이 아카시아 회장에 거의 일임되어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어떤 절차를 밟도록 해야함을 제안했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등에서도 거의 유사한 지적을 하였다. 부회장을 3명정도 두어 지금처럼 명예직 비슷하게 두지 말고 각각 일정한 책무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회장단 선출시 한꺼번에 갈지 말고 부회장들의 임기를 연차적으로 한 사람씩 교체하도록 해서 협의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포름 조직 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고 1인이 2년기간의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CAE(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협의회 총무간사의 직무내용도 자세히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외 토의사항들을 검토하여 Bilgrami씨가 초안을 보완하여 각 회원국 협회에 의견을 다시 의뢰하도록 했다.

6. 의제번호 12.0. ARCASIA Award 작년에 제10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 아카시아 건축상의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을 파키스탄의 Zaigham Jaffery가 준비해 왔다. 성실하게 잘 만들어져 왔다. 세부 고칠 사항이 있으면 각국의 협화에서 더 의견을 내서 보완토록 했으며 다음 회장단에서 시행토록 하였다. 아카시아 건축상의 운영 최고 책임자는 ACA 주최국 협회장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위원장이 맡기로 하였다. 심사위원구성은 아카시아 회장, 건축상운영위원장, 아카시아 지역 3개구역중 ACA 구역별로 한 사람씩 탁월한 건축가 ACA 개최국의 비 건축계 인사1인, 아카시아 이외 지역에서 초청된 탁월한 건축가 1인 도합6명으로 구성된다. 아카시아의 3구역구분은 다음과 같다.

ZONE A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ZONE B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ZONE C : 중국, 홍콩, 한국, 필리핀

7. 의제 17.0. ACAE Report

ACAE(교육위원회) Deshpande 의장으로부터 이사회와 병행해서 진행된 ACAE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학생잼버리의 진행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대표 학생들과의 모든 연락관계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아 잼버리가 조직적으로 잘 운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ACAE 회의에는 전임회장이 출석하여 일어 연계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에 차기 ACAE 회장으로 선출된 말레이시아의 KASI가 학생잼버리 프로그램도 시행1년전에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받도록 제안하여 통과되었다. 이번 잼버리를 보면 필히 일찍부터 계획을 검토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8. 의제 18.0. Membership

호주, 마카오, 일본 등에서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에 가입할 의사는 회장단에 전달한 것 같은데 이사회에 하등의 검토할 만한 서류가 제출된 게 없었다. 희망국과 회장단 모두 일의 순서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 같다. 다음에 회원가입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식으로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9. 의제 20.0. 회장단 선거

파키스탄의 Syed Akeel Bilgrami 씨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3개의 Zone 에서 각각 1명씩 뽑았는데 필리핀, 싱가폴, 방글라데시의 협회장들이 선출되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사람들이 일해온 몇가지를 보면 야무지게 잘 해낼 것 같다.

10. 의제 19.0. ACA -5

홍콩도 중국에 영토가 통합되기 전에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개최해 보고 싶어서 ACA -5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파키스탄이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것을 그들의 활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Lahore 에서 1992년 가을에 열기로 결정되었다. 테마를 '건축의 새전로'라고 임시로 준비하였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내년의 이사회에 제출되어 다시 검토 될 것이다.

4. 소감

제4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제11차 이사회에 참가하고 느끼는 바는 인도가 이번 대회를 치루는데 매우 힘겨웠다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경비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었을줄 짐작된다. 더군다나 인도내부의 정치상황이 어지러워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던 것이니만치 주어진 예산내에서 보다 용의주도하고 내용을 알차게 끌어갔더라면 돈 덜드린게 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 국내 회원들과의 일하는 관례가 어떻게 맺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국 손님들을 초대한 국제회의를 아무리 수적으로 내국인의 압도적으로 많다하여도 진행방향은 국내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치 주최국 내국인들의 잔치에 회원국들이 참관하러온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아시아 건축인들의 대회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회에서 학술토론회의 주제의 줄거리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의욕만 앞서서 발표논문들을 너무 많이 빡빡하게 집어넣어 양으로 빈틈을 메꾸려 하면 주제는 잡탕이 되어 버린다. 몇몇의 인도인 발표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표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인데 그들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청중 및 토론자간에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였다면 훨씬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토론자 및 좌장이 대회 훨씬전에 정해지고 발표내용이 전해져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을 것이다. 발표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발표내용이나 제목도 당일에야 알게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깊이 있고 뜻있는 의견교환이 어렵다. 재치와 임기응변이 현장을 지배하게 마련이다.

자연히 서울에서 1988년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했던 제3회 대회와 견주게 된다. 부드러운 것은 일반회원들의 학술토론회의에의 참여도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영어를 공식 통용어로 해서 그들에게는 소통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와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다. 동시 통역이 되는 상황에서는 참여의식만 있다면 언어의 벽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전봉수위원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었다. 협회회원들이 학술토론회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는 아직 Conference 문화가 익숙치 않다는 것이다. 질문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주제넘게 크게 떠들어대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무얼 그렇게 나서느냐 하는 식으로 대하는 수도 있다. 어릴적부터 어른들 앞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도 참고 말대꾸하지 말라고 교육 받고 자라온 습성이 남아서인지도 모르겠다. 언어를 통해서 사리를 따지며 주고 받은 생활방식이 우리의 문화에는 아직 어색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간에 이러한 형식이 대화 채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추세이니만치 우리 회원들도 체질에 잘 안 맞더라도 적응하는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사람 또는 두 나라 사이만의 관계라면 서로 상대방의 방식을 수용하면서 대화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다른 관점이 얽히는 국제사회에서 다자간의 관계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 형식에 맞추어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중국에서는 무려 4명의 발표자가 있었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에 가입한 지 얼마 안되고 내년에는 포름과 이사회의 개최를 유치했기 때문에 홍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것 같은 인상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언어구사력이 결코 앞서는 것도 아니고 발표 소재를 우리도 얼마든지 주제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면으로의 의식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우리도 대회마다 발표자와 좌장등의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하는 자세로서 주고 받으며 홍보도 해야 할 것 같다.

회원중 몇몇이만 잠깐 관계하고 마는 그러한 국제관계나 행사이어서는 않되겠다. 가능한 회원들의 관심사와 국내차원의 이슈들과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매개체가 되어야 하겠다.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기여를 하고 배울 점을 빼놓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대한 상호영향권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시아 건축문화권 및 아시아 동료 건축사들의 체온이 우리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회원들의 입김이 그들에게 가닿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짜아내야 할 것 같다. 각국 기구들만의 공식적 접촉에서 끝나고 무수한 아시아의 회원들간의 서로 감에 와닿지 않으면 진정한 교류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도 발돋음해서 제법 햇수를 거듭했으니 좀더 효율적인 운영과 각국의 회원들간에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실질적인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과 제도운영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시아 건축계가 세계 건축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도 이제는 아시아 건축사협의회가 돌아가는 사정들을 어느정도 이해할 만하게 되었으니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름대로의 공헌을 투여해야 할 시기에 이른것 같다. 협의회 운영회 개선과 실질적 공동사업 및 회원들간의 교류증진등을 위해서 적극 나아서야 한다.

인도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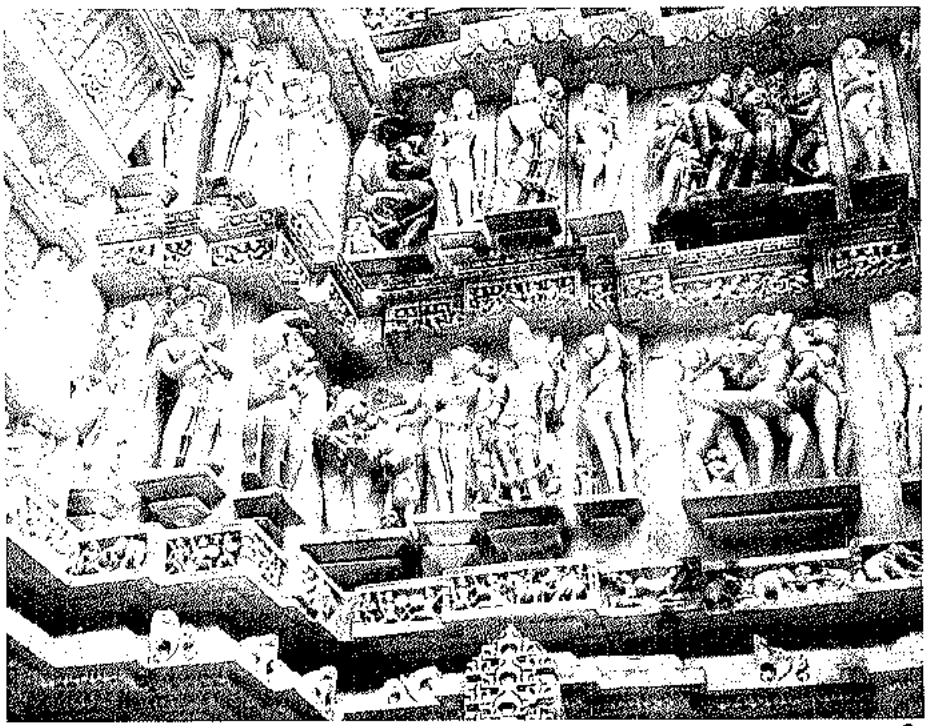
—人間生活의 밑바닥을 여행하다—

❶

鄭用贊/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ung, Yong - Chan

작년 12월 불교신문 광고연에 여러 스님들과 성지순례의 기회가 있었으나 생활의 수레바퀴에 밀려 가지못하고 말아 인도여행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늘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인도란 나라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 왔다.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가야, 신라시대부터 불교를 통한 찬란한 문화의 유입이 있었음은 인도와 필연적인 인연이 있음이다. 가야시대 김수로왕의 부인이 인도 아유다국의 공주라고 하니 우리 몸 속에 인도인의 피가 섞여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영원한 자유인 라즈니쉬, 나의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 준 마하리쉬, 크리슈나므르티, 바바하리다스, 스와미묵타난다, 스와미사치다난다, 마하트마 간디, 타골, 까비르 등 많은 정신적 스승들로부터 내마음과 몸에 깊숙히 새겨진 영혼의 흐름을 늘 감사하면서 언젠가는 스승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또는 살아있는 성자들과 만나 생의 의미를, 생활의 지혜를 더 깊게 받아 들이고 싶었다. 생의 여로에서 영혼의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건축사협회에서 마련한 ARCASIA (아시아건축사대회)회의를 겸하여 인도관광 7박8일은 추석전후의 연휴를 끼고 절호의 기회를 나에게 주었다. 짧은 기간이나 너무도 그리던 인도를 보고 싶었고 혹시나 여행도중 살아있는 요기(요가수행자들)라도 몇 분 만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여행이 성지순례는 아니지만 아침 일찍 힌두교 성지 바라나시의 갠지스강에서 배를 타고 바라보는 힌두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생활의 밑바닥, 아니 이곳이 지옥이 아닐까? 하고 한없는 마음의 눈물을 흘렸다. 같이 간 일행들도 큰 충격을 받은 듯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돈을 뿌리니 벌떼처럼 더달라고 따라오는 그들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거리의 양쪽에 접시를 놓고 적선을 바라는 수많은 불구자들(문둥이, 손발없는 사람들), 강둑의 화장하는 모습, 더러운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입과 몸을 닦으며 먹기까지 하는 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그 더러운 물을 聖水로 생각하며 來生에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을 바라는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는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 가겠지만 살아서 지혜롭게 사는 자만이 死後에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의 삶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곳 바라나시엔 갠지스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불교의 사대성지의 하나인 綠野園(사슴이 뛰어논다는 정원)이 있다. 먼저 입구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 갔다. 국보1호라는 아소카필라(아소카대왕의 기념비)를 비롯하여 수많은 불교유물을 보면서 지금은 쇠퇴했지만 불교가 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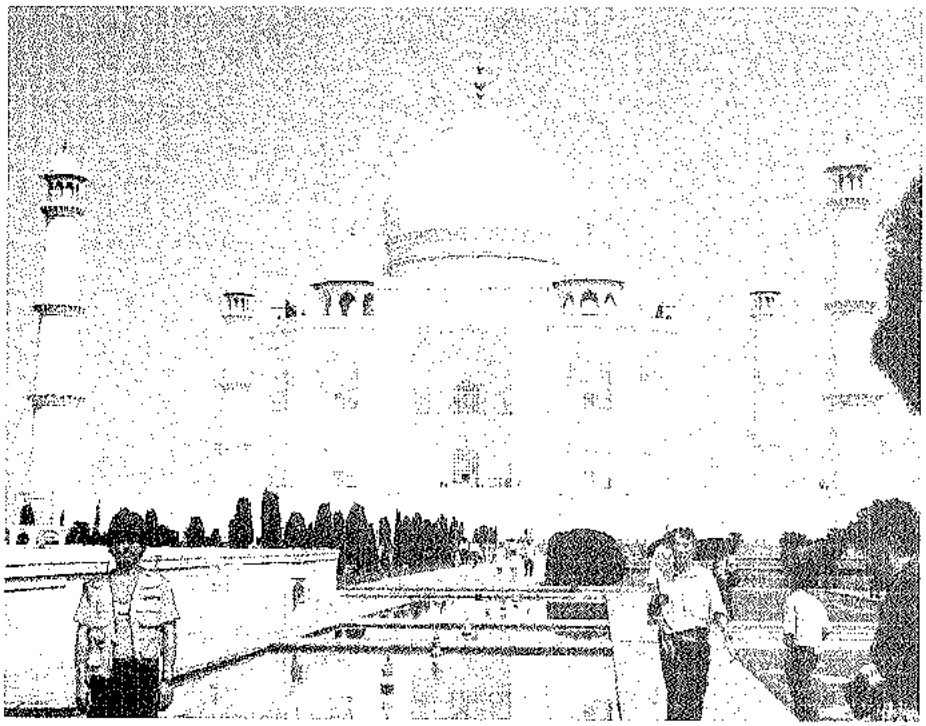


❶ 힌두교, 회교, 불교가 혼합하여 몇 백년에 걸쳐 이루었다는 Qutab Minar 대탑
❷❸ 카쥬라호 사원에 있는 대담한 표현의 조각
❹ 타지마할 무덤궁전
❺ 새벽이면 많은 인도인들이 聖水로 목욕을 하며 먹기까지 한다는 갠지즈강

하던 때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는다. 綠野園, 최초로 부처님께서 다섯명의 비구승에게 설법을 하셨다는 이곳, 生老病死가 4가지 고통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苦痛(愛別離苦), 원수와 만나지 않으면 안되는 苦痛(怨憎會苦), 구하나 얻어지지 않는 苦痛(求不得苦), 번뇌의 숲에 뿌리박은 존재의 苦痛(五陰盛苦)등 여덟가지 인생의 苦痛을 說하시며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貪(욕심), 嗔(성냄), 痴(어리석음)의 三毒이니 이 세가지 毒을 멸하고 涅槃을 얻으라고 하는 四聖諦 설법을 시작으로 45년간 진리의 가르침을 편 것이 불교의 성립이라고 본다면 녹야원은 불교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숲이 무성한 넓은 정원, 지금도 사슴이 뛰논다는 녹야원은 폐허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절터의 방대함은 충분히 확인이 된다. 절터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으니 불자로서의 감회가 가슴 벅차기만 하다. 부처님을 만나는 기쁨 같다고 할까? 절터 옆엔 아소카 대왕이 건립한 다메크 대탑이 벽돌과 흙으로 된 원형의 모습으로 서있다. 그 속에 부처님 사리가 있을 것을 생각하며 삼배를 올렸다. 탑을 한 바퀴 돌며 한없는 마음의 설레임이 흐뭇하기만 하다. 절의 본관이었던 부분 옆엔 아소카 대왕의 석주가 서 있던 곳에, 柱頭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하부기둥만이 초라하게 남아 있다. 동쪽으로 무성한 아소카나무 숲길을 따라 1km쯤 가면 일본인들이 지었다는 법당이 있어 이재헌교수(청주대학)와 같이 들어가 삼배 큰절을 하고 공양을 하였다. 그곳에 계시는 스님께서 우리가 불자인 것을 아시고 불상뒤로 안내하시며 설명을 해 주신다.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이란다. 한국에서 간 불자들의 기념품이 그곳에 있어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나오다가 입구상점에서 염주를 샀다. 절 오른쪽엔 초전법륜의 모습을 실물크기로 부처님과 5비구 스님의 상을 부조해 놓았다. 녹야원에서 나올 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번을 뒤돌아 보면서 버스를 탔다. 버스안에서 갠지스강과 녹야원을 번갈아 생각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다. 인도위정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의 모습, 버려진 인도국민들의 비참한 모습, 황폐한 성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분노의 마음이 불끈 솟는다. 우리가 묵은 Scarts Varanashi Hotel에 돌아와 자유시간에 호텔 수영장안에 있는 요가 교습소에서 75루피(한화로 4000원)를 주고 한시간동안 요가를 했다. 평소에 절을 많이 한 탓으로 몸이 유연하여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다.

여행중 가장 마음편하게 했던 카쥬라호 마을의 Oberol Hotel을 잊을 수가 없다. 유럽의 어느 고급 별장에 온 듯한 착각을 했다. 우리 일행이 이 호텔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경 어두워질 무렵이어서 주변을 잘 볼 수 없었지만 호텔 내부의 깔끔한 분위기는 건축인으로서 많은 자성을 하게 하였으며 저녁식사 후 가이드 오인환씨와 그 유명한 카쥬라호寺院이 바로 앞에 보이는 시내 까페 야외정원에서 음력 8월 13일의 밝은 달 빛을받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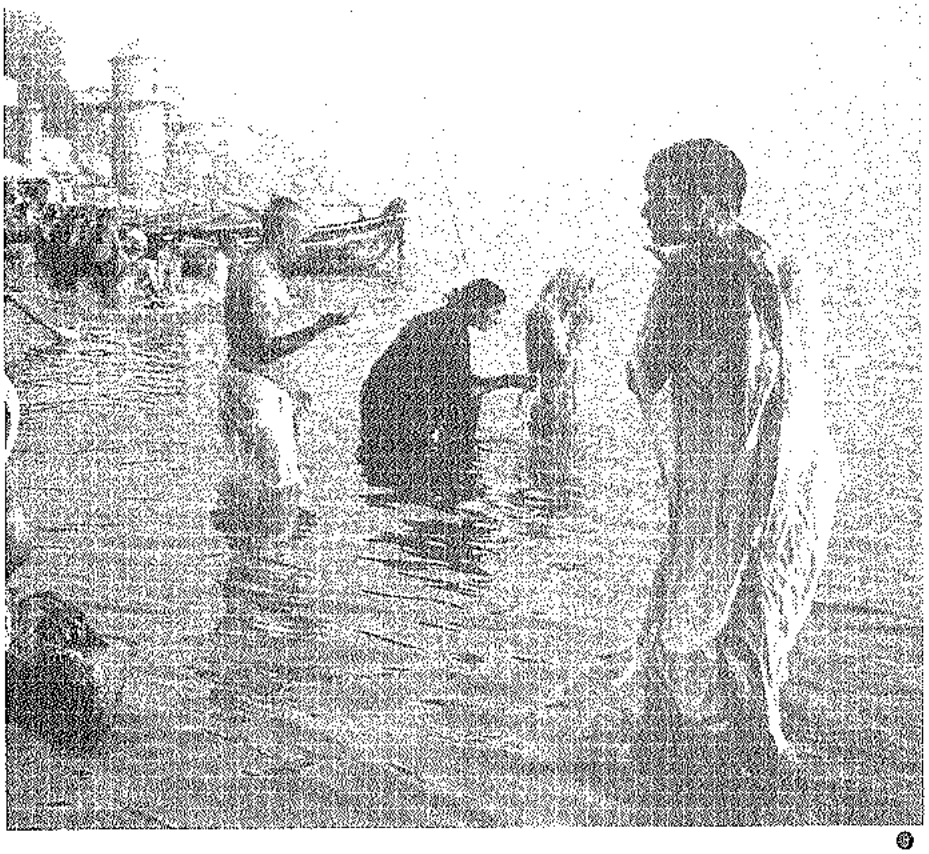


오후 한시에 우리일행은 택시 4대에 분승하여 라자스역으로 가는 도중 인도농촌의 버려진 옥토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무지하고 게으른 인도, 한없는 벌판을 잡초로 버려두다니 농사기술, 종자개량, 관광개발, 국민교육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한 國富를 누릴수 있는 여건을 일행중 어떤분은 박정희 대통령같은 분을 인도에 모신다면 인도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같다고 말한다. 인도인들에겐 긴장과 자극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맥주 한잔씩을 마시며 모처럼의 낭만을 즐겼다. 돌아오는 길엔 룩사라는 인력거를 타고 달빛아래 달리니 정겨운 마을이라 생각했다. 호텔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되었다. 호텔방에서 발코니로 나와 밖을 바로보니 수영장이 있는 잔디밭 정원이 달빛을 받아 너무나 아름답다. 잠이 오질 않아 혼자서 정원으로 나섰다. 벤취에 누워 밝은 달을 쳐다보며 노래를 불렀다. 혼자서 이처럼 즐거워 해본 것은 처음이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든 달아……, 성불사의 밤…" 12시 반이다. 내일의 여정을 위해 잠을 청하였다. 다음날 아침 9시 카쥬라호寺院으로 갔다. 책에서 보던 것보다 더욱 에로틱한 조각들이 우리 일행들을 설레이게 했다. 서구의 포르노 유형을 총동원 하여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담한 표현을 하였지만 조각으로 보는 모습은 추하질 않고 익살스럽기만 하다. 이런 조각을 담은 힌두교寺院이 85개나 되었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2개뿐 이라고 하니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사의 하다고나 할 뿐. 어쨌든 최대의 걸작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인도인 가이드가 능청스럽게 설명을 잘한다. 잊지못할 카쥬라호를 많은 사진속에 추억으로 담았다.

인도에선 여행을 할 때 시간계획을 여유있게 하지않으면 여행 전체를 망치기 쉽상이다. 우리가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갈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되어 가이드 오사장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 되는가 싶었다. 여행사에 분주히 연락하더니 마침 택시로 4시간을 가면 라자스역에 급행열차가 연결된다고 한다. 오후 한시에 우리일행은 택시 4대에 분승하여 라자스역으로 가는 도중 인도농촌의 버려진 옥토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무지하고 게으른 인도, 한없는 벌판을 잡초로 버려두다니 농사기술, 종자개량, 관광개발, 국민교육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한 國富를 누릴수 있는 여건을 일행중 어떤분은 박정희 대통령같은 분을 인도에 모신다면 인도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같다고 말한다. 인도인들에겐 긴장과 자극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4시간 20분만에 라자스역에 도착하니 아직 기차시간은 멀었다. 역구내에서 앉아있는 동안 일반 객차가 멎었다. 더럽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추한 열차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런 기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싶었더니 우리가 탈 특급열차가 온다. 올라가 보니 예상외로 냉발시설까지 되 있다. 인도 상류사회를 위한 특급열차이다. 여행을 하는 기분이 좋다. 넓은 대륙을 기차로 여행하는 동안 우리 일행은 가져온 술과 안주를 즐기며 담소한다. 여객 승무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러운가 보다. 3시간 후에 아그라의 Mugal Sheraton Hotel에 도착,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은 몹시 피곤한 여행을 했다.

아그라에서의 아침 6시반 기상, 건축상까지 받았다는 Sheraton Hotel 정원계획이 Cluster 형으로 수영장과 잘 어울린다. 호텔 입구에 피리부는 뱀장수와 낙타승마도 호텔계획에 고려되었나 보다. 아그라포트성으로 먼저 갔다. 16세기 무갈제국의 왕 아크발에 의해 세워진 이성은 붉은 沙岩으로 축조된 궁성이다. 멀리 강건너 타지마할이 마주 보이는 곳 이곳에서 사자한왕은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죽은 아내를 생각했을 것이다. 사자한왕은 두번째 아내인 뭄타즈를 무척 사랑했나 보다. 열세명의 아들과 한명의 공주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그 미모를 간직해 왔을까? 분명 그 여인은 외모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겸비했을 것이다. 14명의 아이를 낳은 39세의 뭄타즈왕비는 사랑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사자한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내를 위하여 역사상 다시 없을 최고의



인도는 종교의 천국인가? 힌두교, 회교, 불교가 혼합하여 몇백년에 걸쳐 이루었다는 Qutab Minar 대탑은 인도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은 모습 같기도 하다. 한없이 서글픈 나라, 연민의 정을 떨굴수 없는 나라, 많은 성자들이 이곳에서 나오다니 불가사의한 나라, 신비의 나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나라, 더러운 진흙 연못에서 연꽃이 피는 나라.
나는 앞으로 2번이상 인도를 여행할 것 같다. 불교성지순복, 봄베이 근처의 아잔타, 에롤라 석굴들, 또 많은 살아있는 성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부덤궁전을 24년간 지었다고 하니 사자한왕의 마음 또한 측량할 길이 없다. 타지마할은 양파처럼 둥근 회교식 지붕의 본관과 4개의 원통형 탑망루로서, 전체 건물의 내외부가 흰 대리석으로 되어 갖가지 아름다운 꽃 무늬를 장식하였다. 입구에서 본관까지 규모나 정원계획의 치밀성, 계획적으로 본관건물이 연못에 비치도록 한 것은 400년전의 건물답지 않게 완벽하다. 더욱이 이태리 페르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건축인 5천명을 동원하여 건설하였다고 하니 건설비용은 얼마나 되었을까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비참한 인도 국민을 보다가 이런 화려한 건물을 보니 과거의 영화가 현재의 업보로 오지않았나 생각해 본다.

나는 이번 여행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싶지 않다. ARCASIA 대회보다는 인도의 유적지 관광이 더욱 나의 마음을 끌었기 때문이다. 9월 27일 오후 7시(인도시간)아카시아 Opening Ceremony에 참석은 하였으나 피곤한 몸으로 저녁파티도 참석못하고 숙소인 Meredian Hotel로 갔다. 인도에서의 첫 저녁식사에서 인도 쌀밥의 끈기없는 모습을 보고 첫인상이 맥없는 인도를 연상했다. 9월 27일은 인도 학생들이 데모를 격렬하게 하고 분신 자살까지 했다고 한다. 인도에도 누군가 불을 붙이는 자가 있는가 보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성원하고 싶다. 영국인들이 건설했다는 뉴델리는 도시계획과 정부종합청사가 마음에 든다. 장례를 네다본 도시계획이라 생각된다. 인도의 國父 간디의 화장터가 인상적이다. 우리에게도 간디와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지도자의 Leader Ship이 아쉬기만하다.

인도는 종교의 천국인가? 힌두교, 회교, 불교가 혼합하여 몇 백년에 걸쳐 이루었다는 Qutab Minar 대탑은 인도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은 모습 같기도 하다. 한없이 서글픈 나라, 연민의 정을 떨굴수 없는 나라, 많은 성자들이 이곳에서 나오다니 불가사의한 나라, 신비의 나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 더러운 진흙 연못에서 연꽃이 피는 나라.

나는 앞으로 2번이상 인도를 여행할 것 같다. 불교성지순례, 봄베이 근처의 아잔타, 에롤라 석굴들, 또 많은 살아있는 성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과거에 선진국을 여행하며 풍부한 물질문명을 사진에 담으며 부러워했던 富에 대한 욕망에 비해 이번 여행은 풍부한 가난을 사진에 담으며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책 속에서 읽은 수 많은 성자들을 생각하며 자성과 자기비판으로 7박 8일을 정신적 충격 속으로 나를 몰아 넣었다. 뜻있는 여행, 앞으로의 삶에 그 무엇을 생각케 하는 배움의 여행이었음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의 여행도 보는 여행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 보다 낳은 가치있는 삶의 영양분이 되는 여행을 하리라 생각해 보면서 인도인들에게 한업는 축복을 빈다. 나무관세음보살.

건설부령 제474호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령

◇개정이유

개정된 주차장법(1990. 4.7. 법률 제4,230호) 및 동법시행령(1990. 8.8. 대통령령 제13,06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주차구획

현행 규정상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5미터이상, 길이 5.5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앞으로는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

2) 차로의 너비

현행 규정상 직각주차형식인 경우 7.6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차로너비를 6.0미터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함(제6조 제1항 제3호나목).

나.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소·휴게소·공중변소등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대시설규모를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퍼센트범위내로 하고 간이매점 및 자동차장식품판매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영노외주차장설치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제6조 제3항).

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차장설치의무가 부과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로의 너비를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함(제11조 제2항).

라.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등 입지여건상 당해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장설치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고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을 현재는 주차대수 1대당 24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구획과 차로의 기준등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그 면적을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이하인 때에는 11.5제곱미터로 완화조정하여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14조).

주차장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자동차가 기계장치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기계식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또는 공작물식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m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6.5미터이상으로 한다.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도로와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서 그 차도의 너비가 6미터미만인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종단구배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단구배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너비(3.5미터이상)가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4조 제2항·법 제12조 제3항 및 법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용자에게 편

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유치권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의 주차용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이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 및 상가인접지역등에 연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미만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도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도 대향주차	4.5	5.5
45도 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기계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차로의 노변 : 50룩스이상
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 20룩스이상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계식주차장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구조 및 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노외주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리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기타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구조변경신고 및 설치완료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에 한하여 그 제출을 요하며, 설치완료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사업지안의 주차시설배치도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적 1천200분의 1이상일 것)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6.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구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계획서)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규정)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작성하는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노외주차장의 운영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1일에 있어서는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은 확정액으로 정하고, 주차요금의 적용방법,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등을 포함한다)
7. 노외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노외주차장의 차종별 주차대상 자동차의 수량

②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차시간 30분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관리규정의 신고등)①시장·군수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법 제15조 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을 제출하거나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관리규정을 말한다)
2. 주차요금산출기초서
3. 신·구조문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제출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신고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용중지신고서등)①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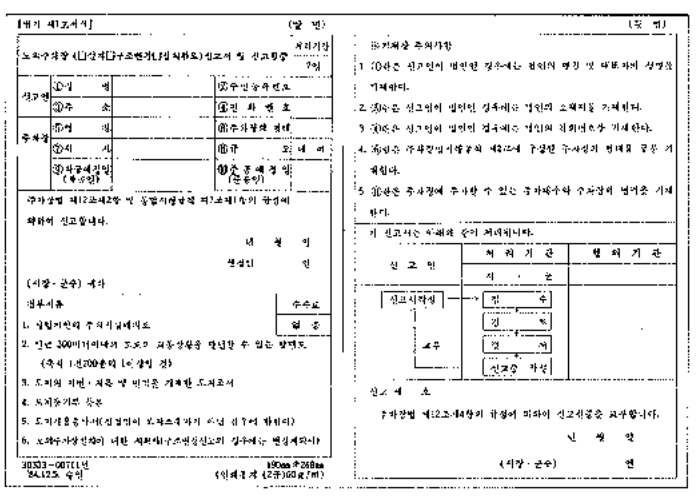
②시장·군수는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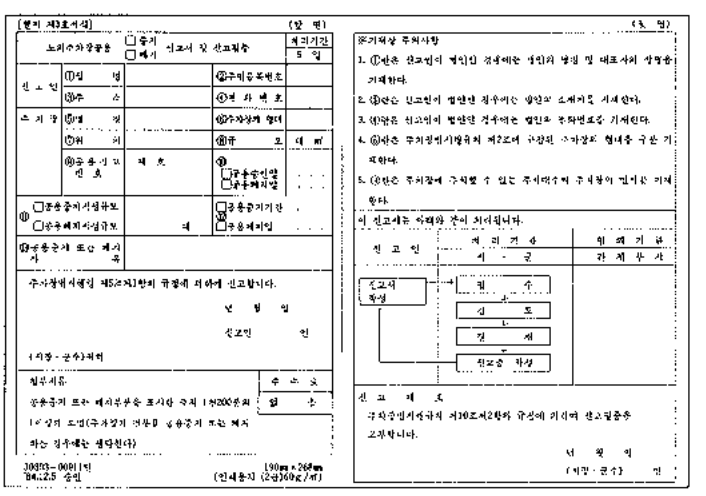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①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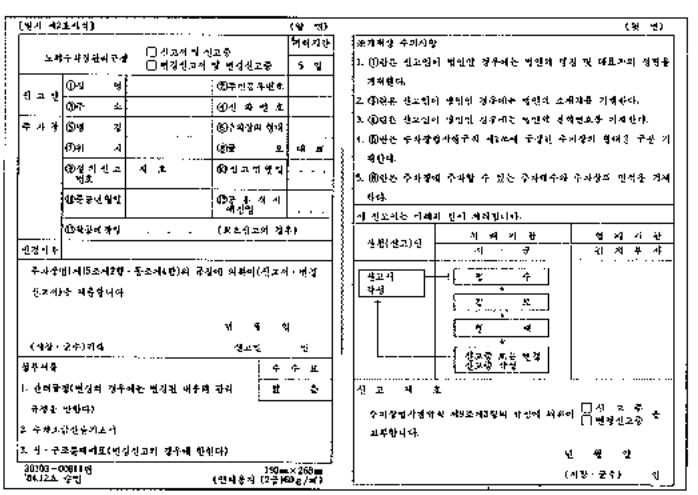
②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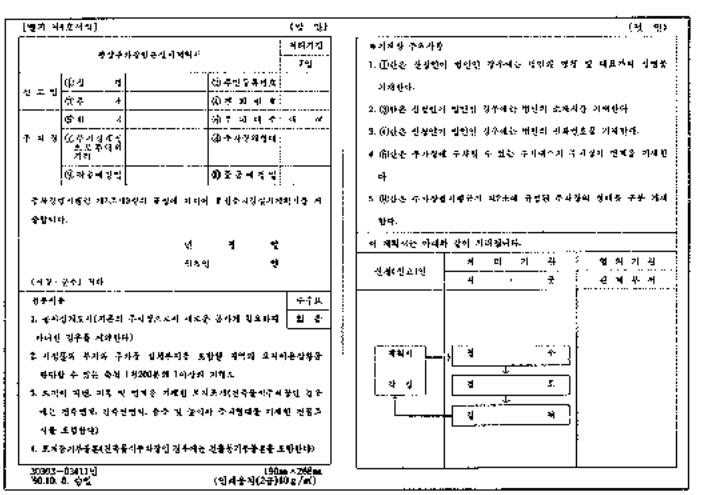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등)









①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9조 제5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인이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등) 법 제19조 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등)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부설주차장설치면제신청 및 비용납부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등)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증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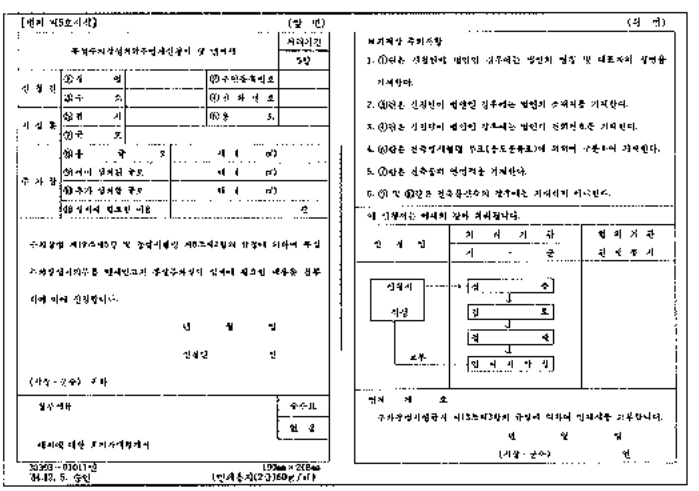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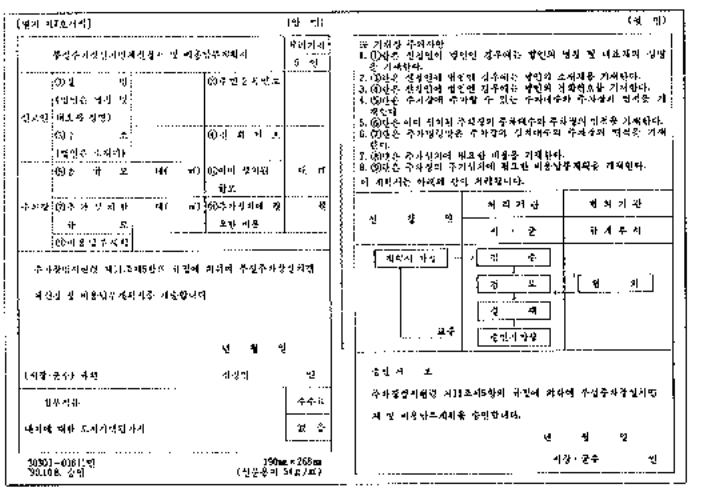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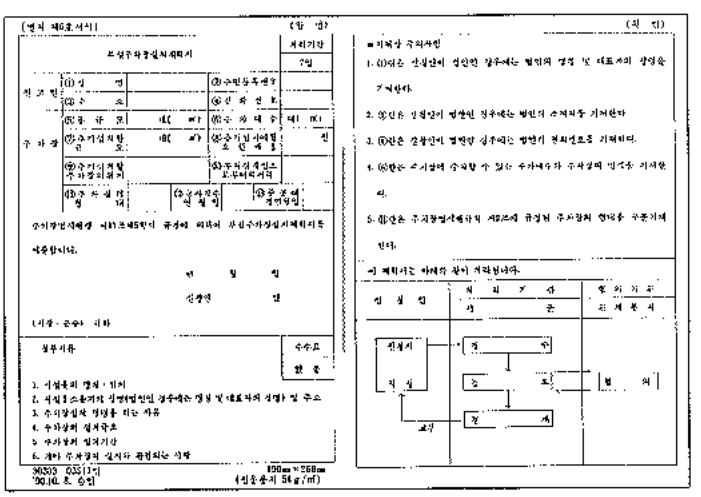
③(허가등이 신청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4조, 동조동항 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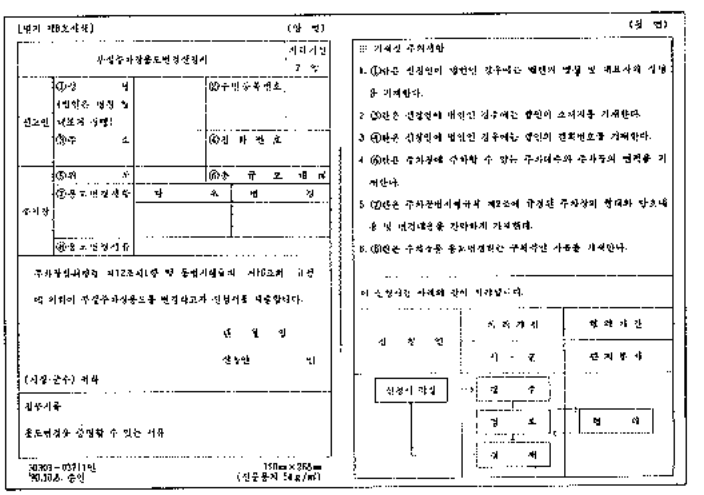
④(건축허가제한으로 허가신청이 거부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중 동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동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4호, 동조동항 제5호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9호 서식 생략)









건설부령 제472호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이 허가되는 구역) ①영 제6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이 허가되는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4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제2항 본문 및 동항 제1호중 "음료수용"을 각각 "음용수"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설비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인 별표 6의 배관재료를 사용할 것.

제22조의 3중 "공장중 단위면적당 작업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을 "공장중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공장"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음용수배관재료(제22조 제2항 제2호 관련)

배 관 재	규 격
1. 동관	KS D 5301(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판)중 급수용 동관
2. 스테인레스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중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해시험에 합격한 것
3. 아연도강관	KS D 3537(수도용 아연도강관)
4.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5. 에폭시 수지 분체 코팅 강관	KS D 3608(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내외면 코팅강관)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부령 제471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차목중 "100제곱미터 이하"를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항동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종묘배양장 : 해태, 미역 등의 종묘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1가구(양식면허를 소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당 기존 종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제7조 제1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의 증축 :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서 지하층이 없는 경우의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1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러목중 "서울특별시 둔촌동에 설치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마. 교정시설의 이축·증축과 구치소의 신축

제7조 제1항 제3목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동호에 누목 및 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행정구역(경찰서등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구청·군청·경찰서 등 시·군·구 단위 공공청사(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구역외에도 적정한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농업협동조합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휴식시설(잔디광장·피크닉장·청소년수련시설 등)과 그 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

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제한 구역지정이전부터의 나대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외의 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라목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송유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바목중 "무연유류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의 증설"을 "주유기보호시설의 설치와 무연유류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의 증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중 "개축"을 "증축·개축"으로 한다.

제8조 제3호중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시화지구개발사업 및 부천중동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다만, 다른법령에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따로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입 회 원

柳瓊奎(56年)
부산공대 건축
유경건축
부산 북구 구포 1187-2
338－3366～7

金亨度(56年)
홍익대 건축
진성, 대건, 천지(종합)
서울 관악 봉천 1595-4
888－6729

李漢明(49年)
서울산업대, 연세대학원
희진, 장흐, 명문(종합)
서울 강동 성내 539-2
487－1577

權秉洙(57年)
서울대 건축
서림건축
서울 영등포 여의도 12-5
780－1489

元堤鍾(59年)
홍익대 건축
시·상건축
서울 서초 반포 67-1
594－2262

龐會男(43年)
인하대 건축공
도성, 무이건축(종합)
서울 강남 신사 664-8
546－4568

康柄薰(29年)
원광대 국문학
조형건축(종합)
대전 중구 대흥 487-1
26－0123

朴洪爽(35年)
영남대 건축공
서연건축
서울 마포 망원 482-3
338－4777～8

李孝秋(57年)
서울대 건축
범진, 두손, 양지(종합)
서울 송파 신천 11-9
420－8762

南廷錫(58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다반건축
서울 서초 방배 450-15
584－3482

金秀泰(56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솔샘건축
서울 도봉 수유 190-5
997－3224

趙鍾晩(33年)
한양대 건축
성북건축
서울 성북 삼선 299
927－1966

閔泳浩(52年)
동국대 건축
소라·이래건축(종합)
서울 마포 도화 250-4
719－3364

李亨基(51年)
한양대 건축
새롬건축
서울 관악 봉천 944-34
872－5743

吳雪姬(59年)
건국대 건축공
성도건축
경기 고양 원당 583-18
965－4912

王好相(52年)
서울공고 건축
선진 환경건축
서울 성동 옥수 220-1
298－4034

朴雲天(59年)
전남대 건축
죽림건축
서울 강남 대치 999-2
569－5842

崔慶一(44年)
인하대 건축, 서울대학원
신한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60-18
554-8541

李英宰(48年)
서울대 건축공
(주)창조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25-15
780－0071

千基俊(48年)
연세대 건축공
(주)대동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485-8
588－5332

鄭泰容(35年)
한양대 건축공
거송건축
서울 동대문 용두 729-6
927－7377

李東鍵(60年)
울산대 건축, 연세대학원
예림건축
울산 남구 달동 874-9
69－5771

李康浩(55年)
중앙대 건축공
이강호건축
서울 강남 논현 74-22
515－0844

1990년도 11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1.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11월분 7백4만7천5백36㎡보다 26.04%(1백83만4천9백94㎡)증가한 8백88만2천5백30㎡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1월 누계 8천8백32만2천5백23㎡보다 42.43%(3천7백47만5천81㎡)증가한 1억2천5백79만7천6백4㎡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10월분 7백65만8천4백7㎡보다 15.98%(1백22만4천1백23㎡) 증가한 8백88만2천5백30㎡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89년도	1990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247,122	1,637,177	390,055	31.28%
	부산지부	473,863	566,330	92,467	19.51%
	대구지부	340,592	354,822	14,230	4.18%
	인천지부	490,786	764,951	274,165	55.86%
	광주지부	117,566	329,226	211,660	180.04%
	경기지부	1,145,601	1,244,261	98,660	8.61%
	충남지부	172,916	275,470	102,554	59.31%
	전남지부	339,471	342,081	2,610	0.77%
	경북지부	428,664	524,118	95,454	22.27%
	경남지부	863,164	1,704,603	841,439	97.48%
	제주지부	95,373	115,743	20,370	21.36%
감소지역	대전지부	268,814	188,295	(80,519)	-29.95%
	강원지부	306,209	290,997	(15,212)	-4.97%
	충북지부	480,109	356,049	(124,060)	-25.84%
	전북지부	277,286	188,407	(88,879)	-32.05
합 계		7,047,536	8,882,530	1,834,994	26.04%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 별	10월분	11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629,992	613,764	(16,228)	-2.58%
다 세 대 주 택	435,378	399,443	(35,935)	-8.25%
연 립 주 택	292,579	125,049	(167,530)	-57.26%
아 파 트	3,601,033	4,454,576	853,543	23.70%
근린생활시설	843,380	509,546	(333,834)	-39.58%
종 교 시 설	58,811	66,795	7,984	13.58%
의 료 시 설	20,047	21,235	1,188	5.93%
교육연구시설	260,849	281,047	20,198	7.74%
업 무 시 설	302,543	468,390	165,847	54.82%
숙 박 시 설	22,519	48,155	25,636	113,84%
공 장	718,729	1,202,724	483,995	67.34%
기 타	472,547	691,806	219,259	46.40%
계	7,658,407	8,882,530	1,224,123	15.98%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月分)

구분 /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1,042	1,221	1,563,156	67	70	74,021	0	0	0	1,109	1,291	1,637,177
부산지부	973	1,334	522,663	202	225	33,216	33	35	10,451	1,208	1,594	566,330
대구지부	339	390	301,714	538	555	43,595	33	33	10,451	910	978	354,822
인천지부	151	248	744,506	11	11	3,093	23	23	17,352	185	282	764,951
광주지부	188	222	197,618	77	83	127,432	13	13	4,176	278	318	329,226
대전지부	163	191	164,079	38	39	12,315	111	121	11,901	312	351	188,295
경기지부	1,210	1,473	1,137,204	160	185	77,425	73	73	29,632	1,443	1,731	1,244,261
강원지부	370	492	254,404	93	109	32,462	19	19	4,131	482	620	290,997
충북지부	418	557	277,843	86	112	49,957	40	40	28,249	544	709	356,049
충남지부	261	284	185,625	110	114	83,711	28	28	6,134	399	426	275,470
전북지부	209	259	136,234	81	95	34,668	20	20	17,505	310	374	188,407
전남지부	429	568	299,884	97	110	37,732	36	39	4,465	562	717	342,081
경북지부	407	545	401,325	141	208	101,531	29	30	21,262	577	783	524,118
경남지부	1,021	1,344	1,609,897	213	266	76,523	37	37	18,183	1,271	1,647	1,704,603
제주지부	139	170	101,012	70	72	14,731	0	0	0	209	242	115,743
합 계	7,320	9,298	7,897,164	1,984	2,254	802,412	495	511	182,954	9,799	12,063	8,882,530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1月 合計分)

구분 /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39,739	41,124	22,259,297	1,199	1,297	640,670	0	0	0	40,938	42,421	22,899,967
부산지부	13,783	16,981	8,869,088	3,015	3,746	529,827	478	507	293,747	17,276	21,234	9,692,662
대구지부	8,726	9,293	4,812,854	5,014	5,163	506,386	349	351	108,568	14,089	14,807	5,427,808
인천지부	7,737	9,285	7,747,328	412	537	179,077	206	246	84,723	8,355	10,068	8,011,128
광주지부	4,096	4,591	3,515,081	1,355	1,448	476,582	132	132	45,358	5,583	6,171	4,037,021
대전지부	4,203	4,662	3,768,113	574	583	189,240	1,091	1,128	319,031	5,868	6,373	4,276,384
경기지부	31,298	35,857	28,274,650	2,362	2,613	1,342,904	808	815	582,982	34,468	39,285	30,200,536
강원지부	5,345	6,509	3,454,360	1,340	1,568	496,696	183	190	41,850	6,868	8,267	3,992,906
충북지부	6,582	7,630	3,205,956	1,205	1,415	659,551	506	517	312,083	8,293	9,562	4,177,590
충남지부	4,889	5,212	3,277,270	1,354	1,376	579,680	322	325	175,989	6,565	6,913	4,032,939
전북지부	4,229	4,918	3,388,160	1,067	1,176	320,722	257	258	84,107	5,553	6,352	3,792,989
전남지부	5,852	6,988	3,944,883	1,646	1,972	604,754	275	285	87,821	7,773	9,245	4,637,458
경북지부	7,969	9,512	5,259,800	2,289	2,728	1,243,682	276	277	176,208	10,534	12,517	6,679,690
경남지부	15,466	17,856	11,337,102	3,388	3,903	1,378,618	359	363	202,485	19,213	22,122	12,918,115
제주지부	2,242	2,606	907,319	662	676	113,092	0	0	0	2,904	3,282	1,020,411
합 계	162,156	183,024	114,021,171	26,882	30,201	9,261,481	5,242	5,394	2,514,952	194,280	218,619	125,797,604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月分)

구분 /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3,535	3,671	557,455	885	916	51,932	73	73	4,377	4,493	4,660	613,764
다세대주택	835	919	392,796	45	47	4,265	24	33	2,382	904	999	399,443
연 립 주 택	75	113	122,258	2	2	2,791	0	0	0	77	115	125,049
아 파 트	220	1,124	4,442,296	7	9	12,175	2	2	105	229	1,135	4,454,576
근린생활시설	1,112	1,175	422,725	300	308	33,922	219	220	52,899	1,631	1,703	509,546
종 교 시 설	82	90	40,762	55	73	25,416	2	2	671	139	165	66,795
의 료 시 설	6	6	2,295	11	13	18,501	1	1	439	18	20	21,235
교육연구시설	48	93	212,947	55	63	58,800	28	28	9,300	131	184	281,047
업 무 시 설	95	129	408,665	39	43	38,185	12	12	252	29	42	48,155
숙 박 시 설	18	30	42,557	10	11	5,346	1	1	525	29	42	48,155
공 장	547	963	728,150	302	444	420,546	73	76	54,028	922	1,483	1,202,724
기 타	747	985	524,258	273	325	130,533	60	63	37,015	1,080	1,373	691,806
합 계	7,320	9,298	7,897,164	1,984	2,254	802,412	495	511	182,954	9,799	12,063	8,882,530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1月合計分)

구분 /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80,025	81,586	14,252,370	12,561	12,936	840,803	773	777	52,336	93,359	95,299	15,145,509
다세대주택	20,099	21,596	6,730,453	958	979	78,884	134	156	13,351	21,191	22,731	6,822,688
연 립 주 택	1,164	1,601	1,936,667	41	48	25,047	7	7	2,350	1,212	1,656	1,964,064
아 파 트	2,587	12,341	48,818,636	125	192	370,954	43	53	199,899	2,755	12,586	49,389,489
근린생활시설	41,277	42,309	20,259,664	5,296	5,798	1,049,109	2,476	2,491	771,084	49,049	50,598	22,079,857
종 교 시 설	1,009	1,155	590,511	562	641	221,119	75	80	64,776	1,646	1,876	876,406
의 료 시 설	73	83	147,238	97	108	140,373	33	33	26,041	203	224	313,652
교육연구시설	480	703	1,501,116	757	897	831,234	240	249	182,845	1,477	1,849	2,515,195
업 무 시 설	1,582	1,761	5,700,720	533	552	386,090	119	124	133,079	2,234	2,437	6,219,889
숙 박 시 설	671	733	1,365,720	202	210	104,922	98	98	185,325	971	1,041	1,656,182
공 장	5,353	8,908	7,484,322	2,665	4,095	3,786,489	582	630	562,059	8,600	13,633	11,832,870
기 타	7,836	10,248	5,233,539	3,085	3,745	1,426,457	662	696	321,807	11,583	14,689	6,981,803
합 계	162,156	183,024	114,021,171	26,882	30,201	9,261,481	5,242	5,394	2,514,952	194,280	218,619	125,797,604

KIRA NEWS

협회기 전달

신·구회장 이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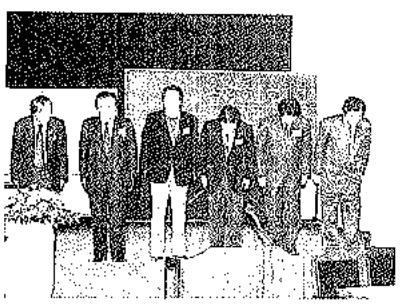
제25회 定期總會 속개회의(12.21)에서 吳雲東會員이 第18代 회장에 피선됨에 따라 임기만료된 宋基德회장과 新任 吳雲東회장의 離·就任式이 구랍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吳雲東회장은 就任辭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建築士가 마음놓고 創作活動에 전념할 수 있도록 各種法과 制度의 改善에 중점을 두어 活動해 나갈 것」과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向上과 權益伸張을 위해 노력하며 당당한 모습의 協會相을 정립」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1.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연합회제도의 준비작업 2. 건축사 업무와 관련되는 諸법규를 현실성있게 改善 3. 건축행정제도의 개선 4. 현재 협회가 추진중인 주요업무을 지속적으로 계승할 것을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임기만료된 임원들에 대해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제25회 정기총회 속개회의

신임회장 당선인사



신임임원들의 선출인사

전임회장 공로패 전달

'90 건축사송년의 밤

한편 구랍 21일 속개된 제25회 定期總會는 재적대의원 3백68명중 3백17명이 참석하여 사무처장의 정관해석보고가 있은 후 鄭淳虎부회장의 의장직무대행으로 신임회장선출이 진행되어, 총 유효투표수 3백9표중 1백62표를 획득한 吳雲東후보가 제18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어 신임임원 선출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理事에 金伸宰, 宋良淅, 趙相鎬, 李京男, 李義求회원(신임회장 추천)이, 監事에 韓鍾彦회원(전임회장 추천)이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신설된 참여이사제도에 따라 韓奎峯, 權泰政, 康祐植, 金榮洙, 安永濬회원이 신임회장 추천에 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參與理事에 선출되었다. 선출된 신임임원의 약력은 별항과 같다.

이날 5시에는 본부 전시장에서 신임회장과 시도지부회장을 비롯한 본부 및 시도지부 임원 취임축하연을 겸한 '90년도 건축사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新任 本部 役員

理事　金伸宰
42년 부산生
64년 동아대학교 건축과 卒
83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88년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직할시지부 회장
90년 부산시정 자문위원회 위원
90년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회 운영위원
현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理事　宋良淅
38년 전남生
64년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卒
65~73년 화순군 재무과
82년 대한건축사협회 설비분과위원
84년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86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88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직할시지부 회장
88년 광주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90년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 자문위원
현 한미건축사사무소 대표

理事　趙相鎬
43년 경기生
65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卒
75년 안양 청년회의소 회장
78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안양분소 회장
86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회장
87년 경기도 도정 자문위원
88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현 건축사사무소 삼성건축 대표

理事　李京男
40년 서울生
64년 홍익대학교 건축미술과 卒
72~80년 정우개발(주) 기술상무이사
83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감사
85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간사
현 건축사사무소 이이건축 대표

理事　李義求
41년 충남生
63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卒
66년 청구건축연구소 대표
88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간사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원창건사 대표

監事　韓鍾彦
37년 전남生
60년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卒
80년 국립공원시설물 자문위원
82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감사
83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90년 대한건축사협회 설계경기운영위원회 위원장
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대표

參與理事　韓奎峯
37년 제주生
61년 부산대학교 건축과 卒
69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84년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건설관리학과 경영학석사
78년 건설부 건축관리관
82년 대한주택공사 건설본부장
현 (주)천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參與理事　權泰政
40년 경북生
62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卒
76년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장
81년 강남구청 도시정비국장
83년 서울특별시 올림픽 시설담당관
88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간사
현 태한·동신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參與理事　康祐植
35년 충남生
80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卒
85년 한남대학 지역개발대학원 도시학 석사
86년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지부 회장
87년 충청남도 역도연맹 회장
89년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지부 회장
현 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參與理事　金榮洙
41년 경북生
65년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卒
81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간사
85년 대한건축사협회 연금연구위원
88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부회장
89년 중앙대 건설대학원 석사
현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參與理事　安永濬
37년 서울生
62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卒
75~79년 서울청년회의소 청소년위원장
79~81년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간사장
87년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전형대책위원
83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의정부분소 회장
현 삼예건축사사무소 대표

KIRA NEWS

'91年度 始務式

1991년도 시무식

본 협회 '91년 始務式이 지난 3일 10시 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거행되어 辛未年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吳雲東회장은 新年辭를 통해 1991년은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당당한 모습의 협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예견되는 여러가지 국내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직원一同은 吳雲東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團拜로써 개별적인 새해인사에 대신하였다.

한편 구랍 31일에는 본부 및 서울지부, 신협이 합동으로 終務式을 거행한 바 있다.

理事會 개최

本 協會 제16회 理事會가 구랍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주요부의안건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지난 27일에는 제17회 理事會가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된 주요안건들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6회 이사회

•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

—제주지부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원안대로 승인

• 예산목간전용사용 승인

—이사회 2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분을 목간전용 사용키로 함

▶ 제17회 이사회

• 우루과이라운드 및 종합건설업면허제도 대책위원회 간사 보선

—차기집행부에 일임키로 함

건축사 합격자 소양교육

'90 건축사 자격(면허)시험 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이 구랍 27일 본협회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최종합격자 2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본협회 소개와 건설부 건축행정과장의 건축사윤리교육과 면허증교부가 있었다.

全南支部 송년의 밤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全南지부(회장 金洸鎬)는 지난 20일 '90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이 부족한 관내 10代 소년·소녀 가장 5명에게 1인당 백미 1가마 상당액과 가을내의 등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누었다.

大邱支部 회원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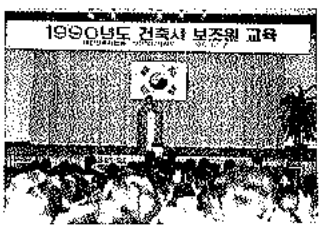
大邱지부(회장 張基雄)는 구랍 8일 대구시민회관 대전시실에서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4회 건축사 작품전 및 제3회 신인·학생건축작품전의 개막식을 갖고 5일간의 전시행사를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회원작품전 개막식

仁川支部 보조원 교육

仁川지부(회장 李秉武)는 구랍 7일 구월동 남부소방서 강당에서 관내 건축사 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석 보조원 一同은 새 질서·새생활 결의대회를 겸하여 실시하였다.



인천지부 보조원 교육

京畿支部 대관청간담회

京畿지부(회장 李一潤)는 지난 27일 수원 부라운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소속 지부임원 및 대의원과 경기도 건축관련담당 공무원과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민원 업무 및 제반 건축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대관청과의 업무유대를 갖기 위한 일환책으로 '90년 송년회를 겸하여 실시하였다.

경기지부 송년간담회

세밑 불우이웃돕기 溫情 잇달아

光州지부(회장 徐廷珉)는 구랍 4일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돕기 성금을 조성, 광주시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전달하였으며, 大田지부(회장 宋昇鎬)는 시청 및 방송사에 각각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여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京畿지부(회장 李一潤)에서는 지난 26일 경기도경찰국 소속 전투경찰대는 방문하여 1백만원 상당의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과천 구세군 양로원 및 관내 잡배원, 환경미화원 등에게는 방한복 60여벌을 기탁하였다.

또한 각 분소별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하여 관내 행정기관등에 기탁하는 한편 지부에서도 관내 행정기관 및 안양시 소재 녹향원등에 성금을 기탁하여 활발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전남지부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전달